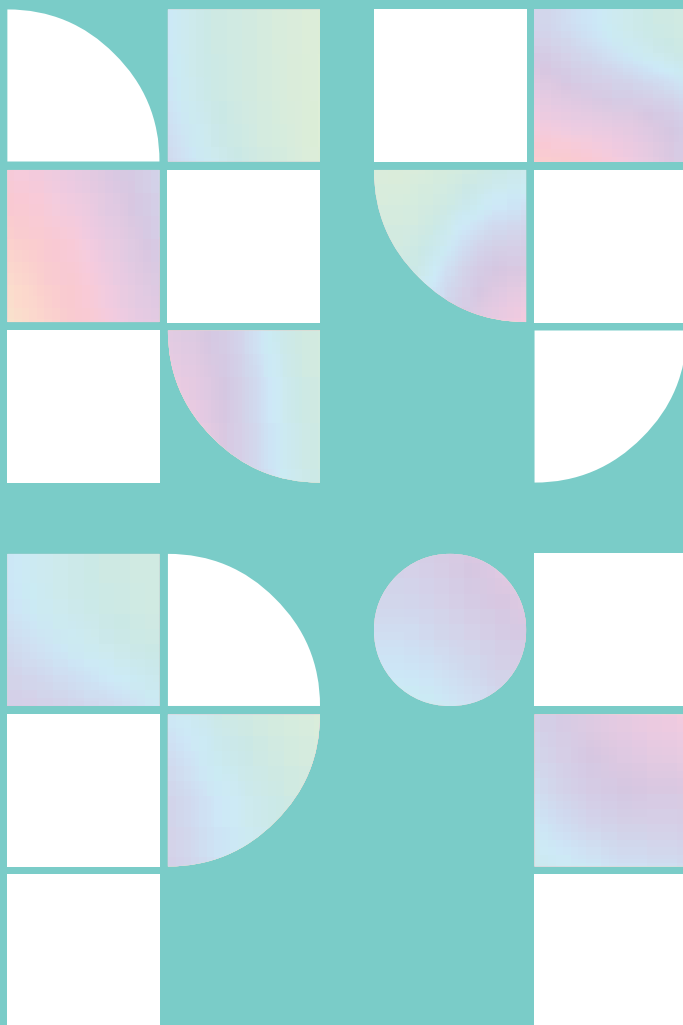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21-R14

양계민 · 장윤선 · 정윤미 · 한지형



연구보고 21-R14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저 자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한지형
연구진 연구책임자_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장윤선(대구교육대학교 교수)
_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_한지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_정진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의 목적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과학적 정책수립 및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둘째, 구축한 기초자료 및 정책현황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함.

- 2021년도 연구의 중점목표

첫째, 패널 데이터 구축

둘째, 다문화청소년 발달의 지역격차 분석

셋째,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고도화 방안 도출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지역격차와 다문화청소년의 지역별 성장격차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함.

-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19년 새로이 구축한 2기 패널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2011년 구축한 1기 패널은 유지조사를 추진함.

● 면접조사

면접조사는 1기 패널 대상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경로에 따른 집단별 면접을 지역별로 실시하였고, 2기 패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별 면접을 실시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조사는 총 33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패널조사 관련 회의 및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과제에 대한 타당성, 구체화 및 현실화방안 등에 대하여 실시함.

● 기타

기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과, 다문화가족과와 정책실무협의회를 추진하였고, 지역사회를 파악하기 위한 콜로키움을 실시하였으며, 조사원 워크숍을 실시함.

● 보고서 구성

표 I.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 구성

부	부별 제목	장별 제목
제 1부	패널조사	I. 서론 II.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 III. 패널조사 IV. 패널관리 V. 데이터 공개
제 2부	심층분석	VI. 이론적 배경 VII. 패널자료 분석 VIII. 면접조사 IX. 전문가 의견조사 X. 결론 및 정책제언

3. 주요결과

1) 선행연구

- 대도시 중심의 인구집중과 지역인구감소의 현상이 다문화가정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유출 심화현상이 다문화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인구유출의 문제는 앞에서 학교의 수 감소, 학업성취도의 저하 등 교육환경의 열악함에 영향을 미치고, 의료여건과 각종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도시에 비하여 취약함을 지니게 되며, 이는 다시 인구유출을 유발하게 되고, 지역을 더욱 취약한 환경으로 만들게 되어 결국 지방소멸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지역의 인구유출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읍면지역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거주 비율이 높고, 특히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성장환경 중 지역격차를 심도 깊게 다루는 것이 필요함.

2) 패널자료 분석

- 고교졸업 후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등학교 시기의 희망교육, 학습활동 등 직접적인 요인과 고등학교 2-3학년 시기의 부모의 감독적 양육 태도,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가구소득, 사회적 위축 등이 산출되었고, 초등학교 재학시기의 가족의 지지와 수업태도, 주관적 성적수준 등도 대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출됨.
-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업과 관련된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지역규모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함.

-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업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 이중문화경험,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지지, 청소년 활동과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도 등 심리적응 수준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정체성, 이중문화 수용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부모의 양육태도(감독과 방임), 사회적지지, 청소년활동 경험은 모든 학교생활적응에서 학업관련 변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초4 패널의 학업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으로 부모의 자아존중감, 부모의 한국어수준,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모의 학력, 가정의 월평균 소득, 자녀와의 의사소통, 자녀의 모국어 능력, 사교육비, 부모효능감, 부모의 자녀에 대한 희망교육수준 등이 산출됨.
-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교과목 사교육비는 성적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특기적성 사교육비는 성적과 학교생활 적응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정책의 지원경험 중 이중언어교육은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기적성교육지원은 학교생활적응과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험활동 지원은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3) 면접조사 분석

- 지역적 차이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학습지원의 욕구가 강함.
-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도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지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각종 서비스 지원경험과 교육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읍면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농촌지역의 경우 교사의 대입지도 역량이 부족한 경향이 있고, 학원 등 교육지원기관이 부족하며, 대학생 멘토링의 경우 대학생이 접근하기 어렵고, 진로프로그램 등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의 콘텐츠도 도시 지역에 비하여 다양하지 못하며, 서비스의 방향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프로그램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있는 후기청소년의 경우 진로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있으나 진로교육과 관련된 정보나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임.
-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과 관련된 영역의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부모들의 경우 본인의 한국어실력 부족이 자녀교육에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4) 전문가 의견조사

- 현장전문가나 학교교사 장학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대부분 지역 내에서 학교와 지역기관의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지역 다문화청소년센터 실무자나 장학사, 학교교사 등 해당 분야의 경험을 근거로 다양한 운영사례와 방안들을 제시하였고, 많은 부분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함.
- 농촌지역의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임. 미래지향적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실질적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음.

- 모든 사업에서 대상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함.
- 농어촌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청소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5) 주요 결과의 시사점

(1) 선행연구

- 지역별 격차는 다문화청소년들을 포함한 청소년 성장기회의 격차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성장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이 필요함.

(2) 설문조사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서 지역격차가 존재함.
- 초등학교 시기부터 성장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업관련 변인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
-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학습능력 뿐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고 특히 부모역량 강화가 필요함.

(3) 면접조사

- 보다 효과적인 학습지원 방안이 필요함.
- 학습에 대한 교과목 지도 이외에도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관리방식, 학습 진도에 대한 모니터링 등도 필요함.
-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나 학습관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NEET 청소년들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부모교육 내실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
- 부모의 한국어, 문화적응스트레스 등 부모역량강화 방안도 필요함.

(4) 전문가 의견조사

-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협력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모든 사업의 단계적 체계적 구체적 운영방안이 필요함.
-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진로교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로 추진되어야 함.
-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은 모든 청소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정책제언

- 영역 1.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 과제 1-1. 한국어교육의 대상특성별 체계적 운영
 - 한국어교육의 단계별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수준별 독서지도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과제 1-2.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체계화 및 확대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의 확대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의 단계적 운영
- 지역 내 교육청 및 다문화가족센터 등의 정보공유 및 협력

□ 과제 1-3. 한국어교육의 지역연계 및 협력

-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한국어교육 대상자 정보 공유
- 한국어교육의 영역별 연계 협력

● 영역 2. 기초학습역량 강화

□ 과제 2-1. 입학 전 준비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

- 입학 전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
- 지역사회 내 징검다리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 과제 2-2. 학습지원사업의 내실화

- 대학생 멘토링사업의 내실화
- 학습지원인력의 다양화
- 온라인학습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영역 3. 부모 역량강화

□ 과제 3-1. 부모교육 내실화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온라인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청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분장을 통한 연계협력

□ 과제 3-2. 이주배경부모 역량강화

- 고학력 이주민 강사 양성
- 지역 이주배경여성의 농촌전문인력 양성

● 영역 4. 지역중심 다문화 청소년지원 정책추진 시스템구축 및 강화

□ 과제 4-1. 농촌형 다재다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현 다재다능프로그램 점검 및 발전방안 연구
- 농촌형 진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농촌지역 취약성 해소방안마련

□ 과제 4-2.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인재양성

- 농촌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미래지향적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농업을 통한 국제교류사업 운영
- 통합적 농촌지역 인재양성사업추진

□ 과제 4-3. 지역 다문화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 및 강화

- 지역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 전달체계 구축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21-R14

제 1부 패널조사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5
- 2. 연구추진체계 9
- 3. 연구내용 10
- 4. 연구방법 13
- 5. 보고서 구성 18

II.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

- 1. 조사개요 21
- 2. 추진경과 24
- 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성과와 의의 27

III. 패널조사

- 1. 1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39

2. 2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42
3. 패널조사 절차 및 방법	57

IV. 패널관리

1. 패널관리의 원칙 및 절차	65
2. 이탈패널 분석	70

V. 데이터공개

1. 데이터 공개원칙	91
2. 데이터 공개 절차	93
3. 데이터 활용 실적	94

제 2부 심층분석

V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129
2.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130
3.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기회 격차	142
4. 소결	170

VII. 패널자료 분석

1. 분석개요	175
2. 다문화청소년의 고교졸업 이후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6
3. 다문화청소년의 초4 시기 학업관련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229
4. 소결	301

VIII. 면접조사

1. 면접조사의 목적	307
2. 면접조사의 절차 및 방법	307

3. 조사내용	317
4. 조사결과	319
5. 소결	360

IX.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목적	365
2. 조사절차 및 내용	365
3. 조사결과	368
4. 소결	407

X. 결론 및 정책제언

1. 심층분석 주요 결과	415
2. 정책제언	419

참고문헌	433

Abstract	453

표 목차

표 Ⅰ-1. 2기 패널설문조사의 주요 요소별 내용	14
표 Ⅰ-2. 면접조사의 주요 요소별 내용	15
표 Ⅰ-3.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 조사 추진현황	15
표 Ⅰ-4.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 구성	18
표 Ⅱ-1. 데이터 활용 건수	28
표 Ⅱ-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정책반영 결과	32
표 Ⅱ-3. 본 연구결과 인용 언론게재 결과	34
표 Ⅲ-1. 지역별 조사 모집단 분포 현황	40
표 Ⅲ-2. 지역별 표본 배분 결과	41
표 Ⅲ-3. 1기 패널 대상 유지조사 내용	42
표 Ⅲ-4. 2기 패널 표본설계 내용	43
표 Ⅲ-5.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 및 학교의 시/도별 분포 현황 ..	44
표 Ⅲ-6. 2기 패널 전국 시도별 구축 현황	46
표 Ⅲ-7. 2020년 2기 패널 조사결과	47
표 Ⅲ-8. 청소년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9년~2021년) ...	49
표 Ⅲ-9.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9년~2021년) ...	54
표 Ⅲ-10. 1기 패널 연도별 설문조사(CAPI) 소요시간	59
표 Ⅲ-11. 2019~2020년 패널별 설문조사(TAPI) 소요시간	59
표 Ⅲ-12. 연도별 조사기간	60
표 Ⅲ-13. 조사원 교육 일정	61
표 Ⅲ-14. 조사 시 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	62
표 Ⅳ-1. 패널 관리 방법 및 내용	65
표 Ⅳ-2. 연구윤리교육 참여 현황(최근 3년간)	68
표 Ⅳ-3.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 (전체, 1기 패널)	71
표 Ⅳ-4.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출신국가별 패널 이탈현황 (전체)	72

표 IV-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출신국가별 패널 이탈현황(2020년)	73
표 IV-6.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74
표 IV-7.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현황(2020년)	74
표 IV-8.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75
표 IV-9.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현황(2020)	76
표 IV-10.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76
표 IV-11.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이탈현황(2020)	77
표 IV-1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77
표 IV-13.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현황(2020)	78
표 IV-14.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패널 이탈 사유(전체, 1기 패널)	79
표 IV-1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패널 이탈 사유(2020년, 1기 패널)	81
표 IV-16.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2기 패널)	82
표 IV-17.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유형별 패널 이탈 현황(2기 패널)	83
표 IV-18.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현황(2기 패널)	83
표 IV-19.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현황(2기 패널)	84
표 IV-20.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현황(2기 패널)	85
표 IV-21.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85
표 IV-2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패널 이탈 사유(2기 패널)	86
표 V-1. 데이터 활용 건수	94
표 V-2. 연구 주제 건수	95
표 VI-1. 외국인주민 자녀 거주 상위 20개 시·군·구 (2011, 2019년)	141
표 VI-2. 지역별 인구이동 유형 분포	147
표 VI-3. 시·도별 학교 수 (2011, 2020년)	149
표 VI-4. 시·도별 의료기관 수 (2020년 3분기)	154
표 VII-1. 다문화청소년 진로실태 분석 변인(2020년도 조사)	181
표 VII-2. 다문화청소년 진로유형 결정요인 분석 변인	182
표 VII-3. 진로 현황	184
표 VII-4. 읍·면·동 단위 거주 외국인 분포	185
표 VII-5. 지역규모 및 밀집지역 여부 분포	185
표 VII-6. 진학 대학의 유형	186
표 VII-7. 진학 전공계열	187

표 VII-8. 대학 모집유형 및 입학전형	187
표 VII-9. 대학 및 전공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1순위)	188
표 VII-10. 대학진학준비에 영향을 준 사람(1순위)	189
표 VII-11. 대학진학 여부 및 대학과 전공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1순위)	189
표 VII-12. 주된 등록금 마련 방법과 부담 정도	190
표 VII-13. 대학생활 만족도(n=741)	191
표 VII-14. 지난 1주일간 한 일 유형	194
표 VII-15. 직장 소재지	195
표 VII-16.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의 근무 조건	196
표 VII-17.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n=460)	197
표 VII-18. 2021학년도 대학진학 준비 여부	199
표 VII-19. 대학진학 준비 활동(중복응답, n=88)	199
표 VII-20. 대학진학 준비를 위한 사교육 부담 정도	199
표 VII-21. 현재 취업 또는 창업 준비 여부	200
표 VII-22.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준비 활동(중복응답)	201
표 VII-23. NEET 청소년의 현재 주로 하는 일	201
표 VII-24. 구직활동 여부 및 노동의지	202
표 VII-25. 영역별 특성변인	203
표 VII-26. 대학진학 여부에 대한 랜덤포레스트 분류 정확도	209
표 VII-27. 대학진학 관련 중요도 지수 상위 20개 특성변인	213
표 VII-28. 일경험 여부에 대한 랜덤포레스트 분류 정확도	215
표 VII-29. 일 경험 관련 중요도 지수 상위 20개 특성변인	219
표 VII-30. 청소년의 진로실태 분석 주요 결과	224
표 VII-31. 진로유형 결정요인 탐색 주요 결과	228
표 VII-32. 분석에 사용한 청소년 변인	231
표 VII-33. 지역규모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	233
표 VII-34.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	234
표 VII-35. 현재 걱정거리와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	235
표 VII-36. 이주배경 변인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	236
표 VII-37. 국적인식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	237
표 VII-38. 자녀가 지각한 부모 및 가정환경특성 변인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	238
표 VII-39. 부모, 친구, 교사 지지와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	238
표 VII-40. 학교 내 및 밖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239
표 VII-41. 기타 변인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	240

표 VII-42.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의 회귀분석	241
표 VII-43.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이주배경 변인의 회귀분석	242
표 VII-44.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부모 변인의 회귀분석	243
표 VII-45.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 변인의 회귀분석	244
표 VII-46.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 변인의 회귀분석	245
표 VII-47.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의 회귀계수	246
표 VII-48.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의 회귀계수	247
표 VII-49. 하위유형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의 회귀계수	248
표 VII-50. 하위유형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의 회귀계수	249
표 VII-51.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이주배경의 회귀계수 ..	250
표 VII-52.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이주배경의 회귀계수	251
표 VII-53. 하위유형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이주배경의 회귀계수	252
표 VII-54. 하위유형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이주배경의 회귀계수 ..	253
표 VII-55.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의 회귀계수	254
표 VII-56.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의 회귀계수	255
표 VII-57. 하위유형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의 회귀계수	256
표 VII-58. 하위유형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의 회귀계수	257
표 VII-59.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변인의 회귀계수	258
표 VII-60.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사회적 지지변인의 회귀계수	259
표 VII-61. 하위유형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변인의 회귀계수	259
표 VII-62. 하위유형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사회적 지지변인의 회귀계수	260
표 VII-63.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기타 변인의 회귀계수 ..	261
표 VII-64.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기타 변인의 회귀계수	262
표 VII-65. 하위유형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기타 변인의 회귀계수	262
표 VII-66. 하위유형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기타 변인의 회귀계수 ..	263
표 VII-67. 부모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상태와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	264
표 VII-68. 부모 이주배경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	265
표 VII-69. 가정환경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	265
표 VII-70. 부모학력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	266

표 VII-71. 자녀양육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	267
표 VII-72. 자녀 학교문제와 숙제 지도하는 사람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	268
표 VII-73. 사교육 여부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	268
표 VII-74. 부모 희망 자녀교육수준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	269
표 VII-75.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 여부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	270
표 VII-76.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부모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의 회귀분석	272
표 VII-77.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부모 이주배경의 회귀분석	272
표 VII-78.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가정환경 변인의 회귀분석	273
표 VII-79.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자녀양육 변인의 회귀분석	275
표 VII-80.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의 회귀분석	276
표 VII-81.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의 회귀계수	277
표 VII-82.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부모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의 회귀계수	278
표 VII-83. 하위유형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부모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의 회귀계수	278
표 VII-84. 하위유형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부모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의 회귀계수	279
표 VII-85.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 이주배경 변인의 회귀계수	279
표 VII-86.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부모 이주배경 변인의 회귀계수	280
표 VII-87. 하위유형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부모 이주배경 변인의 회귀계수	281
표 VII-88. 하위유형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부모 이주배경 변인의 회귀계수	281
표 VII-89.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가정환경 변인의 회귀계수	282
표 VII-90.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가정환경 변인의 회귀계수	283
표 VII-91. 하위유형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가정환경 변인의 회귀계수	284
표 VII-92. 하위유형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가정환경 변인의 회귀계수	285
표 VII-93.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자녀양육 변인의 회귀계수	286
표 VII-94.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자녀양육 변인의 회귀계수	288
표 VII-95. 하위유형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자녀양육 변인의 회귀계수	289
표 VII-96. 하위유형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자녀양육 변인의 회귀계수	290

표 VII-97.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의 회귀계수	291
표 VII-98.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의 회귀계수	292
표 VII-99. 하위유형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의 회귀계수	293
표 VII-100. 하위유형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의 회귀계수	293
표 VII-101.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청소년 변인의 영향	297
표 VII-102.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부모 변인의 영향	300
표 VII-103.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의 영향 ..	301
표 VIII-1. FGI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뢰	309
표 VIII-2. 조사대상자 모집단	312
표 VIII-3. 1기 패널 FGI 조사참여자(다문화청소년) 인적사항	313
표 VIII-4. 2기 패널 FGI 조사참여자(학부모) 인적사항	315
표 VIII-5. 1기 패널 청소년 및 2기 패널 학부모 면접조사지	318
표 VIII-6. 면접조사 도출 결과요약	357
표 IX-1.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자	366
표 IX-2. 전문가 의견조사의 내용	367
표 IX-3. 한국어교육방안	369
표 IX-4.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방안	374
표 IX-5. 입학 전 기초학습능력 준비 프로그램 운영방안	378
표 IX-6. 배움지도사 운영방안	382
표 IX-7. 멘토링 사업 운영방안	385
표 IX-8. 입학 전 부모교육 강화방안	391
표 IX-9.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394
표 IX-10. 부모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방안	397
표 IX-11.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인력양성방안	399
표 IX-12. 농촌형 다재다능 프로그램 운영방안	403
표 IX-13. 농촌 다문화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406
표 IX-14.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요약	407
표 X-1. 정책제언의 영역별 과제	422
표 X-2.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432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 추진체계	9
그림 II-1. 본 조사의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	23
그림 II-2. 연차별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연구주제	26
그림 V-1. 데이터 신청서 양식(2021년 양식)	92
그림 V-2. 데이터 공개 절차	93
그림 VI-1.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구분 ..	129
그림 VI-2.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2011~2019년)	131
그림 VI-3. 다문화 학생 현황 (2012~2020년)	132
그림 VI-4.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2016~2019년)	134
그림 VI-5.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현황 (2012~2020년)	135
그림 VI-6. 학교급 및 유형별 다문화 학생 수 현황 비교 (2012, 2020년)	136
그림 VI-7. 연령별 다문화가구 자녀 현황 (2018년)	137
그림 VI-8. 연령대별 다문화가구 자녀의 성장배경 (2018년)	138
그림 VI-9. 연령별 국제결혼가정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 (2018년)	139
그림 VI-10. 시·도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2011, 2019년)	140
그림 VI-11. 권역별 지역소득 비율 추이(1960~2016년)	143
그림 VI-12. 시·도별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2013, 2018년)	145
그림 VI-13. 시·도별 지방소멸위험지역 비중 변화 (2013, 2018년) ..	146
그림 VI-14. 지역규모 및 교과별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점수 변화 (2015~2018년)	151
그림 VI-15. 지역규모 및 교과별 중학교 성취수준 비율 변화 (2015~2018년)	152
그림 VI-16. 지역규모 및 교과별 고등학교 성취수준 비율 변화 (2015~2018년)	153
그림 VI-17. 시·도별 삶의 질 지수 (2017~2018년)	157

그림 VI-18. 삶의 질 영역별 지수 값 (2017~ 2018년)	158
그림 VII-1. 의사결정나무 예시: 교육 만족도 결정요인 탐색	178
그림 VII-2. 지역규모별 진학한 대학 유형(%)	192
그림 VII-3. 지역규모별 모집유형(%)	192
그림 VII-4. 다문화 밀집지역 여부에 따른 대학 입시관련 정보에 도움을 준 사람(%)	193
그림 VII-5. 다문화 밀집지역 여부에 따른 등록금 마련 방법(%)	194
그림 VII-6. 지역규모에 따른 일주일 총 근무 일 수(일)	198
그림 VII-7. 다문화 밀집지역 여부에 일의 만족도(5점 척도)	198
그림 VII-8. 대학진학 결정모형의 오차행렬 및 지표 산출식	207
그림 VII-9. 의사결정나무 수에 따른 대학진학 여부 분류의 오차 변화	208
그림 VII-10. 대학진학 관련 중요도 지수 상위 20개 특성변인	210
그림 VII-11. 상위 20개 특성변인의 부분의존성 도표 (대학진학 집단 기준)	214
그림 VII-12. 의사결정나무 수에 따른 일 경험 여부 분류의 오차 변화	215
그림 VII-13. 일 경험 관련 중요도 지수 상위 20개 특성변인	217
그림 VII-14. 상위 20개 특성변인의 부분의존성 도표 (일 경험 있는 집단 기준)	220
그림 VIII-1. FGI 진행 절차	308
그림 VIII-2. 1기 패널 청소년 및 2기 패널 학부모 면접조사 방법	310
그림 X-1. 본 연구의 정책제언 도출 절차	419



제 1 부



패널조사

○ — 제 I 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 5. 보고서 구성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집단이 등장하고 정책의 관심 대상이 된지 10 여년이 훨씬 더 지났다. 교육부에서 다문화학생지원계획을 처음 수립한 것이 2006년이었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이 처음 수립된 것이 2008년임을 생각해보면, 한국사회의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약 1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초기 도입 당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주요 시각은 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인으로써 잘 적응 및 발달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과 그들이 한국사회의 문제 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시각의 배경에 깔린 한국사회의 감정은 이들 집단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서구 사회에서 발생했던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초기 당시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집단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조망 없이 연구자의 좁은 시야에 근거한 다수의 논문들이 출판되었고, 대다수의 논문들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은 ‘한국어가 서투르고, 학업성취 수준이 떨어지며, 학교에서 교우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매우 부정적인 존재로 기술되었으며, 이러한 시각적 편향성은 현재까지도 여

* | 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출판된 다문화청소년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한 양계민과 강경균(2017)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들은 국내출생자와 중도입국자, 외국인가정자녀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문화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집단 내 다양성을 무시하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형성하도록 하였고, 주로 질적연구에서 나타난 생생한 내러티브가 그러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양계민, 강경균, 2017: 26-27).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단순히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다수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사업의 기획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사회가 가진 고정관념에 근거한 정책사업들이 다수 추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고정관념에 근거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어 다문화청소년 집단과 청소년 일반집단과의 발달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고정관념이 형성 및 강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양방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여타 집단에 대한 지원정책과 차별성과 어려움을 지닌다. 다문화집단은 집단 내 다양성이 매우 큰 집단으로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은 정확한 실태에 근거하여 세밀한 방식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객관적 실태가 아닌 고정관념에 근거한 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동시에 다문화청소년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결과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다문화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효율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에 착수하였다. 최초 연구의 명칭은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는 아니었으나 2010년 예비조사, 2011년도 1기 코호트 1차 본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동일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도 시작한 1기 코호트는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사회적,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함의를 제시해 왔으며, 특히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청소년 집단 일반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문제가 ‘다문화’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층’의 문제임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낙인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양계민, 장운선, 정윤미, 2020: 5)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1기 패널의 구성 자체가 국내출생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관계로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양상의 다문화청소년 지형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 신규패널조사를 기획하였다. 2018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19년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2기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2기 코호트에서는 사전에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뿐 아니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와 국내외 출생의 외국인가정자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표본설계를 함으로써 현재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의 다양한 유형 및 특성에 따른 발달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1기 코호트와 차별되는 새로운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20년도 연구에서는 국내출생자, 국외출생자,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등 네 집단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에서 그들이 지닌 배경특성 및 환경요인에 따른 발달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거주지에 따른 분석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하여 읍면지역 거주자들의 발달이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읍면지역 거주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이 다수 분포하는 경향을 보여 결과적으로 다문화청소년 집단 중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이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결과를 산출한 바 있다(양

계민 외, 2020). 따라서 2021년도에는 지역격차를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좀 더 세심하고 효율적이며 지역 간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격차 이외에도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전체의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과학적 정책수립 및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구축한 기초자료 및 정책현황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중 2021년도 연구의 중점 목표는 첫째, 2기 코호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2021년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 다문화청소년 발달의 지역격차를 분석하는 것이며, 셋째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고도화¹⁾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하고,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과학적 정책수립 및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구축한 기초자료 및 정책현황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함.
2021년 중 점목표	■ 패널 데이터 구축(2기 패널의 3차년도 추적조사) ■ 다문화청소년 발달의 지역격차 분석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고도화 방안 도출

* 본 연구의 다문화청소년은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이주의 배경을 지닌 9세에서 24세 까지의 청소년'을 의미하며, 출생지를 기준으로 볼 때, 국내출생자와 외국출생자를 모두 포함한다.
 * 출처: 양계민, 황진구, 연보라, 정윤미(2018: 6) 수정

1) 정책 고도화의 사전적 의미는 속력·능률이나 생활문명의 정도(程度)가 높아지는 일로 정의되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효율성, 정밀성, 요구부합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정책 고도화로 정의한다.

2.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의 연구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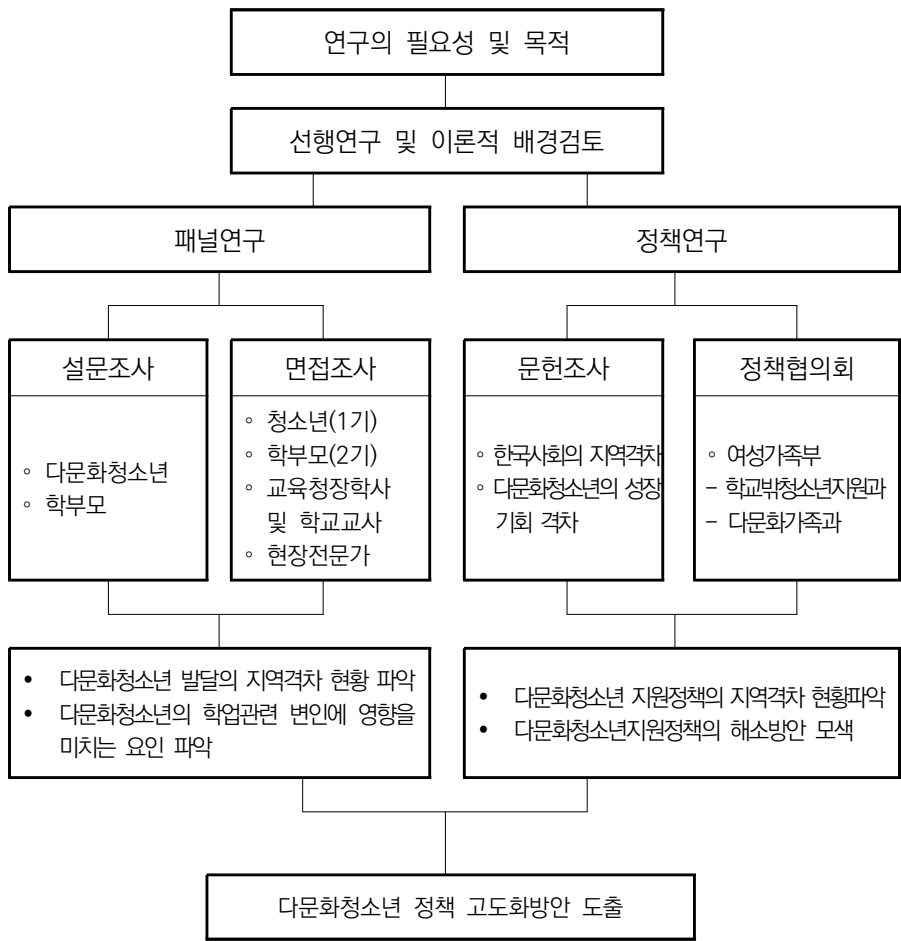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3. 연구내용

1) 2기 패널 추적조사

2021년도의 주요 연구내용 중 첫 번째는 2019년도에 구축한 2기 패널에 대한 추적조사이다. 2019년 1차로 구축하고 2020년 유지 및 추가 구축된 다문화청소년(2021년 기준 초 6)과 그들의 학부모를 포함한 2,056 가구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년도 조사유지율은 91.2%로 종단연구의 경우 최초 구축 이후 2차 조사 시기에 가장 많은 탈락률을 보이는 일반적인 패널 유지율 경향성 및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 높은 유지율이라고 볼 수 있다.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조사 등 직접대면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였으나 실제로는 온라인조사가 거의 활용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TAPI를 통한 면접조사로 대부분 이루어졌다. 따라서 2021년도에도 TAPI를 통한 면접조사방법으로 추진하였다.

2) 1기 패널 유지조사

2011년 최초로 구축된 다문화청소년패널 참여자들이 후기 성인기의 진로 및 사회진입의 경로 및 실태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써는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추후 예산 확보 후 재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 및 유지조사를 실시하였다. 1기 코호트는 전화를 통하여 현재 생활실태에 대한 몇 개 문항(현재 하고 있는 일, 거주지, 향후계획 등)을 간략히 질문하고 연락처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관리 및 데이터 공개

본 연구는 매년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패널들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 연락처 파악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조사에 대한 관여도 높이기 위하여 조사가구에 명절 선물과 감사의 편지를 발송하고 있다. 2021년도에도 역시 조사 관리를 위한 선물을 발송하였다.

본 조사 데이터를 공개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2020년에는 8차 년도(2018년 조사) 데이터를 공개하였고, 2021년도 12월에는 2019년 데이터 및 코드북, 유저 가이드 등을 함께 수정 보완하여 공개하였다.

4) 다문화청소년 발달의 현황분석: 패널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2021년도 연구에서는 전년도 조사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 발달의 지역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로는 1기 코호트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실태를 대학교 진학자, 취업자, NEET 등으로 구분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의 진로별 발달궤적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지역격차에 따른 진로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시기의 거주지를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거주지에 따른 발달과 적응실태, 각종 정책사업의 경험도 및 효용도 등을 함께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는 2020년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2기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 규모에 따른 발달 및 적응 실태, 정책수혜경험 및 각종 사업에 대한 효용도 등을 분석하였다. 이 때 지역격차와 더불어 국내출생자와 국외출생자,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 등 다문화청소년의 집단 내 유형을 고려함으로써 지역격차가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다른 차이를 유발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고, 지역격차를

통제한 이후에도 나타나는 청소년 개인요인이나 학부모를 포함한 환경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업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기회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학업관련 변인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5) 다문화청소년 발달의 지역격차 현황분석: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2021년도 연구에서는 핵심 주제인 지역격차와 진로에 따른 차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추진하였다. 면접조사는 첫째로 1기 패널 조사 대상자를 진로별(대학진학자, 취업자, NEET 등),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로 구분하여 이들의 현재 생활실태 및 고졸이전의 생활경험 및 환경요인, 정책사업의 수혜경험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둘째로는 2기 패널 조사 대상자들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역시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로 구분하여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자녀 대상 지원 수혜경험,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6) 다문화청소년 정책 고도화 방안 모색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문화청소년 정책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2011년부터 추진된 종단연구인 관계로, 기존의 부처별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은 여러 번 다루어왔고, 특히 2020년에는 지금까지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을 총괄적으로 분석 및 평가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고도화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즉, 현재의 정책을 구체화 체계화 하는 방안과 농어촌지역과 같이 현재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이 도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지역격차와 관련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청소년 교육, 문화, 복지, 심리사회 발달 등과 관련된 지역격차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분석 및 제시하였고, 그 중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교육, 문화, 복지, 심리사회발달 등의 지역격차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 제시하였다.

2) 패널설문조사

전년도까지는 패널 설문조사를 2개 코호트에 대하여 추진하였다. 즉, 2011년 구축한 1기 패널과 2019년 구축한 2기 패널이다. 1기 패널의 경우 당초 만 24세까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고, 계획에 따라 전년도까지 조사가 되어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의 진로와 심리사회적응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나 바와 같이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1기 코호트에 대한 패널조사는 일단락되었다. 다만 20세 이후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 및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몇 개 문항에 대한 간략한 전화관리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2021년에는 2019년 신규로 구축한 2기 코호트 조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추진하였다. 모집단은 2019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조사 대상자는 2020년에 구축된 2,056가구(국제결혼자녀,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청소년과 학부모가 된다. 조사방법은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로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방식으로 추진하였다.

표 1 -1. 2기 패널설문조사의 주요 요소별 내용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2019년 현재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표집틀	2019 교육부 교육통계의 전국 초4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
표본수	2020년에 구축된 2,059가구 (국제결혼자녀,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표집방법	기 구축된 패널 전수를 대상으로 3차년도 조사 실시
조사방법	가구 방문면접조사
자료수집방법	태블릿을 통한 구조화된 조사표(TAPI)
조사시기	2021년 6월 ~ 9월

3) 면접조사

면접조사는 크게 두 집단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첫째는 대학에 진학한 1기 청소년이고, 둘째는 2기 청소년들의 학부모이다. 먼저 1기 패널 청소년은 전년도 패널 조사에 참여했던 1기 조사 대상자 중 대학진학자, 취업자 NEET 등 진로집단 별로 현재의 생활실태와 적응현황,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경험과 그 영향 등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되, 출신지역의 규모, 즉, 대도시,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2기 패널조사대상자 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는 지역별 정책지원의 차이, 발달환경 등을 분석하였다. 2기 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초등학생인 관계로 당사자 보다는 부모대상 면접조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1-2. 면접조사의 주요 요소별 내용

주요 요소	내 용
조사대상자	■ 1기 청소년 40명(5개 권역/대학진학자, 취업자, NEET/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 2기 청소년의 학부모 30명(5개 권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4개 유형)
면담방식	■ FGI(Focus Group Interview)
면담내용	■ 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경험, 지역격차 관련 경험 등 ■ 학부모: 다문화청소년 양육의 어려움
면담자	■ 본 연구 연구진

4)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조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추진되었다. 첫째는 패널구축과 관련된 영역의 통계전문가 회의였고, 둘째는 다문화관련 현장전문가, 장학사, 학교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책제언에 대한 타당성과 구체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조사였다. 즉,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고도화 방안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정책 제언을 위하여 기존의 정책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면으로 전문가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1-3.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 조사 추진현황

구분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위
통계 전문가	1	김○○	○○대학교, 교수
	2	김○○	한국○○연구원, 연구위원
	3	유○○	한국○○○○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임○○	한국○○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최○○	한국○○○○연구원, 연구위원
현장 전문가	6	김○○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장

구분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위
	7	도○○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8	장○○	○○다가센터, 센터장
	9	정○○	○○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10	조○○	○○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11	강○○	○○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12	김○○	○○연구소, 연구위원
	13	김○○	○○○청소년센터, 대표
	14	김○○	○○청소년지원재단, 소장
	15	이○○	○○시 ○○청소년센터, 센터장
	16	허○○	○○시 ○○청소년드림센터, 부센터장
장학사	17	구○○	○○국제교육원 부장
	18	김○○	○○교육청 학교자치과 장학사
	19	김○○	○○시교육청 민주혁신교육팀 장학사
	20	김○○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21	서○○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22	이○○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23	한○○	○○교육청 교육복지과 장학사
학교교사	24	김○○	○○초등학교 교사
	25	김○○	○○초등학교 교사
	26	김○○	○○중학교, 교사
	27	김○○	○○중학교, 교사
	28	김○○	○○중학교, 교사
	29	김○○	○○초등학교, 교사
	30	박○○	○○초등학교, 교사
	31	이○○	○○중학교, 교사
	32	최○○	○○초등학교, 교사
	33	한○○	○○초등학교, 교감

5) 기타 연구방법

기타 연구방법으로 정책실무협의회와 콜로키움,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실무협의회는 10월 18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와 학교박청소년과 및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지역격차 해소방안관련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고, 11월에는 교육부의 교육기회보장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과제 중 부처별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였다.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부처(과)	개최날짜
1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지역격차 해소방안 및 학부모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 : 여성가족부 사업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여성가족부 학교박청소년과	10.18

콜로키움의 경우 본 연구의 심층분석 주제가 지역격차인 만큼 지역의 다문화청소년 학업격차 및 진로관련 주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이에 2021년 7월 27일 경북다문화가족센터 장흥성 센터장을 초청하여 「다문화가정청소년 학업격차 해소를 통한 진로환경조성(경북지역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 콜로키움

횟수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비 고
1회	다문화가정청소년 학업격차 해소를 통한 진로환경조성(경북지역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진, 원내외	7월 27일	

마지막으로 조사원 워크숍을 추진하였는데, 2021년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제주 등에서 총 7회의 조사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 조사원 워크숍

지역	일시	장소	참석조사원 수	
			1기 패널	2기 패널
서울	2021.6.15.(화) 10:00	한국갤럽 본사	12	20
부산	2021.6.14.(월) 10:30	한국갤럽 부산지사	8	13
대구	2021.6.16.(수) 15:00	한국갤럽 대구지사	10	12
대전	2021.6.16.(수) 10:00	한국갤럽 대전지사	9	10
광주	2021.6.18.(금) 10:00	한국갤럽 광주지사	10	10
강원	2021.6.22.(화) 10:00	강원리서치	3	3
제주	2021.6.18.(금) 16:00	제주 회의실	1	2

5. 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는 총 2부의 1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패널 조사의 배경과 목적, 조사개요와 추진경과, 패널 조사, 패널 관리, 데이터 공개 등 다문화청소년패널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2부는 심층 분석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기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고 이론적 배경, 패널자료분석,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결론 및 정책제언으로 구성하였다. 그 외 별도로 1, 2기 패널의 기초분석보고서를 각각 별권으로 발간하였다.

표 1-4.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 구성

부	부별 제목	장별 제목
제 1부	패널조사	Ⅰ. 서론 Ⅱ.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 Ⅲ. 패널조사 Ⅳ. 패널관리 Ⅴ. 데이터 공개
제 2부	심층분석	Ⅵ. 이론적 배경 Ⅶ. 패널자료 분석 Ⅷ. 면접조사 Ⅸ. 전문가 의견조사 Ⅹ. 결론 및 정책제언

○———— 제Ⅱ장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

- 1. 조사개요
- 2. 추진경과
- 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성과와 의의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

1. 조사개요²⁾

본 연구는 2010년 당시 우리 사회에 다문화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던 시기에 다문화청소년 집단의 건강한 발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과 요구에 근거하여 시작되었다. 당시 다문화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주류집단에 비해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임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그러한 연구들은 다문화청소년들이 왜 청소년 일반집단에 비해 뒤떨어지는지에 대한 타당하고 정밀한 분석 없이 연구자의 고정관념을 검증하는 결과를 생산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의 문제점과 결핍점만 강조할 뿐 실효성 있는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이 보이는 특성이 발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들만의 특성인지, 일반집단과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극복방안은 무엇인지(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4) 등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연구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초기 당시부터 주요 관심은 청소년 일반집단과의 격차 및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 II 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2) 조사개요는 2020년도 연구인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양계민 외, 2020: 50-51)」의 연구추진경과를 수정 보완함.

파악함으로써 향후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도출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그림Ⅱ-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 처음 본 조사 패널을 구축하였고, 매년 추적을 하여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다문화청소년들이 2020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로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초기 구축 당시 전국의 총 1,625가구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고 2020년 현재 최종 1,095가구가 유지되고 있어 2011년 대비 67.4%의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본 조사는 2011년에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으나 국가승인은 2013년에 받았다(승인번호: 제 402003호). 그 다음 해인 2014년 정기통계품질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결과 5점 만점에 4.5점, 가중치 적용점수 90.1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111), 5년 후인 2019년에 다시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받았는데, 두 번째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는 5점 만점에 4.5점, 가중치 및 정성평가 및 추가점수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97.6점을 획득하여 매우 우수한 통계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양계민, 장운선, 정윤미, 2019: 109).

이후 본 조사의 1기 패널 참여자들이 2020년 기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 또는 취업을 하게 됨에 따라 후기 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들의 사회진출 및 적응실태를 파악하고자 지속적 추적조사를 결정하였고³⁾,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다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신규패널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신규로 패널을 구축한 이유는 현재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지형이 2011년 당시와는 많이 달라져서 국외 출생자와 외국인가정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에 반하여, 1기 패널은 국내출생자로 구성되어 있어 기 구축된 자료를 통해 현재의 다문화청소년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양계민 외, 2019: 3).

3) 1기 조사에 대한 기획은 하였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상 매년 조사는 수행하지 못함.

연도	주요 연구 내용
2011	■ 본조사 설문 문항 최종 선정 ■ 본조사 연구방법 최종 결정 ■ 2011년도 1차 중단연구 패널 구축(초4)
2012	■ 1기 패널 설문조사(2차년도 추적조사, 초5) ■ 1기 패널 질적조사
2013	■ 1기 패널 설문조사(3차년도 추적조사, 초6) ■ 1기 패널 질적조사 ■ 국가통계승인(승인번호: 제 40203호)
2014	■ 1기 패널 설문조사(4차년도 추적조사, 중1) ■ 1기 패널 질적조사 ■ 정기통계품질진단
2015	■ 1기 패널 설문조사(5차년도 추적조사, 중2) ■ 1기 패널 질적조사
2016	■ 1기 패널 설문조사(6차년도 추적조사, 중3) ■ 1기 패널 질적조사
2017	■ 1기 패널 설문조사(7차년도 추적조사, 고1) ■ 다문화패널 학술대회 ■ 6년간 중단변화 분석 및 국내 다문화청소년 정책 총괄 분석
2018	■ 1기 패널 설문조사(8차년도 추적조사, 고2) ■ 신규패널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 패널 데이터 공개를 위한 원칙 및 절차 수립 ■ 1기 패널 데이터 공개 시작(2011~2016)
2019	■ 1기 패널 설문조사(9차년도 추적조사, 고3) ■ 정기통계품질진단 ■ 2기 패널 구축 및 설문조사(1차년도 조사, 초4)
2020	■ 1기 패널 설문조사(10차년도 추적조사, 고졸이후) ■ 2기 패널 설문조사(2차년도 추적조사, 초 5)

* 출처: 양계민, 강경균(2017: 8) 그림 1-2 수정

그림 II-1. 본 조사의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

2. 추진경과⁴⁾

본 연구는 2010년에 시작한 후 2020년까지 총 11년간 3단계에 걸쳐 추진된 연구로, 1단계 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라는 명칭으로 3년간 수행되었다. 2010년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 종단연구를 위해 예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예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2011년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종단연구의 본조사를 시작하였다. 2011년에는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 종단연구 본조사와 취약계층 청소년과의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일반가정 청소년과의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2단계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라는 과제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수행되었다. 2단계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연구주제를 정하여 매년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2단계 연구를 처음 시작한 2013년에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과 학교생활 변화를 살펴보았고, 2014년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 정서, 사회적응, 문제행동을 살펴보았으며, 2015년에는 이들의 자아정체성 및 이중문화정체성을 살펴보았다. 2016년에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의식 및 진로태도를 살펴보았으며, 2단계 연구가 진행된 마지막 해인 2017년은 그동안 진행된 연구를 정리하였고, 전반적인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에 대한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 연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라는 과제명으로 수행되고 있다. 2018년에는 기존의 종단연구 대상 청소년을 추적조사하며,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발달현황과 진로관련 요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2019년에 새로운 신규패널(이하 2기 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설계 및 조사문항 구성, 예비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019년에는 기존 패널(이하 1기 패널)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

4) 연구추진 경과는 2020년도 연구인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양계민 외, 2020: 52-53)」의 연구추진경과를 수정 보완함.

는 시기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과 관련한 변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2기 패널(초등학교 4학년)을 구축하여 본조사를 시작하였다. 2020년에는 1기 패널 조사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후기청소년이 되어 이들을 추적조사 하였다. 신규 패널은 2차년도 조사(초등학교 5학년)를 실시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패널 유형 중 중도입국가정을 대상으로 패널을 추가 구축(초등학교 5학년)하였다. 2020년 연구는 1기 패널의 전반적 발달 추이(초4~고3), 1기 패널과 2기 패널 비교, 2기 패널 배경변인에 따른 비교, 2기 패널 유형별 특성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현황 및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1년에는 2차 코호트의 3차년도 추적조사(초등학교 6학년)를 중심으로 추진하였고, 1차 코호트에 대한 패널 유지관리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 분석으로 지역의 규모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격차가 있는지 분석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및 학업관련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였다.

단계	과제명	연도	WAVE	학년	연구주제
1단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2010년	예비조사	초4	예비조사
		2011년	WAVE1	초4	취약계층 청소년과 비교
		2012년	WAVE2	초5	일반가정 청소년과 비교
2단계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2013년	WAVE3	초6	학업 및 학교생활
		2014년	WAVE4	중1	심리, 정서, 사회적응, 문제행동
		2015년	WAVE5	중2	자아정체성 및 이중문화정체성
		2016년	WAVE6	중3	진로의식 및 태도
		2017년	WAVE7	고1	총체적 발달
3단계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년	WAVE8	고2	진로발달현황 및 요구
			예비조사	초4	예비조사
		2019년	WAVE9	고3	심리사회적응
			WAVE1	초4	-
		2020년	WAVE10	고졸	전반적 발달(종료)
			WAVE2	초5	1기 패널과 비교 배경변인에 따른 비교 유형별 비교
		2021	WAVE3	초6	지역별 차이분석 진로 및 학업관련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 출처: 양계민 외(2018: 8) 수정 및 보완

그림 II-2. 연차별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연구주제

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성과와 의의⁵⁾

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차별성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패널조사 연구로 기초연구로 구분되나 일반적인 패널 연구와 차별성을 지니는데, 그것은 패널연구와 함께 정책연구를 추진해 왔다는 점으로, 매년 해당 패널의 연령에 따른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특정 주제를 분석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을 함께 개발하고 제시해왔다. 이는 다른 패널조사와는 매우 차별적인 점으로, 물론 다른 패널조사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본 연구가 단순히 패널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지 않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객관적 실태를 알리고 이에 근거한 지원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는 매년 패널 대상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참여 청소년, 어머니, 교사,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실제 맥락 내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분석과 관련지어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제안해왔다. 그 결과 이론적 영역의 성과 뿐 아니라 정책적 분야에서도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성과

(1) 학술적 성과

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성과와 의의는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양계민 외, 2020: 57-65)」의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성과와 의의를 수정 보완함.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의 학술적 성과를 제시하면, 2017년 학술대회를 통해 학술대회용 데이터가 공개된 이래로 현재까지 총 353개의 연구물이 산출되었다는 점이다. <표 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격적으로 데이터가 공개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활용실적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학술논문의 출판이 증가하는 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발표한 연구물의 주제도 심리 사회특성,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문화적응, 진로, 문제행동, 부모의 자녀양육, 다문화정책, 학업중단위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여점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장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II-1. 데이터 활용 건수

구분		활용실적(편)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	-	5	11	4	20
	석사학위논문	-	-	7	16	16	39
학술논문	전문 학술지 논문	9	13	49	87	91	249
학술대회 발표 논문	MAPS학술대회	32	-	-	-	-	32
	기타 학술대회	1	1	5	2	2	11
기타(타 기관 연구보고서 외)		-	-	1	1	-	2
계		42	14	67	117	113	353

* 출처: 양계민 외(2020: 59) 표 III-2 수정

(2) 정책적 성과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 대상 패널을 구축하고 기초데이터를 생산하는 것 이외에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다. 매년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주제에 대하여 다문화청소년, 어머니, 학교교사,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꾸준히 제시해 왔다. 그 결과 많은 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 및 정책제언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나 사업에 반영된 사례가 다수 있다.

최근의 반영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우선 2017년도 정책제언 보고서에 제안한 내용 중 ‘예비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필수과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20년 6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방안」에 반영이 되었다. 정책의 내용으로는 ‘예비교원 교직과목에 다문화교육 포함하는 교원양성교육과정 관련 규정 개정 및 편성운영 권고’라는 항목으로 예비교사 단계부터 다문화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2020).

두 번째로 2017년도 동 보고서에서 기존에는 교사나 학생 대상의 다문화이해교육이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역사회 내 청소년업무 담당자들에게도 다문화이해교육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지도사 직무연수 등 프로그램 내에 다문화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과제로 제안한 바 있는데, 2020년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두 개의 연구를 추진하였다. 두 개의 연구 모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

년센터에서 추진 중인데, 하나는 청소년지도사 직무연수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청소년정책방안 연구'로 청소년 수련시설 중심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방안연구이다. 이 역시 2017년도 본 연구의 정책제언이 반영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2017년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 결과 2020년 6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방안」에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고, 현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통계연계방안 연구'와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2020). 따라서 향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현황통계와 실태통계가 지속적으로 작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는 2017년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그 내용이 2020년 6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방안」에 반영되어 있고, 그 결과 2020년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을 안산과 화성 두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2021년도에는 3개 기관이 사업을 추진하였다(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2020).

다섯 번째로 2018년 보고서의 정책제언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방안 중 다문화청소년 대상 독서프로그램을 전국 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20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전국 도서관에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를 매개로 상호문화이해 기회 확대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독서멘토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0).

여섯 번째로 2018년도 정책제언에서 다문화청소년의 기초학력 제고를 위하여

‘다문화청소년 재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두드림 사업」 우선지정’을 제시한 바 있는데, 2020년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기초학력 두드림학교 우선지정 권장’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교육부, 2020a).

마지막으로 2019년도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 전체가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2020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에 ‘지역사회 내 다문화 아동·청소년지원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내 정서지원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전문 지원 강화’라는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교육부, 2020a). 즉, 학교에서 정서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일차적으로는 위(Wee)클래스나 위(Wee)센터를 이용하지만,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교 밖의 지역 연계가 필요한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아래의 <표 II-2>는 2020년 보고서에 제시된 표에 새로 발생한 기여도를 표시한 것으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추가로 정책화된 부분이다. 2017년 제시하였던 청소년지도사 직무연수에 다문화이해관련 강의를 포함하는 제안과 관련하여 2020년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청소년지도사 직무연수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2022년부터는 청소년지도사 직무연수에 다문화청소년 이해과정을 도입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2020년에 제안한 정책제언도 추가로 여성가족부 사업에 반영되었는데, 전년도에 제안한 ‘입학 전 기초학습능력 준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21년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역시 2020년 제안했던 다문화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이 2021년 현재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과에서 추진 논의 중이고 2022년 본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가 장기간 지속되고 꾸준히 정책제언을 개발 및 제시한 결과,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방안」,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등에 반영된 성과가 있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청소년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등 정책적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타의 다른 패널연구와 차별화되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표 II-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정책반영 결과

출판 연도	제안내용	반영결과	정책내용
2017	■ 예비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필수과목 포함(보고서 p. 118)	「2020년 6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방안」에 반영	● 예비교원 교직과목에 다문화교육 포함하는 교원양성교육과정 관련 규정 개정 및 편성운영 권고
2017	■ 청소년관련 업무 담당자 및 시설종사자 다문화이해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p. 120) ■ 청소년 시설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보고서 p. 120)	「2020년 여성가족부 사업」추진	● ‘청소년지도사 직무연수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추진 ●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청소년정책방안 연구(청소년수련시설 중심)’ 추진
		「2021년 여성가족부 사업」 추진	●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에 다문화감수성 교육과정 도입
		「2021년 여성가족부 사업」 추진	● 예비청소년지도자(청소년학과, 청소년상담학과) 대상 다문화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추진
		「2022년 여성가족부 사업」 추진 결정	●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에 다문화감수성교육 도입
2017	■ 다문화청소년 통계구축 (보고서 p. 133)	「2020년 6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방안」에 반영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체계 구축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추정을 위한 행정통계연계방안,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2017	■ 지역사회 중심 지역연계체계 구축(보고서 p. 128)	「2020년 6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방안」에 반영 및 「2020년 여성가족부사업」 추진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추진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사업 기관 확대(2021)

출판 연도	제안내용	반영결과	정책내용
2018	다문화청소년 대상 독서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보고서 p. 438)	「2020년 다문화가족 정책시행계획」에 반영	- 전국 도서관에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를 매개로 상호문화 이해 기회 확대 - 다문화가정 독서멘토링
2018	다문화청소년 재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두드림 사업」우선지정 (보고서 p. 436)	「2020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반영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기초학력 ‘두드림학교’ 우선지정 권장
2019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연계시스템 구축(보고서 p. 386)	「2020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반영	지역사회 내 다문화 아동·청소년지원기관(CYS-Net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내 정서지원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전문 지원 강화
2020	입학전 기초학습능력 준비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보급(p. 498)	「2021년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추진	전국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입학 전 다문화아동 중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함
2020	다문화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양성(p. 501)	「2022년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추진논의	다문화청소년 상담을 위한 통역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 출처: 양계민 외(2020: 62) 표 III-3 수정 및 보완

(3) 사회적 파급효과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는 학문적 성과와 정책적 성과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언론에도 꾸준히 게재되었다. 본 연구물이 인용된 홍보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언론사에 다양한 주제로 게재되었고,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제시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II-3. 본 연구결과 인용 언론게재 결과

날짜	언론사	제목
2009.02.18.	매일경제	청소년 56% "다문화가정 자녀와 친구 안 해"
2009.11.23.	동아일보	다문화 사회의 대응과 전망
2010.08.11.	약업신문	탈북·다문화 청소년 "우리 이야기 들어볼래?"
2012.02.10.	서울경제	언어 장벽·차별적 시선에 가족 융화 힘들어 '삼중고'
2012.08.06	한국일보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한국인 정체성 낮아
2012.08.06	연합뉴스	다문화 어린이 10명 중 7명 "난 100% 한국인"
2012.08.07.	동아일보	다문화 어린이 73% "나는 100% 한국인"
2012.09.18	조선일보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1년 만에 69% 급증
2013.03.20.	연합뉴스	"다문화 청소년 보편적 기준 적용, 지원해야"
2013.05.29.	장애인신문	'다문화', 그 속에 숨겨진 차별
2013.12.12.	헤럴드POP	중도입국청소년 10명 중 4명 "진로 계획 없어"
2013.12.13.	연합뉴스	중도입국청소년 상당수 1년 이상 '나홀로 집에'
2014.03.04.	국제신문	"다문화 청소년, 저소득층일수록 학교 적응 어려움"
2014.03.04.	연합뉴스	"다문화 청소년, 저소득층일수록 학교 적응 어려움"
2014.03.06.	영남일보	"다문화 청소년, 저소득층일수록 학교적응 어려워"
2014.11.04.	뉴스1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 과제는?
2014.11.07.	농촌여성신문	FOCUS-사회통합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2015.03.11.	서울신문	점점 더 어우러지는 다문화 청소년
2016.08.09.	한국농어민신문	다문화정책 10년 이제는 자녀교육에 달렸다 ⑥국회 정책토론회
2016.11.20.	세계일보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은 관심 밖... '있어도 없는' 존재
2016.12.04.	세계일보	'같이'의 진정한 가치 교육 통해 차별·편견 극복 '한마음'
2017.02.01	신아일보	다문화 가정 청소년, 학년 올라갈수록 우울해진다
2017.02.01.	쿠기뉴스	"다문화가정 청소년, 학년 오를수록 우울증 커져"
2017.02.01.	한국일보	나이 들수록 위축되는 다문화 청소년
2017.02.01.	연합뉴스	"다문화청소년, 고학년 될수록 우울감 심해져" 1천300명 추적조사
2017.07.12.	농민신문	농촌 다문화정책, 2세에 초점을<하>대안은 없나

날짜	언론사	제목
2018.06.25.	연합뉴스	[다문화학생 10만명] ③ "진로탐색 교육 가장 중요"...전문가 제언
2018.06.25.	연합뉴스	[다문화학생 10만명] ① 진학을 낮고 지원정책도 '부실'
2018.09.10	정책브리핑	다문화, '새로운 세대'를 이야기한다.
2018.09.10.	여성소비자신문	다문화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성장 지원방안 모색
2018.12.12.	연합뉴스	"다문화청소년 정책 추진 과정서 의도치 않은 '낙인효과' 초래"
2019.01.13.	서울경제	"함께 공부 못해" 따돌림에...다문화 고교생 20% 학업 포기
2019.01.13.	서울경제	"이민자 이웃 싫다"...순혈주의에 숨막힌 '또 하나의 한국인'
2019.01.14.	서울경제	단순 적응 아닌 진로 교육 등 보다 현실적인 시스템 갖춰야
2019.03.22.	헤럴드경제	[우리 안의 인종차별]'동생 보느라...시선 때문에...' 학교 밖 다문화 학생들
2019.04.23.	연합뉴스	다문화청소년 추적조사 결과 "성장하면서 삶의 만족도 떨어져"
2019.04.24.	내일신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 청소년 추적조사 결과] 자랄수록 '삶의 만족도' 떨어진다.
2019.05.03.	머니투데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2019.05.03.	국회	이주배경 아동 교육권 보장: 제도-학교 연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2019.05.04.	미디어오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들
2019.05.16.	CTS	2018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보고서 발표. "다문화 청소년 성장할수록 삶의 만족도 하락"
2019.06.13.	연합뉴스	"다문화학생도 이질적...문제·육구 반영해 맞춤 지원 고민해야"
2019.09.30.	뉴시스	다문화 학생 47.5%는 진로 못 정해...정보력, 가정배경 요인
2020.06.26.	쿠키뉴스	정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공교육 진학 돕는다
2020.08.26.	내일신문	다문화청소년, 집단괴롭힘에도 '도움 요청할 어른 없다' 70.4%
2020.08.27.	연합뉴스	다문화 청소년, 집단 괴롭힘 당해도 도움 청할 곳 없어 '공공'
2021.04.23	헤럴드경제	"그냥 참았다"...차별 노출된 다문화 가정 73% '냉가슴'
2021.05.04	오마이뉴스	'지옥에서 빠져나올 힘'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2021.06.11	아시아경제	"너네 엄마 베트남 사람인 것 소문날 것"... 차별·혐오에 멎드는 다문화 가정

* 출처: 양계민 외(2020: 63) 표 III-4 수정 및 보완

결론적으로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는 2011년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래로 학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모두 기여를 해 왔으며, 우리 사회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 — 제Ⅲ장

패널조사

- 1. 1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 2. 2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 3. 패널조사 절차 및 방법



1. 1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1) 표본설계⁶⁾

(1) 모집단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1기 패널 모집단은 2011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이다.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며 동시에 성실한 조사참여가 가능한 최소연령대를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판단하여 모집단을 초등학교 4학년으로 하였다. 1기 패널 표본설계 및 구축을 위해 전국 광역시·도교육청으로부터 협조를 바탕으로 협조를 받은 지역의 경우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을 조사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협조를 받지 못한 4개 시도 지역의 경우 2010년 기준 자료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 학생 모집단 현황은 <표 III-1>과 같다(양계민 외, 2011: 118).

* III 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가 집필함.
6) 1기 패널 표본 2011년 연구보고서(양계민 외, 2011: 111-121)를 요약 및 발췌함.

표 Ⅲ-1. 지역별 조사 모집단 분포 현황

(단위: 개교, 명(%))

지역	학교	학생	지역	학교	학생
서울	264 (10.4)	510 (11.5)	광주	75 (3.0)	110 (2.5)
인천	119 (4.7)	228 (5.1)	전북	175 (6.9)	318 (7.1)
경기	514 (20.3)	1,006 (22.6)	전남	228 (9.0)	475 (10.7)
부산	114 (4.5)	185 (4.2)	대전	49 (1.9)	64 (1.4)
울산	39 (1.5)	59 (1.3)	충북	118 (4.7)	196 (4.4)
경남	226 (8.9)	351 (7.9)	충남	175 (6.9)	279 (6.3)
대구	80 (3.2)	107 (2.4)	강원	150 (5.9)	234 (5.3)
경북	173 (6.8)	281 (6.3)	제주	38 (1.5)	49 (1.1)
합계				2,537 (100.0)	4,452 (100.0)

* 출처 : 양계민 외(2020: 72) 표 Ⅲ-1

(2) 표본추출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1기 패널의 목표표본은 대략 1,600가구였다. 이는 당시 모집단인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 학생의 35.9%(모집단 4,452명)였다. 패널 구축 당시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지역 기준으로 모집단을 층화를 하였는데, 조사 단위는 다문화청소년 가구(청소년 및 어머니)이지만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모집단 정보를 획득하여 학교를 표본추출 단위로 하였다. 16개 시도를 층화 변수로 하여 16개 시도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목표 표본에 도달할 수 있는 1,000개 학교를 선정하였고, 확률비례계통추출법(PPS: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으로 표본 배분하였다.

표본추출 시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 내 모든 다문화청소년 4학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모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부득이 표본을 대체해야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승인 하에 대체하였다. 이후 표본 이탈 가구에 대해서는 표본을 대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양계민, 강경균, 2017: 73).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2. 지역별 표본 배분 결과

(단위: 개교, 명(%))

지역	학교	학생	지역	학교	학생
서울	100 (10.0)	173 (10.8)	광주	29 (2.9)	39 (2.4)
인천	47 (4.7)	79 (4.9)	전북	67 (6.7)	108 (6.8)
경기	196 (19.6)	362 (22.6)	전남	87 (8.7)	163 (10.2)
부산	56 (5.6)	85 (5.3)	대전	19 (1.9)	24 (1.5)
울산	21 (2.1)	28 (1.8)	충북	45 (4.5)	67 (4.2)
경남	86 (8.6)	125 (7.8)	충남	79 (7.9)	113 (7.1)
대구	31 (3.1)	38 (2.4)	강원	57 (5.7)	83 (5.2)
경북	66 (6.6)	97 (6.1)	제주	14 (1.4)	16 (1.0)
합계				1,000 (100.0)	1,600 (100.0)

* 출처 : 양계민 외 (2020: 73) 표 III-2

2) 조사내용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1기 패널은 2011년 구축되어 2020년까지 10차년도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2021년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 현황 파악을 중심으로 유지조사로 추진하였다. 유지조사의 경우 전화조사로 진행함에 따라 현재 진로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내용으로 간단하게 구성하였다. 2021년 유지조사의 주요 내용은 크게 ① 학업, ② 일 경험, ③ 기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로 학업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종 학교와 졸업여부를 조사하였고, 2020년 조사 당시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동일 대학 재학 여부와 현재 학적상태, 전공 변경여부를 조사하였다. 2020년 조사 당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던 청소년의 경우는 2021학년도 대학진학 여부를 조사하였고, 이 때 대학에 진학한 경우는 대학과 전공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학 준비여부를 함께 조사하였다. 또한, 2021학년도에 대학 휴학 상태인 청소년에게는 휴학의 주요 사유를 조사하였다. 두 번째로 일 경험 영역에서는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 이 때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를 조사하였다. 마지막 기타 영역에는 현재 부모님과 동거여부와 앞선 조사항목에서 학교⁷⁾에 재학 중이거나 군복무 상태가 아니면서 일 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 주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III-3. 1기 패널 대상 유지조사 내용

영역	조사 내용
학업	최종 학교 및 졸업 여부, 진학 한 대학 및 전공, 현재 학적상태, 휴학 사유, 2022 학년도 대학 진학준비 여부
일 경험	일 경험 여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
기타	현재 거주 형태, 현재 상황

2. 2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1) 표본설계⁸⁾

2기 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설계의 내용은 <표 III-4>에 요약하여 제시되어 있다. 2기 패널의 조사 모집단은 2019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표본설계를 위한 표본추출틀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센터 자료이며, 표본규모는 2,100여명으로 확정하였다. 표본추출을 위한 명시적 층화는 다문화가정 유형 및 17개 시/도로 하였으며, 내재적 층화로 부모의 출신국가를 고려하여 추출하였다.

7) 1기 패널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학교는 대체로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청소년도 포함된다.

8) 표본설계 내용은 양계민(2018:35-60)과 양계민 외(2020:102-109)를 수정 보완함.

표 III-4. 2기 패널 표본설계 내용

분 류	내 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목표 모집단 : 전국 다문화가족 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 ■ 조사 모집단 : 2019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중도입국/외국인 가정의 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 ■ 표본추출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자료(2018년 4월 1일 기준)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 표본규모 : 전국 2,100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pm 2.1\%p$
표본추출방식 (층화, 특성, 분류 지표 포함)	■ 명시적 층화 : 다문화가정 유형(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17개 시/도 ■ 내재적 층화 : 부모의 출신국가 ■ 표본추출단위 - 1차(psu) : 학교 → 다문화 학생 수 기준 확률비례추출 - 2차(ssu) : 학교 내 다문화 학생 → 전수조사
표본배정방식	■ 다문화가족 유형별 : 50명 우선할당 후 나머지는 비례배분 ■ 17개 시/도별 : 비례배분
추정식	■ 표본 가중값을 적용하고, 표본설계에 적합한 모수추정법 적용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 성별, 다문화가족 유형별, 어머니 출신국가별, 어머니 학력별, 가구소득별, 지역 규모별 ■ 조사된 사례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가 큰 경우(25% 이상)에는 유사 인접층을 통합하여 공표하거나 내부 자료만으로 활용할 것이며, 모수추정 후 공표범위는 통계청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

* 출처: 양계민 외(2019: 124) 표 VI-7

(1) 모집단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은 2019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중도입국가정)을 모집단으로 하였다(양계민, 2018: 38).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본추출을 위한 표본추출틀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센터 자료(2018년 4월 1일 기준)를 활용하였으며, 2019년에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을 추출하기 위해 표본추출틀 기준(2018년)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분포 및 학교의 분포

를 살펴보았다(양계민, 2018: 38). 그 결과 2018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은 17,134명이고,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 수는 4,805개교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14,163명(4,612개교)으로 가장 많으며, 외국인가정 자녀가 2,069명(729개교), 중도입국자녀가 902명(645개교)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5.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 및 학교의 시/도별 분포 현황

(단위: 명, 개교)

구분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전체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구성비,%)
전국	14,163	4,612	902	645	2,069	729	17,134	4,805(100.0)
서울	1,458	447	169	115	543	162	2,170	485(10.1)
부산	684	237	42	33	34	24	760	246(5.1)
대구	477	175	30	28	47	24	554	182(3.8)
인천	710	202	80	52	144	55	934	214(4.5)
광주	372	124	12	11	44	12	428	128(2.7)
대전	325	108	14	13	16	13	355	115(2.4)
울산	390	98	15	13	32	19	437	99(2.1)
세종	82	30	4	4	4	4	90	31(0.6)
경기	2,903	930	306	191	830	241	4,039	999(20.8)
강원	474	214	12	11	10	9	496	217(4.5)
충북	622	203	27	23	61	24	710	210(4.4)
충남	1,046	341	47	36	101	41	1,194	347(7.2)
전북	888	303	22	19	23	17	933	306(6.4)
전남	1,046	331	27	23	21	13	1,094	339(7.1)
경북	1,158	380	23	20	58	26	1,239	389(8.1)
경남	1,301	404	49	35	73	30	1,423	408(8.5)
제주	227	85	23	18	28	15	278	90(1.9)

* 출처 : 양계민 외(2020: 103~105)의 표 Ⅲ-17 및 표 Ⅲ-18 수정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내부자료(원출처)
 ※ 다문화 유형이 중복된 학교 수가 존재하여 유형별 학교 수의 합과 전체 학교 수가 일치하지 않음.

(2) 표본크기, 표본배분 및 표본추출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 구축 당시 표본 크기는 2,000명으로 다문화학생의 유형과 지역별로 표본을 배분하였다. 50명을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 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적용하여 표본을 배분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유형 및 시도별 표본 결과를 보완하여 전체 셀별 표본크기가 3명 이상이 되도록 추가 배분하였다. 이와 더불어 100명 표본을 추가되어 총 2,100명을 표본 크기를 결정하여 배분하였다. 표본추출 단위는 학교이며, 층화임의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였는데, 층 내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추출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학교를 선정하였다(양계민, 2018: 47).

(3) 표본구축 결과

최종 구축된 패널의 최초 현황은 <표 III-6>과 같다. 전체 2,224가구(2,246명)가 패널로 구축되었으며, 국제결혼가정은 1,719가구, 중도입국가정은 149가구, 외국인가정은 356가구가 구축되었다. 한 가정에 동일학년이 있는 경우 모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따라서 구축 가구 수와 청소년 수가 동일하지 않다.

표 III-6. 2기 패널 전국 시도별 구축 현황

(단위: 가구, 명)

시도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전체	
	가구수	청소년 수	가구수	청소년 수	가구수	청소년 수	가구수	청소년 수
전국	1,719	1,734	149	150	356	362	2,224	2,246
서울	163	164	23	24	76	76	262	264
경기	303	305	44	44	152	157	499	506
인천	80	82	15	15	26	26	121	123
강원	60	60	2	2	2	2	64	64
충북	83	83	4	4	10	11	97	98
대전	41	42	6	6	7	7	54	55
충남	119	121	8	8	24	24	151	153
세종	25	25	1	1	1	1	27	27
대구	80	81	2	2	11	11	93	94
경북	128	128	7	7	6	6	141	141
경남	150	151	14	14	7	7	171	172
부산	79	81	13	13	6	6	98	100
울산	46	47	1	1	6	6	53	54
광주	50	50	3	3	12	12	65	65
전북	102	102	1	1	4	4	107	107
전남	180	182	3	3	2	2	185	187
제주	30	30	2	2	4	4	36	36

* 출처 : 양계민 외(2020: 108-109)의 표 III-22

1차 구축에서 전체 구축 목표는 초과하여 구축⁹⁾되었으나 중도입국가정의 경우 목표로 한 가구(200가구)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이에 향후 패널 유지율 등을 고려하여 2020년에 중도입국 27가구를 추가로 패널을 구축하였다. 2기 패널 2차년도 조사 및 추가구축의 결과는 <표 III-7>과 같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구축한 패널의 가구 수는 2,056가구였다.

9) 전체 목표표본 2,100가구 → 최종구축 2,224가구, 국제결혼 목표표본 1,600가구 → 최종구축 1,719가구, 외국인가정 목표표본 300가구 → 최종구축 362가구, 중도입국 목표표본 200가구 → 최종구축 149가구

표 III -7. 2020년 2기 패널 조사결과

(단위: 가구)

구분	2019년	2020년		
		기존패널	추가구축	계
국제결혼가정	1,719	1,579	-	1,579
중도입국	149	137	27	164
외국인가정	356	313	-	313
합계	2,224	2,029	27	2,056

* 출처: 양계민 외(2020: 108) 수정

2) 조사내용

2기 패널 조사문항은 6가지 원칙¹⁰⁾(양계민, 2018:63)에 근거하여 개발하였다. 1차년도에 개발된 설문지는 최종 6종(청소년 2종, 학부모 4종)으로 개발되었으나 2차년도 조사 시에는 해당 년도의 조사특성에 맞도록 문항 검토 및 수정하여 최종 5종(청소년 2종, 학부모 3종)으로 확정하였고, 3차년도에도 2차년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5종의 설문지로 조사를 추진하였다. 3차년도 설문지의 수정은 연구진 검토, 조사원 의견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부 문항에 대해 국내출생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국내출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항을 삭제하였다. 둘째, 한국인 학부모용 설문지에서는 자녀의 희망하는 거주방식과 관련하여 응답자가 없는 관계로 해당 문항을 삭제하였다. 그 외 일부 문항의 보기에서 조사대상자가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학부모 대상 문항 중 한국인 학부모와 맞지 않는 내용의 보기를

10) ①1기 패널과의 상호비교, ②비(非)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비교가능성, ③새로운 다문화적 환경 변화요인 반영, ④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가능성, ⑤국외 다문화청소년과 비교가능성, ⑥조사 참여자에게 부담되지 않는 간명한 설문 구성

삭제하였다.

청소년 및 학부모용 설문지의 조사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청소년 설문지는 국내 출생과 외국출생 청소년 대상 설문지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조사대상의 공통 조사영역은 문화적응 및 이중문화(언어능력, 이중문화경험¹¹⁾), 개인요인(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인지, 진로), 환경요인(부모, 친구¹²⁾, 학교생활, 지역사회 지지망)이며, 방과후 생활의 경우 문항축소를 위해 1차년도만 조사하고 이후 삭제하였다. 중도입국과 관련한 내용은 외국출생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중도입국 중 학교와 관련한 문항들은 1차년도에만 조사하였고 2차년도부터는 조사하지 않았다. 외국출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항은 미래 생활과 관련한 사항만 조사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영역은 <표 III-8>과 같다.

11) 이중문화경험 중 외국출신 부모나라 방문은 국내출생 청소년만,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3차년도부터 외국출생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12) 친구 중 친한 친구 국적은 외국출생 청소년만 대상으로 조사함.

표 III -8. 청소년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9년~2021년)

대영역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2021(3차년도)	
				국내출생	외국출생	국내출생	외국출생	국내출생	외국출생
문화적응 및 이중문화	언어 능력	· 부모의 외국인 여부	MAPS 1기	○	○	○	○	○	○
		·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어 실력	CILS(Portes & Rumbaut, 2008) 문항 및 MAPS 1기 문항 수정	○	○	○	○	○	○
		·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 언어	CILS(Portes & Rumbaut, 2008) 문항 및 MAPS 1기 문항 수정	○	○	○	○	○	○
		· 외국 출신 부모 나라의 언어 교육	연구진 작성	○	○	○	○	○	○
		· 외국 출신 부모 나라 언어 실력	MAPS 1기 문항 수정	○	○	○	○	○	○
		· 자신의 한국어 실력	CILS(Portes & Rumbaut, 2008) 문항 수정 및 MAPS 1기 문항	-	○	-	○	-	○
	이중 문화 경험	· 인공, 학교 입학 전 한국어 배운 경험 및 장소	연구진 작성	-	○	-	-	-	-
		· 국적에 대한 인식	CILS(Portes & Rumbaut, 2008) 문항 수정 및 MAPS 1기 문항 수정	○	○	○	○	○	○
		· 외국 출신 부모 나라 방문여부 및 횟수	MAPS 1기 문항 수정	○	-	○	-	○	-
		· 문화적응스트레스	Hovey & King(1996) 변인 및 수정하여 사용한 노출레(2000)를 수정한 홍진주(2004)를 수정하여 사용한 MAPS 1기 수정	○	○	○	○	-	○

대영역	구분 소영역	조사항목	출처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2021(3차년도)	
				국내출생	외국출생	국내출생	외국출생	국내출생	외국출생
개인 요인	심리사회적 응 및 건강	· 국가정책성	성한기(2001) 발체 및 수정	○	○	○	○	○	○
		· 이종문화수용태도	노충래, 홍진주(2006) 발체 및 수정	○	○	○	○	○	○
		· 건강평가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수정	○	○	○	○	○	○
		· 스트레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수정	○	○	○	○	○	○
		· 지존감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수정	○	○	○	○	○	○
		· 사회적 역량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수정	○	○	-	-	-	-
		· 삶의 만족도	김신영 외(2006)을 인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0(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	○	○	○	○	○
		· 현재 걱정거리	유한규, 김영식, 류지영, 신동중과 이은혜(2016)에서 발체 및 수정 한 MAPS 1기 수정	○	○	○	○	○	○
		·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가해자, 차별경 험 대처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노충래, 고주애, 윤수경, 2018) 수정	○	○	○	○	○	○
		· 한국사회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	연구진 작성	○	○	○	○	○	○
		· 친한 친구 수	MAPS 1기	○	○	○	○	○	○
		· 친한 친구 국적	MAPS 1기 및 연구진 작성	-	○	-	○	-	○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2021(3차년도)	
대영역	소영역			국내출생	외국출생	국내출생	외국출생	국내출생	외국출생
환경 요인	인지	· 학교성적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하형석, 이종원, 정은진, 김성은, 한지형, 2018)	○	○	○	○	○	○
		· 성적에 대한 만족도	MAPS 1기	○	○	○	○	○	○
		· 희망교육수준	MAPS 1기	○	○	○	○	○	○
	진로	· 희망직업	MAPS 1기	○	○	○	○	○	○
		· 학교 마친 후 일하고 싶은 나라	연구진 구성	○	○	○	○	○	○
		·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대화(상당하는 사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하형석 외, 2018)	○	○	○	○	○	○
	부모	· 부모님의 지지(교육적 지원 및 기대)	김순규(2001) 수정	○	○	○	○	○	○
		· 부모의 양육태도	허모연(2000) 수정 발췌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김지경 외, 2010, 이경상, 백해정, 이종원, 김지영, 2011)	○	○	○	○	○	○
		· 부모님과 활동 및 대화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해정 외, 2017) 수정	○	○	○	○	○	○
		· 하루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해정 외, 2017) 수정	○	○	○	○	○	○
		· 방과 후 보호자 부재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해정 외, 2017)	○	○	○	○	○	○
		· 가정행편	연구진 작성	○	○	-	-	-	-

대영역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2021(3차년도)	
	소영역				국내출생	외국출생	국내출생	외국출생	국내출생	외국출생
	친구	· 친구의 지지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 학교생활	한미현(1996) 발채	○	○	○	○	○	○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이해경, 김혜원(2001) 수정	○	○	○	○	○	○
		· 학교생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해정 외, 2017)	○	○	○	○	○	○
	학교 생활	· 학교생활 전체의 어려운 점	· 학교생활 전체의 어려운 점 (친구) ·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 교사의 지지 · 학교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연구진 작성	○	○	○	○	○	○
		· 학교생활 어려운 점 (친구)		MAPS 1기 수정	○	○	○	○	○	○
		·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MAPS 1기 수정	○	○	○	○	○	○
		· 교사의 지지		한미현(1996) 발채 및 수정	○	○	○	○	○	○
중도입국	지역사회 지지망	· 학교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 학교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MAPS 1기 수정	○	○	○	○	○	○
		· 학교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MAPS 1기 수정	○	○	○	○	○	○
	학교 관련	· 한국 오기 전 학교 경험	· 한국 입학(πειν) 학년 · 한국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전 생활 · 국적취득 희망 · 한국 거주 희망	연구진 작성	-	○	-	-	-	-
		· 한국 입학(πειν) 학년		연구진 작성	-	○	-	-	-	-
		· 한국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전 생활		연구진 작성	-	○	-	-	-	-
기타	미래 생활	· 국적취득 희망		연구진 작성	-	○	-	○	-	○
		· 한국 거주 희망		연구진 작성	-	○	-	○	-	○
	방과후 생활	· 방과 후 활동	·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해정 외,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해정 외, 2017)	○	○	-	-	-	-
		· 문화생활, 스포츠 관람, 레저시설 이용 등	· 문화생활, 스포츠 관람, 레저시설 이용 등	사회조사표(통계청, 2017) 발채 및 수정	○	○	-	-	-	-

* 출처: 양계민 외(2020: 111~113, 115~120) 표 IV-24 및 표 IV-26 수정

학부용 설문지는 1차년도에는 4종¹³⁾으로 구성되었으나, 2차년도에는 조사문항 검토를 통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문항을 삭제하고, 일부 문항을 수정한 결과 3종¹⁴⁾으로 설문지 유형이 축소되었다. 외국인 학부모와 한국인 학부모의 공통 조사 영역은 배경변인(가족특성), 개인요인(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자녀 양육(자녀교육 및 양육, 양육관련 특성, 자녀 진학/진로 및 향후 희망 거주), 다문화 지원 정책(지원정책 태도)이다. 문화 특성(언어능력, 문화적응)영역은 외국인 학부모를 대상으로만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형별 조사문항의 내용은 <표 III-9>와 같다.

13) 설문지 4종은 외국인학부모 자녀 국내출생, 외국출생, 한국인 학부모 자녀 국내출생, 외국출생 4종으로 구성됨.

14) 설문지 문항검토 및 수정 결과 외국인 학부모 국내출생과 외국출생 설문지 문항이 동일하여 하나의 설문지로 통합하였음.

표 III -9.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9년~2021년)

구분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출처	2019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외국인학부모	한국인	외국인	외국인학부모	한국인	외국인	외국인학부모	한국인	외국인
배경 변인	가족 특성		· 배우자와의 결혼 상태 및 관계 만족도	MAPS 1기 및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노총래 외, 2018) 수정	○	○	○	○	○	○	○	○	○
			· 가정의 월평균 소득	MAPS 1기 수정	○	○	○	○	○	○	○	○	○
			· 가정의 주요 소득원	MAPS 1기	○	○	○	○	○	○	○	○	○
			· 가정의 경제적 수준(가정형편)	MAPS 1기	○	○	○	○	○	○	○	○	○
개인 요인	심리사 회적응 및 건강		·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장소, 차별 대처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노총래 외, 2018) 수정	○	○	-	-	-	-	-	-	-
			·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대상별 피해 경험, 차별 대처 및 차별 사유	김지혜 외(2020) 수정 및 연구진 작성	-	-	-	-	-	-	○	-	-
			·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 발취	○	○	○	○	○	○	○	○	○
			· 전반적 건강 상태	MAPS 1기	○	○	○	○	○	○	○	○	○
문화 특성	언어 능력		· 걱정거리 의논할 수 있는 사람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한 MAPS 1기	○	○	○	○	○	○	○	○	○
			· 모국어	MAPS 1기	○	○	-	-	-	-	○	-	-
			· 한국어 학습경험	MAPS 1기	○	○	-	-	-	-	○	-	-
			· 한국어 수준	CILS(Portes & Rumbaut, 2008) 문항 수정	○	○	-	-	-	-	○	-	-
문화 적응	문화 적응		· 주로 어울리는 사람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한 MAPS 1기	○	○	-	-	-	-	○	-	-
			·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한 MAPS 1기	○	○	-	-	-	-	○	-	-

구분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출처	2019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외국인·학부·외국인 학부	국내	외국	외국인·학부	국내	외국	외국인·학부	국내	외국
다문화 지원 정책			·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 선호하는 자녀 교육 방식	MAPS 1기 수정	○	○	○	○	○	○	○	○	○
				MAPS 1기 수정	○	○	○	○	○	○	○	○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김지경 외, 2010) 수정	○	○	○	○	○	○	○	○	○
		양육관 련 특성	·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국내 난민이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노충래 외, 2018)	○	○	○	○	○	○	○	○	○
			· 부모효능감	Gibaude-Wallstom & Wandersman (1978)의 문항을 번안 및 수정한 신숙재 (1997)를 수정한 MAPS 1기 수정	○	○	○	○	○	○	○	○	○
		자녀 진학/ 진로 및 향후 희망 거주	· 희망하는 자녀 교육 수준	MAPS 1기 수정	○	○	○	○	○	○	○	○	○
			· 희망하는 자녀 거주 방식	연구진 작성	○	○	○	○	○	○	○	-	-
			· 자녀가 나중에 갖기 원하는 직업	MAPS 1기	○	○	○	○	○	○	○	○	○
			· 지원프로그램 제공장소 선호도	MAPS 1기	○	○	○	○	○	○	○	○	○
			· 자녀 다문화가족정책 지원 경험 및 도움 정도	김영희와 김다경 (2016)	○	○	○	○	○	○	○	○	○
			· 선호하는 지원 방식	MAPS 1기 수정	○	○	○	○	○	○	○	○	○

* 출처: 양계민 외(2020: 113-114, 121-127) 표 IV-25 및 표 IV-27 수정

3. 패널조사 절차 및 방법¹⁵⁾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는 연구로 ‘헬싱키 선언’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였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연구계획 심의 신청서, 연구계획서, 1기 패널 유지조사 설문지와 2기 패널 설문지, 1기 및 2기 패널조사 설명문 및 조사 동의서, 1기 및 2기 패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연구책임자),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였다. 1기 패널의 경우 패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현재 진로 현황을 파악하는 전화조사로 진행한 관계로, 조사 진행 전 모바일을 통해 조사 설명문을 제시하고 조사동의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받았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는 2021년 5월 13일에 신청하였고, 5월 20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202104-HR-고유-005).

2) 행정자료 우선활용 검토 및 통계변경승인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통계청 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2003호)이다.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전년도 조사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 우선적으로 2021년 5월 4일에 본조사 내용을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에 의뢰하였고, 2021년 5월 12일자로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로부터 행정자료 활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조사내용 변경 및 1기 패널 조사방법 변경 등의 조사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5월 13일 통계청 사회통계심사조정과에 통계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최종 변경승인통보를 받았다.

15) 패널조사 절차 및 방법은 양계민 외(2020: 128~133)의 내용을 수정 보완함.

3) 조사절차

조사문항에 대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승인, 통계청 행정자료 우선 활용 및 통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확정된 조사표를 바탕으로 1기 패널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조사대상에게 전화한 후 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CATI: Computer Assistant Telephone Interview)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직접적인 전화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유학 등)를 대비하여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기 패널은 TAPI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어로 조사가 힘든 외국인 학부모 및 외국 출생 다문화 청소년을 위해 조사표를 번역하였다. 외국출생 학생용 설문지는 총 6개국 언어로 번역하였는데,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하였고, 외국인 학부모는 총 9개국 언어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로 번역하였다.

TAPI 확정 및 조사표 번역이 완성된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교육 이후 조사대상 가구와 연락하여 조사를 위한 방문 날짜를 정하여 방문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문조사를 진행할 때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문화청소년 1기 패널의 경우 1~8차년도 조사까지는 CAPI(Computer Assistant Personal Interview) 시스템을 활용하였고, 9차년도 조사 및 2기 패널 1차년도 조사부터는 TAPI(Tablet Assistant Personal Interview)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소요시간은 연도별 차이가 있으나 2019년 조사 소요시간은 1기와 2기 패널 모두 30분미만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도 조사 소요시간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는데 이는 조사문항 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10. 1기 패널 연도별 설문조사(CAPI) 소요시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청소년	19.4분	30.1분	30.3분	31.8분	31.4분	29.8분	26.8분	26.6분	28.3분
학부모	17.2분	21.3분	21.4분	24.0분	24.1분	24.9분	29.3분	29.5분	24.0분

* 출처 : 양계민 외(2020: 130) 표 III-28

표 III-11. 2019~2020년 패널별 설문조사(TAPI) 소요시간

연도 및 패널	2019년		2020년	
	1기 패널	2기 패널	1기 패널	2기 패널
청소년	27.3분	22.8분	16.4분	18.2분
학부모	28.8분	22.0분	-	21.7분

* 출처 : 양계민 외(2020: 130) 표 IV-29 수정

1기 패널과 2기 패널은 6월부터 10월까지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2020년 도는 코로나로 인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1년은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여 조사 진행을 준비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II-12. 연도별 조사기간

연도	조사대상 기간	조사실사 기간	최초결과공표
2011	과거부터 현재	2011. 8 ~ 2011. 11	2011. 12. 31
2012	2011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2. 6 ~ 2012. 8	2012. 12. 31
2013	2012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3. 5 ~ 2013. 7	2013. 12. 31
2014	2013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4. 6 ~ 2014. 8	2014. 12. 31
2015	2014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5. 5 ~ 2015. 8	2015. 12. 31
2016	2015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6. 5 ~ 2016. 7	2016. 12. 31
2017	2016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7. 7 ~ 2017.10	2018. 12. 31
2018	2017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8. 7 ~ 2018.10	2019. 12. 31
2019	2018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1기 패널)	2019. 6 ~ 2019.10	2020. 12. 31
	과거부터 현재(2기 패널)		
2020	2019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20. 7 ~ 2020.11	2021. 12. 31
2021	2020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21. 6 ~ 2021.10	2022. 12. 31(예정)

* 출처 : 양계민 외(2020: 131) 표 III-30 수정 및 보완

4) 조사원 교육 및 관리

패널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사원 관리와 교육이 중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조사 경험이 풍부하고 가구 방문조사 및 가구 패널 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 조사원을 선발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능한 동일 조사원을 동일 가구에 투입하고 있다. 2020년 투입된 조사원 수는 1기 기준 전국 64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한 조사원은 59명(67.8%)이며, 조사원 1인당 담당 가구 수는 17.1가구이다. 2기 패널 역시 학교 조사, 가구방문 조사, 가구 패널 조사 경험자를 조사원으로 선발하였으며, 1기 패널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을 우선으로 선발하였다. 2019년 조사원의 수는 86명이었으며, 2020년 조사원 수는 80명으로 조사 첫 해 참여했던 조사원의 91.9%(79명)가 2020년 조사에 조사원으로 재 참여하였다. 2기 패널 조사원의 1인당 담당 가구 수는 27.8가구이다.

조사원 교육 내용은 조사에 대한 개요와 패널 관리, 조사표와 실습, 질의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사 개요에는 조사 연혁과 조사의 목적 그리고 조사 시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 및 관련하여 설명하고, 패널 관리에서는 패널 관리 방안과 패널의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코로나와 관련하여 감염 예방을 위한 원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패널 가구 방문 전과 방문 후, 조사 공간 및 조사 완료 후 퇴장까지 단계별 조사원 준수사항 및 패널 가구 협조사항을 설명하였다.

표 III-13. 조사원 교육 일정

지역	일시	장소	참석조사원 수	
			1기 패널	2기 패널
서울	2021.6.15.(화) 10:00	한국갤럽 본사	12	20
부산	2021.6.14.(월) 10:30	한국갤럽 부산지사	8	13
대구	2021.6.16.(수) 15:00	한국갤럽 대구지사	10	12
대전	2021.6.16.(수) 10:00	한국갤럽 대전지사	9	10
광주	2021.6.18.(금) 10:00	한국갤럽 광주지사	10	10
강원	2021.6.22.(화) 10:00	강원리서치	3	3
제주	2021.6.18.(금) 16:00	제주 회의실	1	2

5) 조사실사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1기 패널은 전화조사로 진행하였으며, 2기 패널의 경우 감염예방 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조사원 교육을 실시한 후 대면조사

로 진행하였다. 대면조사 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조사 진행 단계별 준수사항의 내용은 <표 Ⅲ-14>와 같다.

표 Ⅲ-14. 조사 시 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

조사 진행 단계	조사원 준수사항
패널가구 방문 전	• 조사기간 중 개인 위생관리 철저 • 가구 방문 전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조사 약속을 연기하고 슈퍼바이저에게 보고 • 조사기간 중 매일 오전 자가진단 앱 입력(한국갤럽 자체 개발) - 본인인증 후 자가진단(발열, 코로나19 의심 증상, 본인 해외여행, 동거가족 해외여행, 격리가족 유무 등) - 자가진단 앱에서 자가진단 후 당일 면접조사 여부 진행 가능 여부 판단
패널가구 방문 및 조사 공간	• 패널 가구 내에서 사람 간 사회적 거리 유지(1m 이상) • 패널 부모 및 청소년과의 신체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 • 불필요한 접촉 자제 • 음료 및 다과 제공 시 정중히 거절 • 손세정제 및 세정티슈를 이용한 수시 손 소독 진행
조사 완료 후 퇴장	• 반드시 마스크 착용, 퇴장 후 손 소독 진행

○ — 제Ⅳ장 패널관리

- 1. 패널관리의 원칙 및 절차
- 2. 이탈패널 분석

1. 패널관리의 원칙 및 절차

1) 패널관리¹⁷⁾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에서는 패널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패널 관리를 하고 있다. <표 IV-1>은 기존에 패널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1기 패널과 2기 패널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중 마지막 두 가지 방식인 온라인 조사 시스템과 청소년 연락처 수집 및 거주지 파악은 후기청소년인 1기 패널에만 해당되는 방법으로 유학이나 군입대 등으로 대면조사가 어려운 패널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였다.

표 IV-1. 패널 관리 방법 및 내용

관리 방법	내용
동일 조사원 투입	■ 조사원과 패널 간 라포 형성을 위해 매년 동일한 조사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동일 조사원에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도록 여러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사원 참여를 독려함. ■ 조사원 변경 시 인수인계 프로그램 운영

16) IV장은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집필함.

17) 패널 유지를 내용은 양계민 외(2018: 87-92)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관리 방법	내용
전화관리	■ 이사 및 연락처 변경으로 인한 연락 두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조사에 참여한 가구에 전화하여 기본 정보 업데이트 ■ 전화통화가 편한 일시에 접촉하고,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거부 반응을 줄이고 수신율을 향상하며, 컨택 시간을 구조화 하여 전화관리 조사 진행
연하장 및 명절선물 제공	■ 이전 연도 조사에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연하장과 명절 선물을 제공하면서 당해 연도 조사 참여 독려 ■ 담당 조사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제공하여 유대관계 유지
리플릿 제작 및 배부	■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조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조사 목적, 기관 안내, 이전 연도 주요 조사결과 요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리플릿 제작 ■ 리플릿은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구방문 조사시 제공
답례품 제공	■ 매년 조사 실시 후, 조사 참여를 유도하고 성실한 응답을 하도록 하기 위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소정의 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
홈페이지 운영	■ 조사 홍보 및 주요 사항 안내를 목적으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운영(http://maps.gallup.co.kr) ■ 2020년 홈페이지 리뉴얼 진행 ■ 홈페이지에 조사 배경 및 목적, 조사주관기관 및 실사기관, 조사결과 등을 수록함. 패널이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수신자 부담 전화 운영	■ 본조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소통을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080-336-2580)를 운영
연락처 및 접촉 경로 확대	■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어머니 외 가구 구성원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다양한 접촉 경로 마련 ■ 휴대전화 메시지(예: 카카오톡)의 사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원활한 접촉 경로 마련
이사가구 추적조사	■ 전화관리를 통해 파악된 이사시기에 맞춰 추가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이사로 인한 패널 이탈 방지
가구정보 변동시 자발적 통보가구 인센티브 제공	■ 가구정보 변동사항을 가구 구성원이 사전에 알릴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당 사항을 리플릿에 포함하여 각 가구에 안내함.
온라인 조사 시스템 운영(1기 패널)	■ 유학이나 군입대 등으로 대면조사가 어려운 패널의 경우 온라인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조사 시스템 운영
청소년 연락처 수집 및 거주지 파악(1기 패널)	■ 1기 패널의 경우 양육자 조사가 간소화 되면서 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도록 청소년 연락처 및 거주지 파악

* 출처 : 양계민 외(2019: 84) 표 II-11, 양계민 외(2020: 137-138) 표 IV-1 수정 및 보완

2021년에 패널 관리조사는 2021년 3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하였다. 1기 패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 거주지와 연락처, 현재 진학상태, 진로상황 및 군입대 여부 및 군입대 예정 일자, 조사대상 청소년과 연락되지 않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다른 연락처 등을 파악하였고, 2기 패널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선물 발송을 위한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계획, 조사대상 자녀 정보 확인, 자녀와 동거 여부 및 자녀와 비동거시 연락처, 향후 조사 참여 의향 및 조사 개선사항, 본조사 수행 시 선호하는 조사원 방문시간 등을 파악하였다.

2) 개인정보 관리

본 패널조사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대해 사회적 중요성 강화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에 근거하여 조사 진행과정과 조사된 자료 관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자료수집과정에서는 조사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 가구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조사에 사용한 태블릿 PC는 암호를 설정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으며,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한 후 관련 자료는 회수 및 파기하고 전체 가구원부 명단은 암호화 하여 관리하고 일부 연구진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접근이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수집한 조사자료는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별도의 홈페이지 및 보안 관리 실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전에 승인된 USB 외 다른 저장장치와 클라우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조사자료가 보관되는 서버실은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접근을 제한하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 출입관리를 하는 등 수집한 자료 보관과 관련하여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자료의 공표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무작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조사결과는 전체나 집단별 평균으로만 공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 청소년 개인의 학교명이나 나이, 거주 지역, 부모님 관련 정보 등은 공표하지 않고 기준을 가지고 집단으로 구분하여 공표하고 있다. 또한 조사용 일련번호와 마이크로 데이터용 일련번호는 다르게 부여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데이터 공개 시 몇 가지 조합으로 개인이 특정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일부 정보는 레코드 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청소년의 거주지를 16개 혹은 17개 시도가 아닌 5개 권역¹⁸⁾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며, 부모의 국적도 공표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레코드 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3) 연구자 연구윤리교육

연구진행과정에서의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연구진들은 2년에 한 번씩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구진의 연구윤리교육 참여 현황은 <표 IV-2>와 같다.

표 IV-2. 연구윤리교육 참여 현황(최근 3년간)

번호	과정명	수료날짜	운영기관	비고
1	인간대상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교육	2019.02.28.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연구원
2	인간대상 및 인체 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	2020.03.05. 2020.03.06.	질병관리본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3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종사자 교육	2020.03.05.	질병관리본부	공동연구원
4	IRB위원 및 행정간사 기본교육	2020.08.27.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공동연구원
5	IRB 지역교육 1차	2020.10.15.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공동연구원
6	윤리적 연구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2021.03.30. 2021.04.07. 2021.04.09. 2021.04.15.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연구원

* 출처 : 양계민 외(2018: 94) 표 II-15 수정 및 보완

18) 서울, 수도권, 충청 및 강원권, 경상권, 전라 및 제주권

4) 조사원 모니터링

본 연구는 매년 조사에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조사원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였는지, 방문 전 연락하고 방문하였는지, 조사 후 상품권 수령여부, 조사원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는지, 조사원과의 관계 및 조사원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건의 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였다.

1기 패널은 2020년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328명(본조사 참여가구의 30.0%)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중 99.1%가 조사원이 방문하였다고 하였으며, 0.9%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조사원 확인 결과 방문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응답자의 97.9%가 방문 전 사전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1.8%는 조사원 확인 결과 가구 방문 시 어머니에게 연락하였으나 그 사실을 청소년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0.3%(1가구)는 사전 연락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99.7%가 상품권을 수령하였으며, 0.3%는 기억나지 않으나 조사원 확인 결과 상품권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를 참여하는 동안 불편함을 준 조사원은 없었으며, 91.2%는 조사원과의 관계가 좋다고 인식하며, 8.8%는 보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94.8%가 조사원에 대해 만족하며, 5.2%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2기 패널 조사원 모니터링은 2020년 조사에 참여한 어머니 394명(본조사 참여가구의 17.7%)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0%가 실제 방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100%가 방문 전 조사원이 연락하였다고 하였다. 99.2%가 상품권을 수령했다고 하였으며, 0.8%(3가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조사원 확인 결과 상품권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원 자질과 관련해서는 100% 불편함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들의 92.1%가 조사원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였고, 7.9%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90.6%가 조사원에 대해 만족하며, 9.4%는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타난 건의 사항으로 1기 패널은 조사 전 미리 문자로 연락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과 군입대 전에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견, 조사 종료시점에 대한 질문하였다. 2기 패널의 경우는 다문화 관련 정부 정책과 관련된 정보 제공여부, 조사 참여로 인해 도움이 되는지, 조사에 대한 명확한 설명, 문항 축소, 다문화 가구 혜택 부족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따라서 조사원들은 성실하게 조사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패널들과의 관계 역시 패널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이탈패널 분석

1) 1기 패널

(1) 배경특성별 패널 이탈 현황

①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

1기 패널은 2011년 구축 한 후 2020년까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까지 이탈한 패널의 지역별 현황은 <표 IV-3>과 같다. 2020년까지 총 530 가구가 이탈하였으며, 1차년도 조사 이후 2020년까지 패널 유지율은 67.4%로 나타났다. 1기 패널의 이탈현황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시/도별 가구 수 대비 패널 이탈률은 제주가 80%로(15가구 → 12가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주에 구축된 가구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적어 한 두 가구의 이탈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 다음으로 패널 시/도별 가구수 대비 패널 이탈률이 높은 지역은 대전(50.0%), 광주와 대구(4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탈한 가구 수 대비 이탈률이 높은 지역은 경기(28.7%)로 나타났으며, 경기의 구축 가구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아 상대적으로 이탈 가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1기 패널)

시/도	구축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유지율(%)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시/도별 가구수 대비	
서울	179	72	13.6	40.2	59.8
부산	74	23	4.3	31.1	68.9
대구	42	20	3.8	47.6	52.4
인천	67	30	5.7	44.8	55.2
광주	42	20	3.8	47.6	52.4
대전	24	12	2.3	50.0	50.0
울산	31	14	2.6	45.2	54.8
경기	383	152	28.7	39.7	60.3
강원	90	16	3.0	17.8	82.2
충북	74	27	5.1	36.5	63.5
충남	117	28	5.3	23.9	76.1
전북	108	21	4.0	19.4	80.6
전남	160	27	5.1	16.9	83.1
경북	101	24	4.5	23.8	76.2
경남	118	32	6.0	27.1	72.9
제주	15	12	2.3	80.0	20.0
합계	1,625	530	100.0	32.6	67.4

② 어머니 출신국별 패널 이탈 현황

1기 패널이 2011년 구축된 이후 2020년 조사까지 어머니 출신국가별 패널 이탈 현황은 <표 IV-4>와 같다. 출신국가 가구수 대비 패널 이탈률은 카자흐스탄이 57.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국(55.9%), 러시아(52.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패널 구축 당시 가구 수(카자흐스탄 7가구, 러시아 17가구)가 적어 한 두 가구의 이탈로도 이탈률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탈률이 낮은 나라를 살펴보면 태국(17.9%)이 가장 낮았으며,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각 25.0%), 일본(26.3%), 대만(28.6%), 필리핀(28.8%) 등의 순이었다.

표 IV-4.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출신국가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출신국가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출신국가별 가구수 대비
한국	68	38	7.2	55.9
중국(한족, 기타민족)	125	45	8.5	36.0
중국(조선족)	318	129	24.3	40.6
베트남	42	20	3.8	47.6
필리핀	400	115	21.7	28.8
일본	525	138	26.0	26.3
대만	7	2	0.4	28.6
몽골	8	3	0.6	37.5
태국	56	10	1.9	17.9
캄보디아	3	1	0.2	33.3
우즈베키스탄	12	3	0.6	25.0
러시아	17	9	1.7	52.9
인도네시아	9	3	0.6	33.3
카자흐스탄	7	4	0.8	57.1
말레이시아	2	1	0.2	50.0
키르기스스탄	4	1	0.2	25.0
기타	22	8	1.5	36.4
합계	1,625	530	100.0	32.6

2020년 조사 시 어머니 출신국가별 패널 이탈률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50.0%)와 키르기스스탄(25.0%)의 이탈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패널 구축 당시 구축된 가구 수가 말레이시아 2가구, 키르기스스탄 4가구로 가구 수가 적어 한 가구의 이탈이 패널 이탈률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표 IV-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출신국가별 패널 이탈현황(2020년)

출신국가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출신국가별 가구수 대비
한국	37	5	6.4	13.5
중국(한족, 기타민족)	82	4	5.1	4.9
중국(조선족)	200	11	14.1	5.5
베트남	26	5	6.4	19.2
필리핀	306	22	28.2	7.2
일본	410	25	32.1	6.1
대만	5	-	-	-
몽골	5	-	-	-
태국	49	3	3.8	6.1
캄보디아	2	-	-	-
우즈베키스탄	9	-	-	-
러시아	8	-	-	-
인도네시아	6	-	-	-
카자흐스탄	3	-	-	-
말레이시아	2	1	1.3	50.0
키르기스스탄	4	1	1.3	25.0
기타	15	1	1.3	6.7
합계	1,169	78	100.0	6.7

③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 현황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표 IV-6>과 같다.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률은 500만원 이상이 45.9%로 가장 높았으며, 100-200만원 미만(40.0%), 100만원 미만(36.7%) 순이었다. 패널 이탈률이 가장 낮은 가구 소득은 400-500만원 미만(27.3%), 300-400만원 미만(27.6%)이었다.

표 IV-6.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월 평균 가구소득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소득별 가구수 대비
100만원 미만	49	18	3.4	36.7
100-200만원 미만	335	134	25.3	40.0
200-300만원 미만	499	153	28.9	30.7
300-400만원 미만	434	120	22.6	27.6
400-500만원 미만	161	44	8.3	27.3
500만원 이상	98	45	8.5	45.9
모름/무응답 ^{주)}	49	16	3.0	32.7
합계	1,625	530	100.0	32.6

* 주) 월평균 가구소득은 2020년 응답기준으로 각 연도별 탈락 가구는 직전년도 응답 기준임.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한

2020년에 패널에서 이탈한 가구들의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11.7%)과 100-200만원 미만(10.7%)의 이탈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은 3.2%로 가장 낮았다.

표 IV-7.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현황(2020년)

월 평균 가구소득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소득별 가구수 대비
100만원 미만	31	1	1.3	3.2
100-200만원 미만	224	24	30.8	10.7
200-300만원 미만	360	15	19.2	4.2
300-400만원 미만	336	22	28.2	6.5
400-500만원 미만	125	8	10.3	6.4
500만원 이상	60	7	9.0	11.7
모름/무응답 ^{주)}	33	1	1.3	3.0
합계	1,169	78	100.0	6.7

주) 월평균 가구소득은 2020년 응답기준으로 각 연도별 탈락 가구는 직전년도 응답 기준임.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한

④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 현황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패널 이탈한 가구들의 주관적 가정 형편을 살펴보았다. 주관적 가정 형편별 패널 이탈률을 살펴보면, ‘모름/무응답’(75.0%)이 가장 높았으나, 이를 제외하면, ‘아주 잘 산다’(50.0%)고 응답한 가구의 패널 이탈률이 가장 높았으며, ‘아주 어렵다’(47.7%)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주 잘 산다’라고 응답한 패널 가구 수가 적어 두 가구가 이탈하였으나 이탈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률이 가장 낮은 집단은 ‘보통이다’(29.2%)라고 응답한 집단이었다.

표 IV-8.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본인 지각 가정형편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주관적 가정형편별 가구수 대비
아주 어렵다	153	73	13.8	47.7
어려운 편이다	541	174	32.8	32.2
보통이다	854	249	47.0	29.2
잘사는 편이다	57	20	3.8	35.1
아주 잘 산다	4	2	0.4	50.0
모름/무응답 ^{주)}	16	12	2.3	75.0
합계	1,625	530	100.0	32.6

주) 주관적 가정형편은 2020년 응답기준으로 각 연도별 탈락 가구는 직전년도 응답 기준임.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한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른 2020년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모름/무응답’이 2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주 어렵다’(16.0%) 순이었으며, ‘아주 잘 산다’고 응답한 패널의 2020년 패널 이탈률은 없었으며, ‘잘사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패널 가구의 이탈률은 2.6%, ‘보통이다’ 4.7%, ‘어려운 편이다’ 7.8%이었다.

표 IV-9.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현황(2020)

본인 지각 가정형편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주관적 가정형편별 가구수 대비
아주 어렵다	94	15	19.2	16.0
어려운 편이다	397	31	39.7	7.8
보통이다	633	30	38.5	4.7
잘사는 편이다	38	1	1.3	2.6
아주 잘 산다	2	-	-	-
모름/무응답 ^{주)}	5	1	1.3	20.0
합계	1,169	78	100.0	6.7

주) 주관적 가정형편은 2020년 응답기준으로 각 연도별 탈락 가구는 직전년도 응답 기준임.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한

⑤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이탈현황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어머니 직업 여부에 따른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어머니 직업이 없는 집단의 패널 이탈률(40.0%)이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이탈률(29.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10.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직업 여부별 가구수 대비
있다	1,120	328	61.9	29.3
없다	505	202	38.1	40.0
합계	1,625	530	100.0	32.6

주) 어머니 직업여부는 2020년 응답기준으로 각 연도별 탈락 가구는 직전년도 응답 기준임.

2020년 패널 이탈 한 가구의 어머니 직업 여부에 따른 패널 이탈현황을 살펴보면, 어머니 직업이 ‘없다’(7.9%)고 응답한 집단의 패널 이탈률이 어머니 직업이

‘있다’(6.2%)고 응답한 패널 이탈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11.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이탈현황(2020)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직업 여부별 가구수 대비
있다	840	52	66.7	6.2
없다	329	26	33.3	7.9
합계	1,169	78	100.0	6.7

주) 어머니 직업여부는 2020년 응답기준으로 각 연도별 탈락 가구는 직전년도 응답 기준임.

⑥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 현황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보았다. 어머니 학력이 대학원 이상(석사과정 68.4%, 박사과정 66.7%)의 이탈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어머니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패널 가구 수(석사과정 19가구, 박사과정 6가구)가 적어서 한 두 가구 패널이 이탈하더라도 이탈률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 학력이 대학교(4년제 미만)의 이탈률이 29.6%로 가장 낮았으며, 중학교가 30.8%로 두 번째로 낮았다.

표 IV-1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어머니 학력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학력별 가구수 대비
안 받았음	1	-	-	-
초등학교	28	10	1.9	35.7
중학교	130	40	7.5	30.8
고등학교	698	229	43.2	32.8
대학교(4년제 미만)	459	136	25.7	29.6
대학교(4년제 이상)	283	98	18.5	34.6

어머니 학력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학력별 가구수 대비
대학원 석사과정	19	13	2.5	68.4
대학원 박사과정	6	4	0.8	66.7
모름/무응답 ^{주)}	1	-	-	-
합계	1,625	530	100.0	32.6

주) 어머니 학력은 2020년 응답기준으로 각 연도별 탈락 가구는 직전년도 응답 기준임.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한.

2020년도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률을 살펴보면, 이 역시 대학원 박사과정이 33.3%로 가장 높았으나 전체 패널 가구 수가 3가구로 적어서 1가구 이탈에도 패널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가 교육을 안 받았거나 석사과정 이상인 경우 이탈한 패널이 없었으며, 패널 이탈 가구 중 어머니 학력이 중학교인 가구의 이탈률이 4.3% 가장 낮았다.

표 IV-13.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현황(2020)

어머니 학력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학력별 가구수 대비
안 받았음	1	-	-	-
초등학교	22	4	5.1	18.2
중학교	94	4	5.1	4.3
고등학교	496	30	38.5	6.0
대학교(4년제 미만)	351	29	37.2	8.3
대학교(4년제 이상)	195	10	12.8	5.1
대학원 석사과정	6	-	-	-
대학원 박사과정	3	1	1.3	33.3
모름/무응답 ^{주)}	1	-	-	-
합계	1,169	78	100.0	6.7

주) 어머니 학력은 2020년 응답기준으로 각 연도별 탈락 가구는 직전년도 응답 기준임.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한.

(2) 주요 이탈사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에서 이탈 한 패널의 사유를 살펴보면 <표 IV-14>와 같다. 전체 이탈 가구 중 연락이 안 되는 사유가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유학이나 이민(14.9%)도 높게 나타났다. 강력 거절도 7.7%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이 하기 싫어하여 이탈된 사유도 7.5%로 나타났다.

표 IV-14.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패널 이탈 사유(전체, 1기 패널)

		이탈 사유	가구 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락안됨	연락안됨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안 받음	140	26.4
강력 거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강력 거절	41	7.7
		바쁘다며 거절	33	6.2
		아빠가 반대함	22	4.2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음	24	4.5
		약속 후 연락 피함/거절	17	3.2
		귀찮고 싫다며 거절	17	3.2
		관리조사 시 이미 거절 의사 밝혔다며 거절	9	1.7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하기 싫음	7	1.3
		이사 후 주소지 안 알려주고 연락 피함	8	1.5
		의무가 아니면 하기 싫음	4	0.8
		혜택도 없고, 시간도 없다며 거절	4	0.8
		개인적인 일 말하는 것 싫음	3	0.6
		약속 피하여 방문하여 설득했으나 강력 거절	3	0.6
		다문화 관련 조사 참여하기 싫음	2	0.4
		찾아오는 것 싫다며 거절	2	0.4
		어머니가 거절하여 아버님께 협조 구했으나 바쁘고 집안 사정 있다며 거절	1	0.2
		지난번에도 학교요청으로 겨우 했다고 함	1	0.2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청소년이 하기 싫어함	40	7.5
		개인 사정으로 거절	17	3.2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	11	2.1

이탈 사유			가구 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있음	청소년의 사정으로 진행 불가(기숙사, 체육부, 소년원, 시설 등)	8	1.5
		어머니 가출, 아버지 거절	4	0.8
		가족 간병으로 바쁨	2	0.4
		남편 사망 후 거절	2	0.4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 자녀 이사. 조사 참여 거절	2	0.4
		가출했다고 함	3	0.6
		어머니 가출 후 타가구원 거절	1	0.2
		어머니 가출, 가구원 거절	1	0.2
		청소년이 친엄마에게 감, 친엄마가 조사 거절	1	0.2
		재수 준비로 바쁨	3	0.6
		군입대	12	2.3
해외 체류	해외 체류	유학, 이민 등	79	14.9
		해외 취업으로 인해 진행 불가	2	0.4
기타	기타	기타(청소년 사망, 친엄마가 한국 사람으로 다시 합가 등)	4	0.8
전체			530	100.0

이 중 2020년의 이탈 사유를 살펴보면, ‘연락 안 됨’이 26.9%로 가장 많았으며, ‘군입대(15.4%)’와 ‘귀찮고 싫어서 거절(12.8%)하였다’는 사유도 높게 나타났다. 2020년은 본 조사 대상 청소년들이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양한 진로 상황에 있으며, 이 가운데 군에 입대하여 패널에서 탈락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유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1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패널 이탈 사유(2020년, 1기 패널)

이탈 사유			가구 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락 안 됨	연락 안 됨	연락이 안 되거나 피함	21	26.9
해외 체류	해외 체류	유학, 이민 등	3	3.8
		해외 취업으로 인해 진행 불가	2	2.6
강력거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강력 거절	8	10.3
		바쁘다며 거절	3	3.8
		아빠가 반대함	1	1.3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음	2	2.6
		약속 후 연락 피함/거절	2	2.6
		귀찮고 싫다며 거절	10	12.8
		관리조사 시 이미 거절 의사 밝혔다며 거절	1	1.3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청소년이 하기 싫어함	3	3.8
		개인 사정으로 거절	4	5.1
		청소년의 사정으로 진행 불가(가족사, 체육부, 소년원, 시설 등)	1	1.3
		가출했다고 함	2	2.6
		재수 준비로 바쁨	3	3.8
		군입대	12	15.4
전체			78	100.0

2) 2기 패널

(1) 배경특성별 패널 이탈 현황

①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

2기 패널은 2019년에 구축되었으며, 2019년에 구축된 패널 중 2020년 패널에서 이탈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전체 패널 유지율은 91.2%(195가구 이탈)로 나타났으며, 시/도별 가구수 대비 패널 이탈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16.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서울(14.9%)로 나타났다.

표 IV-16.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2기 패널)

시/도	전체				유지율 (%)
	구축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시/도별 가구수 대비	
서울	262	39	20.0	14.9	85.1
부산	98	2	1.0	2.0	98.0
대구	93	8	4.1	8.6	91.4
인천	121	13	6.7	10.7	89.3
광주	65	5	2.6	7.7	92.3
대전	54	4	2.1	7.4	92.6
울산	53	4	2.1	7.5	92.5
세종	27	3	1.5	11.1	88.9
경기	499	42	21.5	8.4	91.6
강원	64	3	1.5	4.7	95.3
충북	96	7	3.6	7.3	92.7
충남	151	18	9.2	11.9	88.1
전북	107	12	6.2	11.2	88.8
전남	185	12	6.2	6.5	93.5
경북	142	13	6.7	9.2	90.8
경남	171	4	2.1	2.3	97.7
제주	36	6	3.1	16.7	83.3
합계	2,224	195	100.0	8.8	91.2

- 1) 원표본은 학생임(즉, 학생이 탈락한 가구는 탈락으로 간주하나, 어머니가 거절하고 학생만 조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 가구는 유지로 간주)
- 2) 시도 및 가구유형은 1차년도 조사 기준임(이사로 인해 시도변경, 재혼 등으로 인해 가구유형 변경된 경우가 있음)

②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패널 이탈현황

다문화청소년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가정의 유지율이 86.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국제결혼가정과 중도입국가정의 경우 92.1%와 91.9%로 나타났다. 유형별 패널 이탈률은 조사대상자 특성과도 연관된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유형별 패널 이탈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주된 패널 이탈 사유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IV-17.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유형별 패널 이탈 현황(2기 패널)

가구유형	구축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유지율(%)
국제결혼가정	1,719	135	92.1
외국인가정	356	48	86.5
중도입국가정	149	12	91.9
전체	2,224	195	91.2

③ 월 평균 가구 소득별 패널 이탈현황

월 평균 가구소득별 2기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400-500만원 가구의 이탈률이 10.2%로 가장 높았으며(모름/무응답 제외), 100-200만원 미만(7.4%) 가구의 패널 이탈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0-300만원 미만(8.5%), 300-400만원 미만(8.6%), 100만원 미만(8.7%)의 패널 이탈률은 유사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8.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현황(2기 패널)

월 평균 가구소득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소득별 가구수 대비
100만원 미만	46	4	2.1	8.7
100-200만원 미만	324	24	12.3	7.4
200-300만원 미만	562	48	24.6	8.5
300-400만원 미만	652	56	28.7	8.6
400-500만원 미만	363	37	19.0	10.2
500만원 이상	273	25	12.8	9.2
모름/무응답 ^{주)}	3	1	0.5	33.3
합계	2,224	195	100.0	8.8

주) 월평균 가구소득은 2020년 응답기준으로 각 연도별 탈락 가구는 직전년도 응답 기준임.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한

④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 현황

주관적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을 살펴보면, ‘아주 잘 산다’(12.5%), ‘잘사는 편이다’(11.0%)라고 응답한 가구의 이탈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아주 잘 산다’라고 응답한 패널 가구 수가 8가구로 가구 수가 적어 1가구 이탈의 영향이 이탈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9.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현황(2기 패널)

본인 지각 가정형편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주관적 가정형편별 가구수 대비
아주 어렵다	114	11	5.6	9.6
어려운 편이다	557	41	21.0	7.4
보통이다	1,373	123	63.1	9.0
잘사는 편이다	172	19	9.7	11.0
아주 잘 산다	8	1	0.5	12.5
합계	2,224	195	100.0	8.8

주) 주관적 가정형편은 2020년 응답기준으로 각 연도별 탈락 가구는 직전년도 응답 기준임.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한

⑤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 현황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교 4년제 미만 졸업자의 이탈률이 12.3%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석사졸업자의 패널 이탈률이 4.8%로 가장 낮고, 대학원 박사 졸업자의 패널 이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현황(2기 패널)

어머니 학력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학력별 가구수 대비
중학교 졸업 이하	661	49	25.1	7.4
고등학교 졸업	995	89	45.6	8.9
대학교(4년제 미만) 졸업	235	29	14.9	12.3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288	26	13.3	9.0
대학원 석사 졸업	42	2	1.0	4.8
대학원 박사 졸업	3	-	-	-
합계	2,224	195	100.0	8.8

주) 어머니 학력은 2020년 응답기준으로 각 연도별 탈락 가구는 직전년도 응답 기준임.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한

⑥ 지역규모별 패널 이탈 현황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별 패널 가구 이탈률을 살펴보면, 대도시의 패널 이탈률이 10.1%로 가장 높았으며, 읍/면 지역이 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21.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지역 규모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지역 규모별 가구수 대비
대도시	743	75	38.5	10.1
중소도시	1,151	98	50.3	8.5
읍/면	330	22	11.3	6.7
계	2,224	195	100.0	8.8

주) 지역규모는 2020년 응답기준으로 각 연도별 탈락 가구는 직전년도 응답 기준임.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한

(2) 주요 이탈사유

2기 패널의 주된 이탈 사유는 ‘연락 안 됨’(25.6%)이 가장 많았으며, ‘강력거절’(15.9%)과 ‘코로나로 인해 외부에서 조사원이 오는 것을 꺼려하여’ 조사를 거절한 패널도 14.4%로 나타났다.

표 IV-2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패널 이탈 사유(2기 패널)

이탈 사유			전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구 수	%
연락 안 됨	연락 안 됨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안 받음	50	25.6
강력거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강력거절	31	15.9
		코로나로 인해 조사 거절	28	14.4
		바쁘다며 거절	20	10.3
		아버지가 거절	10	5.1
		이사 후 주소지 안 알려주고 조사 거절	7	3.6
		약속 후 연락 피함/거절/부재	6	3.1
		약속 계속 미루다가 거절	5	2.6
		전화 비수신이며 방문 시 거절	2	1.0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거절	1	0.5
		기분 좋은 조사는 아니므로 거절	1	0.5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바빠서 거절	1	0.5
		매년 조사하고 싶지 않음	1	0.5
		스트레스 받으므로 거절	1	0.5
		아버지가 정부에 대해 부정적이라 거절	1	0.5
		어머니 비수신, 아버지는 바빠서 거절	1	0.5
		이사로 인해 조사 참여가 어려움	1	0.5
		조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거절	1	0.5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이혼 후 조사 참여 거절	3	1.5
		학생이 하기 싫어함	3	1.5
		어머니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	2	1.0
		학생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	2	1.0

이탈 사유			전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구 수	%
		가정 사정으로 거절	1	0.5
		부모님 별거, 아버지 거절	1	0.5
		부모님 병간호로 바쁨	1	0.5
		부모님 이혼, 아버지 거절	1	0.5
		어머니 가출, 연락두절	1	0.5
		어머니 사망, 학생 거절	1	0.5
		어머니 재혼, 학생은 아버지와 살고 있음	1	0.5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10	5.1
전체			195	100.0

○———— 제Ⅴ장

데이터 공개

- 1. 데이터 공개원칙
- 2. 데이터 공개 절차
- 3. 데이터 활용 실적



1. 데이터 공개원칙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하여 학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데이터를 공개하여 현재 1기 패널 8차년도(2018년 조사) 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본 조사는 동일대상을 매년 추적하여 반복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 조사 결과 공개로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분석 결과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18년 데이터 공개 전 패널 전문가와 다문화청소년 및 인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거쳐 데이터 공개와 관련한 원칙 등을 도출하였다¹⁹⁾. 이 원칙을 토대로 일부 문항은 재범주화하였고,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민감한 결과 등 일부 문항은 비공개하였다. 데이터 활용 전 데이터 활용 보안 서약서, 데이터 활용 시 주의사항 등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고 있으며, 위 내용과 연구계획서를 함께 받아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 활용 보안서약서 및 데이터 활용 시 주의사항의 내용은 다음의 [그림 V-1]과 같다.

* V장은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가 집필함.

19) 데이터 공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양계민 외(2018: 99-110) 참조

2. 데이터 공개 절차²⁰⁾

본 조사 데이터는 2018년 12월 말 본원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1기 패널 1~6차년도(2011년~2016년) 조사표, 유저가이드, 코드북을 최초 공개하였고, 2020년 12월 31일에 1~8차년도(2011년~2018년) 데이터를 공개하였고, 2021년 12월 31일에는 1기 패널 1~9차년도(2011년~2019년) 데이터와 2기 패널 1차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데이터 공개 절차는 [그림 V-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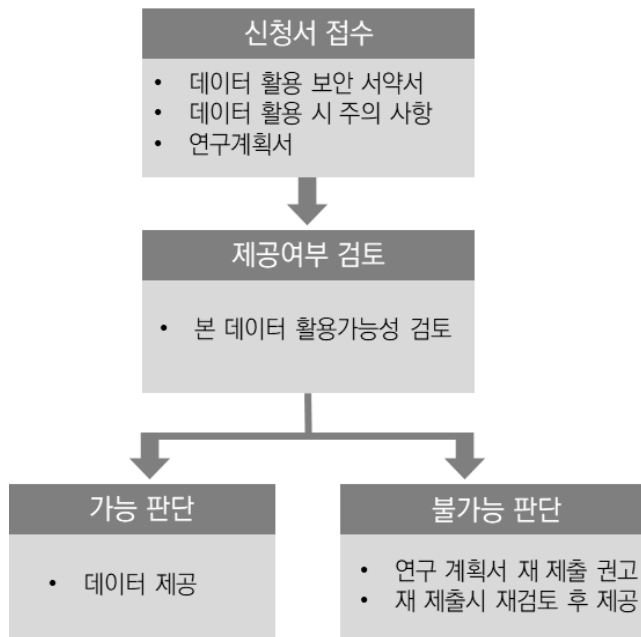


그림 V-2. 데이터 공개 절차

20) 데이터 공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양계민 외(2018: 99-110)의 내용을 참조

3. 데이터 활용 실적²¹⁾

1) 데이터 활용 건수

2017년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1~5차년도 데이터를 공개한 이후, 2018년 12월 31일에 1~6차년도 데이터를 처음 공개하였고, 2019년과 2020년 연말에 1~7차, 8차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이에 따른 데이터 활용건수를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공개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금까지 학위논문과 전문학술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기타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으로 활용된 총 활용건수는 353건이었다.

표 V-1. 데이터 활용 건수

구분		활용실적(편)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	-	5	11	4	20
	석사학위논문	-	-	7	16	16	39
학술논문	전문 학술지 논문	9	13	49	87	91	250
학술대회 발표 논문	MAPS학술대회	32	-	-	-	-	32
	기타 학술대회	1	1	5	2	2	11
기타(타 기관 연구보고서 외)		-	-	1	1	-	2
계		42	14	67	117	113	353

주1) 2017년은 학술대회 참여 후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임.
 * 출처: 양계민 외(2020: 59) 표 III-2 수정

21) 데이터 활용 실적은 양계민 외(2020: 163-179)의 내용을 추가 보완함.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 공개 이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을 주제별로 살펴보면²²⁾, <표 V-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심리사회특성(삶의 만족도, 우울, 자아 존중감 등)과 관련한 연구가 3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생활 및 학습 활동(학습활동, 학교생활 적응, 학업성취 등)에 대한 연구가 21.6%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적응(이중문화 수용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중언어사용, 문화적응 유형 등)과 관련한 연구가 43건(14.4%),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와 관련한 연구가 39건(13.0%), 비행이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등 문제행동/피해경험 관련 논문이 25건(8.3%)이었다. 그 외 기타 자녀양육이나 또래관계, 다문화정책이나 학업중단위험 등의 연구는 23건(7.6%)으로 나타났다.

표 V-2. 연구 주제 건수

주제	활용실적(편, %)
심리사회특성	106(35.2)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65(21.6)
문화적응	43(14.4)
진로	39(13.0)
문제행동/피해경험	25(8.3)
기타(자녀양육, 또래관계, 다문화정책, 학업중단 위험, 기타 등)	23(7.6)
계	301(100.0)

2) 데이터 활용논문 실적리스트

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판된 논문실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위논문

22) 데이터 활용 연구주제는 학술지와 학위논문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학술지 게재한 경우는 학술논문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① 박사학위논문

이름	연도	제목	학교
강유선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궤적과 발달산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김서정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전략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적응특성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김평화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김효선	2020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박순진	2021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손한결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안정성과 상호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오세비	2019	어머니의 문화통합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오혜정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한 다문화가족 정책개선 연구	총신대학교
우안순	2020	부모의 긍정적·부정적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이경원	2021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공동운명모형(CFM)을 적용한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이덕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	대한신학대학교
이은정	201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종단 연구	연세대학교
이현주	2020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한양대학교
장선아	2021	다문화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장은애	2021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발달유형과 예측요인 탐색	계명대학교
장은지	2020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한국어 능력, 진로인식 수준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동아대학교
차한솔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위축 및 국가정체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호운운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및 언어적응 영향요인 연구	충북대학교
박지수	2020	Challenges and adjustment of Korean multicultural adolescents	성균관대학교
박경미	2019	Child well-being in Korea	KDI 대학원

② 석사학위논문

이름	연도	제목	학교
김민수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과 성취동기의 중다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김슬기	2020	(The) Effect of Family Social Capita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in Korea	서울대학교
김유라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김현진	2021	Understanding the key factors associated with well-being and adaptation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in South Korea	이화여자대학교
남상혁	2019	다문화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순천향대학교
민예지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배가령	2021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동아대학교
송현주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신연주	2019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 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성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신은영	2020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왕예비	2020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라대학교
우영숙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정서요인, 부모진로지지, 자아존중감, 진로장벽과 진로태도결정성과의 구조적관계	가야대학교
유가환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자본 잠재프로파일유형과 진로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육주홍	201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경험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윤빛나	2019	포레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송실대학교

이름	연도	제목	학교
윤수민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윤예린	2020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대한 다문화멘토링 사업 효과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이미화	2020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신체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동신대학교
이선민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이아림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이은화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이지혜	2021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심리적 변인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이현정	2020	다문화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임정소	2019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임지현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이 우울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정주미	2020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영향 검증	부산대학교
조강현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조수빈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숭실대학교
조연	2021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관계	충남대학교
조은완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집단 괴롭힘 피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충북대학교
최은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른 학업적응 차이	연세대학교
최은지	2021	고등학교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최지예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태도와 외국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남대학교

이름	연도	제목	학교
최지원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긴장이 비행과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허은주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정서요인, 성취동기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구조적 관계	가야대학교
허차정	2021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Cui, Lina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Jin, Huiling (김혜령)	2021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녀 우울의 매개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Li, Ling	2020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2) 학술논문

① 국내 학술논문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강민구, 박상희,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주 사용언어에 미치는 다문화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30(1)
강민구, 박상희	2021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경험에 따른 다문화요인 분석	인문사회21, 12(6)
강하라	2021	다문화 가족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모 양육 행동을 매개로 초기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현대사회와 다문화, 11(2)
강하라, 노충래	2021	중학생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외모 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30(1)
강희경	2019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청소년기 자녀 진로 지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2)
경예나, 박선영	202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청소년 자녀진로태도 간의 관계: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녀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2(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고은선, 김성훈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2
고은선, 전한성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우울 간의 종단관계 연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여	학부모연구, 8(1)
곽지영	2020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유형에 따른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 조사연구, 65
구자민, 윤희선, 이상록	2021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구 빈곤이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5)
구하라, 모경환, 성상환	2020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도 및 참여유형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6(5)
권민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체육특기적성활동 참가와 교우관계 및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웰니스 학회지, 15(1)
김기영, 고은선	2018	다문화교육지원정책에 대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인식과 요인 분석	교육혁신연구, 28(1)
김동순, 박봉선, 이의빈, 손가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 조사연구, 64
김미진, 김경은	2021	중등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군집유형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4(1)
김민선	2019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적응 변화와 관련요인 분석: 한국어 능력, 성취동기, 진로장벽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연구, 8(4)
김민선	2020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변화와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연구 :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부모연구, 7(1)
김민주, 윤기봉	2018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 지, 13(1)
김서정	2021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다문화청소년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변화와 영향요인	교육학연구, 59(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김소영, 홍세희	2019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프로파일의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유형에 미치는 영향: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하여	조사연구, 20(3)
김영미	2020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육아정책연구, 14(2)
김영미, 현안나	2020	다문화청소년의 맥락적 요인과 진로장벽, 진로결정 수준의 구조적 관계 및 성별간 다집단분석	학교사회복지, 49
김우진, 정지아, 심태은, 이송이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이중문화수용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28(4)
김원영, 김경식	2020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2)
김원영, 정나은	2020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 관련변인에 대한 종단적 탐색: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4)
김원영, 정나은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적 탐색	교육연구논총, 41(4)
김유미, 황예린	2021	다문화학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결정성: 다문화 학부모의 진로지지와 자녀의 진로장벽 인식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20(4)
김윤희, 김현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 가족지지 및 한국어 능력과 학교적응의 종단적 발달경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김윤희, 김현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종단적 교우관계 발달	청소년학연구, 27(9)
김은혜, Cui, Lina, 노 충래	2019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가족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매개효과, 다집단분석	한국아동 복지학, 68
김은혜, 최려나, 노충래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학교생활적응 간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	한국아동복지학, 70(3)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김자경, 오혜정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진로결정성, 진로장벽 인식의 관계: 이주여성 어머니의 진로 관련 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3(1)
김정은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사회적 위축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1(3)
김준범, 박성훈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1
김중곤	2020	집단 괴롭힘 피해가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차별적 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8(2)
김지혜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7(3)
김준경, 조민규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매개로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 연구, 34(4)
김평화, 윤혜미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7(1)
김현아	2020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 관련 변인의 군집유형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과 신체 및 삶의 만족도 차이	현대사회와 다문화, 10(4)
김혜경, 어윤경	2021	학업중단 위험요인과 진로장벽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진로활동, 성별, 지역의 개인차 효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4(3)
김혜금	2020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4)
김혜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및 다문화수용성이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12(1)
노보람, 정정화, 최나야, 이강이	2019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외모만족도와 한국어능력의 종단적 영향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3)
노보람, 최나야	2020	성장혼합모형(GMM)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또래 지지 변화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31(4)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노필순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청소년기 자녀가 인지한 부모관심,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8)
당징야, 진미정	2019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습활동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 내 교육참여, 공적 교육 지원, 사교육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2)
맹미숙, 천미정, 정영심	2021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19(4)
모상현	2018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54
목소리, 서보림, 정재경, 강민주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3)
민예지, 강현아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3(2)
박경미	2019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21(4)
박동진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2)
박동진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융합정보논문지, 9(9)
박동진, 김송미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21(3)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6(2)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보건과 복지, 23(1)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의 순차적 매개효과	융복합지식학회 논문지, 9(2)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11(8)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9(8)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교육과학연구, 23(3)
박동진, 김송미, 이지연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박동진, 이지연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6(3)
박명희	2017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10(4)
박미현, 김희숙, 김린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초기 자아 탄력성과 연도별 친구관계 지지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3)
박민아, 한명희, 서지영	2021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32(2)
박송주, 이보라	2021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 자원에 따른 군집과 고교진학 유형 차이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2(3)
박용한, 이신동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발달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박일태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9(2)
박정윤, 박현지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2)
박정윤, 채지은, 조몽적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4(2)
박준호, 성용은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변용수준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18(3)
박지수, 김하영, 한윤선	2021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유형별 예측요인: 긴장이론, 사회유대이론 및 사회학습이론의 적용	청소년복지연구, 23(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박현주, 양영자	2020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8)
박혜숙, 양상희	2017	한국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 변화 양상	한국교육문제 연구, 35(4)
박희서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 학회논문지, 26(11)
백승희, 박소영, 정혜원	2018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적 변화추정	교육학연구, 56(1)
백종규, 염동문	2018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다문화사회 연구, 11(1)
봉초운, 정윤화, 홍세희	2018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한국청소년 연구, 29(3)
서봉연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비행 참여요인 탐색	현대사회와 다문화, 9(2)
서현석, 김태균	2020	가족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효학연구, 31
성윤희, 장은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결정성의 관계: 진로장벽을 통한 자존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손신영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학교지역보건 교육학회지, 20(3)
손한결, 김은혜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성취동기 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8(4)
손한결, 신나나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안정성과 상호 영향	청소년학연구, 27(12)
송원일	2021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적 역할	다문화아동청소년 연구, 6(3)
송은, 임 동선	2020	중학교 2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과 모국어 사용 정도에 따른 군집분석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20(11)
신연주, 이경순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성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평생학습사회, 15(3)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심령	2020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들 성취동기의 종단적 변화추정과 관련 요인 탐색	다문화교육 연구, 13(3)
안혜우, 엄명용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 융합적 대응방안 모색	한국융합학회 논문지, 11(6)
안혜진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19(12)
양계민	2016	종단연구분석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발달과 정책과제	다문화아동청소년 연구, 1(3)
양영미, 이선영	2020	부모의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위축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3(4)
연은모, 최효식	2019	다문화가정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에 따른 잠재집단 탐색 및 잠재집단별 자녀의 진로, 심리, 학업 특성 차이 검증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19(8)
연은모, 최효식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진로관련행동, 진로장벽인식 간 관계: 자녀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19(10)
연은모, 최효식	2020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잠재프로파일의 종단적 변화 및 영향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3)
연은모, 최효식	2020	잠재계층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취 동기 변화 유형 및 예측요인 탐색: 학업성취 수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2)
연은모, 최효식	2020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 추정 및 예측요인 탐색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7)
연은모, 최효식	2020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에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9)
염동문	201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종단적 변화양상과 변화양상별 영향요인	복지상담교육 연구, 8(2)
염동문, 임채영, 김한솔	2019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유형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 잠재프로파일분석 활용	사회과학연구, 35(3)
오동균	2019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방임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중등교육연구, 67(3)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오서진	2021	가족,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8차)를 중심으로	여가복지경영연구(여가복지), 2(1)
오세현, 민예지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외모만족도와 우울감의 이중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55
오정아, 이영주, 김평화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예측모형 탐색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6)
오혜정, 손병덕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학교생활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12)
우안순, 백진아	202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9(1)
유승희	2020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문화정체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4(1)
유승희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연구, 14(1)
유승희	2020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관련 요인, 성취동기, 학업적응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5)
유승희, 최충	2020	중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과정과 생태체계적 요인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2(3)
유지애	2020	자녀 학교생활 중개인(broker)으로서의 다문화가정 어머니 역할에 대한 검토-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녀 학교생활 참여가 자녀 학습활동, 어머니 한국어 능력, 어머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7(2)
유지희	202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과 양육효능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53
유창민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 유형	다문화사회연구, 13(3)
유효은, 이원기, 이창한	2019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피해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인행정학회보, 28(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윤미리, 장유나, 홍세희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수용성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직렬다중매개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3)
윤예린, 오범호	2020	다문화멘토링 사업 참여가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교육, 31(4)
윤은영	2019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학교적응의 종단적 관계 연구	다문화와 평화, 13(2)
윤지영, 허은정	2017	다문화가정의 부모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교육문화연구, 23(6)
윤형덕, 임준, 김 태균,	2020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지지,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가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효학연구, 32
윤희주, 최효식	2019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따른 방임 및 자녀의 학업성취 차이 : 성장호르몬형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2)
윤희주, 최효식	2020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에 따른 진로관련 행동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 차이	한국산학기술학 회논문지, 21(12)
윤희주, 최효식	2021	다문화 가정 부모의 진로관련지지 행동 변화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 진로장벽 차이	한국산학기술학 회논문지, 22(11)
은선민, 이수현, 이강이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궤적 유형화: 유형 예측요인과 유형별 심리·사회적응	한국청소년 연구, 30(2)
이강훈	2019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사회적지지, 아동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아동교육, 28(4)
이경원	2021	다문화 가정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공동운명모형(CFM)을 적용한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68(1)
이래혁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 감독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51
이래혁, 이재경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취동기를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55
이래혁, 장혜림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양육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 복지학, 66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이래혁, 장혜림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습태도의 관계 - 자아탄력성을 통한 친구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 환경, 17(3)
이래혁, 장혜림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교우관계와 사회적위축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문화 포럼, 62
이래혁, 장혜림	2021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 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 스, 우울, 방임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11)
이래혁, 채황석, 오채민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성취동기의 관계에서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49
이래혁, 최홍일	2020	다문화가정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일상생활 스트레스, 부모효능감, 방임적 양육태도를 통해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 복지학, 25(2)
이민술, 문국경	202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교사와의 관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1(2)
이민술, 박성철	202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을 조절변수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2)
이보영	2021	어머니의 진로 관련 지지 행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 진로 교육 및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진로 태도를 매개로	청소년학연구, 28(6)
이상은, 최나야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에서 이중문화 경험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 회지, 39(1)
이소연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29(1)
이수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의 발달양상에 따른 잠재 계층 분류 및 계층별 예측요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탐색	다문화교육 연구, 13(3)
이승현, 황성현	2021	다문화청소년 비행에 대한 범죄이론의 상대적인 영향 력 검증	한국공안행정학 회보, 30(2), 187-210
이영주, 박륜경, 이수경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심리적 적응 및 학교적응	교육문화연구, 23(5)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이원기, 유효은, 이창한	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발달계적과 선정요인에 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33(1)
이원기, 유효은, 이창한	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 회보, 74
이원석	2019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14
이윤영	2019	다문화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일탈 친구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 에이션학회지, 43(1)
이윤영	2019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3(1)
이윤정	2019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교사·친구지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2)
이은경, 이선희	2019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에 의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6)
이은주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예측요인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에 대한 4가지 언어 사용능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중심으로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5(2)
이은택, 이은경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	미래청소년 학회지, 14(4)
이지선, 김정민	2021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 국가정체성 및 또래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2)
이지숙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비행과의 관계: 국가정체성,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분석	학교사회복지, 48
이진경, 김혜미	2019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비교 연구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11(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이진경, 이해정	2019	이중언어요인과 이중문화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0(4)
이진석, 장대연, 최선아	2020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6
이창훈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와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2(2)
이현, 이경원,	202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과 분류 예측요인 탐색연구 - 잠재프로파일과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하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2)
이현주, 차윤경	2020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이주배경여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3(1)
이형하	2020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4)
이형하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진로 · 양육지원과 교사관계, 진로준비성, 진로결정성의 구조적 관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5)
이형하	2021	부모의 스트레스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학업중단위험 간 종단적 인과관계: 자기회귀교차치연모형 적용	디지털융복합연구, 19(6)
이혜미, 김유미	2019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식발달의 관계: 성취동기와 진로관련 부모행동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이희정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변화과정과 학교 적응	한국사회학, 52(1)
인효연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지각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4(10)
임동선, 김선영, 김성진, 김소은, 양윤희	2021	다문화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언어 능력 종단분석: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6(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임동선, 김지애, 오수진, 조수정, 박원정	2021	다문화 학생의 모국어 사용이 학생 및 부모요인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연구, 30(1)
임동선, 백수정, 김송이, 한지윤	2020	다문화 가정 내 모국어 사용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 능력 및 사회적지지 탐색	다문화교육 연구, 13(3)
임선아	2018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 경험과 학교적응 : 자아탄력성과 도움을 주는 어른의 보호역할 검증	아동과 권리, 22(2)
임숙희, 이진경	202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인문사회 21, 12(5)
임양미	2019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과교육 학회지, 31(3)
임양미	201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참여와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8(6)
임양미	2020	결혼이주여성의 학교활동 참여와 부모효능감 및 중학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 종단적 상호 영향 분석	인간발달연구, 27(2)
임양미	2021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이 중학생 자녀의 진로장벽인식에 미치는 영향: 진로지원행동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및 성별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30(1)
임은의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10(11)
임은의, 박미현	202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과 자녀진로지원행동의 관계: 자존감의 조절효과	다문화와 평화, 15(2)
임정수	2021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다문화 처오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14(3)
임효진, 황매향, 최희철	2020	다문화 가정 자녀의 아동 · 청소년기 자기존중감의 다중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20(8)
장선아, 고정훈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 -사회적 지지 매개 효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장유나, 오현정, 안소영, 홍세희	2020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검증	한국교육학연구, 26(4)
장유진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학업성취의 차이	글로벌교육 연구, 11(4)
장은실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대한 종단분석 : 우 울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21(12)
장은지	2021	이주배경청소년 학업성취 관련 요인의 지역 간 구조적 모형 비교 연구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21(20)
장혜림, 이래혁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47
장혜림, 이래혁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을 통한 가족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 과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70(1)
전대성	2021	이민의 역설에 대한 탐색적 연구: 다문화가정 청소년 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2)
전혜숙, 김진영, 전종설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결정성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6(10)
전혜숙, 전종설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및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8)
정나은, 김원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성 결정요인에 관한 구조적 관 계 분석: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위축을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 15(4)
정나은, 김원영	2020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결정성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적 탐색 :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5)
정두수, 백진아	2020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이중문화수용태도, 집단따 돌림 및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융합정보 논문지, 10(10)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정은아, 이소자	2021	어머니의 진로관련 행동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학업적응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19(4)
정재훈, 황성현, 박희균	2021	다문화청소년 비행 및 범죄와 범죄친구와의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3(3)
정주미, 이동형	2021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 궤적: 잠재계층 분류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영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32(1)
조성희, 박소영	2020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지역사회인식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8(2)
조성희, 박소영	2020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22(3)
조성희, 박소영	2020	다문화가족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 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4(3)
조성희, 박소영	202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족 정책지원 이용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2)
조승연	2021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정책 참여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콘텐츠연구, 36
조연, 손은령	2021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관계 :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21(9)
조영선, 조영일	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집단에 대한 종단적 변화 유형 및 심리사회적 특성	인문사회21, 10(5)
조영선, 조영일, 박수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1(3)
조옥선, 방해순	2018	융복합 시대에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 :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융합정보 논문지, 8(4)
조윤영, 정현희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에 따른 잠재계층 전이 양상 및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28(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조혜영, 오민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교사관계가 우울 및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20(11)
주소희, 오인근, 안세진	2021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성과 성취동기와의 관계연구: 사회적위축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3)
천지은, 박지선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 의 관련성	사회적질연구, 5(2)
최가희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응 스트 레스, 부모효능감에 대한 종단연구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20(8)
최미선, 김연옥	2020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21세기 사회복지 연구, 17(1)
최선엽	2021	Factors influencing positive subjective health awareness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outh Korea: Data from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7(4)
최소연	2021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Schoo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인문사회과학연구 , 64(4), 5-22
최정석, 최석규	2020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결정태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1(5)
최정윤, 유두호	2021	다문화가정 자녀의 국가정체성 형성: 주변환경과 정책 적 지원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8(2)
최지원, 한윤선	2021	다문화청소년의 언어긴장이 비행과 학교부적응에 미 치는 영향: 계승어 능력, 자아존중감, 부모지지의 조절 효과 탐구	청소년복지연구, 23(3)
최태진	2019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연령 변화에 따른 사회적 지지 요인의 변화 분석 및 사회적지지 잠재집단 유형과 심리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31(6)
최태진	202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에 관한 연구 : 어머니 자신의 적응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8)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최효식, 연은모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변화에 대한 부모감독, 문화적응 스트레스, 또래관계의 동시 및 지연효과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20(18)
하여진	2021	다문화 청소년 지지유형 분류 및 인지·정서발달 차이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2)
하여진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와 진로장벽에 따른 잠재프 로파일분석과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23(2)
하여진	2021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효과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4(3)
하여진	202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스트레스 잠재계층 유형분류 및 자녀특성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6)
하영진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21, 10(6)
하영진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연구, 37(2)
한광현	2020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궤적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8(1)
한광현, 강상경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수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스트레스 과정 모델 검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7(1)
한광현, 강상경	202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간의 중단적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8(1)
한수연, 양미석, 박용한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발달양상에 따른 성취동기의 중단적 변화 탐색	교육문화연구, 26(3)
한지혜, 김경희	2020	부모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64(1)
허나영, 김두섭	2021	Am I "Korean"? Effects of Social Support Network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on National Identity and Dual Identity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한국인구학, 44(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홍나미, 박현정	2017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미래사회복지연구, 8(2)
홍성초, 조제성	2020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우울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발달궤적의 차이 검증	한국치안행정논집, 17(4)
홍성초, 조제성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유형별 범죄이론 영향요인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7(1)
홍진승, 이영선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직렬이중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7(2)
홍현정, 안도희	2021	다문화 가정의 배경 특성과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 교우관계, 학교 적응 및 삶의 만족도 탐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2)
Hyoung-Ha Lee	2019	A Longitudinal Study on the Parenting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Verification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4(11)
Jung, Hoyong	2020	An Examination of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Identity of Parents and Children: Evidenc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OMNES, 10(2)
Kim, Eun Hye, Nho, Choong Rai	2020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family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n multicultural adolescents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14(3)

② 해외 학술논문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Bae, Sung Man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identity,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Verification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ling.	Stress and Health, 36(1)
Bae, Sung Man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Verification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74
Choe, Chung, Yu, Seunghye	2021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and their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and ecological perspective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Choe, Danbi	2021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st child neglect, social relationships, and school dropout risk for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112
Choi, Jaeyong, Kruis, Nathan, Lee, Julak	2021	Target Congruence as a Means of Understanding the Risk of Bullying Victimization among Multicultural Family Youth in South Korea	Crime & Delinquency
Joung, Kyoung Hwa Chung, SungSuk	2020	Factors Related to Depressive Symptom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Jung, Hoyong	2020	I am a Real Korean: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Multicultural Youth's National Identity	Asian Studies Review, 44(4)
Lee, Eun Jee, Jeong, Sookyung	2021	Analyzing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outh Korea: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7)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No, Boram, Kang, Sujeong, Lee,NamKyun g, Choi, Naya	202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rajectories of Ego-resilience, Neglectful Parenting, Bilingual Competency, and Acculturative Str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outh Korea	Sustainability, 12(5)
Oh, Hyejeong, Kim,Jinho	2021	Affective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The cas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29
Park, Si-On, Bae, Sung-Man	2021	The verification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Current Psychology, 40
Song, Min Kyung Yoon,Ju Young Kim,Eunjoo	2020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Longitudinal Analysis Using Latent Class Growth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21)
Yoo, Changmin	2021	Acculturation strategies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in South Korea: Marginalization, separation,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81

(3) 학술대회

①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MAPS 학술대회)」

이름	제목
김기영, 고은선	다문화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대상·내용·방법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
김남희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 인지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
김민주, 윤기봉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적 효과
김양희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김우진, 심태은, 정지아, 이송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김원영, 김경식	사회적 지지가 남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김준범, 박성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 자아탄력성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지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박명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박애스더, 김두영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 2011~201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박용한, 이신동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
박혜숙, 양상희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만족도 변화
백승희, 박소영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초·중학생들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추정과 영향요인 검증
백종규, 염동문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봉초운, 정윤화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IM)의 적용
서봉언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관련요인 탐색

이름	제목
오정아, 한애경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모형 탐색
유봉애, 옥경희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성별에 따른 차이 연구
윤지영, 허은정	다문화가정의 부모 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검증
이소연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의 구조관계
이영주, 박륜경, 이수경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및 심리적·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이응택, 이은경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이희정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이 한국사회 어울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효연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임선아	다문화청소년의 따돌림경험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 내·외 지지자의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 검증.
장주리	MAPS를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Resilience)이 결핍에 미치는 영향력
정민아, 김은혜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성차 비교
정호용	정부 지원 정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조옥선, 방해순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현주, 하영진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 개인 간/개인 내 변화를 중심으로
한애경, 김평화, 오정아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성별과 학령기를 중심으로
홍나미, 박현정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② 외부학술대회

이름	연도	제목	학술대회
김미희, 최가희	2021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집단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수용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노보람, 정정화, 최나야, 이강이	2018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변화유형 및 예측요인	2018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신형진	2017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 사회화 유형 : 201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분석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이은지, 정수경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 영향요인 비교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이형하, 라연희, 송현주, 용정미, 윤정희	2019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2)
이형하, 김지선, 김지원, 송현경, 최 은	2019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사회적위축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2)
임양미	2019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교육학회 학술대회, 6
장은애, 정현희	2020	다문화가정 초기청소년의 문화정체성 잠재프로파일과 영향요인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조정래	2021	다문화청소년의 비가시적 소수자 특성은 학교 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할까? 다문화청소년의 외모적 차이와 그 영향분석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한광현	2019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계적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 복지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11
한도현, 안명인	2019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8

(4) 기타 연구보고서

이름	연도	제목	보고서명
김경근	2019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 및 발달 추이	한국의 사회동향 2019
조승연	2020. 08.14.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결정 요인 분석.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토의용 논문 W50



제 2 부



심층분석

○ — 제Ⅵ장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 2.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 3.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기회 격차
- 4. 소결

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본 연구에서 개념화한 ‘다문화청소년’은 체류자격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을 지닌 만 9세에서 24세 연령에 속하는 자(양계민, 강경균, 2017: 21)로 정의한다. 단, 이주의 경험에는 북한에서의 이주는 제외한다. 이와 같이 정의된 다문화청소년은 본인의 출생지(국내출생 또는 국외출생)와 부모의 배경(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따라 아래 [그림 VI-1]과 같이 세분된다.

	한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	외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
국내출생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 출처: 양계민 외(2020: 278) 그림 IX-1

그림 VI-1.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구분

즉,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다문화청소년에는 ① 국내에서 출생한 한국인과 외국

* VI장은 장윤선(대구교육대학교 조교수)이 집필함. 단, 3절의 2) 지역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기회격차는 한지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집필함.

인 결혼가정의 자녀를 의미하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②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의 자녀인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③ 외국에서 출생하여 국내로 이주한 한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의 자녀에 의미하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④ 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의 자녀에 해당하는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가 포함된다.

개념적으로는 위에서 기술한 네 가지 유형의 집단이 모두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다문화청소년에 포함되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현황통계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는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 다문화학생 현황이 유일하므로 이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패널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실제 본 연구의 1기와 2기 패널에 포함된 다문화청소년은 패널 구축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다문화청소년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패널 구축 시점 이후에는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1차년도에 패널로 구축된 모든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하여 패널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2.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이하에서는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의 1기 패널이 구축된 201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 규모와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과 교육부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의 다문화 학생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정부부처마다 통계를 생성하는 주요 목적과 수행업무가 차이가 있으므로 두 통계에서 정의하는 다문화청소년의 개념과 범위는 서로 동일하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 정의한 다문화청소년의 개념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정의한 다문화청소년과 가장 근접한 개념의 다문화청소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두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1) 다문화청소년의 규모 변화 추이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부터 매년 공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가운데 외국인주민 자녀와 관련된 항목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의 외국인주민 자녀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로 정의되며,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만 집계하여 공표한다(행정안전부,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다문화청소년에 포함되는 국내·외 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현황은 해당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는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151,154명에서 204,204명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 소폭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기준 264,626명에 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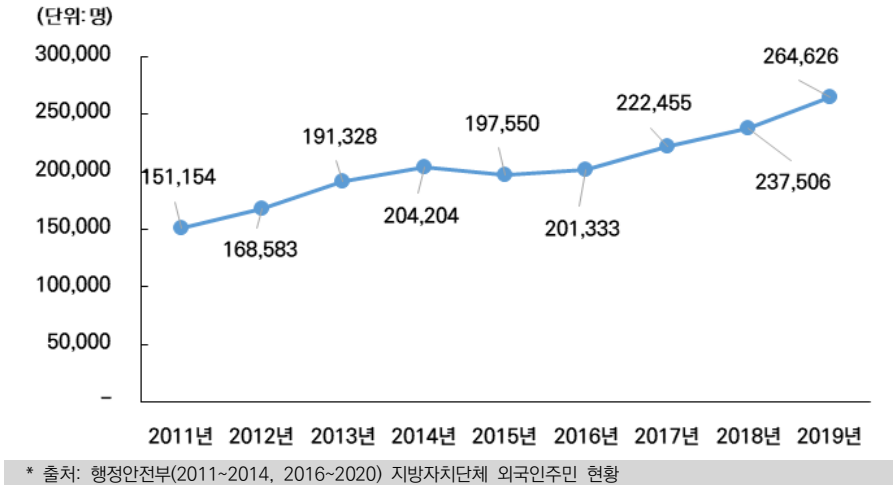


그림 VI-2.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2011~2019년)

교육부에서는 2012년부터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 항목에 다문화 학생 현황을 추가하여 공표하고 있다. 교육기본통계 다문화 학생 현황은 기본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문화 학생의 유형을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로 세분한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의 규모는 2012년 46,954명에서 2020년 147,37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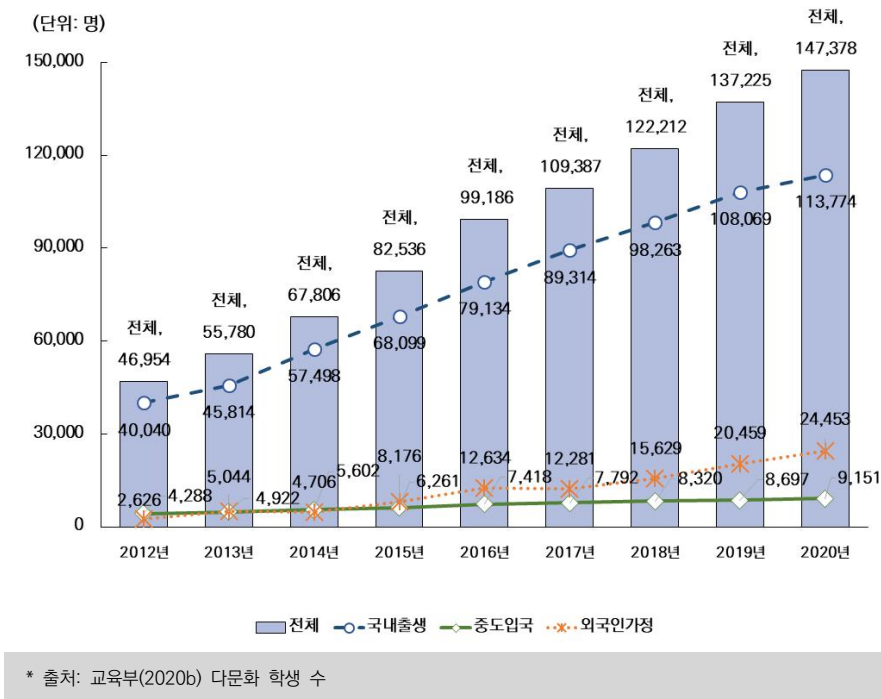


그림 VI-3. 다문화 학생 현황 (2012~2020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다문화 학생 유형은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이다.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의 수는 매년 꾸준

히 증가하였으나 전체 다문화 학생 중에서 이들의 비율은 2012년 85.3%에서 2019년 80.4%로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외국인가정 자녀는 2012년 기준 2,626명으로 전체의 5.6%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하여 2020년 기준 24,453명으로 12.8%까지 그 비율이 높아졌다.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자녀 수도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 다문화 학생 수의 증가 수준을 고려할 때,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9.1%에서 2020년 6.8%로 낮아졌다.

2) 연령 및 학교급별 다문화청소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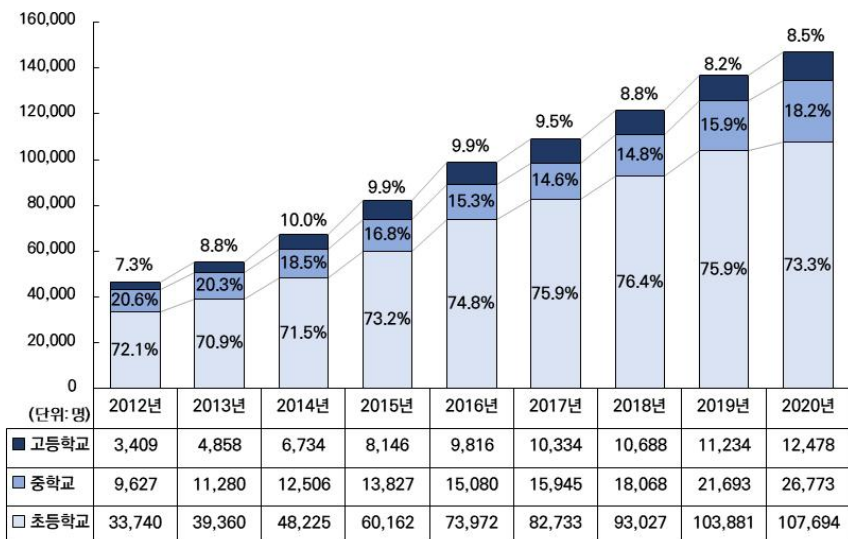
다문화청소년의 연령 및 학교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을 각 학교급에 대응되는 연령대인 0~6세, 7~12세, 13~18세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미취학아동에 해당하는 0~6세 사이의 외국인주민 자녀는 2016년 113,506명으로 전체의 56.4%였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취학아동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44.2%(117,045명)로 낮아졌다. 외국인주민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대와 중·고생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규모는 점차 증가 추세를 보였다. 7~12세 사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는 2016년 56,768명에서 2019년 104,064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6년 28.2%에서 2019년 39.3%로 높아졌다. 중·고생에 해당하는 13~18세 사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역시 2016년 31,059명(15.4%)에서 2019년 43,517명(16.4%)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7~12세 보다는 작았다.



* 출처: 행정안전부(2017~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그림 VI-4.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2016~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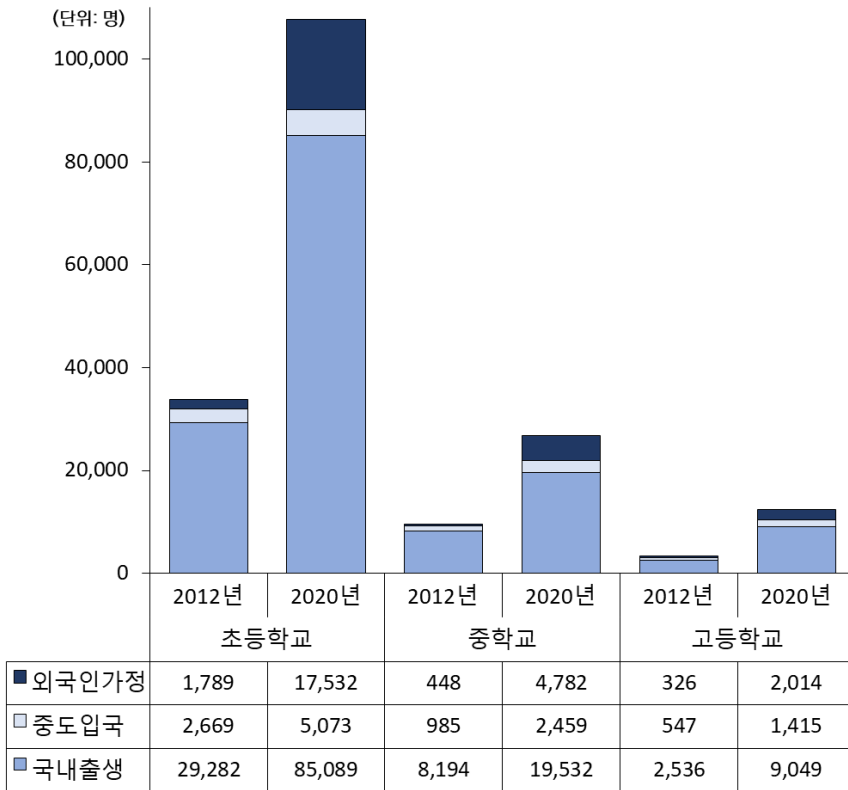
교육부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를 통해 파악한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현황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의 수가 좀 더 많았다. 각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 비율은 2012년 72.1%(33,740명)에서 2018년 76.4%(93,027명)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 이후 소폭 하락하여 2020년 73.3%(107,694명)를 차지하였다. 중학생 비율은 2012년 20.6%(9,627명)에서 2017년에는 14.6%(15,945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8년 이후 증가추세로 바뀌어 2020년 18.2%(26,773명)에 도달하였다. 이와 반대로 2012년에 7.3%(3,409명)인 고등학생의 비율은 증가하다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바뀌어 2020년 8.5%(12,478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교육부(2020b: 5) 표 5. 다문화 학생 현황

그림 VI-5.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현황 (2012~2020년)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현황의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과 2020년 각 학교급의 유형별 다문화 학생 수를 비교해보았다. 학교급 및 유형별 다문화 학생 현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외국인가정 자녀,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가정 자녀의 규모다. 2012년 1,789명에 불과하였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가정 자녀의 수는 2020년 17,532명으로 약 10배 증가하였고, 마찬가지로 중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수는 2012년 448명에서 2020년 4,782명으로 10배 이상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2012년에 비해 2020년 다문화 학생의 배경이 더 다양하고 복잡해졌음을 보여준다.



* 출처: 교육부(2020b: 5) 표 5. 다문화 학생 현황

그림 VI-6. 학교급 및 유형별 다문화 학생 수 현황 비교 (2012, 2020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서 공표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통계에는 미성년자녀만 포함되며, 교육부 다문화 학생 현황 역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18세 이상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다문화청소년의 현황은 두 통계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현재 공표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관련 통계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다문화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해볼 수 있다. 전국다

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며, 가장 최근에 실시된 조사는 2018년 실태조사이다. 2009년 실태조사를 제외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공표되는 통계는 전체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값이다. 다문화가구 자녀의 경우, 2018년도 조사부터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따라서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2012년과 2015년의 결과와의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최윤정 외, 2019). 2018년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고된 다문화가구 자녀의 연령 분포는 아래 [그림 VI-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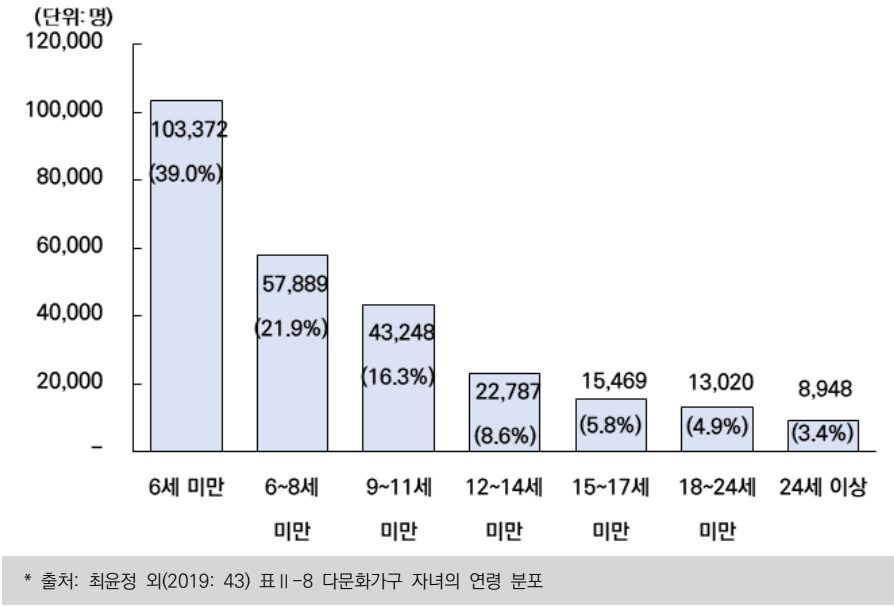


그림 VI-7. 연령별 다문화가구 자녀 현황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구 자녀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구성된 가정의 자녀로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의

외국인주민 자녀와 기본 개념은 동일하나 실태조사의 목적에 따라 일부 집단이 제외 또는 추가되었다. 2018년 실태조사 결과,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8~24세 미만인 다문화가구 자녀는 13,020명으로 전체의 4.9%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배경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9~11세 연령대의 절반 정도는 국내에서 성장하였고,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비율은 22.0% 정도였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18세 이상 연령대는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경우가 42.9%로 가장 많았고, 국내에서 성장한 경우는 10.3%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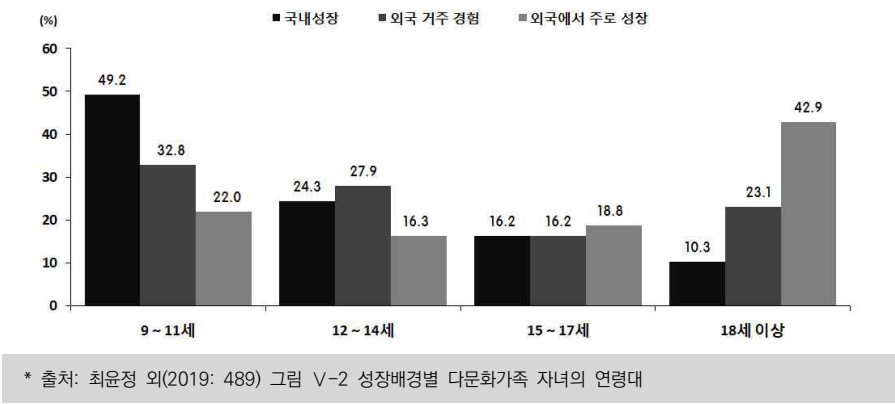


그림 VI-8. 연령대별 다문화가구 자녀의 성장배경 (2018년)

양계민 외(2020)는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국제결혼가정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다문화가구 자녀의 규모를 가중치 적용을 통해 추정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달리 아래 [그림 VI-9]에 제시된 다문화청소년의 규모는 통계청의 등록센서스 전수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규모로 앞서 제시된 2018년 실태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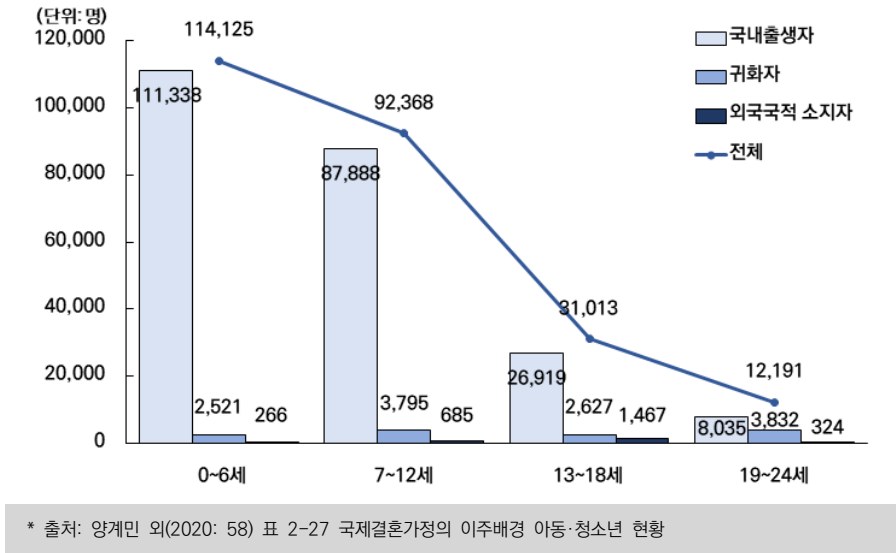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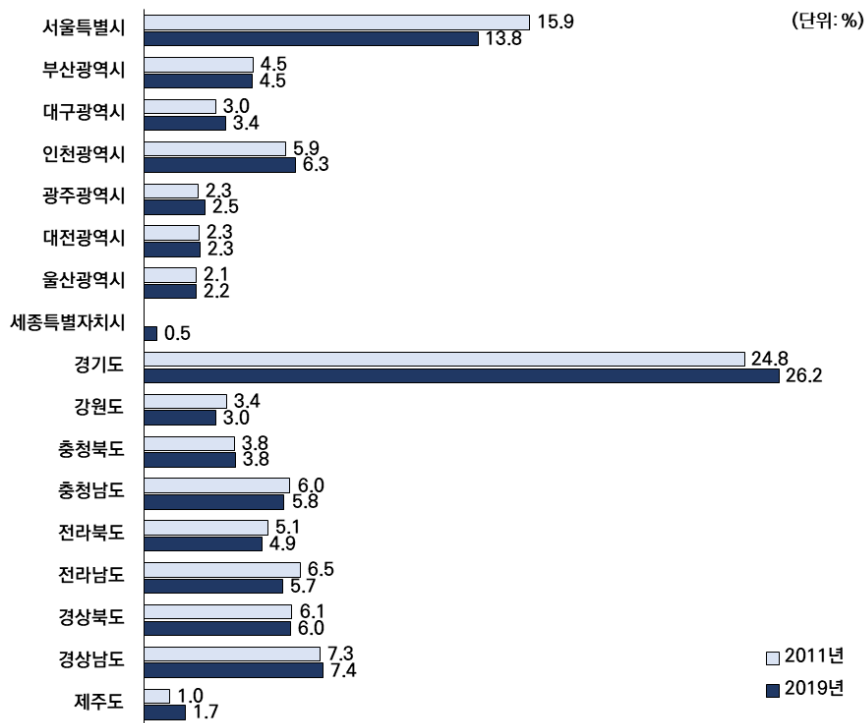
그림 VI-9. 연령별 국제결혼가정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에서도 부모 중 한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소지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만 포함되어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국내출생자의 규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외국국적을 소지한 다문화청소년의 수는 13~18세가 1,467명으로 가장 많았다.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9~24세 다문화청소년은 12,191명으로 전체 249,697명의 약 5% 정도를 차지하였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귀화자의 비중이 약 31%(3,832명)로 높은 편이었다.

3) 지역별 다문화청소년 현황

이어서 외국인주민 현황을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

보았다. 1기 패널이 구축되었던 2011년과 2기 패널이 구축된 2019년의 시·도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주민 자녀가 가장 많은 지역은 2011년과 2019년 모두 경기(2011년 24.8%, 2019년 26.2%)였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9년의 비율이 소폭 높아졌고, 이와 반대로 서울의 비율은 다소 낮아졌다. 광역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한 반면, 경기와 경남, 제주를 제외한 도지역의 비율은 9년 사이에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 출처: 행정안전부(2011: 10, 2020: 72) 시·도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그림 VI-10. 시·도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2011, 2019년)

표 VI-1. 외국인주민 자녀 거주 상위 20개 시·군·구 (2011, 2019년)

순위	2011년		2019년	
	시·군·구	명	시·군·구	명
1	경기 안산시	4,358	경기 안산시	6,209
2	경기 부천시	2,958	경기 수원시	5,340
3	경기 수원시	2,824	경기 부천시	4,862
4	경기 성남시	2,524	경기 화성시	4,839
5	경남 창원시	2,459	경기 시흥시	4,689
6	경기 고양시	2,010	경남 창원시	4,565
7	서울 영등포구	1,987	경기 평택시	3,758
8	경기 시흥시	1,962	경기 용인시	3,699
9	인천 부평구	1,870	충북 청주시	3,664
10	충남 천안시	1,822	경기 고양시	3,658
11	서울 구로구	1,649	충남 천안시	3,551
12	경기 남양주시	1,649	경기 성남시	3,534
13	경기 용인시	1,585	인천 부평구	3,322
14	경기 화성시	1,561	인천 서구	3,213
15	부산 김해시	1,553	제주 제주시	3,155
16	경기 평택시	1,524	부산 김해시	3,075
17	서울 관악구	1,485	인천 남동구	2,965
18	인천남동구	1,474	경기 남양주시	2,953
19	서울 강서구	1,434	서울 구로구	2,846
20	전북 전주시	1,429	광주 광산구	2,713
	계	40,117	계	76,610

※ 2011년과 2019년 모두 상위 20개에 포함된 시·군·구는 음영 처리함.

* 출처: 행정안전부(2011, 2020)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시·군·구)

시·군·구 단위 외국인주민 자녀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외국인주민 자녀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2011년과 2019년 모두 경기도 안산시였다. 그 밖에도 부천시, 수원시 등 외국인주민 자녀가 많은 상위 20위 안에 경기도 소재 시가 10곳을 차지하였다. 2011년과 2019년 사이에 외국인주민 자녀의 거주지 분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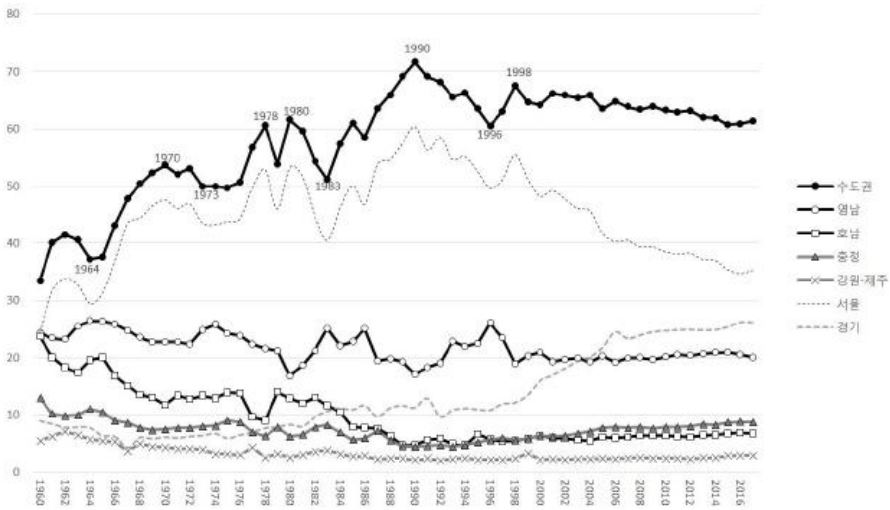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해보면, 2011년 상위 20개 지역 중 16곳이 2019년에도 여전히 상위 20개 지역에 포함되었다. 2019년에 새롭게 상위 20개 지역으로 포함된 곳은 충북 청주시, 인천 서구, 제주시, 광주 광산구였다. 상위 20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40,117명으로 26.5%(전체 151,154명)였고, 2019년에는 76,610명으로 전체의 29.0%(전체 264,626명)로 다소 높아졌다.

3.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기회 격차

그동안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가정의 소득수준 및 부모의 학력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 연구는 많이 진행된 반면, 청소년의 거주지 간 발달 현황의 차이 및 성장기회의 격차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거주지의 차이는 단순히 시·군·구와 같은 지리적·행정단위의 지역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었고, 그로 인해 지역의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지역 사회 모임 참여율, 학교 및 의료 시설과 같은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차원에서 격차가 발생하였다(최희갑, 김자혜, 2014).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혹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차이뿐 아니라 동일 행정지역 내의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거주지 분리 및 계층화 문제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김세원, 김선숙, 2012). 이하에서는 최근 지역 간 격차를 주제로 수행된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 간 격차와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기회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기존에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우리나라 지역격차 현황

우리나라 지역 간 격차에 관한 연구 중 소득 및 고용 등과 관련된 경제 부문에서 발생하는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1960~2016년 소득세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권역별 소득격차의 추이를 분석한 서민철(201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은 생산 및 인구 부문에 비해 소득 면에서 심하였고, 서울과 수도권의 1인당 소득 수준 역시 다른 4개 권역(영남, 호남, 충청, 강원·제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00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서민철(2019: 336) 그림 2. 소득세 자료에 의한 권역별 지역소득 비율 추이

그림 VI-11. 권역별 지역소득 비율 추이(1960~2016년)

김경덕과 임지은(2011)이 보고한 1995년부터 2008년 사이의 1인당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의 표준편차 변화

추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2.31이었던 1인당 GRDP 표준편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 5.43까지 높아졌으며, 이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다시 급격하게 높아져 2007년에는 1995년에 비해 2.5배 가량 높아져 시·군 단위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종희(2010)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2007년 기준 지자체별 GRDP를 비교해보면 전국 GRDP 총 합계의 22.7%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도 21.2%로 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와 대전의 GRDP(광주 2.2%, 대전 2.1%)는 전체의 3%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의 GRDP는 전체 총 합계의 0.9%로 가장 낮았다.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서울, 경기, 인천의 GRDP 합은 48.5%로 전국 총 합계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뿐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권 지역 간 소득 격차 역시 점차 심화되고 있다(마강래, 강은택, 이원빈, 2013). 2005년부터 5년간 지방 대도시 간 소득수준을 비교한 결과, 광주와 대구 지역이 부산과 대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증가율도 낮아 대도시권의 소득격차는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마강래 외, 2013). 지역 간 소득격차와 함께 지역 내 소득의 양극화 현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성제와 최상희(2008)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양극화 지수를 산출하여 변화양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 경남지역의 양극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 수준이 7년 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충남과 전남지역의 경우, 1998년 당시 양극화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강하였으며, 이후 2005년까지 꾸준히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제 부문의 지역격차와 함께 인구 부문에서의 지역 간 차이, 특히 산업화로 인한 지방(혹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

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인구절벽 전망과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에서 처음 제기된 ‘지방소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에서도 지방 인구위기에 대해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마스다 보고서는 일본의 인구분포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위한 방안모색에 관한 것으로, 이 보고서에서 규정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이란 “2010~2040년 사이 20~39세 여성인구의 감소율이 50% 이상인 지역”을 의미한다(이상림, 이지혜, Bernhard Köppen, 임소정, 성백선, 2018).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²³⁾를 산출하여 이를 시·도별로 비교한 이상호(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래 [그림 VI-12]는 2013년과 2018년의 시·도별 인구소멸위험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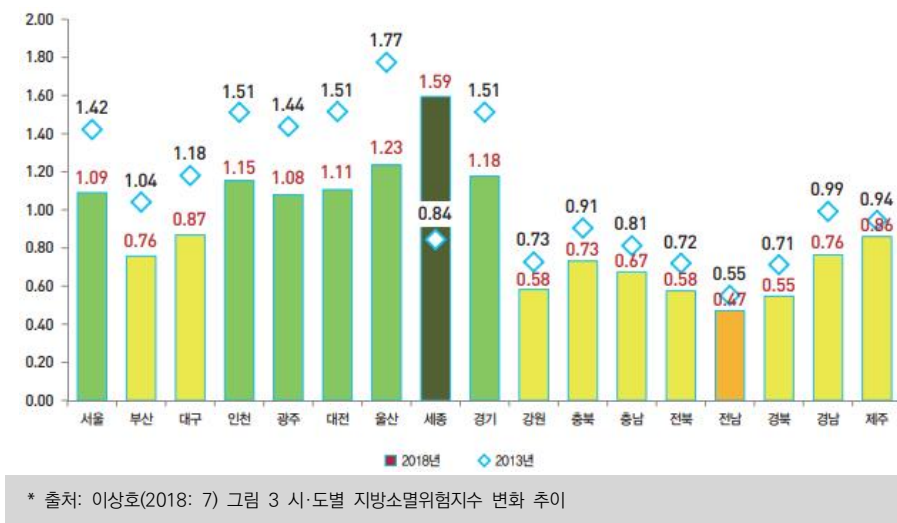


그림 VI-12. 시·도별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2013, 2018년)

23)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누어 산출됨. 지수 값이 1.5 이상인 경우 ‘소멸위험 매우 낮음’, 1.0~1.5 미만인 경우 ‘소멸위험 보통’, 0.5~1.0 미만 이면 주의단계, 0.5이하(즉, 20~29세 여성인구가 65세 고령인구의 절반 이하)는 위험지역으로 분류됨(이상호, 2018).

전체적으로 2013년에 비해 2018년의 지방소멸위험지수 값이 하락하여 5년 사이에 우리나라 지방소멸 위험정도는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을 제외한 서울, 광역시와 경기 지역의 지수 값이 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경기를 제외한 도지역의 지수는 2013년과 2018년 모두 1.0 미만으로 주의단계였으며, 전남의 경우 2018년 지수 값이 0.47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과 대구가 2018년에 소멸위험 주의단계에 추가되었다. 각 시·도의 읍·면·동 기준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하여 그 비중을 비교한 결과, 2013년에 비해 2018년의 비중이 더 높아졌고,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전남지역의 경우 81.1% 지역이 위험지역에 해당되었다. 2018년 기준, 서울의 지방소멸위험지역 비중이 1.4%로 가장 낮았고,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도 지역의 비중은 모두 5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그림 VI-13. 시·도별 지방소멸위험지역 비중 변화 (2013, 2018년)

같은 맥락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인구 규모의 변화를 비교한 강동우, 고영우, 김현지, 남수연, 전은하(2018)의 연구에서도 비수도권 중심의 인구감소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수가 전체의 49.1%로 절반에 가깝다. 게다가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별 연평균 인구증가율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는 양의 값을 보인 반면 경기, 충북, 경남, 제주를 제외한 5개 도지역에서는 음의 증가율, 즉 감소추세가 나타났다(강동우 외, 2018).

이상림 외(2018)는 2000년대 이후 10년 간 우리나라 지역별 인구변동 추이를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서 인접한 충청지역과 광역시 중심의 인구증가와 지방 중소도시 및 군(郡)지역 중심의 인구감소로 요약하였다. 이러한 지역 인구변동의 차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이상림 외(2018)는 지역별 인구이동의 유형을 크게 ① 전 연령 유출형, ② 전 연령 유입형, ③ 저연령 유출형, ④ 청년인구 유입형, ⑤ 청년인구 감소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비율을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표 VI-2. 지역별 인구이동 유형 분포

지역	전 연령 유출형	전 연령 유입형	저연령 유출형	청년인구 유입형	청년인구 감소형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수도권	20 (30.3)	19 (28.8)	9 (13.6)	16 (4.2)	2 (3.0)	66 (100.0)
광역시	27 (69.2)	5 (12.8)	3 (7.7)	2 (5.1)	2 (5.1)	39 (100.0)
중소도시	14 (28.6)	10 (12.8)	19 (38.8)	0 (0.0)	6 (12.2)	49 (100.0)
군지역	4 (5.4)	5 (6.8)	45 (60.8)	0 (0.0)	20 (27.0)	74 (100.0)
전체	65 (28.5)	39 (17.1)	76 (33.3)	18 (7.9)	30 (13.2)	228 (100.0)

* 출처: 이상림 외(2018:87) 표 5-2 지역별 인구이동 유형 분포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이동 유형은 아동기와 청년기 인구는 감소하나 중년기 이상 연령대가 증가하는 ‘저연령 유출형(33.3%)’이었고, 모든 연령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청년기만 증가 추세를 보이는 ‘청년인구 유입형(7.9%)’이 가장 적었다. 지역별 각 인구이동 유형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은 ‘전 연령 유출형(30.3%)’과 ‘전 연령 유입형(28.8%)’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았다. 광역시는 ‘전 연령 유출형’의 비율이 69.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군지역은 ‘저연령 유출형’이 60.8%로 가장 많았다. ‘청년인구 유입형’의 대부분은 수도권(18곳 중 16곳) 지역이었고, 청년기 인구만 감소하는 ‘청년인구 감소형’의 대부분은 군지역이었다. 요약하면, 수도권 지역은 전 연령대의 인구 유출과 유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반면, 군지역에서는 중년 이상 고령층은 유입되나 저연령 및 청년인구의 유출현상이 뚜렷했다. 이는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인구감소와 군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상립 외, 2018).

경제·인구부문 외에도 교육, 보건,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격차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차미숙 외(2015)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보건의료기관의 수가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10배 수준으로 심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 읍·면의 29.2% 지역에는 보육시설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문화 접근성이 취약하여 연간 문화공연 관람률이 도시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 교육, 보건,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차미숙 외, 2015). 특히 청소년기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 및 보건 분야의 지역격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교육 및 보건 분야의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격차 현황을 살펴보았다. 교육여건 측면에서 지역격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 교육기본통계를 활용하여 2011년과 2020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수를 비교해 보았다.

표 VI-3. 시·도별 학교 수 (2011, 2020년)

(단위 : 개)

시·도/ 지역규모	2011			2020			증감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서울	591	377	314	607	387	320	16	10	6
부산	297	171	142	304	170	142	7	-1	0
대구	216	123	92	230	124	93	14	1	1
인천	232	131	118	253	136	125	21	5	7
광주	147	86	66	155	91	68	8	5	2
대전	141	87	61	148	88	62	7	1	1
울산	119	61	52	120	64	58	1	3	6
세종	-	-	-	49	24	20	-	-	-
경기	1,159	586	421	1,298	638	480	139	52	59
강원	353	163	117	347	163	116	-6	0	-1
충북	260	131	83	258	127	84	-2	-4	1
충남	430	192	117	410	184	117	-20	-8	0
전북	414	208	132	421	210	133	7	2	1
전남	429	246	156	429	249	144	0	3	-12
경북	491	279	193	473	259	185	-18	-20	-8
경남	495	269	188	505	264	190	10	-5	2
제주	108	43	30	113	45	30	5	2	0
특별/광역시	1,640	989	809	1,707	1,008	829	67	19	20
시지역	1,692	926	786	1,925	1,013	862	233	87	76
읍지역	659	359	318	714	385	335	55	26	17
면지역	1,556	740	302	1,480	700	287	-76	-40	-15
특수지역	335	139	67	294	117	54	-41	-22	-13
계	5,882	3,153	2,282	6,120	3,223	2,367	238	70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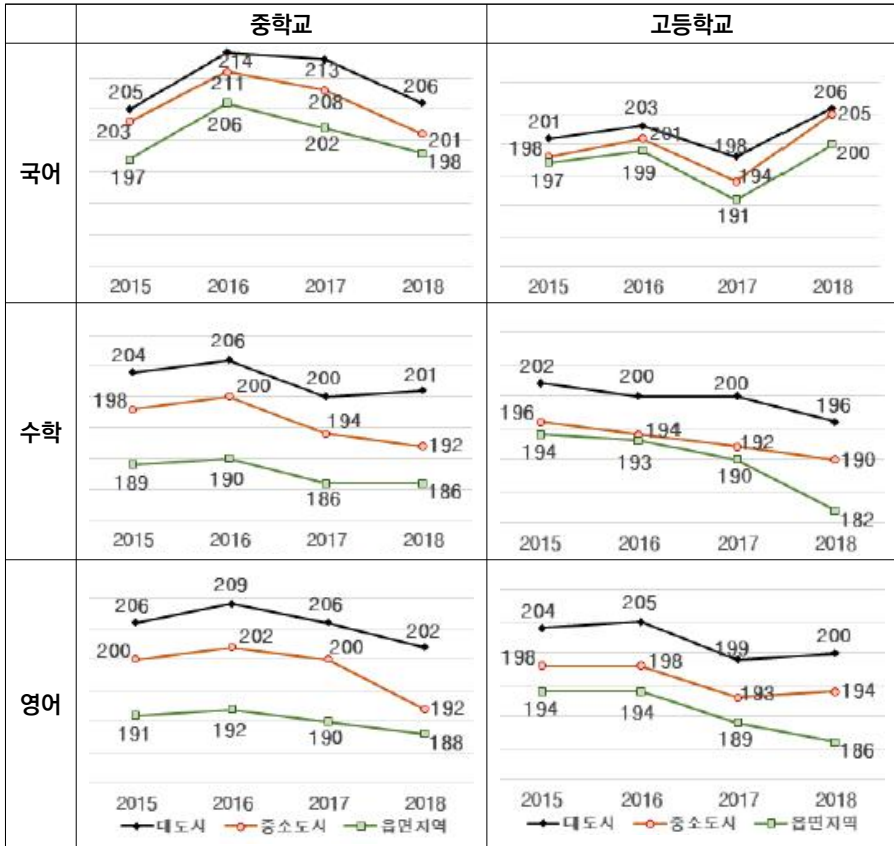
※ 학교의 수가 감소한 지역은 음영 처리함.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0).

전국의 총 학교 수는 2011년 11,317개교에서 2020년 11,710개교로 393개가 증가하였고, 학교급별로 비교해 보아도 2011년 초·중·고등학교 수는 각각 5,882, 3,153, 2,282개교에서 2020년 6,120, 3,223, 2,367개교로 모든 학교급의 학교 수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수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학교 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학교 수 감소 현상이 나타난 곳은 대부분 도지역이었다. 즉,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이 수도권 및 광역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였다. 2011년과 2020년 학교 수의 지역규모별 증감을 비교하면 교육여건의 지역격차 현상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1년 대비 2020년 학교 수가 감소한 지역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면지역과 특수지역²⁴⁾이었다.

지역 간 교육격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와 같은 교육의 투입 요건 뿐 아니라 교육의 과정-산출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산출의 지역격차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VI-14]와 같다. 2015~2018년 학업성취도 점수는 교과 및 학교급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도시가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이 가장 낮았다(구자옥 외, 2019).

24) 특수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을 의미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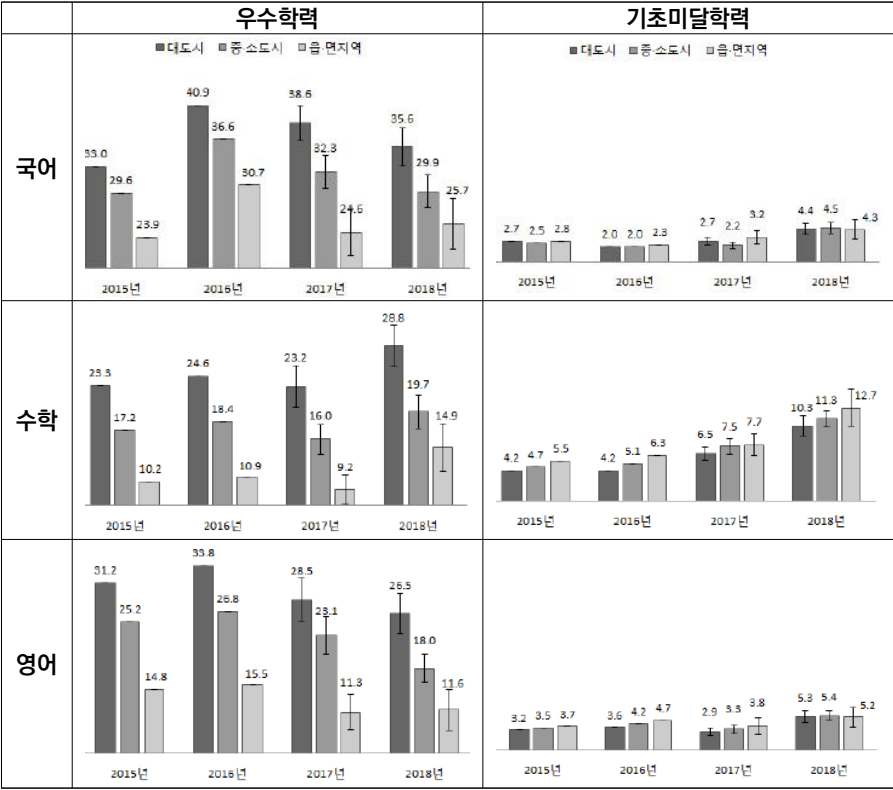


* 출처: 구자옥 외(2019:34, 35) 그림 II-2-11,12 2015~2018 중/고등학교 지역규모별 성취도 변화 추이

그림 VI-14. 지역규모 및 교과별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점수 변화 (2015~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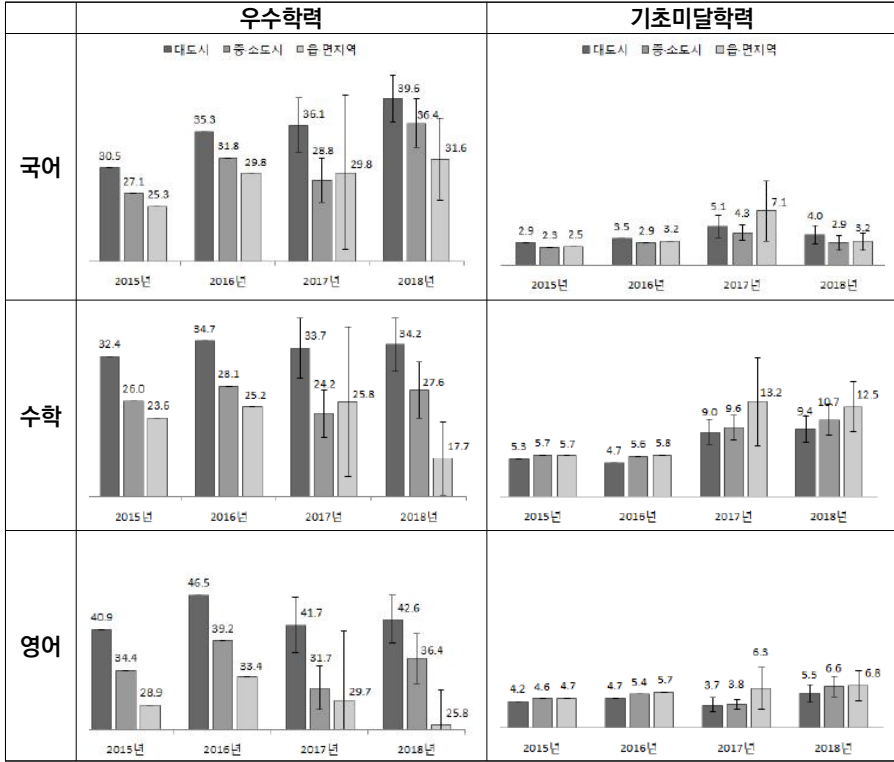
학업성취도의 지역격차는 지역규모별 성취수준 비율을 비교해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학업성취도 점수를 바탕으로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로 구분한 성취수준 가운데 가장 높은 성취수준인 우수학력과 가장 낮은 성취수준인 기초미달학력의 비율을 지역규모별로 비교하면, 우수학력 수준의 비율은 대도시 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기초미달학력 수준은 지역규모 간 큰 차이는 없으나

일부 교과에서는 읍·면지역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다소 비율이 높았다. 2015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우수학력과 기초미달학력 비율의 변화 양상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유사하였으나,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의 지역격차가 좀 더 심화되었다. 특히 수학과 영의 경우, 2018년 우수학력 뿐만 아니라 기초미달학력의 비율도 4년 사이에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차이가 2015년과 비교할 때 보다 더 커졌다.



* 출처: 구자욱 외(2019:36,38,40) 그림 II-2-13,15,17 2015~2018 중학교 국어/수학/영어 지역규모별 성취수준 비율 변화 추이

그림 VI-15. 지역규모 및 교과별 중학교 성취수준 비율 변화 (2015~2018년)



* 출처: 구자욱 외(2019:37, 39, 41) 그림 II-2-14, 16, 18 2015~2018 고등학교 국어과/수학과/영어과 지역규모별 성취수준 비율 변화 추이

그림 VI-16. 지역규모 및 교과별 고등학교 성취수준 비율 변화 (2015~2018년)

보건 및 의료분야의 지역격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 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https://opendata.hira.or.kr/home.do>)에서 제공하는 의료통계정보를 바탕으로 시·도별 의료기관 및 인력 규모를 비교하였다. 2020년 3분기 기준 의료기관의 시·도별 분포 현황을 보면, 보건소를 제외한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모두 서울과 경기, 그리고 부산과 대구 등 일부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를 지역규모별로 다시 비교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절반 이상이 특별/광역시에 있고, 군지역에는 단 1개 기관이 존재했다. 군지역의 종합

병원 및 병원 역시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여 의료기관의 지역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4. 시·도별 의료기관 수 (2020년 3분기)

시·도 지역규모	상급종합병원 ²⁵⁾		종합병원		병원 ²⁶⁾		보건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서울	13	(31.0)	44	(13.8)	9,193	(25.5)	25	(10.4)
부산	4	(9.5)	25	(7.8)	2,736	(7.6)	16	(6.6)
대구	5	(11.9)	12	(3.8)	2,009	(5.6)	8	(3.3)
인천	3	(7.1)	16	(5.0)	1,724	(4.8)	10	(4.1)
광주	2	(4.8)	22	(6.9)	1,109	(3.1)	5	(2.1)
대전	1	(2.4)	9	(2.8)	1,194	(3.3)	5	(2.1)
울산	0	(0.0)	9	(2.8)	694	(1.9)	5	(2.1)
세종	0	(0.0)	2	(0.6)	197	(0.5)	1	(0.4)
경기	5	(11.9)	61	(19.1)	7,858	(21.8)	45	(18.7)
강원	1	(2.4)	14	(4.4)	856	(2.4)	16	(6.6)
충북	1	(2.4)	12	(3.8)	987	(2.7)	14	(5.8)
충남	2	(4.8)	11	(3.4)	1,218	(3.4)	14	(5.8)
전북	0	(0.0)	20	(6.3)	1,480	(4.1)	23	(9.5)
전남	2	(4.8)	23	(7.2)	1,945	(5.4)	19	(7.9)
경북	2	(4.8)	11	(3.4)	1,328	(3.7)	10	(4.1)
경남	1	(2.4)	23	(7.2)	1,110	(3.1)	19	(7.9)
제주	0	(0.0)	6	(1.9)	473	(1.3)	6	(2.5)
특별/광역시	28	(66.7)	134	(41.9)	18,304	(50.7)	70	(29.0)
시지역	13	(31.0)	168	(52.5)	15,561	(43.1)	105	(43.6)
군지역	1	(2.4)	18	(5.6)	2,246	(6.2)	66	(27.4)
계	42	(100.0)	320	(100.0)	36,111	(100.0)	241	(100.0)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0) 지역별 종별 요양기관 수

25)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의미함(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용어사전, <https://opendata.hira.or.kr/op/opb/selectTrmnDic.do?indxCharNm=&searchWrd=%EC%83%81%EA%B8%89%EC%A2%85%ED%95%A9%EB%B3%91%EC%9B%90>)

의료 여건의 실태 외에도 건강실태의 지역격차가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 2010년 질병관리본부의 지역건강통계를 바탕으로 지역의 건강불평등 실태를 분석한 이진희(2016)의 연구결과 20대 미만 연령대의 비만 위험성은 비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스트레스 위험성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함영진 외(2018)에도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2016년 지역건강통계와 통계청 자살률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대 비수도권, 지역 유형 간 정신건강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자살률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이를 5개 도시 유형(대도시, 중소도시, 제한도시, 도농형 시군구, 농촌형 시군구²⁷⁾)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농촌형 지역이 다른 유형의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이지만, 자살률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았다. 통계청 생명표와 사망원인통계를 바탕으로 2017년 기준 시도별 기대여명과 자살률을 비교한 결과, 서울시민의 기대여명이 84.1세로 가장 높은 동시에 자살률은 십만 명 당 22.5명으로 가장 적었다(정해식 외, 2020). 기대여명이 가장 짧은 곳은 부산과 경남(81.9세)이었고 광주, 전남, 강원, 경남도 82세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35.5명)이었다. 충남에 이어 강원, 충북, 제주 순으로 자살률이 높았고, 경기, 광주가 서울에 이어 낮은 자살률을 보이는 지역이었다.

박태선, 이미영, 한우석(2014)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비교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지역별 문화향유기회 여건을 문화관련 시설의 수와 면적, 문화 프로그램의 수, 공연일 수와 관람객 수, 관련기관 종사자, 연간 문화 분야 예산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지역주민들의 주관적 문화향유만족도를 함께 조사하였다. 예상되는

26) 병원에는 치과 및 한의학분야의 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 요양병원, 의원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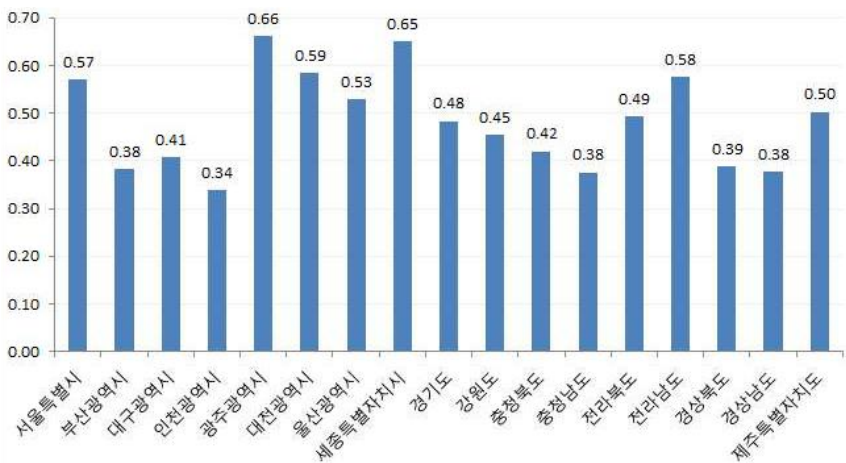
27) 각 도시유형의 정의 다음과 같음. 대도시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 중소도시형은 인구 50만 이하 시(세종시 포함), 제한도시형은 특별시 자치구와 광역시 자치구, 도농형은 도농 복합시와 제주시, 서귀포시, 농촌형은 농촌군임(함영진 외, 2018: 99).

바와 같이, 군지역의 문화관련 시설 수, 운영 프로그램의 수, 시설 및 프로그램 당 관람객 수 등 전반적인 문화향유기회 여건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해 매우 열악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반면, 문화향유만족도에 있어서는 지역 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문화시설의 접근성 개선에 요구도가 높았다.

함영진 외(2018)의 연구에서는 기초 자치단체 간 사회보장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서비스 수요와 공급, 그리고 산출 및 성과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수요는 각 지역의 전체인구 대비 사회보장서비스 지원대상의 비중을 의미하고, 공급은 수요대비 사회보장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재정 및 인력 규모와 관련 시설의 비율로 산출되며, 산출·성과는 사회보장서비스의 실제 이용률과 이를 통한 생활수준 또는 삶의 질 수준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함영진 외, 2018: 93).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촌형 지역에서 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도농형, 제한도시형, 중소도시형, 대도시형 순이었다. 예상과 다르게 서비스 공급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 역시 농촌형이고, 이어서 도농형, 중소도시형, 대도시형, 제한도시형 순이었다. 그러나 서비스 산출·성과 정도는 농촌형이 가장 낮았고, 중소도시형이 가장 높았다. 각 지역유형 내 편차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대도시 지역이 편차가 작아 사회보장서비스 수준이 가장 평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형 지역의 경우 서비스 수요와 산출·성과의 편차가 가장 심하였다. 즉, 같은 농촌형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자체에 따라 사회보장서비스의 수요와 그 성과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주거, 교육,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수를 바탕으로 지역격차를 분석하는 접근의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를 바탕으로 주거환경, 교육수준, 가구유형 및 고용 현황 등을 종합한 상대적 지역박탈 지수를 시·군·구 단위로 비교한 결과, 지역박탈수준이 높은 시·군·구의 비율이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등에 높은 수준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지희, 김동진, 이준협, 2019). 정해식 외(2020)는 OECD ‘보다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를 확장하여 우리나라 지역 단위 삶의 질을 측정하고 이를 시·도별로 비교하였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객관적 통계 자료 및 주관적 인식수준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11개 영역(주거, 소득, 노동,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조화)의 지수 값을 종합하여 산출된 삶의 질 지수는 아래 [그림 VI-1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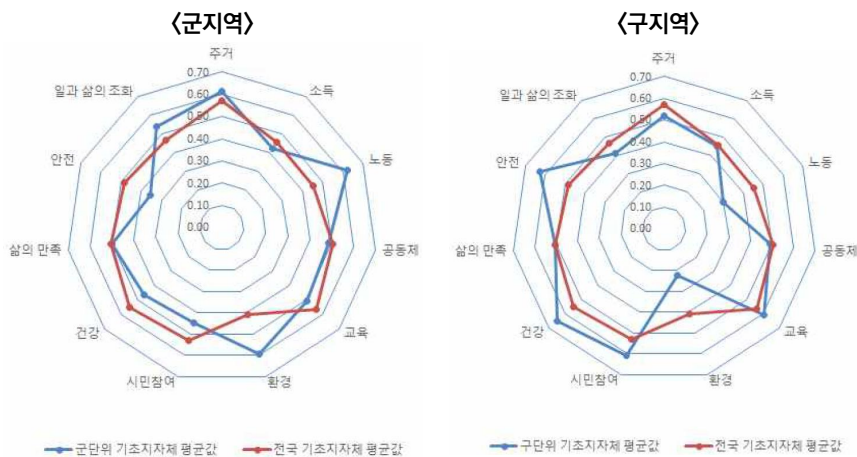


* 출처: 정해식 외(2020:149) 그림 4-16 광역자치단체별 삶의 질 측정 결과

그림 VI-17. 시·도별 삶의 질 지수 (2017~2018년)

시·도별로 삶의 질 지수는 차이가 있었으며, 광주가 1점 만점에 0.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0.34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삶의 질 수준은 지역별 소득수준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삶의 질 지수 산출에 객관적 자료뿐 아니라 주관적 인식 수준에 관한 자료가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정해식 외, 2020). 즉, 소득 수준이 높아도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면 두 점수가 서로 상쇄되어 지역 각 차이가 각각의 지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의 질 지수의 11개 영역별 점수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시지역은 전국 기초자치단

체의 평균과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군지역과 구지역의 일부 영역에서는 전국단위 평균과 다소 큰 차이가 나타났다. 군지역의 경우 전체 지자체 평균 수준과 비교할 때 안전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노동, 환경, 일과 삶의 조화 영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양호했다. 구지역에서는 안전, 건강, 시민참여 영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고, 환경과 노동 영역에서 다소 뒤쳐졌다.



* 출처: 정해식 외(2020:153) 그림 4-19 지역 유형별 삶의 질 특성

그림 VI-18. 삶의 질 영역별 지수 값 (2017~ 2018년)

지금까지 경제, 인구, 교육, 보건 및 의료, 문화, 사회보장서비스, 삶의 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지역격차 현황을 관련 통계자료 비교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상 살펴본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지역격차는 특정 부문에서만 발생하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부문의 격차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역격차의 시계열 비교 결과, 대부분 분야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행정적으로 동일한 지역으로 분류되더라도 하위 지역 간 편차도 컸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기존에 수행된 다문화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가운데 지역격차를 다루고 있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지역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기회 격차가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한다.

2) 지역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기회 격차

① 다문화청소년의 지역별 교육격차

교육격차는 교육의 기회, 교육 여건 및 과정,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가 집단 간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교육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지역(거주지)이 중요한 요인으로 이미 언급되고 있다(김민희, 2017; 박주호, 백종면, 2019). 그 중 다문화청소년의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를 중심으로 살펴본 남부현과 김연이(2011)의 연구를 보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즉, 개인 변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 학교 및 지역사회 변인 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변인(가정유형, 부모변인, 거주지, 사교육 참여 여부)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지가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단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국어, 사회, 과학 교과에서 학습부진이 발견되었고, 도농 간에는 영어 교과에서 성취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배경 변인 간의 차이를 살펴본 이재분(2008)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취 수준이 다문화자녀의 국내 거주기간, 학교급, 학교소재지, 사교육비, 부모의 출신국,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도시규모별로는 국어(듣기, 쓰기, 읽기), 수학, 과학 교과 영역의 학업성적에서 대도시보다는 그 외 지역(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상위권인 학생의 분포가 더 많았고, 성취 수준에서도 지역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도농 간 다문화청소년의 교육 실태를 분석한 오성배(2005)와 김정원, 이예영, 배은주, 허창수(2008)의 연구에서도 농촌지역에 분포한 다문화청소년이 학령기의 또래 아이들보다 언어발달의 지체(정은희, 2004; 서현, 이승은, 2007)와 기초학력 부진(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2006; 전해정, 민성혜, 이민영, 최혜영, 장수지, 조을순, 2007), 문화 부적응(김진숙, 최은미, 이호준, 2014; 박대식, 마상진, 권인혜, 2011)과 학교 부적응(조영달 등, 2006; 박대식 등, 2011) 경험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학업성취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교육격차는 교육기회의 획득과 상실과정에 기인한 역량의 편차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결혼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배경변인에 따라 핵심역량 차이를 분석한 이재분, 김혜원, 변종임, 채재은, 이해영, 노경은(2009a)의 연구에서는 학업적응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관계형성능력, 한국어능력, 학습능력, 다문화이해, 의사소통, 기초기본 생활태도, 자기관리, 진로탐색, 정보처리활용)이 학교급, 부모의 최종학력, 도시거주 여부가 역량 향상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핵심역량 중에는 ‘한국어능력’만이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도시보다 그 외 지역(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분포한 다문화학생의 언어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 다문화학생들에게서 언어능력을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 이재분 등(2009a)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16개 시도교육청 및 학교단위의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실태를 분석하여 교육시설의 불균등한 지역적 분포가 지역 내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의 지역차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는 교육 기회의 차별과 학력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대도시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지역면적 및 인구규모 대비 다문화교육 시설이 매우 부족하였고, 농어촌 지역은 시설 수에 비해 프로그램(한국어, 기초학습, 문화체험에 한정)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 각각에서 교육 기회와 자원의 획득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지역내부 격차를 다룬 송효준, 김두섭, 함승환(2018)의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 이주민 비중이 높은 세 개의 권역에서 1,472명을

묘집하여 이주민의 밀집도에 따른 교육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내 이주민의 밀집도가 높을수록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발견되었고, 이러한 부적관계는 이주배경 청소년보다 비(非)이주배경 청소년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주민 밀집도의 부정적 주변효과는 이주배경 청소년 보다 비(非)이주배경 청소년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다문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주민 밀집지역의 내 비(非)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교육적 취약성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분, 김혜원, 오성배, 이해영, 노경은(2009b)도 인프라가 한정적인 농어촌 지역에서 비(非)다문화청소년을 배제한 서비스 제공방식이 역차별 정서 자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송효준 등(2018)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한편, 직접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지역별 교육격차를 다룬 것은 아니나, 다문화청소년을 유형별 특성에 따라 분석한 연구로 김이선, 정해숙, 마경희, 전경숙(201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조선족 중도입국 자녀 중심 지역’은 다문화가족 자녀 중, 비재학·비취업 비율이 높고, 한국어교육과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 중도입국 자녀 중심 지역’은 여타 지역 유형에 비해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가 많았으며, 학교폭력 피해경험 노출정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습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결혼 부부 자녀 중심 지역’은 대부분이 국내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이 중 학령기(초등, 중등) 다문화 자녀 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학교공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학습지원에 대한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제결혼 부부의 외국성장 자녀 중심 지역’의 경우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외국성장 또는 초국가적 성장 배경으로 인해 혼란과 학교적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의 교육과 관련한 지역별 차이를 보여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았다.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 다문화가정의 규모와 구성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적 특수성도 뚜렷해지고 있어 다문화가정의 지역별 수요를 면밀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다양한 학제적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백지숙, 김진, 정효경, 2014), 교육격차에 관한 지역별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이재분 등 2009b, 박철희, 박주형, 김왕준, 2016).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교육 실태와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② 다문화청소년 지역별 문화격차

문화인프라와 문화콘텐츠 구성은 인구 수요와 비례하여 제도의 정비·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역 간 학습과 문화 활동의 기회의 지역 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에, 많은 연구들에서 지역 간 문화격차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박용치, 2003; 김민정, 송주미, 2004; 서우석, 김정은, 2010; 박태선, 이미영, 한우석, 2015). 문화격차는 삶의 질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지리적·정보적 격차들이 문화향유 기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가 핵심적 문화정책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박태선 등, 2014). 그러나 정책이슈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문화소외계층으로 분류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격차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고, 특히, 다문화청소년으로 특정하여 문화격차를 지역규모별로 차이를 검증한 조사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문화격차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 설진배, 이승원, 김연화(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의 연구에서는 문화다양성 확보와 문화자본 형성의 측면에서 전국 527개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이주민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 프로그램의 지역별 운영 실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간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도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문화예술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프로그램’과 ‘동호회 프로그램’ 역시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활성화되어 있었던 반면, ‘관람’, ‘견학’, ‘체험’과 같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도시에서는 자조모임 프로그램이나 연습중심 프로그램과 같이 사회기반자원을 활용한 활동 또는 개인이 소유한 자원을 활용한 활동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징은 지역별 문화기반시설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도시와 농촌지역의 다문화청소년 사회적 실태를 비교분석한 우룡(2007)의 연구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다문화청소년들이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문화여가생활에서 도시지역의 다문화청소년들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부적응 문제도 농촌지역에게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지역 간 문화 격차를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연구로 박태선 등(2014), 박용치(2003), 이재희(2010)의 연구가 있다. 먼저 전국의 국내외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현황을 통해 지역 간 문화자본의 격차를 분석한 박태선 등(2014)는 도시규모별 문화향유 기회 여건이 읍면지역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문화시설 개수와 시설규모는 작았고, 문화향유 시설, 인력, 콘텐츠 등 문화기회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행복생활권의 경우 문화향유기회의 여건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심각한 문화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향유 수요조사 결과는 연극, 뮤지컬, 음악, 콘서트, 스포츠, 강연·강좌·교육 등 단순관람 형태의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반영하듯이 문화향유 경험에 있어서 도시규모와 관계없이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문예회관의 이용률은 높게 나타나,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일수록 문화예술 학습 상실의 기회가 높고 이에 따라 문화역량 차이로 학업성취에 취약함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자본(학습공간, 도서, 영화

뮤지컬, 음악회, 공연관람, 박물관, 미술관, 캠프, 체험활동 등) 소유 정도가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통해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이상균, 박현선, 노연희, 이채원(2012) 연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격차를 문화활동의 접근성과 문화이용도의 질적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한 박용치(2003)연구를 보면, 지역별 인구밀도를 고려할 경우 문화시설과 문화예산, 문화프로그램은 오히려 수도권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지역 면적당(100km²)으로 고려할 때 문화시설과 문화프로그램은 비수도권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수도권의 경우 문화시설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지리적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수도권의 경우 인구밀도에 비해 문화시설 수는 적지만 비교적 좁은 지역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과 이용에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문화를 순수예술과 대중예술로 세분화하여 지방자치 이후의 지역 간 문화 불평등을 분석한 이재희(2010)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비해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는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된 반면, 문화 인력은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었고, 문화생산(공연 횟수) 측면에서는 대중예술보다 순수예술 분야에서 지역 간 불평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소비에서는 비수도권이 순수예술 분야에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재희(2010)는 문화예술 수요가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소보다는 취향과 같은 경제외적 요소에 영향을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고, 비수도권 지역 주민이 순수예술 분야의 확립된 취향을 갖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예술교육이 요구되며 이를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술교육의 실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문화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리적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문화격차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연구대상이나 범위를 특정유형의 이주민에 한정(조현성, 박영정, 김세훈, 류유선, 2010; 전경옥, 김영란, 홍기원, 설진

배, 김연화, 2012)하거나, 문화기반시설(윤소영, 류연정, 2010; 전경옥 등, 2012) 또는 특정 문화예술활동이나 프로그램(조용완, 이수상, 2011)에 대한 연구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문화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공백과 정서적 빈틈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 간 다문화청소년의 문화 불균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③ 다문화청소년 지역별 정보격차

최근 세계화 추세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의 급진적인 발달로 다문화사회도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급진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수반하는 환경이 사회적 격차 발생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간 혹은 대상 간의 차이에서 오는 정보와 지식의 비대칭적 수용과 불균형의 확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보격차에 관한 논의는 급속한 정보화 흐름 속에서 국가, 지역, 성별, 연령, 직업, 소득 등을 배경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취약계층의 발생과 함께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된 결혼이주여성(안미리, 황윤지, 2011; 임광현, 2013; 이향수, 이성훈, 2016; 김효정, 2018), 혹은 이주노동자(이수상, 장임숙, 2010)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보격차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그 중 다문화청소년의 정보격차를 다룬 연구의 하나로 이준(2009)의 연구가 있다. 국제결혼 및 외국인노동자 자녀 등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정보격차 실태를 파악하여 정보소외 해소 방안을 모색한 이준(2009)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보격차 주요인이 가정의 소득수준에 기인한다고 보았고, 특히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경우 불안정한 신분과 부모가 언어소통의 문제와 컴퓨터 활용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정보화 교육 측면에서의 자녀 지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보다 심각한 학업문제와 함께 정보격차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지역 간 차이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 임광현(2013)의 결혼이주여성의 정보격차에 관한 인식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있다. 분석 결과, 정보격차 해소전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보접근’ 측면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직업’ 변인이, ‘정보 활용’의 측면은 ‘거주 지역’ 변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접근 요인’은 본인연령별, 가구월수입별, 남편직업별, 출신국가별 변인들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 활용 요인’은 본인연령별, 거주 지역별, 사회적 배경변인들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정보격차해소 전망에 있어서는 결혼이주여성 가구의 ‘경제적 수준’ 차이가 가장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와 관련하여 남편의 직업유형, 연령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이주민여성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지역별 정보화 사회참여 실태를 분석한 안미리 등(2011)에 의하면, 정보화 교육이 활발한 도시지역에서 이주민여성의 사회 활동이 전제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대도시(서울, 대전, 제주도) 지역과 같이 사회참여활동이 활발한 곳은 정보화 트랙을 연계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반면 사회참여활동이 저조한 중소도시(경상북도와 충청도, 광주) 지역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화 교육과정 제공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등 이주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특성별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이주여성들의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로, 이주민여성의 정보소외 문제의 원인을 사회경제적 배경, 언어 및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민 여성의 특성(학력, 출신국, 체류기간, 가정배경 등)에 적합한 정보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안미리, 2010), 연령별 결혼이민자 여성의 디지털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연령집단별 국적, 한국국적취득, 한국 생활기간, 디지털 역량 및 온라인 이용에 차이가 나타남을 지적한 연구(김효정, 2018),

이주노동자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이들의 연령, 결혼유무, 직업, 한국어 및 정보활용 능력 차이, 정보기술에 대한 적응 수준, 사회활동 및 사회연결망 이용차이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이 이주노동자의 정보리터러시 차이가 발생함을 지적한 이수상, 장임숙(2010)의 연구 등이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들인 이주여성들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 자녀의 교육이나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이주여성의 정보격차문제는 다문화청소년의 정보격차와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정보격차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에 초점을 둔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가 다문화가정의 특수성 특히 개인적 요인에 의한 당면과제 해소에 초점을 둔 연구로 정보격차의 환경적 복잡성을 고려한 지역적 특성을 염두에 둔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격차가 개인의 정보 수집과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정보자본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 다문화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④ 다문화청소년 지역별 복지서비스격차

글로벌 추세에 따라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가 되어가는 가운데 인구 구조와 경제·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공평한 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 간 수요(지역면적 및 인구규모)와 인프라, 행정적·재정적 여건 등의 불균형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승연(2020)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종단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규모별 다문화청소년 관련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은 지역의 인프라 복지 예산규모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원예산 비중을 보면, 부산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같이 대도시권 지역의 예산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읍면 지역 순이었다. 반면 다문화청소년 지원 사업 수는 ‘강원도’ 지역이 68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과 같이 중소도시 지역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더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비중과는 별개로 지역 역량에 따라 지원정책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지역별 다문화지원정책의 현황을 분석한 또 다른 연구로 김이선, 주유선, 방미화(201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모든 다문화프로그램(한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가족상담, 부모교육, 자녀양육, 학습지원, 직업훈련 등)에서 도시 지역 거주자에 비해 읍면 지역 거주자의 서비스 수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수혜 프로그램 평균 수 또한 읍면 지역 거주자가 도시 지역 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어능력이 높을수록, 지역주민의 모임 참여도가 낮을수록 서비스 수혜 정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위의 조승연(202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및 그 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참여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한 분석을 하였는데, 연구 결과, ‘한국어능력’이 사회적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에 있어서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사회적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의 한국어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이 향상되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안정적 정착이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응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다문화청소년 정책지원 수혜 경험과 그 효과에 있어서도 지역 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도시 지역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정책지원 수혜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반면, 수혜경험이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응도에 미치는 효과는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를 읍면지역에 정책지원이 더 필요함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승연(2021)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의 지원정책 수혜경험과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의 수혜가 사회적응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읍면지역일수록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참여경험에 따른 사회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원이 많을수록,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수혜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도농 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책수혜경험과 비행경험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박명숙, 송사리(201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가족관계,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비행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지위비행 경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보다 폭 넓게 복지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한 김유경, 최현미, 김가희, 성수미(201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생계비’, ‘의료비 지원’과 ‘취업알선’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자녀양육’ 관련 요구도가 높은 서비스로는 ‘언어교육’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학습 지도에 도움이 되는 한글교육’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가족 유형별로도 정책지원니즈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먼저 ‘해체(이혼)다문화가족’의 경우 도시 지역 거주자는 ‘생계비 지원’, ‘의료비’, ‘주택 지원’을 필요로 한 반면, 농어촌 지역은 ‘생계비’, ‘의료비’, ‘취업알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재혼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도시 지역 거주자는 ‘의료비’, ‘취업알선’, ‘한국요리강습’을 필요로 한 반면, 농어촌 지역은 ‘생계비’, ‘생활보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 간 대상 간 특성에 따라 정책니즈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의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지역 특성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상이한 복지 수요와 그에 걸맞은 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대상별 수요에 기반을 둔 실증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심층 분석의 주요 주제인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기회 격차 중 지역격차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첫째로, 행안부 2011년도와 2019년도 외국인주민현황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외국인주민자녀의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대도시가 대부분이었고, 시도지역 중에서는 경기도의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남도와 제주도의 외국인주민자녀 수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시도지역의 인구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대도시 지역의 일자리와 관련된 결과로 보이는데, 대도시 중심의 인구집중과 지역인구감소의 현상이 다문화가정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유출의 심화현상이 다문화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구유출의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의 수 감소, 학업성취도의 저하 등 교육환경의 열악함에 영향을 미치고, 의료여건과 각종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도시에 비하여 취약함을 지니게 되며, 이는 다시 인구유출을 유발하게 되며, 지역을 더욱 취약한 환경으로 만들게 되어 결국 지방소멸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의 인구유출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읍면지역에 다문화청소년들의 거주 비율이 높고, 특히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성장환경 중 지역 격차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앞의 선행연구 분석에서 보면, 공단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학습부진이 발견되고, 도농 간 영어교과 성취수준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종 인프라의 부족과 문화격차가 존재하며 정보격차와 복지서비스에서도 지역격차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지역별 격차는 다문화청소년들을 포함한 청소년 성장기회의 격차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성장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Ⅵ장 패널자료 분석

- 1. 분석개요
- 2. 다문화청소년의 고교졸업 이후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 다문화청소년의 초4 시기 학업
관련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4. 소결

1. 분석개요

7장에서는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고도화방안 모색을 위한 심층분석의 일환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기회격차 중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2020년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특성을 살펴본 결과 지역의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바 있다. 즉,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하여 읍면지역 청소년들의 발달이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진은 지역의 차이는 지역의 인프라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환경특성도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부모의 학력이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읍면지역의 경우 국제결혼가정자녀의 비율이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비하여 높고,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이 실제로 낮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2021년은 이 중 특히 다문화청소년들의 성장기회격차로 인하여 추후 진로 발달과 사회로의 진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학업 및 학교생활 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첫째로 그 간 데이터를 축적했던 1기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대학 입학 또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둘째로 2019년에 조사한 초등학교

* Ⅶ장의 1절과 2절은 장윤선(대구교육대학교 조교수)이 집필하였고, 3절은 엄진섭(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강사)이 집필하였으며, 4절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4학년들의 학업 및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들의 성장기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분석을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다문화청소년의 고교졸업 이후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분석 방법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우선 2020년에 수집된 1기 패널의 10차년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진로유형을 크게 대학교 진학 여부, 일 경험 여부, NEET²⁸⁾여부로 나누어 전반적인 진로실태를 파악하였다. 더불어 각 진로유형별 진로실태에 있어 지역요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및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진로 유형 가운데 대학진학 여부 및 일 경험 여부의²⁹⁾ 주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1차년도 조사 이후 다년간 수집된 패널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 중 하나인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s: Breiman, 2001) 방법을 적용하였다. 기계학습은 여러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여 일련의 규칙을 찾고 이를 새로운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오미에 외, 2017; 정재현, 2019). 이메일 제목 및 내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스팸 메일을 식별하는 것이 대표적인 기계학습의 활용 사례이다. 기계학습의 가장 큰 장점은 전통적인 통계모형에서 요구되는 통계적 가정 제약이 없다는

28) 본 분석에서는 NEET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진학 후 휴학 및 자퇴 등으로 재학상태가 아닌 동시에 일 경험도 없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29) 진로유형 가운데 NEET의 경우, 해당되는 사례수가 크지 않아 결정요인 탐색을 위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것이다. 예컨대 변인간의 관계 파악 및 예측모형 도출을 위해 회귀모형을 적용할 때에는 회귀모형에 투입하고자 하는 예측변인들이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비다중공선성 가정과 독립변인의 분산은 동일해야 한다는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해야 한다. 그 외에도 잔차의 정규성, 독립변인과 예측변인의 선형적 관계 등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만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통계적 가정이 위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그로 인해 분석에 적용 가능한 통계모형이 제한되거나 수집된 자료의 일부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계학습 기법은 이러한 통계적 가정에서 자유로운 뿐 아니라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오던 통계모형과 비교할 때 기계학습 기법을 통한 예측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정재현, 2019).

1기 패널 청소년들의 진로실태 분석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패널자료의 경우에도 10년에 걸친 추적조사를 통해 수집된 종단자료로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특성변인³⁰⁾이 포함되어 있어 변인의 수가 표본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동일변인이 반복 측정됨에 따라 변인 간 상관이 높아 전통적인 통계모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분류 및 예측을 위한 기계학습의 대표적인 기법인 랜덤포레스트를 적용하여 1기 패널의 주요 진로유형의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랜덤포레스트는 다양한 특성변인을 바탕으로 대상(혹은 자료)을 분류 또는 예측하는 알고리즘인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를 기반으로 하는 기법이다. 의사결정나무는 분할규칙에 대한 ‘예’와 ‘아니오’에 따라 자료를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재귀 분할(recursive partitioning)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나무구조(tree structure)로 표현하는 기법이다(이윤희, 장운선, 2021). 의사결정나무는 자료에 포함된 다양한 특성변인 가운데 반응변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순서에 따라 나무의

30) 전통적인 통계분석 방법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은 기계학습에서 각각 반응변인과 특성변인(혹은 특성변인)으로 주로 사용함에 따라 이하에서는 반응변인과 특성변인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가지를 생성하여 나무구조를 구축하므로 해석력이 우수하다. 만약 의사결정나무 방법을 적용하여 교육 만족도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특성요인을 탐색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도출된 가상의 결과는 아래 제시된 [그림 VII-1]과 같은 나무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만족도 변인이 반응변인이고, 강의 규모, 시간, 방법 등 강의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이 특성변인으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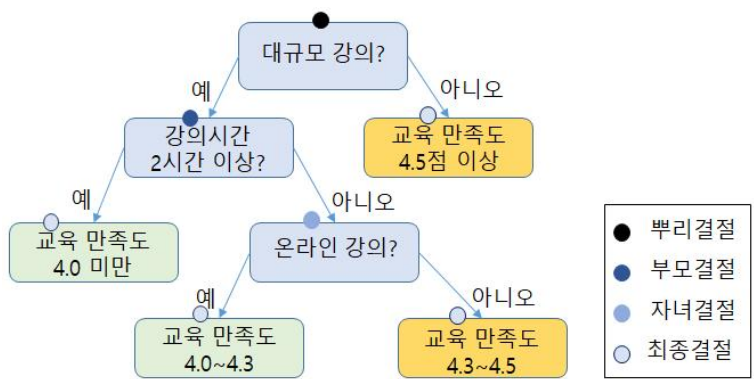


그림 VII-1. 의사결정나무 예시: 교육 만족도 결정요인 탐색

제시된 가상의 나무구조에 따르면, 강의 규모를 기준으로 첫 번째 가지가 분할되고, 이어서 강의 시간과 강의 방법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자료가 분할된다. 첫 번째 결절(node)인 강의 규모를 뿌리결절(root node)이라 부르며, 결절의 수준에 따라 상위수준과 하위수준의 결절을 각각 부모결절과 자녀결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더 이상의 자료 분할이 진행되지 않는 결절이 의사결정나무의 최종결절(terminal node) 혹은 잎(leaf)이 된다. 제시된 의사결정나무를 해석해보면, 교육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특성변인은 첫 번째로 가지분할이 발생한 결절의 분할규칙으로 사용된 강의규모이다. 대규모 강의 여부에 따라 자료가 분할되며, 대규모 강의가 아닌 경우의 교육 만족도는 4.5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류된다. 반면, 대규모 강의 중 강의 시간이 3시간을 넘는 경우의 교육 만족도는 4.0점 미만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분류된다, 한편, 대규모 강의에 해당되지만 강의 방법이 온라인 강의가 아닌 경우의 교육만족도는 4.3~4.5점이지만 온라인 강의의 교육 만족도는 4.0~4.3점으로 상대적으로 교육 만족도가 낮은 집단으로 분류된다.

의사결정나무 방식은 기존의 회귀분석에서 가정하는 반응변인과 특성변인 간의 선형성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좀 더 유연한 예측 모형을 도출할 수 있으며, 예측의 결과를 나무구조로 시각화함에 따라 결과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정재현, 2019; Lantz, 2017). 그러나 의사결정나무 기법은 나무의 크기가 커질수록 훈련자료(training data)의 설명력은 높으나 검증자료(test data)의 예측력은 낮아지는 과적합(overfitting)의 문제가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적합 문제를 위해 나무의 가지가 분할되는 결절의 수, 최종 결절의 최소 사례 수 등이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문제가 있다(유진은, 2015).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나무에서 유사한 수준의 예측력을 가지는 여러 특성변인이 존재하는 경우, 단 하나의 특성변인을 선택하여 가지를 분할하기 때문에 훈련자료의 작은 변화가 나무구조의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유진은, 2015; 정재현, 2019; Lantz, 2017).

이와 같은 의사결정나무의 과적합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랜덤포레스트 방법이 제시되었다. 기본적으로 랜덤포레스트는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여러 개의 새로운 훈련자료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구축된 다수의 의사결정나무를 결합하는 방법이다. 다수의 의사결정나무 결합을 통해 기존 단일 모형 기반의 의사결정나무보다 예측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랜덤포레스트 방법에 있어 임의성(randomness)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훈련자료 뿐 아니라 특성변인도 무선적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훈련자료 및 특성변인의 임의성을 높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상관이 낮은 다수의 의사결정나무를 구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도출된 모형의 예측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패널자료와 같이 특성변인이 다수 일 때 무선적으로 선정된 훈련 자료와 특성변인의 조합을 통해 의사결정나무 간의 상관을 낮춤으로써 랜덤포레스트는 의사결정나무에 비해 훈련자료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예측력이 높은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유진은, 2015). 다만, 랜덤포레스트는 다수의 의사결정나무의 조합으로 최종결과를 도출하므로 하나의 나무구조로 결과를 시각화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나무구조 대신 각 특성변인의 중요도 지수를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한다.

2020년에 실시된 10차년도 1기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진로유형별 진로실태와 지역에 따른 차이파악을 위한 교차분석 및 일원배시분산분석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1~9차년도 1기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진로유형의 결정요인 탐색은 랜덤포레스트 분석과 관련 통계값 생성을 지원하는 R패키지 randomForest(Liaw & Wiener, 2018)와 rfUtilities(Evans & Murphy, 2019)를 사용하였다.

2) 분석 자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절에서는 1기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실태를 파악하고 대학진학 및 일 경험 여부의 주요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1기 패널 청소년의 진로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첫 번째 조사를 실시한 2020년 10차년도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2021년 수행하는 연구의 주요 주제인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고도화 방안의 근거 자료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의 거주지를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와 다문화가구 밀집 거주 지역 여부와 같은 변인을 생성하여 거주지 특성에 따른 진로실태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다문화가구 밀집 거주 지역 관련 변인은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 단위의 거주 외국인 주민 수(5만 명 초과,

3만 명 초과, 1만 명 초과, 1만 명 이하)와 전체 주민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10% 이상, 5% 이상, 3% 이상, 3% 미만)의 분포를 고려하여 생성하였다. 다문화청소년 진로실태 분석에 활용한 변인은 아래 <표 VII-1>과 같다.

표 VII-1. 다문화청소년 진로실태 분석 변인(2020년도 조사)

영역	분석 변인
대학진학	대학진학 여부, 대학 유형, 현재 학적상태, 전공계열, 전형 방법, 전공 선택의 주요 영향요인, 대학입학에 영향을 준 사람, 등록금 마련방법,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대학생활 만족도 및 적응
일 경험	일 경험 여부, 종사상지위, 일 유형, 직장 소재지, 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소득, 업무 만족도
대학진학 및 취·창업 준비	대학진학 준비여부, 취창업 준비여부, 대학진학 준비방법, 대학준비를 위한 사교육 부담정도, 취창업 준비활동, 교육훈련 경험
기타	구직활동 경험, 노동 의지, 현재 생활

다문화청소년의 지역 변인에 따른 진로실태 분석과 함께, 대학진학 여부의 주요 결정요인 탐색을 위하여 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하던 시절인 2011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였던 2019년 사이에 수집된 패널자료의 여러 변인을 특성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 진로 유형의 결정 요인 탐색은 랜덤포레스트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반응변인은 2020년 기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유형이 되며, 특성변인으로서는 지역요인을 비롯한 1~9차년도 조사에서 수집된 다문화청소년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진로, 인지 및 심리·사회 적응, 사회적 지지, 다문화 관련 특성 요인 등 다양한 영역의 변인을 종합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변인을 영역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VII-2>와 같다. 일부 변인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상급학교 진학 등과 같은 조사 시점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추가 또는 삭제하였다. 본 분석의 주요 목적은 시기별 각 변인의 변화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진로유형에 영향을 준 주요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것에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이 매년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은 변인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마찬가지로 1~9 차년도 연구에 거쳐 모두 조사되지 않고 특정 시기에 추가 또는 삭제된 항목 또한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VII-2. 다문화청소년 진로유형 결정요인 분석 변인

영역	분석 변인	변인 유형	조사 년도
진로 유형	대학교 진학 여부	이분	2020
	일 경험 여부	이분	2020
지역 구분	지역규모(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3개 범주	2011~2019
	밀집지역 여부(거주 외국인 비율 기준)	이분	2011~2019
가정환경	부모의 교육정도	5개 범주	2011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	연속	2011~2019
	부모와의 동거 여부(아버지/어머니)	이분	2012~2019
	부모의 지지	4점 척도	2014~2019
	가족의 지지	4/5점 척도	2011~2019
	부모에 대한 생각(아버지/어머니)	4점 척도	2011~2019
	부모의 양육태도(감독/방임)	4점 척도	2011~2019
학교생활	고등학교 유형(일반고/특성화고/특목고)	3개 범주	2017
	학교생활/공부의 어려움 여부	이분	2011~2019
	학교수업태도	4점 척도	2011~2019
	교사의 지지	5점 척도	2011~2016
	교사와의 관계	5점 척도	2011~2019
	학교생활 만족도	5점 척도	2017~2019
	교우관계	4/5점 척도	2011~2019
	친구의 지지	4점 척도	2011~2016
	친한 친구 수	연속	2011~2019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이분	2011~2019
진로	희망 교육수준	3/5개 범주	2011~2019
	학습활동	이분	2014~2019
	진로태도	4점 척도	2014~2019
	진로장벽(자기이해부족/정보부족/경제)	4점 척도	2016~2019

영역	분석 변인	변인 유형	조사 년도
	학교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	이분	2017~2019
	학교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5점 척도	2017~2019
	미래 직업결정 여부	이분	2017~2019
	부모님의 진로지원(지원/강요/무관심)	4점 척도	2016~2019
인지 및 심리·사회 적응	주관적 성적수준	5점 척도	2011~2019
	성적에 대한 만족도	4점 척도	2011~2019
	성취동기	4점 척도	2011~2019
	자아존중감	4/5점 척도	2011~2019
	자아탄력성	4점 척도	2011~2015
	삶의 만족도	4점 척도	2011~2019
	우울	4점 척도	2012~2019
	사회적 위축	4점 척도	2012~2019
사회적 지지	비행	이분	2013~2019
	학교 안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이분	2011~2019
	학교 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이분	2011~2019
다문화적 요인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어 실력	4점 척도	2011~2016
	본인의 외국출신 부모나라 언어 실력	4점 척도	2011~2019
	다문화청소년 공개 여부	이분	2012~2019
	국가정체성	4점 척도	2011~2019
	이중문화수용태도	4점 척도	2011~2019
	문화적응스트레스	4점 척도	2011~2016
	외국출신 부모나라 방문여부	이분	2011~2019

3) 분석 결과

(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현황

2020년 10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1,091명의 진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진로 현황은 크게 대학진학 여부와 일 경험 여부로 구분하였고, 대학에 진학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현재 학적상태를 기준으로 재학, 휴학, 자퇴 및 퇴학으로 세분하였다.

표 VII-3. 진로 현황

일 경험 여부*	대학진학 여부									
	진학 함						진학 하지 않음		전체	
	재학		휴학		자퇴 및 퇴학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716	(65.6)	16	(1.5)	9	(0.8)	350	(32.1)	1,091	(100.0)
있음	257	(23.6)	3	(0.3)	6	(0.5)	194	(17.8)	460	(42.2)
없음	459	(42.1)	13	(1.2)	3	(0.3)	156	(14.3)	631	(57.8)

*지난 1주일 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 여부를 의미함

그 결과 전체의 약 68%(741명)의 청소년은 대학에 진학하였고, 그 중에서 조사 시점까지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716명)이었다. 대학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60명으로 전체의 약 42%였다. 대학진학 여부 및 학적상태와 일 경험 여부를 모두 고려할 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진로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일 경험은 없는’ 경우로 전체의 42.1%(459명)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일 경험도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23.6%(257명)로 높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일 경험도 있는’ 청소년이 17.8%(194명) 정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 진학하지도 않고 일 경험도 없는’ 청소년은 14.3%(156명) 정도 있었다.

이하에서는 각 진로 유형별 세부적인 진로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의 진로 실태가 지역 요인에 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지역 요인 변인은 크게 거주지의 지역규모와 다문화 밀집지역 여부를 사용하였다. 지역규모는 2020년 조사를 통해 파악된 청소년의 거주지 정보를 바탕으로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를 ‘대도시’, 광역시를 제외한 시(市)지역은 ‘중소도시’, 그 이하 규모는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다문화 밀집지역 여부 변인 생성을 위해서 거주외국인 분포의 읍·면·동 단위 자료를 살펴보았다. 외국인의 분포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자료를 사용하였다. 10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57% 정도

는 거주 외국인 주민의 수가 1만 명 이하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거주 외국인의 규모가 1만 명 초과 3만 명 미만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약 30% 정도였다. 거주 외국인의 비율을 보면, 3~5%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35.5%로 가장 높았다.

표 VII-4. 읍면동 단위 거주 외국인 분포

거주 외국인 주민 수 기준		거주 외국인 비율 기준	
구분*	명 (%)	구분*	명 (%)
전체	1,091 (100.0)	전체	1,091 (100.0)
1만 명 이하	623 (57.1)	3% 미만	333 (30.5)
1만 초과~3만 이하	320 (29.3)	3% 이상 ~ 5% 미만	387 (35.5)
3만 초과~5만 이하	94 (8.6)	5% 이상 ~ 10% 미만	297 (27.2)
5만 초과	54 (4.9)	10% 이상	74 (6.8)

*2020년 10월에 공표된 행정안전부의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9.11.01.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1일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222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3%였다. 따라서 이하 분석에서는 전국 평균 거주 외국인의 비율인 4.3%보다 높은 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을 다문화 밀집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상 기술한 기준에 따라 생성된 지역규모 및 다문화 밀집지역 여부 변인의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VII-5. 지역규모 및 밀집지역 여부 분포

밀집지역 여부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전체
	명 (%)	명 (%)	명 (%)	명 (%)
전체	254 (23.3)	324 (29.7)	513 (47.0)	1,091 (100.0)
일반지역	176 (24.4)	191 (26.5)	353 (49.0)	720 (100.0)
밀집지역	78 (21.0)	133 (35.8)	160 (43.1)	371 (100.0)

청소년의 거주지 지역규모는 읍면지역이 전체의 47%(513명)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중소도시(29.7%), 대도시(23.3%)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밀집 지역 여부로 구분하면 밀집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371명으로 약 34% 수준이었다. 밀집지역 여부에 따른 지역규모의 분포를 비교하면 모두 읍면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밀집지역 중 중소도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35.8%로 일반지역의 중소도시 비율인 26.5%에 비해 높았다. 이어서 청소년들의 진로 현황을 대학진학, 일 경험, 대학진학 및 취업준비, 기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진로실태를 살펴보았다.

① 대학진학 영역

먼저 2020년 학년도 대학진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741명 청소년의 진학한 대학 유형, 전공계열, 입학전형 및 모집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 가운데 4~6년제 일반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445명(60.1%)로 가장 많았고, 일부 청소년은 방송통신대학을 비롯한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대학, 해외 소재 외국대학 또는 직업전문학교 등으로 진학하기도 하였다. 전공계열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예술 및 인문학(19.2%) 계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건 및 복지(16.5%), 공학, 제조 및 건설(14.0%), 정보통신기술(12.7%) 순으로 많았다.

표 VII-6. 진학 대학의 유형

구분	4~6년제 일반대학	2~3년제 전문대학	원격대학*	해외 소재 외국대학	기타 (직업전문학교)	전체
명	445	262	3	8	22	740
(%)	(60.1)	(35.4)	(0.4)	(1.1)	(3.0)	(100.0)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이버전문대학 등

표 VII-7. 진학 전공계열

전공계열	명 (%)	전공계열	명 (%)
교육	36 (4.9)	공학, 제조 및 건설	104 (14.0)
예술 및 인문학	142 (19.2)	농림어업 및 수의학	9 (1.1)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21 (2.8)	보건 및 복지	122 (16.5)
경영, 행정 및 법학	76 (10.3)	서비스	80 (10.8)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32 (4.3)	기타(자유전공 등)	26 (3.5)
정보통신기술	94 (12.7)	전체	741 (100.0)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들 대부분은 수시모집(89.1%, 660명)을 통해 진학하였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77.5%, 574명)으로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이 특별전형(22.5%, 167명)으로 진학한 청소년에 비해 약 3배 이상 많았다.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 중 다문화 가정자녀를 위한 전형으로 지원한 경우가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경우도 각각 22명, 29명으로 다른 지원 자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VII-8. 대학 모집유형 및 입학전형

모집유형	입학전형		
	일반전형	특별전형	전체
	명 (%)	명 (%)	명 (%)
전체	574 (77.5)	167 (22.5)	741 (100.0)
수시모집	500 (67.5)	160 (21.6)	660 (89.1)
정시모집	74 (10.0)	7 (.9)	81 (10.9)

청소년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과 전공계열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으로는 본인의 적성과 희망(대학선택: 32.5%, 전공선택: 43.6%)이었다. 그리고 본인의 성적도 대학과 및 전공을 선택할 때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의 경우, 본인의 취업전망을 고려하였다는 응답도 대학선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Ⅶ-9. 대학 및 전공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1순위)

구분	대학선택	전공선택
	명 (%)	명 (%)
대학/전공의 사회적 평판	73 (9.9)	46 (6.2)
본인의 적성과 희망	241 (32.5)	323 (43.6)
본인의 성적	186 (25.1)	132 (17.8)
취업전망	100 (13.5)	126 (17.0)
대학/전공계열 및 학과홍보	11 (1.5)	7 (0.9)
가정형편	13 (1.8)	11 (1.5)
지리적 여건(통학 편리성 등)	36 (4.9)	7 (0.9)
장학금 혜택	20 (2.7)	10 (1.3)
원하는 직업과의 관련성	55 (7.4)	70 (9.4)
기타	6 (0.8)	9 (1.2)
전체	741 (100.0)	741 (100.0)

대학진학준비를 위해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는 본인과 학교선생님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입시원서 작성 등 대입전형 준비에는 본인(53.3%)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응답한 학생이 절반 이상이었고,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컸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약 41% 정도였다. 대학진학에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으로부터의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청소년은 전체의 약 10%에 미치지 못하였고, 다문화 관련 기관의 선생님께서 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거의 없었다. 절반이 넘는 청소년들은 대학진학 여부를 비롯한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과 전공 및 학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전공 및 학부는 청소년들이 직접 선택한 경우 (76.1%, 564명)가 대부분이었다. 본인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학교 선생님의 영향이 가장 컸고, 대학진학 여부와 대학선택에는 부모님의 영향도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0. 대학진학준비에 영향을 준 사람(1순위)

구분	대입전형 준비	입시정보 제공
	명 (%)	명 (%)
본인	395 (53.3)	294 (39.7)
부모님	50 (6.7)	43 (5.8)
부모님을 제외한 가족	14 (1.9)	12 (1.6)
학교선생님	218 (29.4)	307 (41.4)
학원선생님	36 (4.9)	48 (6.5)
다문화 관련 기관의 선생님	3 (0.4)	2 (0.3)
친구	19 (2.6)	24 (3.2)
기타	6 (0.8)	11 (1.5)
전체	741 (100.0)	741 (100.0)

표 VII-11. 대학진학 여부 및 대학과 전공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1순위)

구분	대학진학 여부	대학선택	전공 및 학부 선택
	명 (%)	명 (%)	명 (%)
본인	488 (65.9)	496 (66.9)	564 (76.1)
부모님	107 (14.4)	91 (12.3)	59 (8.0)
부모님을 제외한 가족	7 (0.9)	9 (1.2)	6 (0.8)
학교선생님	105 (14.2)	110 (14.8)	84 (11.3)
학원선생님	17 (2.3)	18 (2.4)	12 (1.6)
다문화 관련 기관의 선생님	1 (0.1)	10 (1.3)	1 (0.1)
친구	10 (1.3)	7 (0.9)	7 (0.9)
기타	6 (0.8)	741 (100.0)	8 (1.1)
전체	741 (100.0)	741 (100.0)	741 (100.0)

대학 등록금을 주로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한 경우(469명, 63%)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마련한 경우가(233명, 31.4%) 두 번째로 많았다.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을 느낀다(241명, 32.5%)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매우 부담을 느끼는 학생도 13.6% 정도로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은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II-12. 주된 등록금 마련 방법과 부담 정도

등록금 마련 방법	명 (%)	등록금 마련 부담 정도	명 (%)
부모의 도움	469 (63.3)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91 (12.3)
자매, 조부모, 친척의 도움	10 (1.3)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121 (16.3)
본인이 직접 마련함	10 (1.3)	보통이다	187 (25.2)
장학금	233 (31.4)	약간 부담을 느낀다	241 (32.5)
학자금 또는 개인대출	17 (2.3)	매우 부담을 느낀다	101 (13.6)
기타	2 (0.3)		
전체	741 (100.0)	전체	741 (100.0)

대학진학 후 경험한 대학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대학 만족도, 학업적응 만족도, 사회적응 만족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학 만족도는 ‘나는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와 같은 4개의 하위문항에 대한 5점 척도 응답값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대학 만족도의 평균은 3.59로 보통수준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응 만족도는 ‘나는 학과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를 비롯한 4개의 하위 문항으로 조사하였고, 대학 만족도와 같은 5점 척도의 응답값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학업적응 만족도는 평균 3.61로 대학 만족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마지막 사회적응 만족도는 ‘나는 대학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등 4개 하위문항을 사용하였고,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사회적응 만족도 평균은 3.16으로 대학 만족도와 학업적응 만족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VII-13. 대학생생활 만족도(n=741)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대학 만족도	3.59	0.71	1.00	5.00
학업적응 만족도	3.61	0.73	1.50	5.00
사회적응 만족도	3.16	0.80	1.00	5.00

이어지는 내용은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들의 진로실태가 거주지의 지역규모와 다문화 밀집지역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범주형 변인의 경우, 지역규모 또는 밀집지역 여부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요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고, 만족도와 같은 연속변인은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지역규모 또는 다문화 밀집지역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이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대학진학과 관련된 진로실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청소년들이 진학한 대학의 유형은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 = 17.93$, $df = 8$, $p = .022$).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4~6년제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54.6%로 다른 지역규모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해외소재 외국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와 같은 기타 유형의 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높았다. 대학진학 시 지원한 모집유형도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chi^2 = 6.22$, $df = 2$, $p = .045$). 청소년의 대다수가 수시모집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정시모집으로 진학한 비율이 16.0%로 다른 지역규모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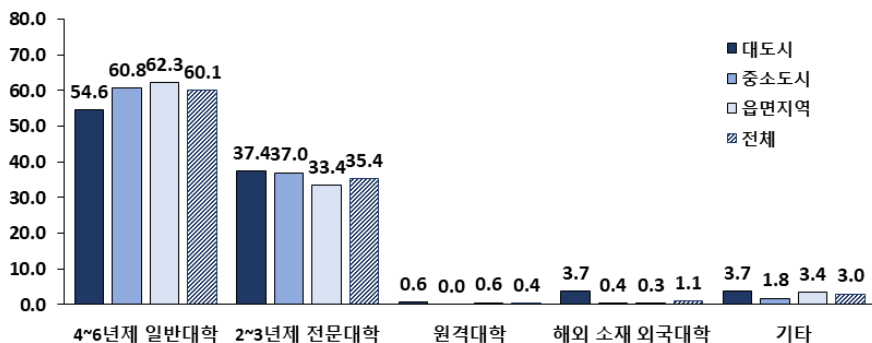


그림 Ⅶ-2. 지역규모별 진학한 대학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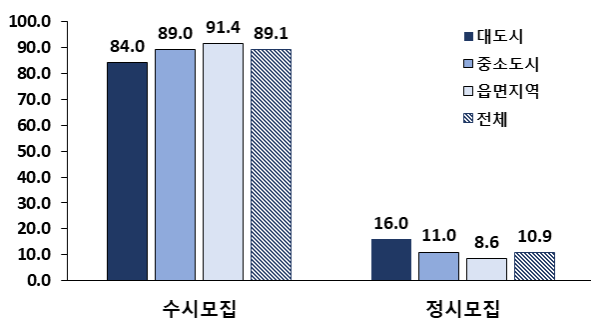


그림 Ⅶ-3. 지역규모별 모집유형(%)

거주지가 다문화 밀집지역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항목은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보에 도움을 준 사람($\chi^2 = 22.16$, $df = 7$, $p = .002$)과 주된 등록금 마련 방법($\chi^2 = 11.75$, $df = 5$, $p = .038$)이었다. 대학 입시관련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다문화 밀집지역 여부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지역의 경우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입시관련 정보를 얻는

데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44.0%)이 가장 많은 반면, 밀집지역에 거주한 청소년들은 입시관련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으로 학교선생님(36.3%)보다는 본인(41.2%)으로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학원선생님이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11.4%로 일반지역(4.0%)의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다문화 밀집지역 여부에 따른 대학 등록금의 주된 마련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한 비율이 다문화 밀집지역(70.2%)이 일반지역(59.9%)에 비해 높았고, 반면에 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마련 비율은 밀집지역(23.3%)이 일반지역(35.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른 방법은 다문화 밀집지역 여부에 따른 눈에 띄는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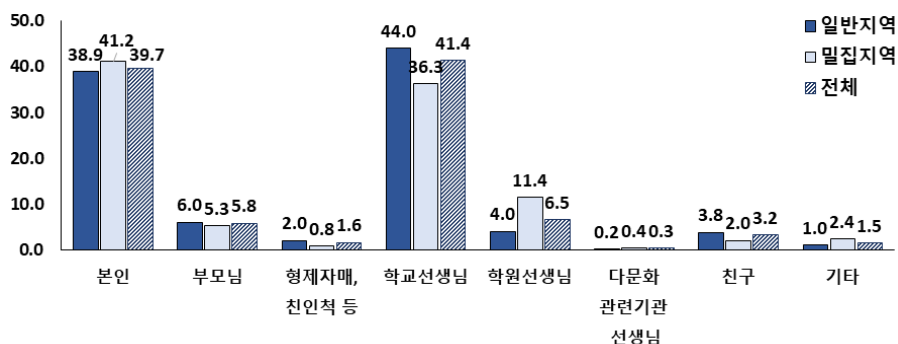


그림 Ⅶ-4. 다문화 밀집지역 여부에 따른 대학 입시관련 정보에 도움을 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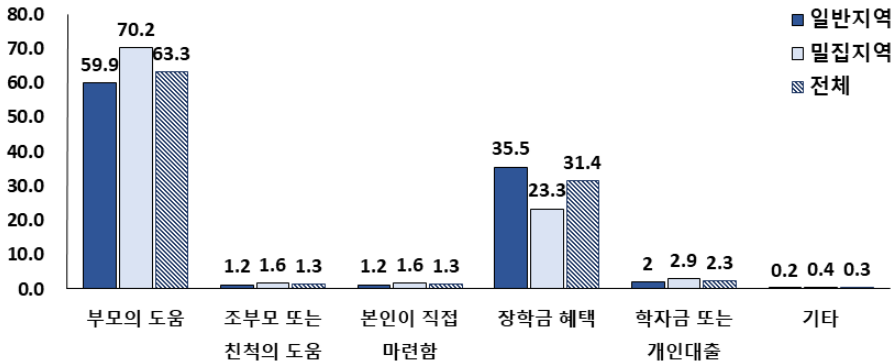


그림 Ⅶ-5. 다문화 밀집지역 여부에 따른 등록금 마련 방법(%)

② 일 경험 영역

2020년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가운데 지난 1주일 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460명의 근로상태를 비롯한 일 경험 실태를 살펴보았다. 지난 1주일 간 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가장 많은 근로상태는 임시근로자(253명, 55.0%)였고, 이어서 상용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도 23.5%(108명) 정도를 차지하였다. 일 유형의 경우, 서비스업에 종사한 경우가 전체의 38.9%(179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단순노무직(79명, 17.2%), 판매직(69명, 15.0%) 순으로 많았다.

표 Ⅶ-14. 지난 1주일간 한 일 유형

구분	명 (%)	구분	명 (%)
관리자	1 (0.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 (0.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3 (9.3)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2 (4.8)
사무 종사자	45 (9.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8 (3.9)
서비스 종사자	179 (38.9)	단순노무 종사자	79 (17.2)
판매 종사자	69 (15.0)	전체	460 (100.0)

지난 1주일 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직장의 소재지는 경기(23.7%)와 서울 (13.0%), 전남(9.8%) 등의 순서로 많았고, 직장 소재지의 지역별 분포는 2020년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응답한 거주지 지역별 분포와 대체로 유사하였다. 다만,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등 수도권 인근 지역은 거주지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직장 소재지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고, 반대로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과 같은 도(道)지역은 거주지 분포에서의 비율이 직장 소재지 분포에서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5. 직장 소재지

구분	명 (%)	구분	명 (%)
서울	60 (13.0)	충북	26 (5.7)
부산	17 (3.7)	충남	27 (5.9)
대구	7 (1.5)	전북	27 (5.9)
인천	18 (3.9)	전남	45 (9.8)
광주	18 (3.9)	경북	21 (4.6)
대전	9 (2.0)	경남	32 (7.0)
울산	7 (1.5)	제주	4 (0.9)
경기	109 (23.7)	해외	3 (0.7)
강원	30 (6.5)	전체	460 (100.0)

청소년들이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의 근무조건을 보면, 일주일 총 근무 일 수는 평균 4.18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6.9시간이며, 월 평균 총 소득은 108.9 만원이었다.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의 일주일 근무 일 수인 주 5일보다는 다소 근무 일 수가 적었고, 근무시간 또한 하루 8시간보다 적었다. 이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 상태로 일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I-16.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의 근무 조건

구분(단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일주일 총 근무 일 수(일)	460	4.18	1.61	1.00	7.00
하루 평균 근무시간(시간)	460	6.90	2.46	1.50	15.00
월 평균 총 소득(만원)	459	108.9	76.0	0.00	500.00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인 만족도를 포함한 9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의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은 3.69로 보통수준 보다는 다소 높은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나머지 8개 영역에 대해서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91로 가장 높은 반면, 복리 후생에 대한 만족도가 3.38로 다른 영역의 만족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평균 3.49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만족도 평균이 낮은 복리후생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응답의 표준편차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청소년들의 근무환경이나 근무여건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표 VII-17.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n=46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급여수준	3.54	1.01	1.00	5.00
고용 안정성	3.73	0.96	1.00	5.00
복리후생	3.38	1.08	1.00	5.00
근무내용	3.72	0.92	1.00	5.00
근무시간 및 업무량	3.61	1.01	1.00	5.00
근무환경	3.77	0.96	1.00	5.00
직장 내 인간관계	3.91	0.87	1.00	5.00
개인의 발전 가능성	3.49	1.05	1.00	5.00
전반적인 만족도	3.69	0.91	1.00	5.00

대학진학 영역과 마찬가지로 지난 1주일 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진로실태가 지역규모 및 다문화 밀집지역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근무 조건에서는 일주일 총 근무일 수는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 = 6.95, p = .001$)가 있었고, 급여수준($F = 5.33, p = .021$)과 근무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밀집지역 여부($F = 4.19, p = .041$)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그 외 다른 일 경험 관련 항목에서는 지역규모 및 다문화 밀집지역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일주일 총 근무 일 수를 비교하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일주일 총 근무일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약 0.5일 정도 많았다. 그리고 급여수준과 근무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다문화 밀집지역이 일반지역보다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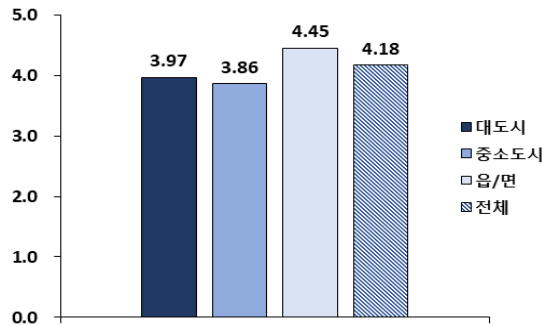


그림 Ⅶ-6. 지역규모에 따른 일주일 총 근무 일 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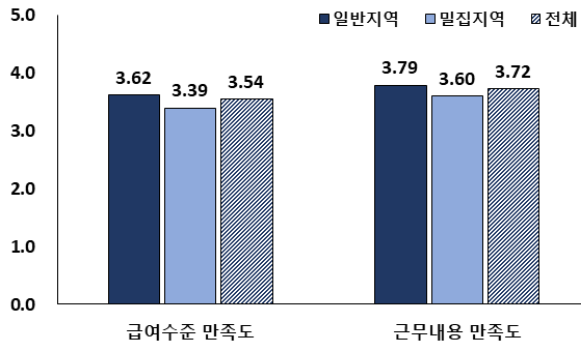


그림 Ⅶ-7. 다문화 밀집지역 여부에 일의 만족도(5점 척도)

③ 대학진학 및 취·창업 준비영역

2020학년도 대학진학 여부 및 일 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2021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8명으로 전체의 약 8% 정도였다. 진로유형 가운데 2020학년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가 대학을 준비하는 비율이 18.3%(64명)로 가장 높았고, 일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10.1%(64명)도 2021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021학년도 대학진학의 주된 이유는 '전문성을 향상하여 더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와 '2020학년도에 입학 또는 합격한 대학이 만족스럽지 않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8. 2021학년도 대학진학 준비 여부

구분		준비 함	준비하지 않음	전체
		명 (%)	명 (%)	명 (%)
전체		88 (8.1)	1,003 (91.9)	1,091 (100.0)
대학진학 여부	진학 함	24 (3.2)	717 (96.8)	741 (100.0)
	진학하지 않음	64 (18.3)	286 (81.7)	350 (100.0)
일 경험 여부	있음	24 (5.2)	436 (94.8)	460 (100.0)
	없음	64 (10.1)	567 (89.9)	631 (100.0)

2021학년도 대학진학을 위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으로는 EBS를 포함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가 57명(64.8%)으로 가장 많았고, 일부 청소년은 학원에서 개별 과목을 수강(17명, 19.3%)하거나 학원이나 온라인 수강 등 별도의 사교육 없이 공부하는 경우(13명, 14.8%)도 일부 있었다. 더불어 대학진학을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6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9. 대학진학 준비 활동(중복응답, n=88)

구분	기숙학원 등록	학원에서 개별과목 수강함	개인 또는 그룹 과외지도	온라인 강의 (EBS 포함) 수강	과외, 학원 및 온라인 수강 없이 공부	기타
명	9	17	12	57	13	12
(%)	(10.2)	(19.3)	(13.6)	(64.8)	(14.8)	(13.6)

표 VII-20. 대학진학 준비를 위한 사교육 부담 정도

구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부담을 느낀다	매우 부담을 느낀다	전체
명	7	4	19	21	15	66
(%)	(10.6)	(6.1)	(28.8)	(31.8)	(22.7)	(100.0)

한편, 현재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은 205명으로 전체의 약 20% 정도였다. 이 중 대부분은 취업을 준비(177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부는 취업과 창업을 모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로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중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비율이 (30.6%)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 가운데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비율(13.1%)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높았다. 현재 일 경험이 없는 청소년 중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비율은 16.8%에 불과하며, 이는 지난 1주일 간 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21.3%가 현재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일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I-21. 현재 취업 또는 창업 준비 여부

구분		취업을 준비함	창업을 준비함	둘 다 준비함	준비하지 않음	전체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77 (16.2)	10 (0.9)	17 (1.6)	887 (81.3)	1,091 (100.0)
대학진학 여부	진학	83 (11.2)	4 (0.5)	10 (1.3)	644 (86.9)	741 (100.0)
	비진학	94 (26.9)	6 (1.7)	7 (2.0)	243 (69.4)	350 (100.0)
일 경험 여부	있음	78 (17.0)	8 (1.7)	12 (2.6)	362 (78.7)	460 (100.0)
	없음	99 (15.7)	2 (.3)	5 (.8)	525 (83.2)	631 (100.0)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준비활동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취업준비: 79.9%, 창업준비: 92.6%)이었다. 이어서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55.7%)와 특정 기술을 배우는 경우가 많았다(41.2%). 창업을 위한 준비로는 특정기술을 배우는 경우(55.6%)가 정보 수집 다음으로 많았다.

표 VII-22.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준비 활동(중복응답)

취업을 위한 준비 활동(n=194)		창업을 위한 준비 활동(n=27)	
활동 내용	명 (%)	활동 내용	명 (%)
특정기술을 배움	80 (41.2)	특정기술을 배움	15 (55.6)
공무원시험 등 취업시험 준비	30 (15.5)	창업교육을 받음	7 (25.9)
자격증 취득 시험 준비	108 (55.7)	자격증 취득 시험 준비	10 (37.0)
취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	155 (79.9)	창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	25 (92.6)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진학한 대학을 휴학하거나 자퇴 또는 퇴학하였으며 동시에 지난 1주일 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험도 없다고 응답한 172명을 NEET로 정의하고, 이들이 현재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고 지난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구직활동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NEET로 분류된 청소년 가운데 현재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쉬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40.7%(7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21학년도는 아니지만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9명(22.7%)으로 많았다. 현재 그냥 쉬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한 결과,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37명, 52.9%)가 가장 많았고 심리적으로 힘들거나 뭔가를 할 의욕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18명, 25.8%)도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VII-23. NEET 청소년의 현재 주로 하는 일

구분	명 (%)	구분	명 (%)
대학진학 준비	39 (22.7)	육아 및 가사	4 (2.3)
자격증 취득 등 교육훈련	12 (7.0)	그냥 쉬고 있음	70 (40.7)
군입대 준비	21 (12.2)	기타	23 (13.4)
집에서 가족을 돌봄	3 (1.7)	전체	172 (100.0)

NEET 청소년들 중 지난 한달 간 아르바이트가 아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한 경우는 12.8%(22명)에 불과하였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일하고 싶지 않아서(26명, 17.3%) 또는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어서(25명, 16.7%)였다. 그 외에도 자신의 교육이나 기술경험이 부족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19명, 12.7%),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것(11명, 7.3%)을 주된 이유로 응답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학력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있다면 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99명(57.6%)으로 절반 이상의 청소년은 현재 교육 또는 노동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의지는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VII-24. 구직활동 여부 및 노동의지

구분	구직활동 여부		노동의지		전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명	22	150	99	73	172
(%)	(12.8)	(87.2)	(57.6)	(42.4)	(100.0)

(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유형 결정요인

2014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구축된 1기 패널 청소년의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진로를 결정하게 된 2020년 10차년도 패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진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였거나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랜덤포레스트 방법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각 진로유형의 결정요인을 탐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진로유형은 크게 대학진학과 일 경험 여부로 구분하였고, 대학에 재학하고 있지 않으면서 일 경험도 없는 청소년으로 정의한 NEET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172명에 불과하여 해당 집단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대학진학 여부’와 ‘일 경험 여부’가 반응변인으로 사용되었다.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에서는 학생의 기본적인 가정환경,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재학 시기의 다양한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을 비롯한 진로활동, 인지 및 심리·사회 적응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으로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9년간의 패널 조사를 통해 수집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변인 402개를 진로유형의 주요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특성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반응변인과 각 영역별 특성변인의 내용과 척도에 대한 정보 및 변인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VII-25. 영역별 특성변인

영역 (변인 수)	변인(척도)	조사 년도	변인 수
지역 구분 (36)	지역규모(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2011~2019	27
	다문화 밀집지역 여부(밀집지역=1, 일반지역=0)	2011~2019	9
가정환경 (77)	부모의 교육정도(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정도 중 큰 값)	2011	1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	2011~2019	9
	아버지와의 동거여부(동거=1, 사망 및 비동거=0)	2012~2019	8
	어머니와의 동거 여부(동거=1, 사망 및 비동거=0)	2012~2019	8
	부모의 지지(하위문항 평균)	2014~2019	6
	가족의 지지(하위문항 평균)	2011~2019	9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4점 척도)	2011~2019	9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4점 척도)	2011~2019	9
	부모 양육태도(하위문항 평균) : 감독/방임	2011~2019	18
	고등학교 유형(일반고/특성화고/특목고)	2017	3
학교생활 (81)	학교생활에서 어려움 여부(있다=1, 없다=0)	2011~2019	9
	학교공부의 어려움 여부(있다=1, 없다=0)	2011~2019	9
	학교수업태도(하위문항 평균)	2011~2019	9

영역 (변인 수)	변인(척도)	조사 년도	변인 수
	교사의 지지(하위문항 평균)	2011~2016	6
	교사와의 관계(하위문항 평균)	2011~2019	9
	학교생활 만족도(5점 척도)	2017~2019	3
	교우관계(하위문항 평균)	2011~2019	9
	친구의 지지(하위문항 평균)	2011~2016	6
	친한 친구 수	2011~2019	9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집단 괴롭힘 유형의 수)	2011~2019	9
진로 (54)	희망 교육수준(5/3개 범주)	2011~2019	9
	학습활동(참여활동의 수)	2014~2019	6
	진로태도(하위문항 평균)	2014~2019	6
	진로장벽(하위문항 평균) : 자기이해부족/정보부족/경제	2016~2019	12
	학교진로교육 및 활동(참여활동의 수)	2017~2019	3
	학교진로교육 만족도(하위문항 평균)	2017~2019	3
	미래 직업결정 여부(결정=1, 미결정=0)	2017~2019	3
	부모님의 진로지원(하위문항 평균): 지원/강요/무관심	2016~2019	12
인지 및 심리·사회 적응 (73)	주관적 성적수준(교과 평균)	2011~2019	9
	성적에 대한 만족도(4점 척도)	2011~2019	9
	성취동기(하위문항 평균)	2011~2019	9
	자아존중감(하위문항 평균)	2011~2019	9
	자아탄력성(하위문항 평균)	2011~2015	5
	삶의 만족도(하위문항 평균)	2011~2019	9
	우울(하위문항 평균)	2012~2019	8
	사회적 위축(하위문항 평균)	2012~2019	8
	비행 경험(비행유형의 수)	2013~2019	7
사회적 지지 (18)	학교 안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있다=1, 없다=0)	2011~2019	9
	학교 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있다=1, 없다=0)	2011~2019	9

영역 (변인 수)	변인(척도)	조사 년도	변인 수
다문화적 요인 (65)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어 실력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평균)	2011~2016	6
	본인의 외국출신 부모나라 언어 실력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평균)	2011~2019	9
	다문화청소년 공개 여부(공개=1, 비공개=0)	2012~2019	8
	국가정체성(하위문항 평균)	2011~2019	9
	이중문화수용태도(하위문항 평균) : 한국문화/외국출신 부모님나라 문화	2011~2019	18
	문화적응스트레스(하위문항 평균)	2011~2016	6
	외국출신 부모 나라 방문여부(있다=1, 없다=0)	2011~2019	9

본 분석의 주요 목적은 청소년의 진로유형 결정요인 탐색에 있으므로, 10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여 진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1,09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전문면접원이 가가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패널조사가 진행되는 중간 시점에 패널에서 이탈한 경우 다음 해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10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1~9차년도 응답자료는 결측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본 분석에서는 일부 변인에서 조사대상의 연령과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잘 모르겠음’ 또는 ‘해당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9차년도 월평균 가구 소득의 결측률이 약 5.8%로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인 가운데 가장 높았고, 나머지 변인의 결측률은 대부분 0~3%로 결측값으로 인한 결과의 편향성은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일부 결측값이 발생한 변인의 경우, 본 분석에서 사용한 R 패키지 randomForest에서 제공하는 rfImpute 함수를 통해 결측값을 대체하였다. rfImpute 함수는 연속변인의 경우 평균값으로, 범주형변인의 경우 최빈값으로 결측값을 대체하여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먼저 실시한 뒤, 그 결과 산출된 유사성 행렬(proximity matrix)을 활용하여 보다 정교한 수준의 대체값으로 수정한다.

랜덤포레스트는 기계학습 기법의 한 유형이므로 일반적으로 전체 자료의 일부를 훈련자료로 사용하여 예측모형을 도출하고, 훈련자료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자료를 검증자료로 사용하여 도출된 모형을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연구(김영식, 김민석, 이길재, 2019; 이윤희, 장윤선, 2021; 홍기혜, 2020)에서와 같이 훈련자료와 검증자료의 비율을 7:3으로 나누었다. 이와 함께,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나무 생성을 위해 무선적으로 선택하는 특성변인의 수와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의사결정나무의 예측오차 변화율 점검을 위한 총 반복횟수를 결정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R 패키지 randomForest의 기본 설정 값을 적용하였다. 즉, 이분형 반응변인인 경우 사용하는 전체 특성변인의 제공된 수만큼 특성변인을 무선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500회 반복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였다.

기계학습에서의 평가는 훈련자료를 통해 도출된 최종모형의 분류 정확성을 바탕으로 실시된다. 분류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정분류율(accuracy), 민감도(sensitivity), 특이도(specificity), 정밀도(precision)를 지표로 사용한다. 이들 지표는 모형을 통한 예측값과 실제값의 오차행렬(confusion matrix)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정분류율은 전체 사례 수 중에서 결정모형을 통한 예측값과 실제값이 같아 바르게 분류된 비율을 의미한다. 민감도는 실제로는 관심 집단에 해당하는 대상 가운데 관심집단으로 바르게 예측한 비율로 1에서 민감도를 뺀 값이 2종 오류(Type II error)에 해당된다. 이와 반대로 특이도는 실제 관심집단이 아닌 대상을 관심집단이 아닌 대상으로 바르게 예측한 비율을 의미하고, 1에서 특이도 값을 빼면 1종 오류(Type I error)가 된다. 정밀도는 민감도와 유사한 개념이나, 관심집단으로 예측된 대상 가운데 실제로 관심집단에 해당하는 경우의 비율로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심집단은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 또는 일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이 되며, 대학진학의 경우에 해당하는 오차행렬과 각 지표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예측 값	
		진학하지 않음 (Negative)	진학 함 (Positive)
실제 값	진학하지 않음(Negative)	True Negative(A)	False Positive(B)
	진학 함(Positive)	False Negative(C)	True Positive(D)

- 정분류율 $= (A+D) / (A+B+C+D)$
- 민감도 $= D / (C+D)$
- 특이도 $= A / (A+B)$
- 정밀도 $= D / (B+D)$

그림 VII-8. 대학진학 결정모형의 오차행렬 및 지표 산출식

① 대학진학 결정요인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500개의 의사결정나무를 생성하여 대학진학 여부를 분류하는 결정모형 도출을 하였다. 이 때 500개의 의사결정나무가 분류의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충분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결정나무 수에 따른 분류 오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 VII-9]에서 의사결정나무 수에 따른 잘못된 분류의 비율 즉, 1-정분류율(그림의 가운데 선), 2중 오류에 해당하는 1-민감도(그림의 맨 위선), 1중 오류를 의미하는 1-특이도(그림의 맨 아랫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제시된 바와 같이 의사결정나무의 수가 200개가 넘어서면 일정 수준으로 안정화되었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의사결정나무의 최대 생성 개수는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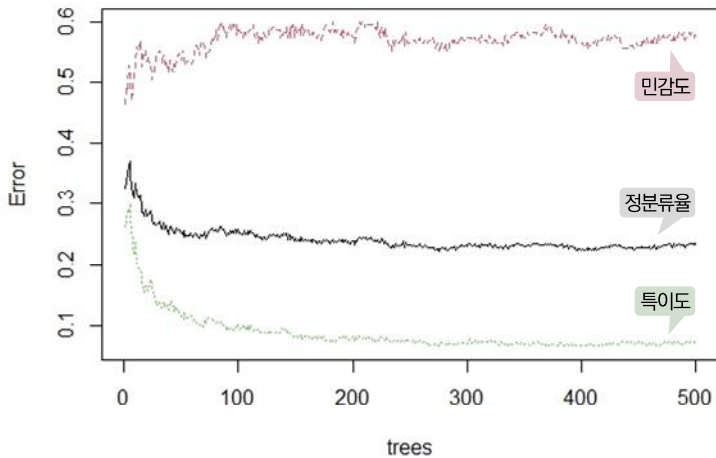


그림 VII-9. 의사결정나무 수에 따른 대학진학 여부 분류의 오차 변화

다음으로는 훈련자료를 통해 도출된 결정모형의 대학진학 여부에 대한 분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분류율,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 값을 비교하였다. 분류의 정확도를 대표하는 정분류율은 76.57%로 도출된 모형의 분류 정확도를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0.73, 0.77로 이는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을 대학에 진학한 경우로, 그리고 이와 반대로 실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로 예측하는 모형의 분류 정확도도 정분류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진학한 것으로 예측한 결과가 맞을 확률인 정밀도는 0.42로 다른 지표값이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훈련자료를 통해 도출된 최종 결정모형의 과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 자료에 대한 분류 정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증자료를 사용한 경우의 분류 정확도 지표값은 정분류율 75.52%, 민감도 0.70, 특이도 0.77, 정밀도 0.37로 훈련자료에 비해 다소 낮으나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 훈련자료를 사용하여 도출된 대학진학 여부에 대한 결정모형은 훈련자료에만 과적합된 모형

이 아니며,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적용한 기존의 사회과학 분야 연구(김미림, 박민호, 2019; 김영식, 이은정, 주현준, 2019; 박민애, 이빛나, 2021; 손윤희, 박현정, 박민호, 2020; 유진은, 2015; 이현, 이정원, 2021; 홍기혜, 2020)에서 보고된 결과와 비교할 때 분류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표 VII-26. 대학진학 여부에 대한 랜덤포레스트 분류 정확도

구분	정분류율(%)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
훈련자료	76.57	0.73	0.77	0.42
검증자료	75.52	0.70	0.77	0.37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랜덤포레스트에서는 분류의 결과에 대해 전통적인 통계 기법과 같이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수행하지 않고, 각 특성변인의 중요도 지수를 바탕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특성변인의 중요도 지수로 모형정확도 개선 지수(MeanDecreaseAccuracy)를 사용하였다. 중요도 지수를 바탕으로 주요 결정요인을 선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합의된 방법은 없으나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력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임의의 특성변인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진은(2015), 김미림(2019)의 연구에서는 중요도 지수가 높은 30개 특성변인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였고, 김미림, 박민호(2019)는 15개 변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김영식, 김민석, 이길재 (2019)의 연구에서는 상위 10개 변인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402개 특성변인의 중요도 지수를 비교하여 상위 20개 특성변인을 대학진학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하 내용을 기술하였다. 아래 [그림 VII-10]은 대학진학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도 지수가 높은 20개 특성 변인을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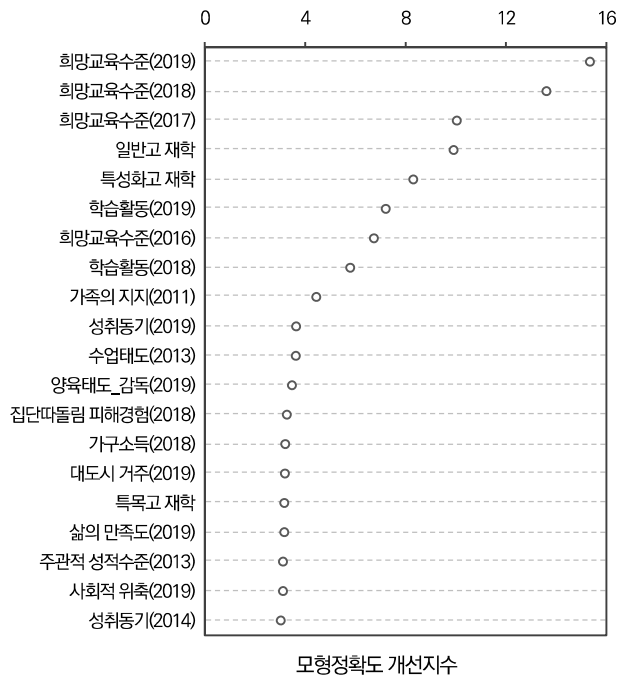


그림 VII-10. 대학진학 관련 중요도 지수 상위 20개 특성변인

중요도 지수 기준 중요도 상위 20개 변인을 살펴보면, 9차년도에 조사한 희망 교육수준(edu_plan_01_w9)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8차와 7차년도 조사에서 응답한 희망 교육수준(edu_plan_01_w8, edu_plan_01_w7)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차년도의 희망 교육수준(edu_plan_01_w6) 또한 7번째로 중요도 지수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이 재학한 고등학교의 유형이 대학진학 여부를 분류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반고등학교 재학 여부(highsch_gen)와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여부(highsch_car)의 중요도는 희망교육 수준 다음으로 높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재학 여부(highsch_spe) 중요도 지수 상위20개 안에 포함되었다.

이어서 9차와 8차년도 조사의 학습활동(learn_act_w8, learn_act_w9)의 중요도 지수가 높아 대학진학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환경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1차년도 가족의 지지(fa_support_w1)와 9차년도 부모의 감독식 양육태도(parenting_a_w9), 8차년도 가구소득(income_01_w8)이 중요도 지수 상위 20개 안에 포함되었다. 그 밖에도 인지 및 심라·사회적응 영역의 성취동기 변인은 6차와 9차 변인(achieve_w9, achieve_w6)이 높은 중요도 지수를 보였고, 3차년도의 주관적 성적수준(Mscore_w3)도 중요도 지수 상위 20개 안에 포함되었다. 9차년도에 조사된 삶의 만족도(life_satis_w9)와 사회적 위축(withdrawal_w9), 학교생활 영역의 8차년도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Fbullying_w8)의 중요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상위 20개 설명 변인 중에서 지역요인 관련 변인은 9차년도 기준 청소년 거주지가 대도시 여부(MEGACITY_w9)가 유일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적 요인 영역의 특성변인은 중요도 지수 기준 상위 20개 안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랜덤포레스트 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해 각 특성변인이 가지는 반응변인 예측(또는 분류)의 상대적 중요도를 의미하는 중요도 지수와 함께 특성변인의 반응변인에 대한 영향력(또는 관계)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의존성 도표(partial dependence plot)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부분의존성 도표는 랜덤포레스트로 도출된 최종 결정모형에서 해당 특성변인을 제외한 모든 특성변인의 효과를 제거했을 때 반응변인 예측(또는 분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도식화 한 것으로, X축은 해당 설명변인의 값을 의미하고 Y축은 반응변인이 이분변인인 경우 로짓(logit) 값을 2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유진은, 2015). 랜덤포레스트는 전통적인 회귀분석과 달리 특성변인과 반응변인 간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 [그림 VII-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진학 여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위 20개에 포함된 각 특성변인과 대학진학 여부의 관계는 다양했다.

대학진학 여부와 각 특성변인과의 관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관계는 특성변인의 특정 값을 기준으로 대학진학으로 분류되는 확률이 크게 높아져서 그 영향력이 유지되는 정적관계 양상이다. 부분의존성 도표를 보면 많은 특성변인이 이와 같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중요도 지수가 가장 높았던 9차년도와 8차년도 희망 교육수준은 해당 변인의 값이 2보다 커지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희망 교육수준에서 '2'로 코딩된 대학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 대학진학으로 분류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범주형 특성변인에서 나타나며, 희망 교육수준과 함께 일반고 재학 여부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두 번째 관계는 이와 반대로 특정 값을 기준으로 대학진학으로 분류되는 확률이 크게 감소하는 양상으로, 특성화고 재학여부와 특목고 재학여부가 이러한 경향 가지는 대표적인 변인이다. 이는 특성화고나 특목고에 재학하는 경우 대학진학으로 분류되는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관련 변인인 9차년도 거주지 기준 대도시 여부와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세 번째는 특성변인 값의 특정 구간에서 서서히 증가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하는 경향으로 주로 연속값을 가지는 설명변인이 이러한 양상을 보였다. 학습활동, 가족의지지 수업태도, 가구소득, 수업태도,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 주관적 성적수준과 같이 많은 연속형 변인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특정 구간에서 일정 수준의 영향력이 유지되고 그 외 구간에서는 크게 낮아지는 경향으로 삶의 만족도, 사회적 위축, 성취동기와 같은 심리적 변인이 이에 해당된다.

표 VII-27. 대학진학 관련 중요도 지수 상위 20개 특성변인

순위	영역	변인(조사년도)	대학진학과의 관계
1	진로	희망교육수준(2019)	+
2	진로	희망교육수준(2018)	+
3	진로	희망교육수준(2017)	+
4	학교생활	일반고 재학	+
5	학교생활	특성학교 재학	-
6	진로	학습활동(2019)	+
7	진로	희망교육수준(2016)	+
8	진로	학습활동(2018)	+
9	가정환경	가족의 지지(2011)	+
10	인지 및 심리·사회적응	성취동기(2019)	+
11	학교생활	수업태도(2013)	+, -
12	가정환경	양육태도_감독(2019)	+
13	학교생활	집단따돌림 피해경험(2018)	-
14	가정환경	가구소득(2018)	+
15	지역	대도시 거주(2019)	-
16	학교생활	특목고 재학	-
17	인지 및 심리·사회적응	삶의 만족도(2019)	+, -
18	인지 및 심리·사회적응	주관적 성적수준(2013)	+
19	인지 및 심리·사회적응	사회적 위축(2019)	+, -
20	인지 및 심리·사회적응	성취동기(2014)	+, -

※ +, -는 각각 일 경험과의 정적, 부적관계를 의미하며, 두 개의 부호가 동시에 표시된 것은 관계의 방향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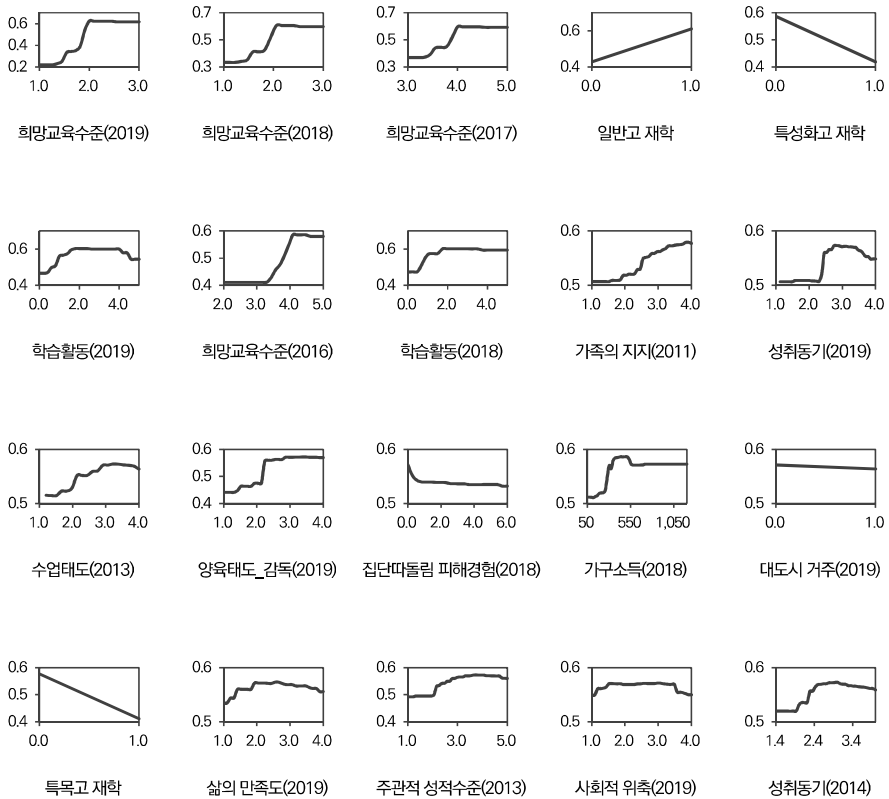


그림 VII-11. 상위 20개 특성변인의 부분의존성 도표(대학진학 집단 기준)

② 일 경험 여부

일 경험을 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랜덤포레스트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대학진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나무 수에 따른 분류 오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도 의사결정나무의 수가 200개 넘어가면서 일 경험 여부에 대한 분류오차는 일정수준으로 수렴되어 안정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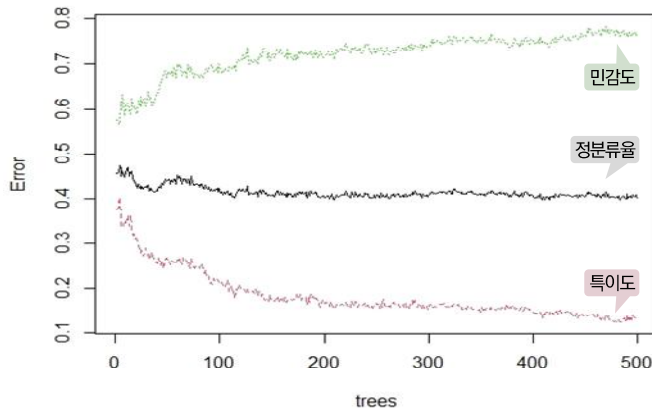


그림 VII-12. 의사결정나무 수에 따른 일 경험 여부 분류의 오차 변화

일 경험 여부를 반응변인으로 설정하고 대학진학의 경우와 같이 402개 특성변인이 포함된 훈련자료를 통해 도출된 모형의 일 경험 여부에 대한 분류 정확도는 대학진학의 경우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분류율은 59.42%이며,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0.60, 0.57이고, 정밀도는 0.87이었다. 검증자료를 해당 모형에 적용할 경우, 정분류율은 61.03%로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대학진학 결정모형의 정분류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그 밖에 분류 정확도를 보여주는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 값도 검증자료를 사용한 경우와 훈련자료를 사용한 값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표 VII-28. 일경험 여부에 대한 랜덤포레스트 분류 정확도

구분	정분류율(%)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
훈련자료	59.42	0.60	0.57	0.87
검증자료	61.03	0.63	0.52	0.86

중요도 지수를 바탕으로 일 경험 여부를 분류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위 20개 특성변인은 아래 [그림 VII-13]에 제시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402개 특성변인 중에서 일 경험 여부를 분류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은 7차년도에 조사된 희망 교육수준(edu_plan_01_w7)이었고, 이어서 9차년도의 비행변인(delinq_w9), 7차년도의 교우관계(fr_rel_w7), 8차년도 부모님의 진로 지원 활동(par_car_sup_a_w8), 7차년도의 친한 친구 수(n_friends_01_w7) 순으로 중요도가 높았다. 그 밖에도 5차년도 가족의 지지(fa_support_w5), 6차년도 교사의 지지(te_sup_w6), 2차년도 친구의 지지(fr_sup_w2)가 다른 변인에 비해 중요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컸다. 더불어 3차년도 친구의 수(n_friends_02_w3), 3차년도 친구의 지지(fr_sup_w3), 6차년도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Fbullying_w6)도 상위 20개 안에 포함되어 다수의 학교생활 영역의 변인이 일 경험 여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7차년도의 비행(delinq_w7)을 비롯한 1차년도 삶의 만족도(life_satis_w1)와 성적 만족도(satis_score_01_w1), 3차년도 주관적 성적수준(Mscore_w3), 2차년도 자아탄력성(s_resil_w2)과 같은 인지 및 심리·사회 적응 영역의 변인도 다수 포함되었다. 또한, 대학진학 관련 중요도 지수 상위 20개 변인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회적 지지 영역의 학교 안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3차년도 변인(help_in_sc_01_w3)과 다문화적 요인인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 언어실력 5차년도 변인(stu_parlan_w5)의 중요도 지수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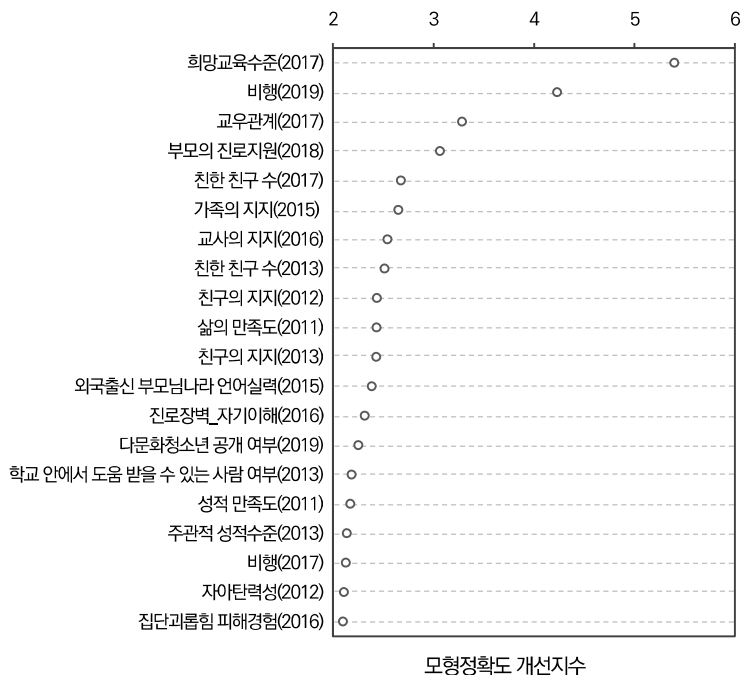


그림 VII-13. 일 경험 관련 중요도 지수 상위 20개 특성변인

이어서 부분의존성 도표를 통해 중요도 지수 상위 20개 특성변인과 일 경험 여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일부 변인은 대학진학과 주요 결정요인과의 관계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고, 일부 변인에서는 새로운 경향을 보였다. 첫 번째 관계는 대학진학의 경우에서도 나타난 이분형 특성변인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으로 특정 값을 기준으로 일 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유형이다. 이에 해당하는 특성변인은 자신이 다문화청소년임을 공개했는가에 대한 변인과 학교 안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여부이다. 두 변인에서 모두 1의 값으로 코딩된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일 경험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유형은 특성변인의 특정 값 구간에서 확률이 증가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비행 경험, 친한 친구의 수,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이와 같은 관계를 보였다. 예컨대 9차년도 비행경험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비행에 대한 경험 여부로 생성한 변인에서 비행경험 값이 0~8일 때 일 경험 확률이 점차 증가하다 8 이상인 구간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마찬가지로 7차년도 조사변인의 친한 친구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일 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증가하다가 친한 친구의 수가 약 20명 이상이 되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이와 반대로 특정 구간에서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변인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학생의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의 언어 실력 5차년도 변인이 이러한 관계가 나타났다. 일 경험 관련 중요도 지수가 가장 큰 변인인 7차년도 희망교육수준 또한 이와 유사하게 응답 값이 올라갈수록, 즉 희망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일 경험의 확률은 낮아지는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부적 관계는 5차년도 가족의 지지에서도 나타났는데, 가족의 지지가 2보다 큰 경우 일 경험의 확률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확률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네 번째 관계는 특정 값을 기준으로 관계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으로 이러한 관계는 대학진학의 결정요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경향이다. 친구의 지지, 교우관계, 삶의 만족도, 주관적 성적수준, 자아탄력성에서 이러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친구의 지지값이 1~3일 때 일 경험의 확률이 낮아지지만 3을 넘는 구간에서는 반대로 증가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3차년도 친구의 지지는 4를 기준으로 감소하던 확률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7차년도 교우관계의 경우, 1과 2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3의 값에서 소폭 감소하였지만 그 이상의 값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I-29. 일 경험 관련 중요도 지수 상위 20개 특성변인

순위	영역	변인(조사년도)	일 경험과의 관계
1	진로	희망교육수준(2017)	-
2	인지 및 심라·사회적응	비행(2019)	+
3	학교생활	교우관계(2017)	+
4	진로	부모의 진로지원(2018)	+, -
5	학교생활	친한 친구 수(2017)	+
6	가정환경	가족의 지지(2015)	-
7	학교생활	교사의 지지(2016)	+
8	학교생활	친한 친구 수(2013)	+
9	학교생활	친구의 지지(2012)	-, *
10	인지 및 심라·사회적응	삶의 만족도(2011)	-, +
11	학교생활	친구의 지지(2013)	-, +
12	다문화적 요인	외국출신 부모님나라 언어실력(2015)	-
13	진로	진로장벽_자기이해 부족(2016)	+
14	다문화적 요인	다문화청소년 공개 여부(2019)	+
15	사회적 지지	학교 안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2013)	+
16	인지 및 심라·사회적응	성적 만족도(2011)	-
17	인지 및 심라·사회적응	주관적 성적수준(2013)	-, +
18	인지 및 심라·사회적응	비행(2017)	+
19	인지 및 심라·사회적응	자아탄력성(2012)	-, +
20	학교생활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2016)	+

※ +, -는 각각 일 경험과의 정적, 부적관계를 의미하며, 두 개의 부호가 동시에 표시된 것은 관계의 방향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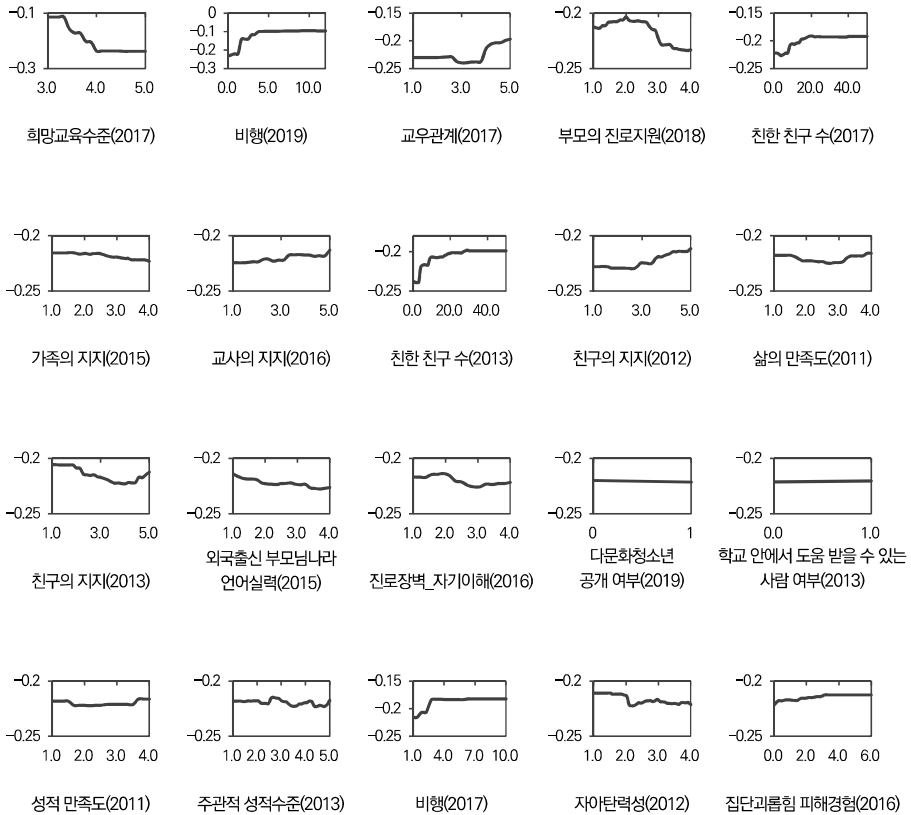


그림 Ⅶ-14. 상위 20개 특성변인의 부분의존성 도표(일 경험 있는 집단 기준)

4)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1기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진로유형의 주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청소년의 진로 현황 및 실태와 관련한 이번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현황

먼저 2020년에 실시한 10차년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반수의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한 뒤 동일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학한 대학의 유형으로는 4~6년제 일반대학이 가장 많았고, 직업전문학교로 진학을 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 진학한 대학의 유형은 청소년 거주지의 지역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4~6년제 일반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낮았고 반면에 해외소재 외국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소년들은 교육, 예술 및 인문학, 공학, 제조 및 건설 등 다양한 전공계열을 선택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예술 및 인문학과 보건 및 복지계열을 선택한 비율이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높았다. 일반전형 중 수시모집을 통해 진학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특별전형으로 진학한 청소년 중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으로 진학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모집유형에 있어서도 청소년 거주지의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은 다른 지역규모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정시모집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진학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인은 본인의 적성과 희망이었고, 이와 함께 본인의 성적 수준도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과 전공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대학진학 여부를 비롯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본인을 선택한 청소년이 비율이 매우 높아,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진학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과정, 특히 입시정보 수집은 학교선생님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관련 기관의 선생님으로부터 대학진학 준비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거의 없었다. 이는 청소년의 연령이 올라가면서 학교와 학원 등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다문화 관련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과 같이 낮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다문화관련 기관에서 대학진학과 관련된 지원을 받는 일이 매우 드물 것이다. 하지만 점차 다문화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중등교육 단계에 진입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 밀집지역 여부에 따라 입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차이가 있었다. 일반지역에 비해 밀집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교선생님의 역할 보다는 본인 또는 학원선생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다.

대학 등록금은 대부분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하였고,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한 청소년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문화 밀집지역과 일반지역을 비교할 때, 부모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마련한 비율은 일반지역보다 높지만, 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마련의 비율이 일반지역보다 밀집지역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부모가 등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높아서일 수도 있으나, 대학진학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앞서 기술한 대학입시 관련 정보와 마찬가지로 등록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청소년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보통이상 수준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대학에 진학한 뒤 경험한 대학생활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통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와 같은 사회적응 만족도 수준은 다른 대학 만족도 및 학업적응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기적 COVID-19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 대학이 비대면 방식의 수업이 제공함에 따라 대학에서 경험한 대인관계가 제한된 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응 만족도를 야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대부

본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였다. 대부분 임시근로자 상태였고, 상용근로자로 일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약 23%(108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주로 서비스업의 일을 하였고, 단순노무 및 판매직종의 일 경험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장의 소재지 분포는 대체로 거주지 분포와 유사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서울과 경기, 인천이 직장 소재지인 경우가 좀 더 많았다. 일주일 총 근무일수는 4.18일이고, 하루 평균 6.9시간 정도 일하였으며 월평균 소득은 108만원 정도였다. 많은 경우가 임시근로자 상태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당 근무시간인 8시간보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짧았고, 월 평균 소득도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현재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었고, 대학생 생활 만족도와 다르게 직장 내 인간관계의 만족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교적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영역은 복리후생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었는데, 이는 앞서 기술한 근무조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청소년이 임시근로자의 상태로 서비스 및 단순노무직의 일을 경험함에 따라 현재 일자리가 향후 자신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2021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의 약 8%로 많지 않았고, 대부분 2020학년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하여 더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2021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주로 EBS를 포함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재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약 20%로 대학진학 준비자보다는 많았다. 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은 취업과 창업을 모두 준비하고 있었다. 취업과 창업준비를 위해 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특정 기술을 배우거나 관련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는 청소년도 다수 있었다. 2020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대학에 진학한 후 휴학을 하거나 자퇴 등으로 교육 활동을 하지 않으며,

동시에 일 경험도 없는 NEET의 비율은 16%(172명) 정도였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청소년이 NEET 집단 중에서 가장 많았고, 2021학년도에 아니나 대학진학을 준비하거나 군입대를 준비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들은 별다른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학력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있다면 일할 의향은 대부분 있었다. 이상 기술한 1기 패널 청소년의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실태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를 아래 <표 VII-30>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VII-30. 청소년의 진로실태 분석 주요 결과

영역	주요결과
진로 유형	- 과반수의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한 뒤 동일 학교에 재학하고 있음 - 대학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1주일 동안 수업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임 2021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의 약 8% 수준임 -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약 20%임 2020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대학에 진학한 후 휴학을 하거나 자퇴 등으로 교육 활동을 하지 않으며, 동시에 일 경험도 없는 NEET의 비율은 16%(172명) 정도로 나타남
대학진학 현황	- 진학한 대학의 유형으로는 4~6년제 일반대학이 가장 많았고, 직업전문학교로 진학을 한 경우도 일부 있음 - 상대적으로 예술 및 인문학과 보건 및 복지계열을 선택한 비율이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높음 - 일반전형 중 수시모집을 통해 진학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특별전형으로 진학한 청소년 중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으로 진학한 경우가 가장 많음 - 진학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인은 본인의 적성과 희망임 - 대학진학 여부를 비롯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본인을 선택한 청소년이 비율이 매우 높음 - 대학 등록금은 대부분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하였고,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한 청소년도 상대적으로 많음 - 대학에 진학한 뒤 경험한 대학생활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통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와 같은 사회적응 만족도 수준은 다른 대학 만족도 및 학업적응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영역	주요결과
	·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4~6년제 일반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낮았고 반면에 해외소재 외국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은 다른 지역규모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정시모집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다소 높음 · 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마련의 비율이 일반지역보다 밀집지역에서 낮음
근로 경험 현황	·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임 · 대부분 임시근로자 상태였고, 상용근로자로 일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약 23% 정도에 불과함 · 주로 서비스업의 일을 하였고, 단순노무 및 판매직종의 일 경험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서울과 경기, 인천이 직장 소재지인 경우가 많음 · 일주일 총 근무일 수는 4.18일이고, 하루 평균 6.9시간 정도 일하였으며 월평균 소득은 108만원 수준임 · 현재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었고, 직장 내 인간관계의 만족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복리후생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기타 진로유형 현황	· 2021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EBS를 포함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주요 준비활동임 · 취업과 창업준비를 위해 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특정 기술을 배우거나 관련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는 청소년도 다수 있음 ·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청소년이 NEET 집단 중에서 가장 많음 · 별다른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학력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있다면 일할 의향은 비교적 높음

(2) 다문화청소년 진로유형 결정요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유형을 크게 대학진학 여부와 일 경험 여부로 구분하고, 각 진로유형의 주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랜덤포레스트 방식을 통해 탐색하였다.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 1~9차년도 학생관련 402개 변인을 사용하여 대학진학과 일 경험의 결정모형을 도출한 결과, 대학진학 결정모형의 정분류율은 75% 이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의 분류 정확도를 보였으나, 일 경험 결정모형은 정분류율은 61%수준으로 다소 낮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

의 1~9차년도 자료는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의 특징을 찾기에 비교적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나 일 경험 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분류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 경험 변인은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라는 조사 시점을 고려하여 ‘지난 1주일 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즉, 취업 여부와 같이 청소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가진 변수가 아니라 임시적이고 일회적인 일 경험을 가진 청소년도 모두 일 경험이 있는 경우에 포함됨에 따라 분석에 사용된 특성변인들 만으로는 이들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는 본격적인 노동시장으로 진출한 청소년의 특징을 찾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진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위 20개 특성변인에는 고등학교 시기에 조사된 희망교육수준과 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 시기의 학습활동과 같이 대학진학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높은 변인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대학진학의 인접 시기인 고등학교 2~3학년에 해당하는 8~9차년도 변인인 성취동기,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가구소득, 삶의 만족도, 사회적 위축이 402개 가운데 중요도 지수 상위5%에 해당하는 20개 안에 포함되었다. 한편, 청소년이 초등학교에 재학 시기에 해당하는 일부 변인도 중요도가 높은 20개 특성변인에 포함되었다. 이들 변인의 대부분은 가정소득, 부모의 교육정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이 아니었으며, 대부분이 인지 및 심리·사회적응과 관련된 변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2011년 1차년도 조사의 변인인 가족의 지지가 분석에 사용된 총 402개 변인 가운데 9번째로 중요도 지수가 높았다. 이는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있어 초등학교 시기에 경험한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지원의 영향이 장기적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초등학생 시절의 수업태도, 주관적 성적수준 등은 여러 특성변인 가운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 분석에 사용한 반응변인은

대학진학 여부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을 고려할 때 대학진학이라는 것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여주는 하나의 변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와 긍정적 자기인식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대학진학 관련 중요도 지수 상위 20개 안에 다문화적 요인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은 청소년의 대학진학 여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비(非)다문화가정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자신의 희망교육수준과 학습활동 등과 같은 대학진학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본 분석을 통해서는 다문화적 요인이 청소년의 희망교육수준, 학습활동 등의 변인을 매개로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대학진학관련 중요도 지수가 높은 특성변인과 다문화적 요인 간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 경험 관련 중요도 지수가 높은 상위 20개 특성변인으로 대학진학 결정모형과 달리 지역요인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변인들이 포함되어 일 경험 여부는 대학진학에 비해 보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비행, 자기이해부족으로 인한 진로장벽,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 등과 같은 부정적 특성변인은 일 경험 여부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반면, 희망교육수준, 부모의 진로지원 정도, 가족의 지지, 성적 만족도 등 긍정적 특성변인은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물론 친한 친구의 수, 교사의 지지, 교우관계, 학교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여부 등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변인들은 일 경험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청소년기에 일부 영역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일 경험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1~9차년도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 패널자료

가 고등학교 진학 이후 청소년의 일 경험 여부를 예측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래 <표 VII-31>는 이상 기술한 대학진학 및 일 경험 관련 결정요인 탐색을 위한 랜덤포레스트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VII-31. 진로유형 결정요인 탐색 주요 결과

영역	주요결과
대학진학 결정요인	• 대학진학 결정모형의 정분류율은 75% 이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의 분류 정확도를 보임 • 대학진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위 20개 특성변인에는 고등학교 시기에 조사된 희망교육수준과 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 시기의 학습활동과 같이 대학진학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높은 변인들이 다수 포함됨 • 대학진학의 인접 시기인 고등학교 2~3학년에 해당하는 8~9차년도 변인인 성취동기,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가구소득, 삶의 만족도, 사회적 위축이 402개 가운데 중요도 지수 상위5%에 해당하는 20개 안에 포함됨 • 초등학교에 재학 시기에 해당하는 변인인 가족의 지지, 수업태도, 주관적 성적수준 등이 중요도가 높은 20개 특성변인에 포함됨 • 대학진학 관련 중요도 지수 상위 20개 안에 다문화적 요인은 포함되지 않음
일 경험 결정요인	• 일 경험 결정모형은 정분류율은 61%수준으로 분류 정확도가 다소 낮음. 이는 1~9차년도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 패널자료가 고등학교 진학 이후 청소년의 일 경험 여부를 예측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일 경험 관련 중요도 지수가 높은 상위 20개 특성변인으로 대학진학 결정모형과 달리 지역요인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변인들이 포함됨 • 대체로 비행, 자기이해부족으로 인한 진로장벽,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 등과 같은 부정적 특성변인은 일 경험 여부와 정적인 관계를 보임 • 희망교육수준, 부모의 진로지원 정도, 가족의 지지, 성적 만족도 등 긍정적 특성변인은 부적인 관계를 보임 • 친구의 수, 교사의 지지, 교우관계, 학교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여부 등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변인들은 일 경험과 정적인 관계를 보임

이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1기 패널의 대학진학의 결정요인은 주로 고등학교 시기에 조사된 희망교육수준과 희망 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 시기의 학습활동,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시기의 성취동기,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가구소득, 삶의 만족도, 사회적 위축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가족의 지지와 수업태도, 주관적 성적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일과 관련된 경험의 결정요인은 오히려 비행, 자기이해부족으로 인한 진로장벽,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많고, 희망교육수준, 부모의 진로지원 정도, 가족의지지,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같이 놓고 보면, 발달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요인들은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진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에 진학하는 집단의 경우 발달적 측면에서 성장기에 긍정적인 경험과 부모의 지지를 받는 집단인 반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러한 긍정적 경험이 적고 부정적 발달경험이 높으며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집단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진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 개의 선택할 수 있는 동등한 진로 중 하나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추후 사회적 계층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다문화청소년 뿐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일 텐데, 분석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기의 경험이 대학진학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3. 다문화청소년의 초4 시기 학업관련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본 장에서는 이어서 2019년도 보다 다양한 유형을 대상으로 구축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영역 중 학업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분석 방법

본 분석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초 4 시기 학업관련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에 수집된 2기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학업관련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및 부모 변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학업관련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가 하위유형(국제결혼 국내출생, 국제결혼 국외출생, 외국인 국내출생, 외국인 국외출생)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학업관련 변인들과 청소년 및 부모 변인들 간의 단순 관련성(상관 또는 평균차이)을 파악하였다. 둘째로, 학업관련 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던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 변인들의 독립적 효과와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이 때 지역규모에 따라 학업관련 변인들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규모를 통제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독립변인들의 효과가 하위유형에 따라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하위유형 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하위유형 간 회귀계수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회귀계수간 차이검증은 아래의 수식을 이용하였다(Clogg, Petkova, & Haritou, 1995). B 는 각 집단의 비표준화 회귀계수이며, SE_B 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이다.

$$z = \frac{B_1 - B_2}{\sqrt{(SE_{B_1})^2 + (SE_{B_2})^2}}$$

모든 중다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한 변량증분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확인하였으며, 어떤 경우도 5를 넘어서지 않았다.

2) 분석 자료

분석 자료는 2019년에 조사한 다문화 청소년 2기 패널자료 중 청소년의 학업 관련 변인들과 청소년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요인, 청소년 이주배경 요인, 청소년 환경 및 기타요인, 부모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 부모 이주배경요인, 가정환경요인, 자녀양육관련 요인, 다문화지원정책 경험이었다. 청소년 자료의 사례 수는 2,249명이었으며, 부모 자료의 사례 수는 2,223명이었으며, 분석에 사용한 변인들을 영역별로 제시하면 <표 VII-32>와 같다.

표 VII-32. 분석에 사용한 청소년 변인

	영역	분석 변인
청소년 변인	학업	· 학교생활적응 · 학교성적 · 성적에 대한 만족도 · 희망교육수준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 신체 및 정신 건강 · 자아존중감 · 사회적 역량 · 삶의 만족도 · 우울 · 현재 걱정거리
	이주배경	· 국적에 대한 인식 · 국가 정체성 · 한국문화수용태도 · 본국문화수용태도 · 문화적응 스트레스 ·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부모특성	· 부모 양육태도(감독 및 방임) · 부모님과 활동 · 하루 부모님과 대화시간 · 방과 후 보호자 부재 · 주관적 가정형편

	영역	분석 변인
	사회적 지지	· 부모님의 지지 · 교사의 지지 · 친구의 지지 · 학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 학외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기타	· 청소년 활동 · 집단 괴롭힘 피해
부모 변인	부모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 부모 자아존중감 · 부모 전반적 건강 상태
	부모 이주배경	· 부모 한국어 수준 ·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정환경요인	· 부모학력 · 가정의 월평균 소득 · 가정의 경제적 수준 · 배우자와의 사이
	자녀양육관련 태도 및 행동	·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 자녀의 모국(본국)어 능력 ·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 자녀 학교문제, 숙제 지도하는 사람 ·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 선호하는 자녀 교육 방식 · 사교육비 수준(교과목 및 특기적성) · 부모효능감 · 희망하는 자녀 교육 수준
	자녀의 다문화지원정책경험	· 다문화가족정책 지원 경험

3) 분석 결과

(1) 지역규모에 따른 학업관련 변인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이미 전년도에 학업관련 변인을 지역규모에 따라 분석한 바 있는데, 지역규모에 따라서 희망교육수준의 경우 대도시에 비하여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낮고 학교생활 적응과 성적, 성적 만족도의 평균은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양계민 외, 2020: 407). 이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표 VII-33>과 같이 대도시와 나머지 지역을 비교하는 대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희망교육수준³¹⁾에서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집단에 비하여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학교생활적응과 성적, 성적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³²⁾. 추후 분석에서는 지역의 규모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지역의 규모가 통제된 이후에도 청소년변인 및 부모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VII-33. 지역규모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

	대도시 _a (n=728)	중소도시 _b (n=814)	읍/면 _c (n=703)	F	사후검증	대비분석 t / p ¹⁾
학교생활적응	3.25 (0.51)	3.2 (0.50)	3.2 (0.51)	2.30	-	2.14
성적	3.43 (0.76)	3.41 (0.79)	3.35 (0.75)	2.241	-	1.49
성적만족도	3.02 (0.64)	2.95 (0.70)	2.96 (0.69)	1.85	-	1.88
희망교육수준	1.99(0.50) _a	1.9(0.55) _b	1.86(0.54) _b	11.10***	a)bc	4.46***

1) 대도시와 중소도시+읍/면 지역을 비교한 대비분석임. *** $p < .001$

31) 희망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범주로 가지는 서열변인이지만 빈도분석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빈도가 각각 33명(1.5%), 23명(1.0%), 363명(16.2%), 1594명(71.0), 232명(10.3%)이었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나의 집단으로 재구성하여 1로 코딩하였고, 대학교는 2, 대학원은 3으로 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이후 분석에서는 대도시(1로 부호화)와 나머지 지역(0으로 부호화)을 나누는 이분화된 지역변인을 생성하여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2) 다문화청소년의 개인변인과 학업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우선 다문화 청소년 개인특성변인들과 학업관련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특성 변인인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 이주배경특성, 부모변인, 사회적지지 및 기타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①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

첫 번째로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들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표 VII-34〉),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모두 학업관련 변인들(학교생활 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r=.116\sim.345$, 모두 $p<.001$), 신체건강보다는 정신건강이 학업관련 변인과 상관이 높은 경향이 뚜렷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관련 변인들의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119\sim.449$, 모두 $p<.001$), 우울은 학업관련 변인들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 및 삶의 만족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81\sim-.072$, 모두 $p<.001$).

표 VII-34.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평균(표준편차)
신체건강	.260***	.160***	.139***	.082***	3.48(0.61)
정신건강	.345***	.246***	.228***	.132***	3.51(0.58)
전체건강	.330***	.221***	.199***	.116***	3.49(0.54)
자아존중감	.389***	.236***	.286***	.147***	3.29(0.56)
사회적 역량	.429***	.281***	.293***	.166***	3.22(0.59)
삶의 만족도	.449***	.251***	.301***	.119***	3.35(0.55)
우울	-.181***	-.074***	-.077***	-.072***	1.40(0.75)

*** $p<.001$

또한 현재 걱정거리와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각각의 걱정거리와 학업관련 변인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VII-35〉). 그 결과 비자/체류 문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류의 걱정 수준이 학업관련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걱정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 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이 낮았는데, 특히 공부, 학교, 성적 문제의 걱정 수준은 성적($r=-.268, p<.001$) 및 성적 만족도($r=-.331, p<.001$)와 상대적으로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진학, 진로문제는 성적 만족도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r=-.232, p<.001$). 나머지 종류의 걱정 수준과 학업관련 변인 간에는 $r=-.2$ 이하의 상관을 보였다. 비자체류의 문제는 한국국적이 없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아마도 현재 패널에는 체류자격에서 불안정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VII-35. 현재 걱정거리와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평균(표준편차)
공부, 학교, 성적 문제	-.161***	-.268***	-.331***	-.052*	2.18(0.91)
진학, 진로 문제	-.142***	-.170***	-.232***	-.037	2.00(0.89)
가정의 경제적 형편	-.147***	-.117***	-.165***	-.065**	1.87(0.87)
부모님 사이의 불화	-.120***	-.015	-.028	-.070***	1.92(1.01)
아버지와 나와의 갈등	-.139***	-.048*	-.059**	-.064**	1.66(0.85)
어머니와 나와의 갈등	-.142***	-.054*	-.051*	-.071***	1.62(0.83)
형제자매와 나와의 갈등	-.067**	.026	.015	-.045*	1.63(0.88)
이성친구와 문제(n=1,553)	-.158***	-.103***	-.104***	-.054*	1.65(0.83)
친구와의 문제	-.168***	-.097***	-.108***	-.039	1.74(0.87)
나의 성격 문제	-.168***	-.093***	-.122***	-.071***	1.74(0.86)
나의 외모 문제	-.189***	-.107***	-.159***	-.078***	1.67(0.85)
나의 건강 문제	-.182***	-.101***	-.089***	-.060**	1.66(0.86)
미래에 대한 불안감	-.176***	-.095***	-.137***	-.056**	1.72(0.90)
비자/체류 문제(n=272)	-.040	-.007	-.008	.051	1.56(0.81)

* $p<.05$, ** $p<.01$, *** $p<.001$

② 이주배경 변인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

다음으로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태도 등 청소년들이 지닌 이주배경 변인들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VII-36〉). 그 결과 이주배경 변인들은 학업관련 변인들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r|=.047\sim.345$, 모두 $p<.05$). 즉, 국가 정체성, 한국 및 본국 문화수용태도,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이 높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관련 변인들의 점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계수는 $|r|=.2$ 이상의 상관을 보였으며, 성적 및 성적 만족도, 희망교육수준과는 $|r|=.22$ 이하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배경변인의 경우 직접적인 성적이나 희망교육수준 등과의 관계보다는 학교생활 적응요인과의 관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II-36. 이주배경 변인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평균(표준편차)
국가정체성	.210***	.102***	.123***	.113***	2.62(0.72)
이중문화수용태도	.340***	.200***	.185***	.169***	2.96(0.44)
한국문화수용태도	.349***	.203***	.191***	.153***	3.28(0.51)
본국문화수용태도	.200***	.119***	.108***	.116***	2.63(0.61)
문화적응스트레스	-.252***	-.192***	-.219***	-.047*	1.28(0.41)
한국인다문화수용성	.234***	.181***	.201***	.079***	3.52(0.72)

* $p<.05$, *** $p<.001$

이주배경 변인 중 국적에 대한 인식의 경우는 범주변인이기에 상관관계분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국적인식 유형별로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을 살펴보았다(〈표 VII-37〉). 변량분석결과, 국적인식 유형에 따라 학업관련 변인들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모두 $p<.01$), Tukey 사후검증결과,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이며 동시에 본국사람이라고 응답한 이중정체성을 지닌 집단의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 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 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이 가장 낮았다. 한국사람 또는 본국사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평균과 유사하였다³³⁾.

표 VII-37. 국적인식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

	한국사람 ^a (n=1602)	본국사람 ^b (n=211)	한국+본국사람 ^c (n=381)	잘 모르겠다 ^d (n=51)	F	사후검증
학교생활적응	3.21(0.49)	3.23(0.54)	3.28(0.53)	3.07(0.48)	3.785**	c>ad
성적	3.40(0.75)	3.19(0.85)	3.55(0.75)	3.16(0.97)	11.825***	c>abd/a>b
성적만족도	2.98(0.66)	2.77(0.77)	3.09(0.66)	2.75(0.84)	12.551***	c>abd/a>b
희망교육수준	1.90(0.51)	1.99(0.59)	1.97(0.57)	1.75(0.59)	4.709**	bc>d

** $p<.01$, *** $p<.001$

③ 자녀가 지각한 부모 및 가정환경특성 변인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
세 번째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특성 및 가정환경특성과 학업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특성 및 가정환경 특성 변인들은 학업관련 변인들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58\sim.305$, 모두 $p<.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감독 양육태도, 부모와 활동, 부모와 대화시간, 주관적 가정형편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 방임 양육태도 수준과 방과 후 보호자 부재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가 지각한 부모 및 가정환경특성 변인은

33) 따라서 이후분석에서 한국 사람이며 본국사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1로 부호화)과 나머지 범주의 청소년들(0으로 부호화)로 이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네 가지 학교관련 변인들 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보다는 학교생활 적응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II-38>).

표 VII-38. 자녀가 지각한 부모 및 가정환경특성 변인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평균(표준편차)
부모 감독 양육태도	.293***	.139***	.105***	.128***	3.34(0.55)
부모 방임 양육태도	-.203***	-.117***	-.095***	-.058**	1.64(0.65)
양육태도	.305***	.159***	.124***	.113***	3.35(0.48)
부모님과 활동	.218***	.128***	.088***	.195***	2.71(0.88)
부와 대화시간(n=2194)	.162***	.134***	.130***	.125***	3.01(1.29)
모와 대화시간	.182***	.141***	.109***	.139***	3.69(1.19)
방과후보호자부재	-.076***	-.073***	-.061**	-.069***	1.72(1.06)
주관적 가정형편	.244***	.256***	.271***	.093***	3.39(0.85)

** $p < .01$, *** $p < .001$

④ 사회적 지지 변인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

네 번째로, 부모, 친구, 교사 지지와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VII-39>). 사회적 지지 변인들은 학업관련 변인들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 = .116 \sim .524$, 모두 $p < .001$). 특히 친구지지($r = .458$, $p < .001$)와 교사지지($r = .524$)는 학교생활적응과 .4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VII-39. 부모, 친구, 교사 지지와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평균(표준편차)
부모지지	.367***	.206***	.166***	.197***	3.34(0.54)
친구지지	.458***	.253***	.239***	.116***	3.85(0.82)
교사지지	.524***	.266***	.229***	.134***	3.79(0.81)

*** $p < .001$

학교 내와 학교 밖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의 경우는 상관관계보다는 평균비교가 더 명확하므로 학교 내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지기반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표 VII-40〉). 그 결과 학교 내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고(각각 $t=11.12, p<.001$; $t=5.43, p<.001$; $t=7.23, p<.001$; $t=2.76, p<.01$). 학교 밖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t=8.37, p<.001$; $t=4.149, p<.001$; $t=6.036, p<.001$; $t=2.978, p<.01$)³⁴⁾.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관련 요인들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요인은 다방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II-40. 학교 내 및 밖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학교 내	있음 (n=1,880)	3.27(0.49)	3.44(0.77)	3.02(0.66)	1.93(0.54)
	없음 (n= 365)	2.96(0.51)	3.20(0.73)	2.74(0.71)	1.85(0.51)
	<i>t</i>	11.119***	5.429***	7.268***	2.755***
학교 밖	있음 (n=1,205)	3.30(.48)	3.46(.75)	3.06(.66)	1.95(.54)
	없음 (n=1,040)	3.13(.52)	3.32(.79)	2.88(.69)	1.88(.53)
	<i>t</i>	8.370***	4.149***	6.036***	2.978***

*** $p<.001$

⑤ 기타 변인

다음으로 기타 청소년 활동(문화생활, 스포츠 관람, 레저시설 이용 등)수준 및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VII-41〉). 분석 결과, 청소년 활동수준은 학업관련 변인들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091\sim.216$, 모두 $p<.001$). 특히 성적과의 관련성은 기타 다른

34) 이후 분석에서는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1로, 없는 경우를 0으로 부호하여 사용하였다.

학업관련 변인보다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지만 중요한 결과로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청소년활동은 학업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되지만, 청소년활동은 오히려 학업성적에 도움이 되는 요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집단 괴롭힘 피해 수준은 학업관련 변인들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46 \sim -.143$, 모두 $p < .05$). 특히 학교생활적응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 지속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표 VII-41. 기타 변인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평균(표준편차)
청소년 활동 수준	.161***	.216***	.180***	.091***	6.05(3.32)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	-.143***	-.077***	-.094***	-.046*	1.12(0.34)

* $p < .05$, *** $p < .001$

(3) 다문화청소년 개인 변인이 학업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는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관련 변인과 청소년 개인변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다음으로는 다문화 청소년 개인특성 변인별로 각 영역 내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문화 청소년 변인들의 독립적 효과와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①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의 영향

우선 첫 번째로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관련 변인들이 학업관련변인과 가지는 독립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규모를 통제한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VII-42〉)³⁵⁾. 지역규모를 통제한 후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적응 변량의 26.3%($p < .001$), 성적 변량의

10.5%($p<.001$), 성적 만족도 변량의 12.6%($p<.001$), 희망교육수준 변량의 3.2%($p<.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삶의 만족도였고($\beta=.244$, $p<.001$), 다음이 사회적 역량($\beta=.183$, $p<.001$)이었으며, 정신건강($\beta=.100$, $p<.001$), 자아존중감($\beta=.108$, $p<.001$)의 경우 크지 않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우울과 걱정거리, 지역 규모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성적 자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역량($\beta=.147$, $p<.001$)이었고, 성적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삶의 만족도였으며($\beta=.152$, $p<.001$). 희망교육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역량($\beta=.091$, $p<.001$)이었다. 따라서 학업관련 요인 중 학교생활적응과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이고, 성적과 희망교육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2.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의 회귀분석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지역규모	.026	.015	.023	.084***
정신건강	.100***	.115***	.058*	.055*
자아존중감	.108***	.056*	.110***	.063*
사회적 역량	.183***	.147***	.118***	.091***
삶의 만족도	.244***	.095***	.152***	.005
우울	-.006	.041	.057**	-.019
걱정거리	.007	-.013	-.038	.005
R ²	.265***	.106***	.128***	.041***
ΔR^2	.263***	.105***	.126***	.032***

주. 표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R²은 지역규모를 포함한 결정계수이며, ΔR^2 는 지역규모 통제된 후 나머지 독립변인들의 결정계수임.

* $p<.05$, ** $p<.01$, *** $p<.001$

35)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간에 상관이 높은 관계로($r=.67$, $p<.001$) 회귀분석에서는 정신건강만 사용하였으며, 걱정거리의 경우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② 청소년의 이주배경 변인의 영향

두 번째로 청소년의 이주배경 변인들이 학업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VII-43〉). 그 결과 지역규모를 통제했을 때, 이주배경 변인들은 학교생활 적응 변량의 18.5%($p<.001$), 성적 변량의 8.3%($p<.001$), 성적 만족도 변량의 9.4%($p<.001$), 희망교육수준 변량의 3.5%($p<.001$)를 설명하여, 이주배경 변인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종속변인은 학교생활적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이주배경 변인 각각을 살펴보면,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한국문화수용태도였으며($\beta=.210$, $p<.001$), 문화적응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beta=-.158$, $p<.001$). 성적과 성적만족도 역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각각 $\beta=-.132$, $p<.001$; $\beta=-.164$, $p<.001$), 국적인식, 문화적응 스트레스,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은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3.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이주배경 변인의 회귀분석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지역규모	.049*	.031	.039	.095***
국적인식	.032	.073***	.063**	.024
국가정체성	.099***	.044*	.082***	.052*
한국문화수용태도	.210***	.110***	.070**	.103***
본국문화수용태도	.108***	.056**	.046*	.078***
문화적응스트레스	-.158***	-.132***	-.164***	-.007
한국인다문화수용성	.115***	.101***	.123***	.036
R ²	.187***	.084***	.095***	.044***
ΔR ²	.185***	.083***	.094***	.035***

주. 표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R²은 지역규모를 포함한 결정계수이며, ΔR²은 지역규모의 효과를 제외한 독립변인들의 결정계수임. 국적인식은 한국 사람이며 본국사람이라는 응답을 1, 나머지 응답을 0으로 부호화함.

* $p<.05$, ** $p<.01$, *** $p<.001$

③ 자녀가 지각한 부모 및 가정환경특성 변인의 영향

학업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녀가 지각한 부모 및 가정환경특성의 영향을 지역규모의 영향을 통제한 후 살펴본 결과, 부모관련 변인들은 학교생활적응 변량의 14.8%($p<.001$), 성적 변량의 8.7%($p<.001$), 성적 만족도 변량의 8.4%($p<.001$), 희망교육수준 변량의 4.9%($p<.001$)를 설명하여, 역시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II-44). 그 중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beta=.186$, $p<.001$)와 주관적 가정형편($\beta=.169$, $p<.001$)이었고,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과 방과후 보호자 부재 수준은 독립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모두 $p>.05$), 성적과 성적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가정형편이었고(각각 $\beta=.219$, $p<.001$; $\beta=.246$, $p<.001$), 마지막으로 희망교육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님과 활동하는 수준이었다($\beta=.134$, $p<.001$).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와의 활동시간, 주관적 가정형편은 중요한 변인이며, 부모와의 대화나 방과후 보호자의 부재의 경우는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향력이 큰 것은 아니었다.

표 VII-44.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부모 변인의 회귀분석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지역규모	.023	.021	.041*	.076*
부모 감독 양육태도	.186***	.053*	.033	.046*
부모 방임 양육태도	-.097***	-.042	-.027	.000
부모님과 활동	.086***	.044	.017	.134***
부와 대화시간	.033	.020	.049	.048
모와 대화시간	.046	.060*	.015	.036
방과후 보호자 부재	-.028	-.041*	-.035	-.045*
주관적 가정형편	.169***	.219***	.246***	.054*
R ²	.150***	.088	.086***	.057***
△R ²	.148***	.087***	.084***	.049***

주. 표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R²은 지역규모를 포함한 결정계수이며, △R²은 지역규모의 효과를 제외한 독립변인들의 결정계수임.

* $p<.05$, *** $p<.001$

④ 사회적지지의 영향

다음으로 지역규모를 통제한 후 사회적 지지 변인들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VII-45〉). 그 결과 사회적 지지 변인들은 학교생활적응 변량의 36.6%($p<.001$), 성적 변량의 10.3%($p<.001$), 성적 만족도 변량의 8.9%($p<.001$), 희망교육수준 변량의 4.4%($p<.001$)를 설명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관련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우선 첫째로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지지($\beta=.344$, $p<.001$)였고, 다음이 친구지지($\beta=.245$, $p<.001$)였다. 이는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교사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변인이며 교사 대상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표 VII-45.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 변인의 회귀분석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지역규모	.025	.021	.029	.087***
부모지지	.137***	.088***	.045*	.160***
친구지지	.245***	.146***	.153***	.034
교사지지	.344***	.160***	.119***	.057*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 유무	.074***	.033	.075***	-.002
학교 외 도와주는 어른 유무	.042*	.017	.057**	.018
R^2	.368***	.104***	.091***	.052***
ΔR^2	.366***	.103***	.089***	.044***

주. 표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R^2 은 지역규모를 포함한 결정계수이며, ΔR^2 은 지역규모의 효과를 제외한 독립변인들의 결정계수임.

* $p<.05$, ** $p<.01$, *** $p<.001$

⑤ 기타 변인의 영향

마지막으로 지역규모를 통제한 후 청소년 활동 수준과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학업관련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 VII-46〉), 청소년 활동 수준과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은 학교생활적응 변량의 4.8%($p<.001$), 성적 변량의

5.4%($p<.001$), 성적 만족도 변량의 4.2%($p<.001$), 희망교육수준 변량의 1.0%($p<.001$)를 설명하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긴 하였으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6.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 변인의 회귀분석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지역규모	.035	.022	.032	.088***
청소년 활동 수준	.167***	.219***	.184***	.091***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	-.149***	-.086***	-.100***	-.046*
R ²	.050***	.055***	.044***	.019***
ΔR^2	.048***	.054***	.042***	.010***

주. 표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R²은 지역규모를 포함한 결정계수이며, ΔR^2 는 지역규모의 효과를 제외한 독립변인들의 결정계수임.

* $p<.05$, *** $p<.001$

(4) 다문화청소년의 개인변인이 학업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의 하위 집단 간 차이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개인변인들이 학업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하위유형, 즉,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등 집단에 따라 다른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회귀분석 후 각 집단별 회귀계수 차이검증(쌍비교)을 실시하였다. 영역별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 효과의 집단 간 차이

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집단 간 차이

우선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들의 회귀계수와 회귀계수 차이검증결과를 <표 VII-47>에 제시하였다. 하위유형별 R²은 .205

~ .279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정신건강 회귀계수($B=0.215$)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정신건강 회귀계수($B=-0.042$)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자아존중감 회귀계수($B=0.121$)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자아존중감 회귀계수($B=-0.123$)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정신건강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에서 가장 컸으며,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7.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29(-.027)	0.026(.025)	-0.003(-.003)	0.000(.000)	-
정신건강	0.076(.087)***	0.102(.121)	-0.042(-.046)	0.215(.226)	d>c
자아존중감	0.121(.131)***	0.019(.023)	-0.123(-.165)	0.114(.118)	a>c
사회적역량	0.164(.187)***	0.148(.186)	0.242(.314)	0.104(.125)	-
삶의 만족도	0.226(.247)***	0.231(.273)**	0.228(.259)	0.133(.139)	-
우울	-0.002(-.002)	0.011(.017)	-0.087(-.111)	-0.02(-.026)	-
걱정 총합	0.000(-.006)	-0.001(-.018)	-0.004(-.066)	0.002(.038)	-
R ²	.279***	.247***	.205***	.248***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 $p<.001$

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의 집단 간 차이

다음으로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들의 회귀계수와 회귀계수 차이검증결과를 <표 VII-48>에 제시하였다. 하위유형별 R²은 .107 ~ .251이었으며,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이 가장 컸다.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외국인가정 중 국외출생 집단의 정신건강 회귀계

수(각각 $B=0.363$, $B=0.246$)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정신건강 회귀계수 ($B=-0.127$)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의 사회적역량 회귀계수($B=0.558$)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회귀계수(각각 $B=0.157$, $B=0.060$)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정신건강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국외출생 집단이 국내출생 집단 보다 더 큰 경향이 있었으며, 사회적 역량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가정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VII-48.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20(.012)	0.160(.094)	0.294(.188)*	-0.055(-.033)	-
정신건강	0.143(.109)***	0.363(.259)**	-0.127(-.087)	0.246(.169)*	bd>c
자아존중감	0.133(.096)***	-0.066(-.049)	0.002(.001)	-0.120(-.081)	-
사회적역량	0.157(.119)***	0.060(.045)	0.558(.455)***	0.319(.250)**	c>ab
삶의 만족도	0.127(.092)**	0.364(.259)*	0.131(.094)	0.035(.024)	-
우울	0.034(.034)	0.108(.097)	0.099(.080)	-0.002(-.002)	-
걱정총합	-0.002(-.020)	0.004(.034)	-0.007(-.067)	0.003(.034)	-
R^2	.108***	.172***	.251***	.107***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 $p<.001$

다. 성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집단 간 차이

하위유형 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들의 회귀계수와 회귀계수 차이검증결과를 <표 VII-49>에 제시하였다. 하위유형별 R^2 은 .108 ~ .237이었으며,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정신건강 회귀계수($B=0.315$)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정신건강 회귀계수($B=0.048$)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5$),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자아존중감 회귀계수($B = 0.204$)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자아존중감 회귀계수(각각 $B = -0.089$, $B = -0.123$)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또한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집단의 사회적역량 회귀계수($B = 0.433$)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집단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집단의 회귀계수(각각 $B = 0.109$, $B = 0.038$)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5$),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삶의만족도 회귀계수($B = 0.475$)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삶의만족도 회귀계수(각각 $B = 0.175$, $B = 0.131$)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정신건강이 성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이 가장 컸으며, 자아존중감의 영향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이 가장 컸고, 사회적 역량의 영향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이 가장 컸으며, 삶의 만족도의 영향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9. 하위유형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37(.025)	-0.031(-.020)	0.253(.170)	0.039(.028)	-
정신건강	0.048(.042)	0.315(.250)	0.044(.031)	0.077(.062)	b>a
자아존중감	0.204(.167)***	-0.089(-.073)	-0.123(-.109)	0.063(.050)	a>bc
사회적역량	0.109(.095)**	0.038(.032)	0.433(.371)**	0.212(.196)*	c>ab
삶의 만족도	0.175(.145)***	0.475(.377)***	0.08(.060)	0.131(.105)	b>ad
우울	0.042(.049)*	0.123(.123)	-0.024(-.021)	0.036(.036)	-
걱정총합	-0.005(-.054)*	0.002(.018)	0.004(.035)	0.003(.036)	-
R ²	.144***	.237***	.144	.108***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 < .05$, ** $p < .01$, *** $p < .001$

라. 희망교육수준

다음으로 하위유형 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들의 회귀계수와 회귀계수 차이검증결과를 <표 VII-50>에 제시하였다. 하위유형별 R^2 은 .030 ~ .072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하위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p>.05$).

표 VII-50. 하위유형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86(.076)**	-0.087 (-.080)	0.085 (.087)	0.142 (.126)*	-
정신건강	0.056(.062)	-0.006 (-.007)	0.098 (.107)	-0.062 (-.063)	-
자아존중감	0.052(.054)	-0.039 (-.045)	-0.004 (-.005)	0.189 (.191)*	-
사회적역량	0.100(.109)**	0.129 (.153)	0.015 (.020)	-0.027 (-.032)	-
삶의만족도	-0.006(-.007)	0.093 (.104)	-0.048 (-.055)	0.043 (.043)	-
우울	-0.003(-.004)	0.009 (.012)	0.095 (.122)	-0.102 (-.132)	-
걱정총합	-0.001(-.011)	-0.002 (-.027)	-0.002 (-.029)	0.006 (.097)	-
R^2	.043***	.051	.030	.072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 $p<.001$

② 이주배경요인 영향의 집단 간 차이

가. 학교생활적응

하위유형 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이주배경 변인들의 회귀계수와 회귀계수 차이검증결과는 <표 VII-5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하위유형별 R^2 은 .179 ~ .28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국적인식 회귀계수($B=0.185$)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국적인식 회귀계수

($B=-0.065$)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p<.05$),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한국문화수용태도 회귀계수($B=0.373$)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한국문화수용태도 회귀계수(각각 $B=0.181$, $B=0.087$)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회귀계수($B=-0.532$)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국외출생 집단,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회귀계수(각각 $B=-0.199$, $B=-0.156$, $B=-0.150$)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국적인식의 영향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에서 가장 컸으며, 한국문화수용태도의 영향은 국외출생 집단에서 큰 경향이 있었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51.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이주배경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49(.044)*	0.031(.031)	0.029(.030)	0.077(.070)	-
국적인식	0.036(.025)	-0.065(-.062)	0.185(.181)*	0.060(.043)	c>b
국가정체성	0.088(.126)***	-0.027(-.038)	0.054(.086)	0.044(.056)	-
한국문화수용태도	0.181(.182)***	0.373(.368)***	0.087(.092)	0.256(.273)***	b>ac
본국문화수용태도	0.098(.118)***	0.019(.025)	-0.049(-.053)	0.129(.147)*	-
문화적응스트레스	-0.199(-.159)***	-0.156(-.133)	-0.532(-.441)***	-0.150(-.130)*	c>abd
한국인다문화수용성	0.074(.106)***	0.110(.164)	0.083(.142)	0.114(.155)*	-
R^2	.179***	.255***	.288***	.236***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01$

나. 성적

다음으로, 하위유형 별 성적에 대한 이주배경 변인들의 회귀계수와 회귀계수 차이검증결과는 <표 VII-5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하위유형별 R^2 은 .084 ~ .149로,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하위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없었다(모두 $p > .05$).

표 VII-52.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이주배경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43(.026)	0.142(.084)	0.237(.152)	0.009 (.006)	-
국적인식	0.143(.066)***	0.332(.189)*	-0.011(-.007)	0.209 (.096)	-
국가정체성	0.046(.044)	0.021(.017)	0.177(.177)	-0.002 (-.002)	-
한국문화수용태도	0.144(.096)***	0.380(.227)*	0.032(.021)	0.259 (.180)	-
본국문화수용태도	0.070(.056)*	0.158(.121)	-0.058(-.040)	0.115 (.086)	-
문화적응스트레스	-0.238(-.126)***	-0.172(-.088)	-0.441(-.230)*	-0.221 (-.124)	-
한국인다문화수용성	0.131(.124)***	0.030(.026)	-0.037(-.040)	0.062 (.055)	-
R^2	.084***	.149**	.104	.104***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 < .05$, ** $p < .01$, *** $p < .001$

다. 성적만족도

다음으로 하위유형 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이주배경 변인들의 회귀계수와 회귀계수 차이검증결과는 <표 VII-5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하위유형별 R^2 은 .095 ~ .189였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하위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p > .05$).

표 VII-53. 하위유형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이주배경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61(.042)	-0.033(-.022)	0.232(.156)	0.098(.068)	-
국적인식	0.108(.057)*	0.303(.193)*	0.114(.074)	0.039(.021)	-
국가정체성	0.069(.075)**	0.047(.043)	0.226(.237)*	0.016(.016)	-
한국문화수용태도	0.068(.052)	0.312(.207)	-0.002(-.001)	0.195(.159)*	-
본국문화수용태도	0.079(.072)**	-0.113(-.097)	-0.061(-.045)	0.103(.090)	-
문화적응스트레스	-0.229(-.138)***	-0.330(-.189)*	-0.443(-.243)*	-0.306(-.203)**	-
한국인다문화수용성	0.141(.152)***	0.083(.083)	-0.036(-.040)	0.041(.043)	-
R ²	.095***	.189***	.121	.122***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 < .05$, ** $p < .01$, *** $p < .001$

라. 희망교육수준

다음으로 하위유형 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이주배경 변인들의 회귀계수와 회귀계수 차이검증결과를 <표 VII-54>에 제시하였다. 하위유형별 R^2 은 .044 ~ .178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국가정체성 회귀계수($B=0.063$)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국가정체성 회귀계수($B=-0.085$)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또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한국문화수용태도 회귀계수($B=0.480$)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 및 국외출생 집단의 한국문화수용태도 회귀계수(각각 $B=0.067$, $B=0.097$, $B=0.058$)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5$),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인식 회귀계수($B=0.150$)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국외출생 집단,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인식 회귀계수(각각

B=0.021, B=-0.101, B=-0.039)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국가정체성의 영향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이 가장 컸으며, 한국문화 수용태도의 영향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이 가장 컸고,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인식의 영향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54. 하위유형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이주배경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100(.088)***	-0.039(-.036)	0.088 (.090)	0.172(.153)*	-
국적인식	0.009(.006)	0.061(.054)	-0.132(-.129)	0.100(.069)	-
국가정체성	0.063(.086)**	-0.085(-.111)	0.023 (.037)	-0.018(-.023)	a>b
한국문화수용태도	0.067(.064)*	0.480(.449)***	0.097 (.102)	0.058(.060)	b>acd
본국문화수용태도	0.081(.094)***	0.139(.168)*	-0.023(-.025)	0.014(.015)	-
문화적응스트레스	-0.033(-.025)	0.095(.076)	-0.010(-.009)	-0.049(-.041)	-
한국인다문화수용성	0.021(.029)	-0.101(-.141)	-0.039(-.067)	0.150(.198)**	d>abc
R ²	.044***	.178***	.044	.092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 $p<.001$

③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관련 변인 및 가정환경특성 효과의 집단 간 차이
 다음으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관련 변인 및 가정환경특성의 효과가 네 개의 하위유형에서 서로 다른 영향력을 지니는지 파악하고자 각 집단별 회귀계수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교생활적응

우선 하위유형 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들의 회귀계수와 회귀계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VII-55〉), 하위유형별 R^2 은 .143 ~ .226이었다. 각 회귀계수를 쌍비교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임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부모 방임 양육태도의 회귀계수(각각 $B=-0.078$, $B=-0.169$, $B=-0.185$)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부모 방임 양육태도의 회귀계수($B=0.038$)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 방임 양육태도의 영향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과 국외출생 집단,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 등 세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경우는 방임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VII-55.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32(.029)	-0.035(-.034)	0.019(.020)	0.001(.001)	-
부모 감독 양육태도	0.173(.190)***	0.122(.130)	0.041(.054)	0.244(.230)***	-
부모 방임 양육태도	-0.078(-.099)***	-0.169(-.223)**	-0.185(-.237)*	0.038(.048)	d>abc
부모님과 활동	0.045(.079)**	0.057(.099)	0.092(.158)	0.067(.103)	-
부와 대화시간	0.018(.046)	0.023(.065)	0.006(.017)	-0.012(-.032)	-
모와 대화시간	0.014(.034)	0.018(.038)	0.004(.010)	0.065(.134)	-
방과후보호자부재	-0.022(-.046)*	0.015(.031)	0.044(.100)	-0.003(-.006)	-
주관적 가정형편	0.096(.158)***	0.117(.215)*	0.032(.063)	0.137(.224)***	-
R^2	.144***	.226***	.143*	.199***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 $p<.001$

나. 성적

다음으로 하위유형 별 성적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들의 회귀계수와 회귀계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표 VII-56〉). 그 결과 하위유형별 R^2 은 .052 ~ .291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부와 함께 하는 시간의 회귀계수($B=0.141$)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회귀계수(각각 $B=0.007$, $B=-0.032$)보다 더 컸다($p<.05$). 성적에 대한 주관적 가정형편의 회귀계수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국외출생 집단,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각각 $B=0.207$, $B=0.345$, $B=0.213$)이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B=-0.084$)보다 더 컸다($p<.05$). 즉, 아버지와 대화시간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에서만 의미가 있으며, 주관적 가정형편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56.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37(.023)	0.084(.050)	0.134(.085)	-0.041(-.024)	-
부모 감독 양육태도	0.076(.054)*	0.077(.050)	0.124(.097)	0.040(.025)	-
부모 방임 양육태도	-0.074(-.062)**	-0.017(-.014)	-0.015(-.011)	0.037(.031)	-
부모님과 활동	0.047(.054)*	0.022(.023)	0.078(.081)	0.010(.010)	-
아버지와 대화시간	0.007(.011)	0.141(.239)*	-0.037(-.064)	-0.032(-.053)	b>ad
어머니와 대화시간	0.056(.088)**	-0.075(-.098)	0.106(.172)	0.000(.001)	-
방과후보호자부재	-0.031(-.044)	-0.032(-.040)	0.038(.052)	-0.053(-.068)	-
주관적 가정형편	0.207(.224)***	0.345(.387)***	-0.084(-.100)	0.213(.229)***	abd>c
R^2	.103***	.291***	.090	.052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 $p<.001$

다. 성적만족도

성적만족도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들의 회귀계수와 회귀계수의 하위유집단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VII-57〉), 하위유형별 R^2 은 .076 ~ .147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부모 방임 양육태도의 회귀계수가 음수($B=-0.055$)로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회귀계수($B=0.108$)와 달랐다($p<.05$). 성적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가정형편의 회귀계수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국외출생 집단,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집단(각각 $B=0.218$, $B=0.270$, $B=0.171$)이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B=-0.056$)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부모 방임 양육태도가 성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결혼가정 집단에서 부정적 영향이 큰 경향이 있었으며, 주관적 가정형편이 성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57. 하위유형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72(.050)*	-0.055(-.036)	0.107(.072)	0.054(.038)	-
부모 감독 양육태도	0.040(.033)	0.066(.047)	-0.119(-.099)	0.121(.087)	-
부모 방임 양육태도	-0.055(-.053)*	-0.051(-.045)	0.040(.033)	0.108(.104)	d)a
부모님과 활동	0.011(.014)	-0.024(-.028)	0.158(.173)	0.055(.065)	-
아버지와 대화시간	0.031(.059)*	0.043(.081)	-0.004(-.008)	0.001(.003)	-
어머니와 대화시간	0.019(.034)	-0.078(-.112)	0.087(.149)	-0.002(-.003)	-
방과후보호자부재	-0.032(-.052)*	0.002(.002)	0.039(.056)	-0.003(-.005)	-
주관적 가정형편	0.218(.271)***	0.270(.336)***	-0.056(-.071)	0.171(.214)**	abd)c
R^2	.113***	.147***	.076	.071*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 $p<.001$

라. 희망교육수준

하위유형 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들의 회귀계수와 회귀계수 차이검증결과는 <표 VII-58>에 제시하였다. 하위유형별 R^2 은 .049 ~ .155였다.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국외출생 집단의 부모와 활동 수준의 회귀계수(각각 $B=0.077$, $B=0.156$)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회귀계수($B=-0.097$)보다 더 컸다($p<.05$). 즉, 외국인가정에서 부모와 활동 수준이 희망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지만, 국제결혼가정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58. 하위유형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87(.076)**	-0.136(-.125)	0.151(.150)	0.172(.152)*	-
부모 감독 양육태도	0.039(.041)	0.048(.048)	0.033(.040)	0.089(.082)	-
부모 방임 양육태도	0.011(.013)	0.030(.037)	-0.027(-.032)	-0.074(-.092)	-
부모님과 활동	0.077(.128)**	0.156(.255)**	-0.097(-.158)	0.078(.118)	ab>c
부와 대화시간	0.022(.052)	0.026(.068)	-0.008(-.022)	0.014(.036)	-
모와 대화시간	0.015(.034)	0.010(.020)	0.034(.087)	-0.005(-.010)	-
방과후보호자부재	-0.021(-.041)	-0.053(-.104)	0.005(.011)	-0.022(-.043)	-
주관적 가정형편	0.033(.052)*	0.080(.138)	0.088(.167)	-0.037(-.059)	-
R^2	.050***	.155**	.049	.076*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 $p<.001$

④ 사회적 지지 변인 효과의 집단 간 차이

다음으로 부모, 친구, 교사 등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로 학교 안팎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 유무의 영향력을 하위집단 별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가. 학교생활적응

우선 첫 번째로 하위유형 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 변인들의 회귀계수와 회귀계수 차이검증결과를 <표 VII-59>에 제시하였다. 하위유형별 R^2 은 .292 ~ .432였는데,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하위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p > .05$).

표 VII-59.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23(.021)	0.043(.042)	0.071(.072)	0.016(.015)	-
부모지지	0.119(.128)***	0.187(.189)*	0.057(.074)	0.188(.176)**	-
친구지지	0.150(.241)***	0.197(.303)***	0.084(.143)	0.165(.277)***	-
교사지지	0.225(.363)***	0.119(.176)*	0.235(.389)***	0.195(.301)***	-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 유무	0.093(.069)	0.059(.040)	-0.002(-.001)	0.245(.167)**	-
학교 외 도와주는 어른 유무	0.031(.031)	0.176(.174)*	0.112(.120)	0.008(.008)	-
R^2	.368***	.357***	.292***	.432***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학교 내외 도와주는 어른 유무는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부호화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나. 성적

다음으로 성적에 대한 사회적지지 변인들의 회귀계수와 회귀계수의 하위유형별 차이검증결과를 <표 VII-60>에 제시하였다. 하위유형별 R^2 은 .070 ~ .141이었으며,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하위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없었다(모두 $p > .05$).

표 VII-60.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사회적 지지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23(.014)	0.169(.100)	0.280(.179)	0.001(.000)	-
부모지지	0.123(.088)***	0.219(.133)	0.097(.080)	0.246(.150)*	-
친구지지	0.143(.152)***	0.236(.219)*	0.116(.125)	0.081(.089)	-
교사지지	0.163(.175)***	0.044(.040)	0.024(.025)	0.190(.191)	-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 유무	0.093(.046)	0.125(.051)	-0.030(-.014)	-0.068(-.030)	-
학교 외 도와주는 어른 유무	0.005(.003)	-0.165(-.098)	0.133(.090)	0.183(.111)	-
R ²	.114***	.096*	.070	.141***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01$

다. 성적만족도

성적만족도에 대한 사회적지지 변인들의 하위유형별 회귀계수와 회귀계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VII-61>에 제시하였다. 하위유형별 R²은 .081 ~ .155였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하위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p>.05$).

표 VII-61. 하위유형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37(.026)	-0.022(-.014)	0.277(.187)*	0.106(.074)	-
부모지지	0.076(.062)*	0.198(.134)	-0.128(-.110)	0.150(.108)	-
친구지지	0.116(.141)***	0.132(.137)	0.222(.252)*	0.161(.208)**	-
교사지지	0.102(.125)***	0.091(.091)	0.045(.050)	0.113(.134)	-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 유무	0.174(.098)***	0.169(.076)	-0.175(-.085)	-0.025(-.013)	-
학교 외 도와주는 어른 유무	0.066(.049)*	-0.051(-.034)	0.182(.130)	0.127(.091)	-
R ²	.098***	.081	.101	.155***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 $p<.001$

라. 희망교육수준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사회적지지 변인들의 하위유형별 회귀계수와 회귀계수 차이검증결과를 <표 VII-62>에 제시하였다. 하위유형별 R^2 은 .050 ~ .088이었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친구지지 회귀계수 ($B=0.041$)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친구지지 회귀계수($B=-0.087$)보다 더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의 회귀계수($B=-0.293$)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회귀계수 ($B=0.014$)보다 부적인 방향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친구지지의 영향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이 가장 컸고,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의 영향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62. 하위유형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사회적 지지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93(.081)***	-0.084(-.078)	0.098(.100)	0.175(.156)*	-
부모지지	0.141(.145)***	0.078(.075)	0.152(.198)	0.217(.198)**	-
친구지지	0.041(.064)*	0.042(.061)	-0.029(-.050)	-0.087(-.142)	a>d
교사지지	0.027(.041)	0.134(.189)	-0.010(-.017)	0.061(.092)	-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 유무	0.014(.010)	-0.002(-.001)	-0.293(-.214)*	-0.060(-.040)	a>c
학교 외 도와주는 어른 유무	0.017(.016)	0.069(.064)	0.034(.036)	0.058(.053)	-
R^2	.050***	.088*	.065	.079**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 $p<.001$

⑤ 기타 변인 효과의 집단 간 차이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활동수준과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학업관련 변인에 미치

는 영향의 하위 유형에 따른 차이를 각각 변인별로 비교하였다.

가. 학교생활적응

우선 하위유형 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기타 변인들의 회귀계수와 회귀계수 차이검증결과는 <표 VII-63>에 제시하였다. 하위유형별 R²은 .028 ~ .067이었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하위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p*>.05).

표 VII-63.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기타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38(.035)	-0.017(-.017)	0.004(.004)	0.079(.072)	-
청소년 활동 수준	0.026(.171)***	0.007(.048)	0.026(.179)	0.033(.194)**	-
집단 괴롭힘 피해	-0.223(-.152)***	-0.213(-.157)	-0.264(-.179)	-0.202(-.120)	-
R ²	.052***	.028	.067	.053**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1, *** *p*<.001

나. 성적

다음으로 성적에 대한 기타 변인들의 회귀계수와 회귀계수의 하위유형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 VII-64>에 제시하였다. 하위유형별 R²은 .045 ~ .113이었는데,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청소년 활동 수준의 회귀계수(B=0.089)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청소년 활동 수준 회귀계수(B=0.047)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성적에 대한 청소년 활동의 영향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II-64.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기타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31(.019)	0.080 (.047)	0.244 (.156)	0.018(.010)	-
청소년 활동 수준	0.047(.208)***	0.048 (.197)*	0.051 (.224)*	0.089(.339)***	d>a
집단 괴롭힘	-0.224(-.101)***	-0.052 (-.023)	-0.098 (-.042)	-0.142(-.055)	-
R ²	.052***	.045	.075*	.113***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 < .05$, *** $p < .001$

다. 성적만족도

하위유형 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기타 변인들의 회귀계수와 회귀계수 차이검증 결과를 <표 VII-65>에 제시하였다. 하위유형별 R²은 .037 ~ .112였는데,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청소년 활동 수준 회귀계수 (B=0.069)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청소년 활동 수준 회귀계수 (B=0.036)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따라서 성적만족도에 대한 청소년 활동의 영향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II-65. 하위유형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기타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51(.035)	-0.090(-.059)	0.242(.163)	0.101(.071)	-
청소년 활동 수준	0.036(.179)***	0.039(.178)*	0.034(.155)	0.069(.309)***	d>a
집단 괴롭힘	-0.194(-.100)***	-0.121(-.060)	-0.289(-.129)	-0.312(-.143)*	-
R ²	.042***	.037	.069*	.112***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 < .05$, *** $p < .001$

라. 희망교육수준

다음으로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기타 변인들의 회귀계수와 회귀계수의 하위유형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VII-6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위유형별 R^2 은 .019 ~ .036인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하위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p > .05$).

표 VII-66. 하위유형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기타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95(.083)***	-0.101 (-.094)	0.083(.085)	0.188(.167)**	-
청소년 활동 수준	0.013(.082)***	0.024 (.156)	0.007(.051)	0.016(.091)	-
집단 괴롭힘	-0.115(-.075)**	0.102 (.071)	0.163(.110)	0.052(.030)	-
R^2	.019***	.034	.020	.036*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 < .05$, ** $p < .01$, *** $p < .001$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하위 유형별 회귀분석결과 산출된 회귀계수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부모특성 변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 그리고 하위유형간 회귀계수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5) 부모의 특성변인과 자녀의 학업관련 변인의 관계

우선 첫 번째로, 부모의 특성변인과 자녀의 학업관련 변인의 상관관계를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이 때 범주변인의 경우는 평균비교를 제시하였다.

① 부모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

첫째로 부모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수준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표 VII-6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 자아존중감은 학업관련 변인들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90\sim.177$, 모두 $p<.001$). 그러나 부모의 전반적 건강 수준은 학업관련 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p>.05$).

표 VII-67. 부모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상태와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평균(표준편차)
부모 자아존중감	.177***	.118***	.090***	.094***	3.93(0.54)
부모 전반적 건강	.008	-.028	-.026	-.007	3.66(0.76)

*** $p<.001$

② 부모 이주배경 변인

두 번째로 부모 이주배경 변인들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는데, <표 VII-6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 한국어 수준은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r=.103\sim.157$, 모두 $p<.001$), 희망교육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r=.025$, $p>.05$),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모든 학업관련 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104\sim-.056$, 모두 $p<.01$). 따라서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서는 부모의 한국어나 부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등을 함께 다루어줄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표 VII-68. 부모 이주배경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평균(표준편차)
부모 한국어 수준	.103***	.181***	.157***	.025	3.54(0.80)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104***	-.097***	-.092***	-.056**	2.63(0.77)

** $p < .01$, *** $p < .001$

③ 가정환경 변인

다음으로 가구소득,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와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VII-6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 가지 가정환경 변인들이 학업관련 변인들과 $r=.10$ 이하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과 성적 만족도, 배우자 관계 만족도와 성적, 배우자 관계만족도와 성적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VII-69. 가정환경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평균(표준편차)
가구소득	.056**	.066**	.040	.083***	3.15(1.49)
가정의 경제적 수준	.053*	.049*	.046*	.102***	2.75(0.70)
배우자 관계 만족도	.095***	.042	.034	.086***	3.90(0.74)

* $p < .05$, ** $p < .01$, *** $p < .001$

부모 학력에 따른 학업관련 변인들은 평균으로 비교하였는데, <표 VII-7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 학력에 따라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F=5.869$, $p < .001$; $F=5.183$, $p < .001$; $F=2.645$, $p < .05$; $F=12.381$, $p < .001$). 이에 대하여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차이 역시 성적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한 학교생활적응, 성적, 희망교육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F=2.849$, $p<.05$; $F=4.814$, $p<.01$; $F=9.870$, $p<.001$). 이 역시 Tukey 사후검증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성적, 희망교육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⁶⁾.

표 VII-70. 부모학력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

아버지					어머니				
학력수준	학교생활 적응	성적	성적 만족도	희망 교육수준	학력수준	학교생활 적응	성적	성적 만족도	희망 교육수준
중졸이하 _a (n=266)	3.18 (0.56)	3.36 (0.83)	2.95 (0.74)	1.88 (0.55)	중졸이하 _a (n=665)	3.20 (0.51)	3.35 (0.77)	2.97 (0.68)	1.84 (0.54)
고졸 _b (n=1193)	3.21 (0.49)	3.37 (0.74)	2.97 (0.67)	1.89 (0.52)	고졸 _b (n=1003)	3.19 (0.49)	3.37 (0.76)	2.94 (0.69)	1.91 (0.50)
전문대학 졸업 _c (n=169)	3.28 (0.48)	3.38 (0.75)	2.95 (0.68)	1.96 (0.59)	전문대학 졸업 _c (n=240)	3.30 (0.50)	3.45 (0.76)	3.04 (0.65)	1.98 (0.56)
대학교 졸업이상 _d (n=378)	3.27 (0.55)	3.54 (0.81)	3.06(0.66)	2.05 (0.52)	대학교 졸업이상 _d (n=337)	3.29 (0.52)	3.53 (0.79)	3.04 (0.66)	2.04 (0.56)
<i>F</i>	2.85*	4.81**	1.98	9.87***	<i>F</i>	5.87***	5.18***	2.65*	12.38***
사후검증		d>ab		d>ab	사후검증	d>ab c>b	d>ab		d>ab c>a

* $p<.05$, ** $p<.01$, *** $p<.001$

④ 자녀양육관련 태도 및 행동 변인

자녀양육관련 태도 및 행동 변인들 중 자녀와의 의사소통, 자녀의 모국어 능력,

36) 모 학력과 부 학력 모두 고졸 이하와 전문대학 졸업 이상 간에 학업관련 변인들의 평균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고졸 이하를 0으로 부호화하고 전문대졸 이상을 1로 부호화하여 사용하였다.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교과목 사교육비, 특기적성 사교육비, 부모효능감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수가 <표 VII-71>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의 모국어 능력과 성적 간의 상관을 제외한 모든 자녀양육 변인들과 학업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043\sim.190$, 모두 $p<.05$).

표 VII-71. 자녀양육과 학업관련 변인 간 상관계수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 만족도	희망교육수준	평균(표준편차)
자녀와의 의사소통	.140***	.118***	.079***	.065***	3.26(0.60)
자녀의 모국어능력	.072***	-.003	-.043*	.124***	2.37(1.16)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081***	.146***	.117***	.102***	2.73(0.77)
자녀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087***	.133***	.100***	.139***	2.66(0.65)
자녀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052*	.106***	.070***	.056**	1.87(0.78)
교과목 사교육비	.047*	.120***	.049*	.105***	11.2(16.2)
특기 적성 사교육비	.077***	.106***	.059**	.082***	6.28(8.74)
사교육비	.071***	.143***	.065**	.120***	17.5(20.2)
부모효능감	.190***	.131***	.093***	.107***	3.71(0.54)

* $p<.05$, ** $p<.01$, *** $p<.001$

자녀 학교문제와 숙제 지도하는 사람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을 <표 VII-72>에 제시하였는데, 자녀 학교문제와 숙제 지도하는 사람별로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모두 $p<.05$), Tukey 사후검증결과, 모든 학업관련 변인에서 학원 등의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이 나머지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³⁷⁾.

37) 이후 분석에서는 학원 등 선생님을 1로 부호화하고 나머지 범주를 0으로 부호화하여 사용하였다.

표 VII-72. 자녀 학교문제와 숙제 지도하는 사람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

	나 _a (n=776)	남편 _b (n=631)	부부 공동 _c (n=499)	가족 및 친인척 _d (n=82)	학원 등의 선생님 _e (n=205)	스스로 _f (n=30)	F	사후 검증
학교생활적응	3.25(0.50)	3.22(0.50)	3.24(0.50)	3.15(0.56)	3.09(0.54)	3.20(0.46)	3.695**	abc>e
성적	3.41(0.76)	3.36(0.77)	3.44(0.78)	3.59(0.78)	3.24(0.75)	3.50(0.63)	3.531**	abc>e
성적만족도	3.00(0.68)	2.96(0.67)	2.96(0.67)	3.15(0.59)	2.88(0.73)	3.10(0.61)	2.271*	d>e
희망교육수준	1.94(0.55)	1.89(0.50)	1.96(0.52)	1.90(0.56)	1.83(0.53)	1.70(0.60)	3.318**	-

* $p<.05$, ** $p<.01$

다음으로 사교육 여부에 따른 학업관련 변인들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표 VII-7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과목 사교육 여부에 따라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모두 $p<.05$), 교과목과 관련한 사교육을 받은 경우 받지 않은 경우보다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이 높았고, 특기적성교육의 경우도 사교육을 받았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p<.05$).

표 VII-73. 사교육 여부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 만족도	희망교육수준
교과목	예(n=1204)	3.25(0.49)	3.48(0.76)	3.02(0.67)	1.96(0.52)
	아니오(n=1019)	3.19(0.52)	3.30(0.76)	2.93(0.69)	1.87(0.54)
	t	2.486*	5.824***	3.280***	4.195***
특기적성	예(n=1043)	3.25(0.51)	3.47(0.78)	3.03(0.68)	1.95(0.53)
	아니오(n=1180)	3.20(0.50)	3.33(0.75)	2.93(0.68)	1.88(0.53)
	t	2.306*	4.238***	3.226***	3.118**

* $p<.05$, ** $p<.01$, *** $p<.001$

부모가 희망하는 자녀 교육수준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도 <표 VII-74>에 제시하였는데, 부모가 희망하는 자녀 교육수준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인 경우가 각각 14명(0.6%)과 2명(0.1%)로 매우 작았기 때문에 이 범주를 고등학교와 합하여 분석하였다. 부모가 희망하는 자녀 교육수준에 따라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모두 $p<.001$), Tukey 사후검증결과, 부모가 희망하는 자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다³⁸⁾.

표 VII-74. 부모 희망 자녀교육수준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

	고등학교이하 _a (n=97)	대학교 _b (n=1807)	대학원 _c (n=319)	F	사후검증
학교생활적응	3.21(0.56)	3.20(0.50)	3.33(0.52)	7.876***	c>b
성적	3.15(0.83)	3.37(0.75)	3.61(0.81)	17.621***	c>b>a
성적 만족도	2.77(0.73)	2.97(0.67)	3.05(0.70)	6.442***	bd>a
희망교육수준	1.64(0.52)	1.89(0.50)	2.18(0.60)	60.177***	c>b>a

*** $p<.001$

⑤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과 학업관련 변인 간 관계

다음으로, 여덟 가지의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 유무에 따른 학업관련 변인들의 평균을 <표 VII-75>에 제시하였다. 특기적성 교육 지원, 체험활동 지원, 물적·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평균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각각 $t=3.720$, $p<.001$; $t=2.700$, $p<.001$; $t=2.341$, $p<.05$), 자녀 한국어교육 지원, 이중언어 교육지원, 학습지원, 심리적응 프로그램 지원, 진로프로그램지원 경험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모두 $p>.05$), 이중언어교

38)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부모가 희망하는 자녀 교육수준을 점수화하여 고졸이하는 1점, 대학교는 2점, 대학원은 3점을 부여하여 사용하였다.

육 지원, 체험활동 지원을 받은 청소년들의 평균 성적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평균 성적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t=2.009$, $p<.05$; $t=2.166$, $p<.05$). 또한 특기적성교육 지원, 체험활동 지원을 받은 청소년들의 평균 성적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평균 성적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t=2.846$, $p<.05$; $t=2.781$, $p<.05$). 마지막으로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 중 희망교육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은 심리적응 프로그램 지원이 유일하였다. 그러나 심리적응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희망교육수준 평균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보다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2.150$, $p<.05$). 이는 심리적응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다는 심리적응프로그램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지니는 특성이 낮은 희망교육수준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I-75.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 여부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

	경험여부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 만족도	희망교육수준
자녀 한국어교육 지원	있다(n=597)	3.24(0.53)	3.38(0.78)	2.95(0.72)	1.93(0.54)
	없다(n=1626)	3.22(0.50)	3.41(0.76)	2.99(0.66)	1.91(0.53)
	<i>t</i>	0.897	-0.773	-1.272	0.554
이중언어교육 지원	있다(n=309)	3.27(0.51)	3.48(0.77)	3.04(0.70)	1.95(0.55)
	없다(n=1914)	3.21(0.50)	3.38(0.77)	2.97(0.67)	1.91(0.53)
	<i>t</i>	1.794	2.009*	1.648	1.206
학습지원	있다(n=1063)	3.20(0.50)	3.39(0.77)	2.98(0.68)	1.91(0.54)
	없다(n=1160)	3.24(0.51)	3.41(0.77)	2.98(0.67)	1.93(0.52)
	<i>t</i>	-1.911	-0.648	-0.008	-0.999
특기적성 교육 지원	있다(n=451)	3.30(0.50)	3.45(0.77)	3.06(0.69)	1.91(0.59)
	없다(n=1772)	3.20(0.51)	3.38(0.77)	2.96(0.67)	1.92(0.51)
	<i>t</i>	3.720***	1.764	2.846**	-0.186
체험활동 지원	있다(n=1086)	3.25(0.51)	3.43(0.73)	3.02(0.67)	1.92(0.57)
	없다(n=1137)	3.19(0.50)	3.36(0.80)	2.94(0.68)	1.92(0.50)

	경험여부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 만족도	희망교육수준
	<i>t</i>	2.700**	2.166*	2.781**	-.048
심리적응 프로그램 지원	있다(n=281)	3.22(0.49)	3.41(0.81)	3.00(0.68)	1.85(0.61)
	없다(n=1942)	3.22(0.51)	3.40(0.76)	2.97(0.68)	1.93(0.52)
	<i>t</i>	-0.158	0.271	0.712	-2.150*
물적·금전적 지원	있다(n=461)	3.27(0.49)	3.38(0.76)	2.97(0.69)	1.88(0.56)
	없다(n=1762)	3.21(0.51)	3.40(0.77)	2.98(0.67)	1.93(0.52)
	<i>t</i>	2.341*	-0.431	-0.248	-1.780
진로프로그램 지원	있다(n=220)	3.21(0.49)	3.43(0.79)	3.02(0.71)	1.91(0.59)
	없다(n=2003)	3.22(0.51)	3.39(0.77)	2.97(0.68)	1.92(0.52)
	<i>t</i>	-0.279	0.603	1.062	-0.253

*, $p<.05$, ** $p<.01$, *** $p<.001$

(6) 부모의 특성이 청소년의 학업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청소년의 학업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변인을 파악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①부모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의 영향

우선, 지역규모를 통제한 후 부모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VII-7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 변량의 3.0%($p<.001$), 성적 변량의 1.4%($p<.001$), 성적 만족도 변량의 0.8%($p<.001$), 희망교육수준 변량의 0.8%($p<.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자녀의 학업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표준화 회귀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단순 상관계수와 매우 유사하였다.

표 VII-76.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부모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의 회귀분석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지역규모	.035	.022	.034	.089***
부모 자아존중감	.175***	.116***	.088***	.089***
R ²	.032***	.014***	.009***	.017***
ΔR ²	.030***	.014***	.008***	.008***

주. 표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R²은 지역규모를 포함한 결정계수이며, ΔR²은 지역규모의 효과를 제외한 독립변인들의 결정계수임.

*** $p < .001$

② 부모 이주배경 변인 변인의 영향

다음으로 부모 한국어 수준과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VII-7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규모를 통제 한 후 부모의 한국어수준과 부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교 생활적응 변량의 1.6%($p < .001$), 성적 변량의 3.5%($p < .001$), 성적 만족도 변량의 2.7%($p < .001$), 희망교육수준 변량의 0.2%($p > .0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표 VII-77.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부모 이주배경의 회귀분석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지역규모	.035	.012	.028	.091***
부모 한국어수준	.082***	.167***	.142***	.008
부모 문화적응스트레스	-.081***	-.058**	-.057**	-.043*
R ²	.019***	.036***	.029***	.011***
ΔR ²	.016***	.035***	.027***	.002

주. 표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R²은 지역규모를 포함한 결정계수이며, ΔR²은 지역규모의 효과를 제외한 독립변인들의 결정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③ 가정환경 변인의 영향

다음으로 지역규모를 통제한 후 부모의 학력, 가정의 월평균소득, 가정의 경제적 수준 및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등 가정환경요인이 자녀의 학업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표 VII-7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규모를 통제한 후 가정환경 변인들은 학교생활적응 변량의 1.5%($p<.001$), 성적 변량의 1.0%($p<.001$), 성적 만족도 변량의 0.4%($p>.05$), 희망교육수준 변량의 2.6%($p<.001$)를 설명하여, 학교생활적응에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 적응에는 모 학력($\beta=.061$, $p<.05$)과 배우자 관계 만족도($\beta=.079$, $p<.001$)만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 성적에는 가구 소득($\beta=.059$, $p<.05$)만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성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희망교육수준에는 가구소득을 제외한 모든 가정환경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p>.05$).

표 VII-78.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가정환경 변인의 회귀분석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 만족도	희망교육수준
지역규모	.039	.013	.036	.079***
모 학력	.061*	.045	.036	.071**
부 학력	.022	.039	.014	.068**
가정의 월평균 소득	.023	.059*	.031	.022
가정의 경제적 수준	.009	-.016	.008	.054*
배우자 관계 만족도	.079***	.027	.019	.051*
R ²	.017***	.011***	.006	.035***
ΔR^2	.015***	.010***	.004	.026***

주. 표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R²은 지역규모를 포함한 결정계수이며, ΔR^2 은 지역규모 통제한 후 나머지 독립변인들의 결정계수임. 부와 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0, 전문대 졸업 이상을 1로 부호화하였음.

* $p<.05$, ** $p<.01$, *** $p<.001$

④ 자녀양육태도 및 행동 변인의 영향

다음으로 자녀양육태도 및 행동변인들이 자녀의 학업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표 VII-79>에 제시하였다³⁹⁾. 지역규모를 통제한 후 자녀양육 변인들은 학교생활적응 변량의 5.4%($p<.001$), 성적 변량의 5.7%($p<.001$), 성적 만족도 변량의 3.1%($p<.001$), 희망교육수준 변량의 7.4%($p<.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효능감($\beta=.149$, $p<.00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자녀 학교문제와 숙제지도하는 사람, 특기적성 사교육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졌다(모두 $p<.05$). 성적에는 자녀 학교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beta=.082$, $p<.001$),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도($\beta=.073$, $p<.001$), 희망하는 자녀 교육수준($\beta=.078$, $p<.001$)이 비슷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과 교과목 사교육 여부, 특기적성 사교육 여부, 부모효능감도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p<.05$). 성적 만족도의 경우는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073$, $p<.01$), 자녀의 모국어 능력은 부적의 관련이 있었고($\beta=-.079$, $p<.001$),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도, 부모효능감, 희망하는 자녀 교육수준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5$). 마지막으로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희망하는 자녀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관련성을 가졌다($\beta=.188$, $p<.001$). 즉, 부모와 자녀의 희망교육수준은 서로 관련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녀의 모국어 능력은 희망교육수준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고($\beta=.081$, $p<.001$), 자녀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39) 사교육 여부와 사교육 비용은 상관이 높으며($r=.636\sim.762$) 사교육 비용과 학업관련 변인들 간 상관이 사교육 여부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사교육 비용만 사용하였다.

표 VII-79.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자녀양육 변인의 회귀분석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 만족도	희망교육수준
지역규모	.028	.008	.032	.078***
자녀와의 의사소통	.078***	.073***	.049*	.013
자녀의 모국어능력	.031	-.051*	-.079***	.081***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002	.082***	.073**	.033
자녀의 학교문제 숙제 지도하는 사람	-.069***	-.038	-.019	-.031
자녀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002	.019	.038	.054*
자녀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019	.049*	.029	.000
교과목 사교육비	-.002	.057*	-.001	.036
적성 사교육비	.051*	.052*	.033	.027
부모효능감	.149***	.060*	.048*	.033
희망 자녀교육수준	.033	.078***	.044*	.188***
R ²	.056***	.058***	.033***	.083***
△R ²	.054***	.057***	.031***	.074***

주. 표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R²은 지역규모를 포함한 결정계수이며, △R²은 지역규모 통제 후 나머지 독립변인들의 결정계수임. 자녀 학교문제 숙제 지도하는 사람은 학원 등 선생님은 1, 가족과 친척, 이웃, 스스로는 0으로 부호화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⑤ 다문화정책 지원 경험의 영향

각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의 독립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업관련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던 다섯 가지 다문화정책지원에 대해 지원받은 경험이 있으면 1로 부호화하고 없으면 0으로 부호하여 학업관련 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VII-8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규모를 통제한 후 다문화정책 지원 경험은 학교생활적응 변량의 1.0%($p < .001$), 성적 변량의 0.5%($p < .05$), 성적 만족도 변량의 0.7%($p < .01$), 희망교육수준 변량의 0.5%($p < .05$)를 설명하여 앞서 살펴본 다른 영역의 변인들보다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학교생활적응에 독립적 효과를 가지는 변인은 특기적성교육 지원($\beta = .070$, $p < .01$)인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에는 영향

을 미친 지원이 없었다(모두 $p>.05$). 그에 비해 성적 만족도에 독립적 영향을 미치는 지원으로 특기적성교육($\beta=.055$, $p<.05$)과 체험활동($\beta=.057$, $p<.05$)이 나타났고, 희망교육수준에 독립적 영향을 미치는 지원은 심리적응 프로그램이었는데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2$, $p<.05$).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이 직접적으로 성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영향력의 효과가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영향으로 각 지원의 특성과 보다 관련성이 높은 변인들의 경우는 그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I-80.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의 회귀분석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 만족도	희망교육수준
지역규모	.055**	.035	.048*	.096***
이중언어교육 지원	.013	.037	.019	.046*
특기적성교육 지원	.070**	.029	.055*	.012
체험활동 지원	.034	.047	.057*	.023
심리적응 프로그램 지원	-.042	-.013	-.007	-.052*
물적·금전적 지원	.023	-.043	-.048*	-.044
R ²	.012***	.006*	.009**	.014***
ΔR ²	.010***	.005*	.007**	.005*

주. 표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R²은 지역규모를 포함한 결정계수이며, ΔR²은 지역규모 통제 후 나머지 독립변인들의 결정계수임.

* $p<.05$, ** $p<.01$, *** $p<.001$

(7) 부모변인 영향의 집단 간 차이

마지막으로 부모변인이 자녀의 학업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하위유형에 따라 다른지 비교하기 위하여 집단별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회귀계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영역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모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 효과의 집단 간 차이

가.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들의 회귀계수의 하위유형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VII-8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위유형별 R^2 은 .022 ~ .091이었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부모 자아존중감 회귀계수($B=0.259$)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부모 자아존중감 회귀계수($B=0.135$)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부모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81.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40(.037)	-0.026(-.025)	-0.011(-.011)	0.055(.051)	-
부모 자아존중감	0.135(.142)***	0.152(.174)*	0.262(.296)**	0.259(.291)***	d>a
R^2	.022***	.030	.087**	.091***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 $p<.001$

나. 성적

자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들의 회귀계수의 하위 유형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VII-8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위유형별 R^2 은 .010 ~ .056이었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하위유형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VII-82.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부모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30(.018)	0.076(.045)	0.258(.165)	-0.016(-.009)	-
부모 자아존중감	0.138(.097)***	0.329(.227)**	0.038(.027)	0.315(.232)***	-
R ²	.010***	.056*	.028	.053***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 < .05$, ** $p < .01$, *** $p < .001$

다. 성적만족도

다음으로 성적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들의 회귀계수의 하위유형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VII-83>에 나타난 바와 같이 R^2 은 .008 ~ .041이었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하위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5$).

표 VII-83. 하위유형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부모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54(.037)	-0.073 (-.048)	0.241 (.161)	0.091(.063)	-
부모 자아존중감	0.100(.080)***	0.185 (.142)	0.090 (.067)	0.216(.185)**	-
R ²	.008***	.021	.031	.041**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 < .01$, *** $p < .001$

라. 희망교육수준

또한 지역규모의 차이를 통제한 후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들의 회귀계수의 하위유형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VII-84>에 제시된 바와 같이 R^2 은 .010 ~ .038인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하위유형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5$).

표 VII-84. 하위유형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부모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98(.086)***	-0.093 (-.086)	0.076 (.077)	0.167(.149)*	-
부모 자아존중감	0.077(.078)***	0.057 (.062)	-0.006 (-.007)	0.096(.106)	-
R ²	.014***	.010	.006	.038**	-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 $p<.001$

② 부모 이주배경 변인 효과의 집단 간 차이

가. 학교생활적응

다음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이주배경 변인들의 회귀계수 차이검증결과, <표 VIII-85>에 나타난 바와 같이 R^2 은 .012 ~ .108이었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부모 한국어 수준의 회귀계수 ($B=0.077$)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부모 한국어 수준의 회귀계수 ($B=-0.029$)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 한국어 수준의 영향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에서 가장 큼을 알 수 있었다.

표 VII-85.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 이주배경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37(.034)	0.017(.016)	-0.023(-.023)	0.038(.035)	-
부모 한국어수준	0.045(.065)**	0.144(.236)*	-0.029(-.059)	0.077(.156)*	b>c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0.042(-.064)*	-0.116(-.157)	-0.062(-.112)	-0.064(-.098)	-
R ²	.012***	.108**	.012	.046*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 $p<.001$

나. 성적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이주배경 변인들의 회귀계수의 하위유형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VII-8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위유형별 R^2 은 .028 ~ .155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이 가장 컸다. 또한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부모 한국어 수준의 회귀계수($B=0.321$)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부모 한국어 수준의 회귀계수($B=0.119$)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 한국어 수준의 영향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86.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부모 이주배경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12(.007)	0.151(.088)	0.222(.142)	-0.059(-.035)	-
부모 한국어수준	0.155(.150)***	0.321(.323)***	0.129(.164)	0.119(.158)*	b>d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0.046(-.046)	-0.137(-.114)	-0.062(-.070)	-0.107(-.107)	-
R^2	.028***	.155***	.065	.041*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01$

다. 성적만족도

성적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이주배경 변인들의 회귀계수의 하위유형별 차이검증결과를 <표 VII-87>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하위유형별 R^2 은 .016 ~ .128이었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하위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VII-87. 하위유형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부모 이주배경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42(.029)	0.019(.012)	0.199(.133)	0.034(.023)	-
부모 한국어수준	0.085(.093)***	0.225(.248)**	0.074(.099)	0.164(.254)***	-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0.049(-.056)*	-0.199(-.182)	-0.099(-.118)	-0.052(-.061)	-
R ²	.016***	.128***	.056	.079***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 $p<.001$

라. 희망교육수준

다음으로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이주배경 변인들의 회귀계수의 차이검증결과, <표 VII-8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위유형별 R²은 .016 ~ .128이었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하위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없었다($p>.05$).

표 VII-88. 하위유형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부모 이주배경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95(.083)***	-0.087(-.078)	0.051(.051)	0.193(.173)**	-
부모 한국어수준	0.024(.033)	0.087(.134)	-0.003(-.007)	-0.045(-.089)	-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0.011(-.016)	-0.060(-.076)	-0.068(-.123)	-0.022(-.033)	-
R ²	.009**	.034	.020	.034*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 $p<.001$

③ 가정환경 변인 효과의 집단 간 차이

다음으로 학업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의 효과가 하위유형별로 다른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학교생활적응

다음으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가정환경 변인들의 회귀계수와 회귀계수 차이검증결과가 <표 VII-89>에 제시되어 있다. 하위유형별 R^2 은 .012 ~ .048이었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회귀계수($B=0.104$)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회귀계수($B=-0.067$)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의 영향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II-89.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가정환경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39(.035)	0.011(.010)	0.039(.040)	0.073(.065)	-
모 학력	0.076(.063)*	0.043(.043)	-0.119(-.120)	0.145(.128)	-
부 학력	0.034(.029)	0.019(.019)	0.088(.090)	-0.041(-.035)	-
가정의 월평균 소득	0.000(.041)	0.000(.008)	0.000(-.144)	0.000(.024)	-
가정의 경제적 수준	-0.004(-.005)	0.042(.056)	0.094(.162)	0.007(.007)	-
배우자 관계 만족도	0.054(.078)**	-0.067(-.097)	0.009(.013)	0.104(.142)*	d>b
R2	.018***	.012	.033	.048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 $p<.001$

나. 성적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들의 회귀계수의 하위 유형별 차이검증결과는 <표 VII-90>에 제시된 바와 같이, R^2 은 .013 ~ .086으로 나타났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아버지의 학력 회귀계수($B=0.339$)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회귀계수($B=-0.126$)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p<.05$),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경제적 수준의 회귀계수

($B=0.183$)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회귀계수($B=-0.143$)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 경우 부모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회귀계수($B=0.132$)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회귀계수($B=-0.137$)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성적에 대한 아버지의 학력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효과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에서 가장 크고, 부모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의 영향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90.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가정환경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20(.012)	0.086(.053)	0.156(.102)	-0.020(-.012)	-
모 학력	0.106(.058)	0.101(.062)	-0.114(-.072)	0.190(.113)	-
부 학력	0.073(.041)	0.339(.209)*	0.076(.048)	-0.126(-.073)	b>d
가정의 월평균 소득	0.000(.055)	0.000(-.017)	0.001(.279)*	0.001(.090)	-
가정의 경제적 수준	-0.021(-.018)	0.183(.153)	-0.097(-.104)	-0.143(-.103)	b>d
배우자 관계 만족도	0.043(.041)	-0.137(-.124)	-0.102(-.085)	0.132(.122)	d>b
R^2	.013**	.086	.071	.032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다. 성적만족도

성적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들의 회귀계수의 하위유형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VII-91>에 제시된 바와 같이, R^2 은 .010 ~ .060인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회귀계수(각각 $B=0.034$, $B=0.132$)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회귀계수($B=-0.166$)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성적만족도에 대한 배우자 관계 만족도의 영향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과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에서 컸다.

표 VII-91. 하위유형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가정환경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55(.038)	-0.011(-.008)	0.160(.109)	0.086(.059)	-
모 학력	0.084(.053)*	0.070(.048)	-0.093(-.061)	0.104(.070)	-
부 학력	0.027(.017)	0.220(.151)	0.181(.120)	-0.047(-.031)	-
가정의 월평균 소득	0.000(.002)	0.000(.125)	0.001(.146)	0.001(.124)	-
가정의 경제적 수준	0.039(.039)	0.012(.011)	-0.110(-.123)	-0.115(-.094)	-
배우자 관계 만족도	0.034(.038)	-0.166(-.167)	-0.044(-.038)	0.118(.123)	ad>b
R ²	.010*	.060	.038	.038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라. 희망교육수준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들의 회귀계수의 하위유형별 차이 검증결과, <표 VII-9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위유형별 R²은 .027 ~ .118이었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부학력 회귀계수(B=0.188)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회귀계수(B=-0.193)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p<.05$),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경제적 수준 회귀계수(B=0.218)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회귀계수(각각 B=0.026, B=-0.018)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및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회귀계수(각각 B=0.023, B=0.156, B=.132)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회귀계수(B=-0.146)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VII-92. 하위유형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가정환경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91(.080)**	-0.111(-.102)	0.106(.107)	0.164(.143)	-
모 학력	0.071(.056)*	0.210(.195)*	0.096(.093)	0.033(.029)	-
부 학력	0.076(.062)*	0.036(.033)	-0.193(-.189)	0.188(.156)	d>c
가정의 월평균 소득	0.000(.046)	0.000(-.166)	0.000(-.035)	0.000(.027)	-
가정의 경제적 수준	0.026(.033)	0.218(.274)**	0.125(.206)	-0.018(-.018)	b>ad
배우자 관계 만족도	0.023(.033)	-0.146(-.199)*	0.156(.203)	0.132(.176)*	acd>b
R ²	.027***	.118*	.099	.098***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 $p<.001$

④ 자녀양육관련 태도 및 행동 변인 효과의 집단 간 차이

다음으로 자녀양육관련 태도 및 행동변인의 효과가 하위유형에 따라 다른지 각각 비교하였다.

가. 학교생활적응

우선 첫째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양육관련 태도 및 행동변인의 회귀계수 차이를 하위 유형별로 검증한 결과, <표 VII-9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위유형별 R²은 .049 ~ .166이었다.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 집단의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회귀계수(B=0.087)가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 집단의 회귀계수(B=-0.026)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p<.05$),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교과목 사교육비 회귀계수(B=0.008)가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 집단과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 및 국외출생 집단의 회귀계수(각각 B=0.000, B=-0.003, B=-.004)보다 더 컸으며($p<.05$),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희망하는 자녀 교육수준 회귀계수(B=0.157)가 국내출생 외국인 가정 집단의

회귀계수($B=-0.126$)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의 영향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이 가장 작았고, 교과목 사교육비의 영향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이 가장 높았고, 희망하는 자녀교육수준의 효과는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이 가장 높았다.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과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의 회귀계수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단순상관계수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았다.

표 VII-93.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자녀양육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37(.034)	-0.018(-.017)	0.093(.095)	0.029(.027)	-
자녀와의 의사소통	0.063(.073)**	0.070(.082)	0.018(.023)	0.100(.119)	-
자녀의 모국어능력	0.023(.045)	-0.039(-.089)	0.051(.136)	-0.011(-.028)	-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0.026(-.040)	0.089(.132)	0.074(.117)	0.087(.129)	d)a
자녀 학교문제 숙제 지도하는 사람	-0.095(-.056)*	0.037(.015)	-0.119(-.070)	-0.232(-.136)*	-
자녀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0.011(-.014)	-0.164(-.218)*	0.154(.221)	0.064(.079)	cd)b
자녀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0.031(.049)	-0.043(-.058)	-0.042(-.074)	-0.083(-.109)	a)d
교과목 사교육비	0.000(-.013)	0.008(.294)*	-0.003(-.094)	-0.004(-.109)	b)acd
적성 사교육비	0.003(.044)	0.002(.056)	-0.001(-.025)	0.006(.108)	-
부모호능감	0.147(.156)***	0.151(.147)	0.237(.241)*	0.085(.096)	-
희망 자녀교육수준	0.019(.015)	0.039(.035)	-0.126(-.111)	0.157(.139)*	d)c
R^2	.049***	.159*	.152	.166***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 $p<.001$

나. 성적

다음으로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양육 변인들의 회귀계수의 하위유형별 차이검증결과는 <표 VII-9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위유형별 R^2 은 .052 ~ .208이었는데,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회귀계수($B=0.281$)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 집단의 회귀계수(각각 $B=0.078$, $B=-0.046$)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자녀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회귀계수($B=0.175$)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회귀계수(각각 $B=-0.230$, $B=-0.106$)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교과목 사교육비 회귀계수($B=0.013$)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회귀계수($B=0.002$)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부모효능감 회귀계수($B=0.446$)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회귀계수($B=0.075$)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성적에 대한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의 영향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이 가장 컸고,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의 영향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이 가장 컸으며, 교과목 사교육비의 영향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이 가장 높았고, 부모효능감의 효과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이 가장 높았다.

표 VII-94.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자녀양육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10(.006)	0.096(.057)	0.233(.149)	-0.096(-.057)	-
자녀와의 의사소통	0.089(.069)**	0.051(.036)	0.169(.139)	0.153(.119)	-
자녀의 모국어능력	-0.004(-.005)	-0.041(-.056)	-0.059(-.098)	-0.040(-.066)	-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0.078(.080)**	0.107(.097)	0.281(.280)**	-0.046(-.045)	c>ad
자녀의 학교문제 숙제 지도하는 사람	-0.066(-.026)	-0.278(-.070)	0.155(.057)	-0.349(-.133)	-
자녀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0.016(.014)	-0.071(-.058)	0.110(.099)	0.112(.090)	-
자녀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0.057(.060)*	-0.230(-.194)*	-0.106(-.119)	0.175(.151)*	d>bc a>b
교과목 사교육비	0.002(.033)	0.013(.284)**	0.003(.059)	0.005(.095)	b>a
적성 사교육비	0.004(.046)	0.003(.046)	0.001(.011)	0.004(.046)	-
부모효능감	0.075(.054)*	0.446(.268)**	0.035(.023)	0.060(.044)	b>a
희망 자녀교육수준	0.164(.089)**	-0.093(-.052)	0.289(.162)	0.068(.040)	-
R ²	.052***	.208**	.203*	.127***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 < .05$, ** $p < .01$, *** $p < .001$

다. 성적만족도

성적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양육 변인들의 회귀계수에 대한 하위유형별 차이검증결과, <표 VII-9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위유형별 R²은 .026 ~ .172였다.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회귀계수(B=0.287)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회귀계수(각각 B=0.045, B=0.002)보다 더 컸고($p < .05$),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 집단의 자녀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회귀계수(B=0.185)가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 집단의 회귀계수(B=-0.118)보다 더 컸으며($p < .05$),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특기적성 사교육비 회귀계수($B=0.012$)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회귀계수($B=0.001$)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성적만족도에 대한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의 영향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이 가장 컸고,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의 영향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이 가장 컸으며, 특기적성 사교육비의 영향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이 가장 높았다.

표 VII-95. 하위유형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자녀양육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048 (.033)	-0.044 (-.028)	0.277 (.185)	0.062 (.043)	-
자녀와의 의사소통	0.026 (.023)	0.267 (.210) *	0.191 (.164)	0.142 (.128)	-
자녀의 모국어능력	-0.010 (-.014)	-0.052 (-.079)	-0.015 (-.026)	-0.036 (-.068)	-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0.045 (.051)	0.098 (.098)	0.287 (.298) **	0.002 (.002)	c>ad
자녀 학교문제 숙제 지도하는 사람	-0.046 (-.021)	0.257 (.071)	0.043 (.017)	-0.101 (-.045)	-
자녀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0.044 (.042)	-0.118 (-.106)	0.020 (.019)	0.185 (.173) *	d>b
자녀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0.021 (.024)	-0.009 (-.008)	-0.125 (-.145)	0.097 (.098)	-
교과목 사교육비	-0.001 (-.014)	0.004 (.033)	-0.001 (-.021)	-0.001 (-.028)	-
적성 사교육비	0.001 (.007)	0.004 (.057)	0.002 (.020)	0.012 (.178) *	d>a
부모호능감	0.081 (.065) *	0.171 (.113)	0.129 (.086)	-0.060 (-.051)	-
희망 자녀교육수준	0.101 (.061) *	0.041 (.025)	-0.192 (-.112)	0.045 (.030)	-
R^2	.026***	.107	.172	.133***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 $p<.001$

라. 희망교육수준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양육 변인들의 회귀계수에 대한 하위유형별 차이검증결과는 <표 VII-9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위유형별 R^2 은 .070 ~ .204로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자녀의 모국어 능력 회귀계수($B=0.105$)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회귀계수(각각 $B=-0.036$, $B=-0.014$)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회귀계수($B=0.160$)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회귀계수($B=0.002$)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p<.05$),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희망하는 자녀교육수준 회귀계수($B=0.326$)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회귀계수($B=0.013$)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자녀의 모국어능력 효과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에서 가장 컸고,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의 효과는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이 가장 컸으며, 희망하는 자녀교육수준의 효과는 국제결혼가정보다 외국인가정에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VII-96. 하위유형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자녀양육 변인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2	0.062(.043)	-0.107(-.097)	0.062(.063)	0.213(.191)**	-
부모자녀의사소통	0.142(.128)	0.110(.121)	-0.053(-.069)	-0.101(-.118)	-
자녀의모국어능력	-0.036(-.068)	0.105(.221)*	-0.014(-.037)	0.039(.097)	b>ac
자녀학교교육도움	0.002(.002)	0.095(.131)	0.160(.251)**	0.029(.043)	c>a
자녀학교문제속제지도2	-0.101(-.045)	0.191(.073)	-0.142(-.083)	0.204(.117)	d>a
자녀성적향상노력	0.185(.173)*	0.099(.124)	0.066(.094)	0.044(.054)	-
자녀학교생활참여	0.097(.098)	-0.116(-.150)	-0.006(-.010)	0.050(.064)	-
교과목사교육비	-0.001(-.028)	0.001(.034)	0.001(.045)	0.002(.048)	-
적성사교육비	0.012(.178)*	0.002(.034)	-0.006(-.111)	-0.002(-.030)	-
부모효능감	-0.060(-.051)	-0.101(-.093)	0.050(.050)	0.088(.097)	-
희망자녀교육수준3	0.045(.030)	0.013(.011)	0.297(.262)**	0.326(.284)**	d>b
R^2	.070***	.108	.204*	.169***	

* $p<.05$, ** $p<.01$, *** $p<.001$

⑤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 효과의 집단 간 차이

다음으로 다문화정책의 지원경험이 자녀의 학업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하위유형에 따라 다른지 비교하였다.

가. 학교생활적응

우선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 변인들의 회귀계수에 대하여 하위유형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VII-9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위유형별 R^2 은 .007 ~ .084였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 집단의 심리적응 프로그램 지원 회귀계수($B=0.191$)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회귀계수($B=-0.152$)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심리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의 효과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97. 하위유형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53(.048)*	-.031(-.030)	.046(.047)	.144(.132)*	-
이중언어교육 지원	-.012(-.008)	.204(.118)	.112(.096)	.014(.010)	-
특기적성교육 지원	.064(.051)	-.001(-.001)	.050(.043)	.270(.222)*	-
체험활동 지원	.035(.034)	-.132(-.128)	.148(.156)	.083(.078)	-
심리적응 프로그램 지원	-.066(-.044)	.191(.123)	-.098(-.063)	-.152(-.101)	b>d
물적·금전적 지원	.017(.014)	.181(.120)	.046(.037)	.057(.044)	-
R^2	.007	.052	.062	.084**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05$, ** $p<.01$

나. 성적

다음으로 자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 변인들의 회귀계수에 대하여 하위유형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VII-9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위유형별 R^2 은 .005 ~ .088이었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하위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98. 하위유형별 성적에 대한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43(.026)	.132(.078)	.272(.174)	.081(.048)	-
이중언어교육 지원	.107(.049)	-.406(-.141)	-.160(-.086)	.204(.089)	-
특기적성교육 지원	.049(.026)	.060(.028)	.050(.027)	.078(.042)	-
체험활동 지원	.054(.036)	.029(.017)	.306(.204)	.153(.093)	-
심리적응 프로그램 지원	-.051(-.022)	-.108(-.042)	.080(.032)	.077(.033)	-
물적·금전적 지원	-.063(-.035)	-.102(-.040)	-.498(-.254)*	-.041(-.021)	-
R^2	.005	.032	.088	.036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 < .05$

다. 성적만족도

또한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 변인들의 회귀계수에 대한 하위유형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VII-99>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위유형별 R^2 은 .009 ~ .044였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성적과 마찬가지로 하위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99. 하위유형별 성적만족도에 대한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067(.047)	-.055(-.036)	.235(.157)	.157(.109)	-
이중언어교육 지원	.042(.022)	-.081(-.031)	-.007(-.004)	.092(.047)	-
특기적성교육 지원	.107(.064)*	.110(.056)	-.005(-.003)	.113(.071)	-
체험활동 지원	.062(.047)	-.053(-.035)	.062(.043)	.218(.155)	-
심리적응 프로그램 지원	-.016(-.008)	.219(.094)	-.012(-.005)	-.134(-.068)	-
물적·금전적 지원	-.071(-.044)	-.017(-.008)	-.186(-.099)	-.146(-.087)	-
R ²	.009*	.012	.034	.044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 < .05$

라. 희망교육수준

다음으로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 변인들의 회귀계수 차이를 하위유형별로 검증한 결과, <표 VII-100>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위유형별 R²은 .013 ~ .051이었고, 회귀계수 간 쌍비교 결과, 하위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00. 하위유형별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의 회귀계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쌍비교
	국내출생 _a	국외출생 _b	국내출생 _c	국외출생 _d	
지역규모	.102(.089)***	-.085(-.079)	.064(.065)	.173(.155)*	-
이중언어교육 지원	.056(.037)	-.006(-.003)	.186(.158)	.131(.086)	-
특기적성교육 지원	.007(.005)	.096(.069)	-.115(-.098)	-.086(-.070)	-
체험활동 지원	.035(.033)	-.088(-.080)	.115(.121)	.121(.110)	-
심리적응 프로그램 지원	-.069(-.043)	-.013(-.008)	-.104(-.066)	-.192(-.125)	-
물적·금전적 지원	-.065(-.051)	-.008(-.005)	-.166(-.134)	.054(.041)	-
R ²	.013***	.013	.046	.051*	

주. 표 안의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 < .05$, *** $p < .001$

4) 요약

초등학교 4학년의 학업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규모의 영향

지역규모가 학교생활적응과 성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청소년 변인 또는 부모 변인을 고려하였을 때 사라졌다. 그러나 지역규모가 희망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청소년 변인 또는 부모 변인을 투입한 후에서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지역규모는 희망교육수준의 변량의 1% 이내($R^2=.009$)를 설명하므로, 영향력이 큰 것은 아니었다.

(2) 청소년 변인의 영향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변인 영역은 사회적 지지($R^2=.366$)였으며, 다음으로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R^2=.263$), 이주배경($R^2=.185$),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관련변인 및 환경특성($R^2=.148$) 순이었다.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R^2=.105$)이었으며, 사회적 지지($R^2=.103$),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관련 변인 및 환경특성($R^2=.087$), 이주배경($R^2=.083$) 순이었다. 성적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R^2=.126$)이었으며, 이주배경($R^2=.094$), 사회적 지지($R^2=.089$),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관련변인 및 환경특성($R^2=.084$) 순이었다. 희망교육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관련변인 및 환경특성($R^2=.049$)이었으며, 사회적 지지($R^2=.044$), 이주배경($R^2=.035$),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

($R^2=.032$)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변인은 네 가지의 학업관련 변인들 중 학교생활적응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청소년 변인의 영향이 <표 VIII-101>에 제시되어 있다.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 국가 정체성, 한국문화 수용태도, 본국문화 수용태도, 주관적 가정형편, 부모님의 지지, 교사의 지지, 청소년 활동은 네 가지 학업관련 변인(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집단 괴롭힘 피해는 네 가지 학업관련 변인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삶의 만족도,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인식, 부모 감독 양육태도, 부모님과 활동, 친구의 지지,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 유무, 학교 외 도와주는 어른 유무가 있었다.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은 삶의 만족도, 국적에 대한 인식,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인식, 부모 감독 양육태도, 모와 대화시간, 친구의 지지가 있었다. 성적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은 삶의 만족도, 우울, 국적에 대한 인식,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인식, 친구의 지지,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 유무, 학교 외 도와주는 어른 유무가 있었다.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으로서는 부모 감독 양육태도, 부모님과 활동수준이 있었다.

이러한 영향원들에 대한 하위유형별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의 영향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성적만족도, 외국인 가정 국내출생 집단의 성적, 외국인가정의 국외출생집단의 학교생활적응과 성적에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자아존중감의 영향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집단의 학교생활적응과 성적만족도에서 비교적 컸다. 사회적 역량의 효과는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과 국외출생 집단의 성적,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성적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삶의 만족도의 영향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성적만족도에서 높았다.

국적에 대한 인식의 효과는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학교생활적응에서 높

았으며, 국가 정체성의 효과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희망교육수준에서 높았다. 한국문화 수용태도의 영향은 외국출생 집단의 학교생활적응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희망교육수준에서 높았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는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모 방임 양육태도의 영향은 하위유형에 따라 달랐는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학교생활적응과 성적만족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집단의 학교생활적응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부모님과 활동의 효과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및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희망교육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부와 대화시간의 효과는 외국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성적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주관적 가정형편의 효과는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및 국외출생 집단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성적과 성적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지지 효과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희망교육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청소년 활동의 효과는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성적과 성적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표 VII-101.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청소년 변인의 영향

영역	분석 변인	전체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정신건강	+	+	+	+						↑			↑				↑	↑		
	자아존중감	+	+	+	+	↑		↑													
	사회적 역량	+	+	+	+									↑	↑			↑			
	삶의 만족도	+	+	+							↑										
	우울			+																	
	현재 걱정거리																				
이중문화 경험	국적에 대한 인식		+	+										↑							
	국가 정체성	+	+	+	+				↑												
	한국문화수용태도	+	+	+	+				↑			↑						↑			
	본국문화수용태도	+	+	+	+																
	문화적응 스트레스	-	-	-										↑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인식	+	+	+																	↑
부모관련	부모 감독 양육태도	+	+		+																
	부모 방임 양육태도	-				↑		↑		↑		↑		↑							
	부모님과 활동	+			+				↑				↑								
	부와 대화시간									↑											
	모와 대화시간		+																		
	방과 후 보호자 부재	-			-																
	주관적 가정형편	+	+	+	+		↑	↑			↑	↑						↑	↑		
사회적 지지	부모님의 지지	+	+	+	+																
	친구의 지지	+	+	+					↑												
	교사의 지지	+	+	+	+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	+		+																	
	학교 외 도와주는 어른	+		+																	
기타	청소년 활동	+	+	+	+														↑	↑	
	집단 괴롭힘 피해	-	-	-	-																

A: 학교생활적응, B: 성적, C: 성적만족도, D: 희망교육수준

(3) 부모 변인의 영향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영역은 자녀양육관련($R^2=.054$)이었으며, 부모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R^2=.030$), 부모 이주배경($R^2=.016$), 가정환경($R^2=.015$) 순이었다. 성적과 성적만족도, 희망 자녀교육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도 자녀양육관련(각각 $R^2=.057$, $R^2=.031$, $R^2=.074$)이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모 변인의 영향력은 청소년 변인의 영향력 보다 낮았다.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부모 변인의 영향이 <표 VIII-102>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네 가지 학업관련 변인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네 가지 학업관련 변인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모 한국어 수준, 모 학력, 배우자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의사소통, 특기적성 사교육비, 부모효능감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 학교문제나 숙제 지도하는 사람이 학원 등의 선생님인 경우는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모 한국어 수준 가정의 월평균 소득, 자녀와 의사소통, 자녀의 모국어 능력,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정도, 자녀의 학교 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교과목 사교육비, 특기적성 사교육비, 부모효능감, 희망 자녀교육수준은 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모 한국어 수준, 자녀와 의사소통, 자녀의 모국어 능력,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부모효능감, 희망 자녀교육수준은 성적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 학력, 모 학력, 가정의 경제적 수준, 배우자 관계 만족도, 자녀의 모국어 능력,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희망 자녀교육수준은 희망교육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에 대한 하위유형별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부모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부모 한국어 수준의 영향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학교생활적응과 성적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부 학력의 영향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성적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집단의 희망교육수준에서 컸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영향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성적과 희망교육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배우자 관계 만족도의 영향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성적만족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및 국외출생 집단의 희망교육수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성적과 성적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의 모국어 능력의 효과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희망교육수준에서 높았다.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의 영향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과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및 국외출생 집단의 학교생활적응에서 높았으며,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성적과 성적만족도에서 높았다.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의 효과는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성적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의 영향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성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과목 사교육비의 효과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학교생활적응과 성적에서 높았다. 특기적상 사교육비의 효과는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성적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모효능감의 효과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성적에서 높았다. 희망 자녀교육수준의 효과는 국내출생 외국인 가정 및 국외출생 집단의 희망교육수준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학교생활적응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II-102.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부모 변인의 영향

영역	분석 변인	전체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부모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부모 자아존중감	+	+	+	+										↑			
	부모 전반적 건강 상태																	
부모 이주배경	부모 한국어 수준	+	+	+				↑	↑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	-	-	-													
가정환경 요인	부 학력				+			↑										↑
	모 학력	+			+													
	가정의 월평균 소득		+															
	가정의 경제적 수준				+			↑	↑									
	배우자 관계 만족도	+			+		↑						↑		↑	↑	↑	↑
자녀양육 관련요인	자녀와의 의사소통	+	+	+														
	자녀의 모국어 능력		+	+	+				↑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	+				↑			↑	↑	↑		↑			
	자녀 학교문제 숙제 지도하는 사람	-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												↑	
	자녀의 학교생활위해 하는 활동	+													↑			
	교과목 사교육비		+					↑	↑									
	특기적성 사교육비	+	+														↑	
	부모효능감	+	+	+				↑										
	희망 자녀교육수준		+	+	+								↑	↑		↑		↑

A: 학교생활적응, B: 성적, C: 성적만족도, D: 희망교육수준

(4) 다문화 지원정책의 영향

청소년의 학업관련변인에 미치는 다문화 정책 지원 서비스들의 전체 영향력은 1%이내였다(학교생활적응 $R^2=.010$, 성적 $R^2=.005$, 성적만족도 $R^2=.007$, 희망교육수준 $R^2=.005$).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다문화 지원정책 서비스 경험의 영향이

〈표 VII-103〉에 제시되어 있다. 이중언어교육지원은 희망교육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기적성 교육지원은 학교생활적응과 성적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체험활동 지원은 성적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응 프로그램 지원은 희망교육수준에 부적의 영향을 미쳤으며, 물질·금전적 지원은 성적만족도에 부적의 영향을 미쳤다. 하위유형별 차이점은 심리적응 프로그램 지원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에서는 정적이었지만,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에서는 부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표 VII-103. 학업관련 변인에 대한 다문화 정책 지원 경험의 영향

영역	분석 변인	전체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다문화 정책지원 경험	자녀한국어교육지원																				
	이중언어교육지원				+																
	학습지원																				
	특기적성 교육지원	+	+																		
	체험활동 지원			+																	
	심리적응 프로그램 지원				-					↑									↓		
	물질·금전적 지원				-																
	진로 프로그램 지원																				

A: 학교생활적응, B: 성적, C: 성적만족도, D: 희망교육수준

4. 소결

본 장에서는 우선 1기 다문화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현황을 살펴보고, 대학진학 및 근로경험자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중 특히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고등학교 시기의

희망교육, 학습활동 등 직접적인 요인과 고등학교 2-3학년 시기의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가구소득, 사회적 위축 등이 산출되었으며, 특히 초등학교 재학시기의 가족의 지지와 수업태도, 주관적 성적수준 등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대학진학여부에 관심을 둔 이유는 대학진학여부라는 문제가 단순히 여러 진로선택 중 하나가 아니라 성인기 삶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고, 따라서 대학진학을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지, 어떤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기 패널자료의 분석 결과 초등학교 시기의 변인들이 도출되었다는 점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성장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2기 패널의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업과 관련된 변인, 즉, 학교생활만족도, 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희망교육수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구체적인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개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때, 전년도 연구결과 지역의 규모에 따른 차이가 발생했기에 지역격차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지역규모가 희망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의 변인이나 부모의 특성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의 차이는 다문화청소년들의 희망교육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변인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2기 패널의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업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우선 첫째, 청소년 본인이 지각한 특성과 관련하여,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 이중문화경험,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지지, 청소년활동과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인의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도 등 심리적응 수준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의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등도 중요한 변인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방임의 경우는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부모, 친구, 교사 등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활동 경험은 모든 학교생활적응에서 학업관련 변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반대로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등 모든 변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둘째, 부모 변인의 영향을 보면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모든 학업관련 변인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한국어수준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학업관련 모든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한국어능력 제고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개입 등이 중요한 정책적 개입의 지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가정환경 요인 중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로 부모의 계층이 자녀에게 세습되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자녀의 성적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 역시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교육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 및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셋째, 자녀양육과 관련된 요인에서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자녀의 모국어 능력도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의 모국어 능력은 학교생활적응을 제외한 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희망교육수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특히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교과목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성적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특기적성 사교육비는 성적뿐 아니라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기적성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으

며, 부모의 효능감은 학교생활적응과 성적, 성적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나 희망교육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부모의 희망교육수준은 자녀의 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정책의 지원경험이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관련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이중언어교육은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기적성교육은 학교생활적응과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체험활동 지원은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에는 크게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았을 때,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업관련 변인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데, 학업관련 변인은 단순히 학습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의 자아존중감, 부모의 한국어능력, 부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녀가 받는 사회적지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청소년활동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의 심리적응수준과 정신건강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학습능력 뿐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 특히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고, 다문화청소년 당사자의 심리적응 및 건강의 문제, 부모 및 청소년 당사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요인들을 다룰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 — 제Ⅷ장 면접조사

- 1. 면접조사의 목적
- 2. 면접조사의 절차 및 방법
- 3. 조사내용
- 4. 조사결과
- 5. 소결

1. 면접조사의 목적

본 연구의 면접조사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 및 학업관련 현황의 지역격차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층 분석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7장에서 1기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대학진학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업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개인적 특성과 부모 및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면접조사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재확인하거나 결과에 대한 해석을 첨가하고, 실제 지역적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면접조사의 절차 및 방법

1) 조사 절차

본 연구의 면접조사는 [그림 VIII-1]에 제시된 절차를 통하여 추진되었다. 우선

* VIII장의 1절~4절은 한지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집필하고 5절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집필함.

FGI 사전준비단계로 3월~4월 중 연구진 회의를 통해 조사개요 및 전체추진일정을 계획한 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조사의 내용과 목적에 맞게 조사대상자의 그룹 속성(대상자의 특성, 그룹 수, 대상자 수)을 결정하였다. 조사 설계 및 계획을 확정된 후, 조사대상자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필요에 맞게 수집하기 위해 그룹 속성별로 다문화청소년(대학진학자, 취업자, NEET)3종과 학부모 1종의 질문지 초안을 마련하였다. 질문지를 포함하여 FGI 실행을 위해 준비된 연구 계획 관련 서류목록들을 구비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IRB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5월 초 승인 통보를 받은 후, 본격적인 조사수행을 위해 대상자 섭외 및 인터뷰 대상자, 면접 일시 및 장소 등을 확정하였다. 면접조사 추진(안)에 따라 인터뷰 수행팀(2인 1조, 인터뷰 수행자와 내용기록)을 구성한 후, 그룹별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FGI는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달 동안 진행되었다.

절차	내용	일정
조사기획	조사수행 개요 추진 일정계획 수립	3월~4월
▼		
조사설계	조사 목적 및 조사대상자(그룹) 속성 결정 조사방법(온/오프라인) 및 자료수집도구 확정 대상별 면접질문지 초안 확정	4월 1주~4월 3주
▼		
IRB 심의	FGI IRB 심의 신청 결과 통보	4월 4주~5월 1주
▼		
조사 실행	조사대상 섭외 및 확정(그룹 수, 인원) 추진세부일정 확정(일시, 장소) 및 인터뷰 수행팀 구성, 인터뷰 실시	5월 2주~6월 1주
▼		
분석/결과	인터뷰 내용 정리 및 분석, 결과 도출	6월 2주~6월 4주

그림 VIII-1. FGI 진행 절차

분류가 된다. 본 조사는 면접조사 방법 중에서도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방식의 온라인 비대면(non-face-to-face) 그룹면접(group interview)으로 진행되었다<그림Ⅷ-2>. 반구조화 방식은 연구 주제 및 내용과 관련된 일정 수의 핵심질문들은 표준화하되, 질문의 순서와 방법 등은 면접자가 재량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시킬 수 있는 면접방법의 하나이다. 또한, 제시된 질문 이외에도 면담 내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질문을 이어나가며 보다 심도 있는 응답의 도출이 가능하다. FGI 기획 당시 면대면(face-to-face)조사 수행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특수상황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FGI는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그룹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에 앞서 조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조사과정, 조사내용, 녹화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조사 진행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에 자발적 참여의사를 나타낸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FGI는 면담시간 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룹 당 4~5명 내외로 구성하였다. 1기 패널 청소년은 그룹 당 5명, 2기 패널 어머니는 그룹 당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1그룹 당 면담시간은 약 60분~120분가량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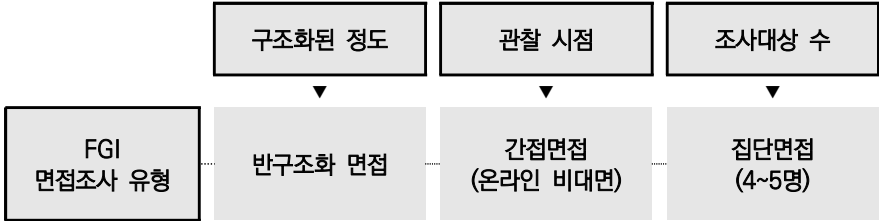


그림 Ⅷ-2. 1기 패널 청소년 및 2기 패널 학부모 면접조사 방법

4) 조사대상자

본 조사는 다문화청소년의 지역별 성장기회격차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심층면접 대상을 전국단위조사인 본 연구의 다문화패널조사(MAPS)에 참여하고 있는 1기 패널 청소년과 2기 패널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1기 패널 조사 참여 청소년은 이행적 연령기 특성(현재 만 20세)을 가진 대상으로 청소년기의 경험과 성인기 사이에 요구되는 이행적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2기 패널 참여자인 학부모는 2019년도에 새롭게 구축된 초4 패널의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로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생활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지원 기반들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다.

조사대상 섭외는 본 패널을 컨택 관리하고 있는 조사전문기관 꺄럽을 통해 1기 패널 청소년과 2기 패널 어머니를 다음의 선정기준에 따라 표집하였다. 1기 패널 다문화청소년은 진로유형에 따라 ‘대학진학자’, ‘취업자’, ‘NEET’ 3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권역별(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도시규모별(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성별(남, 여) 모집단 구성비를 고려하여 추출하였다. 2기 패널 학부모는 자녀 출생유형에 따라 ‘국내출생자녀의 어머니’와 ‘국외출생자녀의 어머니’ 2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권역별(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지역별(대도시 및 중소도시, 읍면), 자녀 성별(남, 여), 출신국가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선정하였다<표Ⅷ-2>. 조사대상자 수는 통계적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효응답자가 30명 이상 되도록 설계하였다. 다음의 선정 기준에 따라 섭외된 조사대상자는 1기 패널 청소년 33명, 2기 패널 어머니 33명으로 총 조사참여자는 66명이었다.

표 Ⅷ-2. 조사대상자 모집단

1기 패널 청소년 모집단				2기 패널 학부모 모집단		
구분	대학진학자	취업자	NEET	구분	자녀국내출생	자녀외국출생
대도시	155명	33명	48명	수도권	557명	250명
중소도시	321명	77명	74명	충청권	243명	48명
읍/면	216명	53명	48명	경상권	468명	52명
계	692	163	170	전라권	305명	17명
				계	1,573	367

(1) 1기 패널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기회 지역 격차’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기 패널 다문화청소년을 진로유형에 따라 ‘대학진학자’, ‘취업자’, ‘NEET’ 그룹으로 구분하여 도시규모별, 권역별 분포를 고려한 총 9개 포커스 그룹을 모집하였다. 포커스 그룹 구성은 응답자를 통해 면접시간 내 충분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룹 당 참여자 수를 4~5명 이내로 구성하였고, 총 33명의 다문화청소년이 본 FGI에 참여하였다.

1기 패널 조사대상자 중, 대학진학자 그룹의 경우 현재 대학에 진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상이 이에 포함되고, 취업자 그룹은 현재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NEET 그룹은 현재 진학도 취직도 하지도 않은 상태로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군입대, 진학, 유학,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상이 이에 해당된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진학자 12명, 취업자 11명, NEET 10명이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5명, 경상권(대구, 경북, 부산) 6명,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4명, 전라권(광주, 전남, 전북) 8명이었고,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 11명, 중소도시 13명, 읍면이 9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18명, 여자가 15명으로 남자가 좀 더 많았다. 이들의 어머니 출신국은 베트남, 일본, 중국(조선족), 태국, 필리핀 등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1기 패널 청소년의 경우 국내

출생 자녀이거나, 장기간 국내체류로 한국어 실력이 능통한 수준이어서 면접조사 진행 시 동시통역사 없이 연구자가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1기 패널 청소년의 참여자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VIII-3>과 같다.

표 VIII-3. 1기 패널 FGI 조사참여자(다문화청소년) 인적사항

구분	진로유형	도시규모	지역	성별	모출신국	비고
C1	대학진학자	대도시	부산	남	일본	일반고졸 / 일본어학과
C2	대학진학자	대도시	대전	남	베트남	일반고 졸/ 웹툰애니메이션학과
C3	대학진학자	대도시	서울	여	일본	특성화고졸/ 경영학과
C4	대학진학자	대도시	광주	남	중국(조선족)	일반고졸 / 소방행정학과
C5	대학진학자	대도시	서울	남	필리핀	일반고졸 / 동남아학부
C6	대학진학자	중소도시	경북 김천시	여	일본	일반고졸 / 작업치료학과
C7	대학진학자	중소도시	경기 화성시	남	중국(조선족)	일반고졸 / 초등대안과
C8	대학진학자	중소도시	충남 아산시	남	필리핀	일반고졸/ 일본어학과
C9	대학진학자	중소도시	전남 나주시	여	일본	일반고졸/ 경제학부
C10	대학진학자	읍면	경북성주군	여	일본	일반고졸/ 항공보안경호학부
C11	대학진학자	읍면	경기 가평군	여	필리핀	일반고졸/ 글로벌한국학과
C12	대학진학자	읍면	전남 곡성군	남	필리핀	일반고졸/ 응용소프트웨어학과
C13	취업자	대도시	서울	남	중국(조선족)	특성화고졸/ 전기인테리어
C14	취업자	대도시	인천	여	중국(조선족)	특성화고졸 / 사무직
C15	취업자	대도시	서울	여	일본	특성화고졸 / 디자인
C16	취업자	중소도시	경북	여	일본	특성화고졸 / 보조직
C17	취업자	중소도시	경기도 부천시	남	일본	일반고졸 / 딜러
C18	취업자	읍면	경기 가평군	남	일본	기타 / 기술직
C19	취업자	읍면	전남 영암군	남	필리핀	특성화고졸/ 중공업
C20	취업자	읍면	충북 음성군	남	필리핀	특성화고졸/ 노동직

구분	진로유형	도시규모	지역	성별	모출신국	비고
C21	취업자	중소도시	경기 안산시	여	필리핀	특성화고졸 / NGO단체 사무직
C22	취업자	중소도시	충남 아산시	여	중국(조선족)	특수목적고졸 / 9급 군무원
C23	취업자	중소도시	전남 순천시	여	필리핀	특성화고졸 /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C24	NEET	대도시	부산	남	필리핀	일반고졸 / 군입대 준비
C25	NEET	대도시	서울	여	일본	특성화고졸 / 취업 준비
C26	NEET	대도시	광주	남	필리핀	특성화고졸 / 휴식 및 요양
C27	NEET	중소도시	경기 여주시	여	필리핀	특성화고, 검정고시 / 취업 준비
C28	NEET	중소도시	경기 부천시	남	일본	특성화고졸 / 군입대 준비
C29	NEET	중소도시	전북 남원시	여	필리핀	일반고졸/ 취업준비
C30	NEET	중소도시	경기 포천시	여	필리핀	일반고졸 / 진학 준비
C31	NEET	읍면	경기 가평군	남	태국	일반고졸 / 군입대 준비
C32	NEET	읍면	경북 영덕군	남	중국(조선족)	특성화고졸 / 자격증 준비
C33	NEET	읍면	전남 함평군	남	일본	일반고졸 / 휴식 및 요양

(2) 2기 패널 조사대상자

2기 패널 참여자인 다문화청소년 어머니는 자녀의 출생유형에 따라 ‘자녀국내출생’과 ‘자녀외국출생’ 그룹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도시규모, 자녀성별, 어머니 출신국별 분포를 고려하여 총 8개 포커스 그룹을 모집하였다. 포커스 그룹 구성은 모집단 구성비와 조사대상자의 응답 충실도를 고려하여 그룹 당 참여자 수는 4명~5명 내외로 구성하였고, 총 33명이 FGI에 참여하였다.

2기 패널 조사대상자는 2기 패널에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로, 국내출생자녀가 17명, 자녀국외출생은 17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8명, 경상권(대구, 경남, 경북, 부산) 8명,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 9명, 전라권(광주, 전남, 전북) 8명이었고,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 15명, 중소도시

9명, 읍면이 9명이었다. 어머니 출신국은 나이지리아, 러시아, 몽골, 베트남, 북한, 우즈베키스탄, 일본, 중국(조선족, 한족),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등 다양했고, 그 중 국적 취득자는 17명, 국적 미취득자는 16명이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2기 패널 어머니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국내체류 대상자가 대부분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고, 한국어 실력이 능통한 편이어서 연구자가 직접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2기 패널 어머니의 참여자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VIII-4>와 같다.

표 VIII-4. 2기 패널 FGI 조사참여자(학부모) 인적사항

구분	자녀 출생	성별	도시규모	지역	출신국		현재 국적		자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성별	학년
P1	국내	여	인천	대도시	필리핀	한국	귀화	한국	여	초6
P2	국내	여	서울	대도시	베트남	한국	귀화	한국	여	초6
P3	국내	여	서울	대도시	중국	중국	귀화	한국	남	초6
P4	국내	여	경기안양시	중소도시	일본	한국	일본	한국	남	초6
P5	국내	여	대구	대도시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국적 없음	남	초6
P6	국내	여	대구	대도시	중국 (한족)	한국	귀화	한국	남	초6
P7	국내	여	부산	대도시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여	초6
P8	국내	여	부산	대도시	키르기스 스탄	키르기스 스탄	귀화	한국, 키르기스 스탄	남	초6
P9	국내	여	부산	대도시	필리핀	한국	귀화	한국	남	초6
P10	국내	여	전남 강진군	읍면	베트남	한국	귀화	한국	여	초6
P11	국내	여	전남 영광군	읍면	태국	한국	태국	한국	남	초6
P12	국내	여	전남 화순군	읍면	베트남	한국	귀화	한국	여	초6
P13	국내	여	전남 순천시	읍면	베트남	한국	귀화	한국	남	초6

구분	자녀 출생	성별	도시규모	지역	출신국		현재 국적		자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성별	학년
P14	국내	여	충남 당진시	중소도시	중국 (조선족)	한국	귀화	한국	남	초6
P15	국내	여	대전	대도시	한국	미국	한국	한국	남	초6
P16	국내	여	충북 음성	읍면	우즈베 키스탄	우즈베 키스탄	우즈베 키스탄	한국, 우즈베 키스탄	남	초6
P17	국내	여	충북 옥천	읍면	필리핀	한국	귀화	한국	여	초6
P18	외국	여	서울	대도시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여	초6
P19	외국	여	경기 광주시	중소도시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남	초6
P20	외국	여	인천	대도시	북한	중국	귀화	한국	남	초6
P21	외국	여	경기 파주시	중소도시	몽골	몽골	몽골	몽골	여	초6
P22	외국	여	경북 예천군	읍면	몽골	한국	귀화	귀화	남	초6
P23	외국	여	경남 고성군	읍면	중국 (조선족)	한국	중국 (조선족)	한국	여	초6
P24	외국	여	경남 창원시	중소도시	중국 (한족)	중국 (한족)	한국	한국	여	초6
P25	외국	여	광주	대도시	중국 (한족)	한국	중국 (한족)	한국	남	초6
P26	외국	여	광주	대도시	베트남	한국	귀화	귀화	여	초6
P27	외국	여	전북 전주시	중소도시	북한	중국 (한족)	귀화	한국	여	초6
P28	외국	여	전남 나주시	중소도시	중국 (한족)	중국 (한족)	중국 (한족)	중국 (한족)	여	초6
P29	외국	여	충남 아산시	중소도시	우즈베 키스탄	우즈베 키스탄	우즈베 키스탄	우즈베 키스탄	남	초6
P30	외국	여	대전	대도시	나이지 리아	나이지 리아	나이지 리아	나이지 리아	남	초6
P31	외국	여	충남 금산시	읍면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여	초6
P32	외국	여	대전	대도시	몽골	- (이혼)	몽골	몽골	여	초6
P33	외국	여	세종시	중소도시	필리핀	한국	귀화	한국	남	초6

3. 조사내용

면접조사는 반구조화 면접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서비스 수혜경험, 지역별 정책지원의 정도와 그 차이, 격차에 따른 영향,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 니즈 파악을 위한 의견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시된 질문 이외에도 면담내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정책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개방적 질문을 포함하여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룹별 주요 핵심질문들은 표준화하여 질문하되, 조사대상자별 언어수준을 고려하여 질문방식을 변경하고 정확한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 부가적인 질문과 예시를 제공하며 면접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진학자 그룹의 경우 대학진학과 전공 선택 이유, 대학진학준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서비스 수혜경험, 과거 지원받았던 서비스 중 도움이 되었던 지원과 그 이유, 지원서비스의 이용상의 불편했던 점과 개선할 점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취업자그룹의 경우 현재 직업과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선택한 이유, 취업을 선택하게 된 경로,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대상, 향후 계획(진학, 이직 등),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서비스 수혜경험과 도움 정도, 과거 지원받은 제도나 서비스의 이용 상에 불편했던 점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NEET 그룹의 경우는 현재 근황과 진학 및 취업을 하지 않은 이유, 진학 또는 취업에 대한 향후 계획,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서비스 수혜경험, 과거 지원받은 제도나 서비스의 이용 상에 불편했던 점,

다문화청소년 정책 관련 기타 제안하고 싶은 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다문화청소년 어머니 그룹의 경우 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어려운 점, 다문화청소년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수혜 경험 및 정도, 제공주체, 이용 상의 편의성과 유용성, 다문화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다문화청소년 및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질문 내용은 <표Ⅷ-5>와 같다.

표 Ⅷ-5. 1기 패널 청소년 및 2기 패널 학부모 면접조사지

조사대상		조사내용
1기 다문화 청소년	대학진학자 그룹	■ 현재 전공과 전공 선택 이유 ■ 대학진학 준비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또는 힘들었던 점 ■ 대학진학 준비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 또는 기관 ■ 대학진학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 원하는 진로 선택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또는 도움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나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 (과거 고등학교 이전 시기)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수혜 경험 및 제공 주체 ■ (과거 고등학교 이전 시기)어떤 지원이 도움이 되었고,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 과거 지원받은 제도나 서비스에서 이용 상 불편했던 점과 그 이유 ■ 다문화청소년 정책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점(서비스 내용, 제공방식 등)
	취업자 그룹	■ 현재 직업 ■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경로(시험, 학교 또는 지인 소개) ■ 취업준비과정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 또는 기관 ■ 현재 직업의 유지 여부 ■ 진학 또는 이직 등에 대한 다른 계획 여부 ■ 현재 일하면서 어려운 점 ■ (과거 고등학교 이전 시기)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수혜 경험 및 제공 주체 ■ (과거 고등학교 이전 시기)초중고시절 어떤 지원이 도움이 되었고,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나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 다문화청소년 정책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점(서비스 내용, 제공방식 등)
	NEET 그룹	■ 현재 근황 ■ 진학과 취업을 하지 않은 이유 ■ 앞으로의 계획(어떤 준비를 하는지, 필요한 정보 수집 경로) ■ 원하는 일을 하도록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나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 (과거 고등학교 이전 시기)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수혜 경험 및 제공 주체

조사대상		조사내용
		▪ (과거 고등학교 이전 시기)초중고시절 어떤 지원이 도움이 되었고,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 다문화청소년 정책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점(서비스 내용, 제공방식 등)
2기 다문화 어머니	국내/국외출생	▪ 배경정보(출신국, 가족구성, 입국시기 등) ▪ 자녀를 양육(교육)하면서 어려운 점 또는 고민되는 점 ▪ 다문화자녀 양육 및 교육 관련하여 정부로부터의 서비스 수혜 경험 및 제공 주체, 이용접근성 및 편의성 정도 ▪ 과거 지원받은 제도나 서비스에서 이용 상 불편했던 점과 그 이유 ▪ 다문화지원정책 또는 서비스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 ▪ 다문화가정 부모로써 다문화자녀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점(필요로 하는 지원,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 등)

4. 조사결과

1) 1기 패널 다문화청소년

① 진로결정에서 교사의 영향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결정에서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 대상과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진로탐색 단계에서 다문화청소년이 개별 도움을 받은 정도와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영향을 준 대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교사라는 의견이었다. 교사의 영향 정도는 다문화청소년 그룹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먼저 대학진학자 그룹의 경우, 어머니의 영향으로 동남아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이 어디로 진학하면 좋을지 전공을 고민하고 있을 때, 담임 선생님이 관심 분야를 고려한 학과(동남아학부)를 소개해 주었고 해당 학교로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체육학과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던 다문화청소년에게 고등학교의

코치가 전망 좋은 학과로 항공보안경호학과를 알려주었고, 수시전형 지원에서도 코치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학과로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학생의 희망진로를 파악하여 원하는 대학 정보를 제공해주려는 교사의 노력과 진로지도역량이 학생의 진학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도시 - 대학진학자

C5: 고3 담임 선생님이 대학(동남아학부)을 가는 데 도움을 가장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면접자: 어떻게 도와 주셨어요?
 C5: 대학 찾아 주시고 학과도 알아봐 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도시 - 대학진학자

C6: 저는 수시 전형으로 들어가서 생기부 채우는 게 많이 어려웠지 않나 싶습니다.
 면접자: 그때 누가 도와 주셨어요?
 C6: 저 같은 경우는 보건 분야(작업치료학)로 같이 가는 친구들이랑 이야기거리 만들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했던 거 같아요. 친구들이랑 정 활동할 게 없으면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자체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학생들이 자기 분야 쪽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면접자: 고등학교 때요?
 C6: 네. 선생님이랑 계속 이야기 하면서 활동 계속 하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계획하면서 생기부 내용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면접자: 인문계에서도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C6: 네. 저희 학교가 그런 쪽으로 잘 해 주셔서요.

읍면 - 대학진학자

면접자: 학과(항공보안경호학부)를 잘 맞게 선택을 했네요. 그러면 이런 과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C10: 저도 원래 체육학과 찾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코치님이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요.
 면접자: 학과 선택하고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거는 없었어요? 어떤 전형으로?
 C10: 저는 선수가 아니라 일반 학생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공부도 많이 안 해서 면접(수시)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면접자: 그렇군요. 그러면 코치님이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셨겠네요?
 C10: 네. 맞아요.

한편,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의 경우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교 특성처럼 대학 진학 보다 취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취업 선택의 경로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차이가 있었다.

한 사례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다문화청소년 중 한 명은 교내의 취업전담교사를 통해 ‘군무원’이라는 직업을 소개받게 되었고, “이 직업이 공무원이고 멋진 직업이다.”라는 전문교사의 말에 직업에 대한 관심이 생겨 시험과 면접을 준비하여 군무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취직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험과 면접에 있어서도 전문교사의 도움이 컸다고 대답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탐색단계에서의 취업전담교사의 직업정보 제공이 진로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중소기업의 일반사무직으로 취업한 다문화청소년은 본인의 학교에도 취업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었지만, 자신은 담임교사와 교내 다른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아 취업을 할 수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이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희망직무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 요구가 자기소개서 작성과 같이 학생에 대한 이해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적극적인 지도를 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이드 제공에 초점을 둔 취업전담교사보다는 실제적으로 자소서 작성과 첨삭지도의 밀착지도를 해줄 수 있는 담임교사와 교내 교사들의 지원이 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도는 진로의 탐색, 구체화, 선택, 명료화과정의 개별 진로수준을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며, 이 때 담임교사와 취업전담교사의 전문성과 요구되는 역할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 - 취업자

C22: 저는 마이스터고를 다녀서 취업 쪽에 전문적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쪽(군무원)을 알게 되어서 제 전공을 살려서 전자직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면접자: 군무원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C22: 네. 그래도 공무원이고 멋있다는 식으로 소개를 시켜주셔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면접자: 고3부터 시험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무원은 시험 준비만 하면 되나요? 시험 보고 면접 보고?

C22: 네. 면접 봅니다.

면접자: 고등학교 때 면접 준비 도움 받으신 거는 없으세요?

C22: 있었어요. 저희가 취업 진로시간이라고 해서 선생님을 모셔 와서 토론 면접도 해 보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면접자: 도움이 되었을까요?

C22: 사실 그 당시에는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막상 취업 하고 싶은 곳에 면접을 보게 되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 했으니까 익숙한 느낌이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 - 취업자

C14: 보통 학교에서 취업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자소서나 면접 봐 주시고, 3학년 자체가 취업이나 이력서 쓰는 걸로 돌아갔어요. 취업은 물론이고 수시로 찾아가서 첨삭 같은 거 받고 면접 준비하는 걸로 진행이 되었던 거 같아요.

면접자: 학교에서 전담으로 취업 지원을 해 주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셨던 거네요?

C14: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담임 선생님이나 친한 선생님들께서도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면접자: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도움을 주신 걸까요?

C14: 네.

도시 - 취업자

C15: 3학년 자체가 취업 위주라서 수업도 그렇게 하고 자소서도 쓰고 준비했어요.

면접자: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C15: 네. 맞아요.

② 부모의 다문화적 배경이 자녀의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다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형성되는 부모국의 긍정적인 언어 문화적 관심 혹은 반대로 외국인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의지가 진로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례로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인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어렸을 때 필리핀에는 한 두 번 밖에 다녀오지 못했지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더 알아보고 싶다는 관심에서 대학 전공으로 동남아학부를 지망하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몇 번 안 되는 기억이지만, 다문화청소년에게 유년시절에 경험하였던 모국에서의 긍정적인 기억과 다문화어머니를 통한 일상생활에서의 국가호감도가 진로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 - 대학진학자

면접자: **동남아 학부**라고 하셨는데 뭐 하는 건가요?

C5: 동남아 지역을 전공하는 거예요.

면접자: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C5: **저는 아무래도 어머니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 같아요.**

면접자: 엄마가 어디 출신이세요?

C5: 저희 어머니는 필리핀에서 오셨습니다.

면접자: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어떻게 받은 거 같아요?

C5: **아무래도 어머니 나라 쪽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서요.**

읍면 - 대학진학자

면접자: **글로벌한국학과**라고 한 게 맞나요? 어떤 과인지 얘기를 해 줄 수 있을까요?

C11: 졸업하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나중에 한국어 관련해서 해외를 나가서 한국어 교사를 하거나 국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직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접자: 재밌을 거 같은데 전공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C11: 해외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찰나에 **어머니께서 한국어를 하시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필리핀에서 살다 오셔서 한국생활 20년차인데도 아직 **말씀하실 때는 유창하시나 말을 적는데 불편함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직장상사에게 간단하게 “감사합니다.”는 괜찮지만,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쉬고 싶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한국어로 할 때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을 보고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했는데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언어·문화적 특징에서 비롯된 진로 동기 외에도,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직업적 전문성이 자녀의 진로 결정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직업관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진로 지도로 이어졌고, 부모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자녀의 진로와 직업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 - 취업자

면접자: 고등학교 때도 그쪽 관련해서 배운 거죠?

C15: 네. 인쇄량 디자인 같이 배웠어요.

면접자: 그러면 고등학교는 원래 그런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입학한 거예요?

C15: 네. **엄마가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③ 진로 선택에서 형제자매의 영향

한편, 가족체계 내의 부모를 대신하는 중요한 지지체계 중의 하나가 바로 형제자매이다. 형제자매는 가족원으로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며, 선배로서의 충실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 결정 시 부모나 교사 못지않은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한 사례로 도시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준비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이미 대학에서 작업치료학과를 전공 중인 언니가 있었고, 그 언니의 재학 중 경험을 옆에서 접하며 해당 학과의 전망과 입시 전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 관련 정보들을 제공받아 언니가 다니는 대학에 동일 학과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는 농촌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담임 선생님이 입시 전형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셔서,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오빠에게 입시정보와 자소서 작성 등을 도움을 받아 수시 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두 사례 모두 상급학년의 형제자매의 진학 경험이 나이 어린 동생의 대학 진학에 유용한 정보(학교생활, 대학 지원)들을 제공해 주며 진로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농촌지역 교사의 입시전형에 대한 이해와 입시 관련 정보 교류가 도시지역에 비해 소극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사의 대입 진학지도 역량은 학생의 진로 결정 시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이 부족할 경우 상급학교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의 진학 경험은 교사를 대신하여 진로 선택에 필요한 정보와 가이드를 제시하며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도시 - 대학진학자

- 면접자: 전공이 뭐죠?
 C6: 작업치료학이요.
 면접자: 그 과를 선택할 때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전망이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선택했죠?
 C6: 친언니의 이야기도 듣고, 주변 선생님들에게 보건의료로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여쭙 봐서 찾아보고 간 과여서요. **저희 언니도 지금 같은 과여서요. 같은 작업치료 학과여서 언니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면접자: 그러면 같은 학교 같은 과예요?
 C6: 네.
 면접자: **언니가 괜찮았나보다. 그럼 언니의 영향을 받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거(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준 게 있어요?**
 C6: **네. 과 전망도 나쁘지 않고 범위를 넓혀서 한국 사회 자체가 고령화 자체니까 작업치료 사들이 늘어날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읍면 - 대학진학자

- 면접자: 대학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수시로 갔어요? 정시로 갔어요?
 C9: 저는 수시로 갔습니다. **수시를 총 6장 작성할 수 있는데, 그 6장 고르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대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셨고 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고등학교 내에서 한정적이어서 제 성적을 가지고 넣을 수 있는 상황, 하향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면접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C9: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학교의 다른 선생님께서도 도와 주셨고요. 저는 친오빠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면접자: **오빠도 수시로 갔어요? 오빠가 성공을 했으니까 그걸 동생에게 알려 줬군요.**
 C9: **네. 자기소개서도 좀 봐주고요.**
 면접자: 그런 거를 학교 선생님이 봐주시는 않아요?
 C9: 보통 학교 선생님이 봐 주시는데..
 면접자: 그 선생님이 잘 모르셨구나?
 C9: 네.

④ 원치 않는 상황에서의 자발적 진로 선택

진로 결정 시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였냐는 질문에 “스스로 알아봐서 결정하였다.”고 대답한 “자발적 진로선택형”의 다문화청소년 사례도 있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이러한 결정 방식이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충분히 탐색하고 스스로가 진로를 결정하고자 한 의지에서의 자발적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원하는 진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의 부재와 진로탐색 기회 획득에 어려움을 겪어 실제적으로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선택이라는 점이다. 진로 결정 시 일차적 상담창구가 되는 교사와 가족으로부터 진로탐색에 필요한 정보와 희망 진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탐색 자원이 매우 제한적일 경우, 진로 찾기에 곤란을 겪는 다문화청소년에게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나타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로 결정에서 ‘취업’을 선택한 다문화청소년에게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닌 다문화학생의 경우 진로체험과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등 학교에서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스스로 취업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요구와 전공을 고려한 직업훈련, 직업상담, 취업알선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취업 성공률에 우선순위를 둔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누구에게 도움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보고 지원하였다.”, “학교 추천이 있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직접 알아봐서 취업하였다.”, “추천해 준 곳이 적성에 맞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다문화청소년의 대답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단기 이직 현상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직무적합성을 고려한 진로 지원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도시 - 취업자

면접자: 지금 다니는 직장은 어떻게 결정을 한 거예요?

C17: 친구 소개로 갔는데요. 제 나이대 돈을 많이 만질 수 있는 직업이더라고요. 제가 빨리 벌고 나중에 그 돈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취업하게 되었어요.

면접자: 일반고에서는 그런(취업) 지원을 따로 해 주시는 게 많지 않았을 텐데, 지금 다니는 직장 아니더라도 졸업하고 계속 일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셨을까요?

C17: 전문적인 일이 아니라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면접자: 혼자 찾아보고 스스로 지원해 보고 이직하고 그런 거예요?

C17: 네. 그랬어요.

읍면 - 취업자

면접자: 취업할 때 누가 소개시켜 줬어요? 아니면 본인이 시험을 봤어요?

C19: 제가 직접 알아보고 간 거라서요.

면접자: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학교에서 소개시켜 준 거는 없어요?

C19: 소개시켜 줬는데, 그쪽에서 한 달 정도 일했거든요. 저랑은 안 맞아서 그만 뒀어요.

도시 - 취업자

면접자: 잡코리아에서 검색해서 취업하셨다고 하셨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추천 같은 것은 없었던 거예요?

C21: 학교 추천은 있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면접자: 하고 싶은 일을 추천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C21: 네.

읍면 - 취업자

면접자: 어떻게 일러스트 프리랜서로 진로를 정하시게 된 걸까요?

C23: 그림 자체를 시작한 건 어렸을 때부터 독학으로 시작했어요. 원래는 고등학교 때 졸업을 하고 나서 선생님께서 취업처를 알아봐 주셔서 운 좋게 레스토랑 서빙일 같은 거를 2주 정도 하다가 안 맞겠다 싶어서 퇴사하고 이쪽으로 진로를 아예 틀었어요.

면접자: 고등학교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곳을 다니다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 두신 거예요?

C23: 네.

면접자: 어릴 때부터 독학으로 하셨으면 지금도 학원 안 다니고 혼자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C23: 인터넷에 유튜브나 이런 데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개인적으로 장비랑 다 사서 스스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림을 그리는 작가 분들이 많으셔서 그 분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거나 지인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면서 독학으로 하는 케이스예요.

⑤ 대학진학 준비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다문화청소년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점으로 ‘내게 맞는 대학 전형 찾기’와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 ‘자기소개서 작성’을 꼽았다. 학생들은 대학 입학전형(수시, 정시, 학생부종합전형)이 정해지면 대학과 학과의 하위 전형요소를 파악하여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본인의 생기부 요소들을 점검하고, 부족한 요소들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실시한다.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한 다문화청소년이 진학 조건에 맞는 생기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교단위의 활동지원과 담임교사의 적극적인 입시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 - 대학진학자

면접자: 대학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나요?

C6: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들어가서 생기부 채우는 게 많이 어려웠지 않나 싶습니다.

읍면 - 대학진학자

C9: 수시를 총 6장 작성할 수 있는데 그 6장 고르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거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고등학교 내에서 한정적이어서 제 성적을 가지고 낼 수 있는 상황, 하향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한편, 대학진학 준비과정에서 특별히 힘들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대답한 청소년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도시지역 다문화청소년들로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 다채로운 활동(대회, 교육, 축제, 동아리, 봉사활동 등)들을 지원해주고 있었고, 무엇보다 담임교사가 입시전형과 대학정보들을 학생에게 충실하게 제공하며, 생활기록부 관리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도시 - 대학진학자

면접자: 누가 가장 도움을 주셨을까요?

C3: 선생님이에요. 정보 같은 것들은 원래 고3 되면 담임선생님들은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담임을 하시기 때문에 웬만한 정보는 다 알려 주시고 입시 전문으로 따로 상담해 주시고 수업을 해 주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도움을 잘 받았고 무엇보다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같이 열심히 알아보고 그러니까요.

도시 - 대학진학자

면접자: 선생님이 하나하나 도움 주시는지 몰랐네요. 그럼 다른 학생들은 생기부를 어떻게 채워요?

C6: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학교 자체가 행사를 많이 해서 생기부 관련해서는 잘 채울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면접자: 학교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잘 지원해 주셨나보네요.

C6: 실질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셨고, 교외 활동도 많이 가지고 오셔서 해 주셨어요.

도시 - 대학진학자

C5: 저도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데, 고3 담임 선생님이 대학을 가는 데 도움을 가장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면접자: 어떻게 도와 주셨어요?

C5: 대학 찾아 주시고 학과도 알아봐 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⑥ 다문화청소년의 서비스 이용 경험

다문화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이용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다문화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성 제공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고, 서비스의 이용경험은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반대로 성장을 저해하는 경험이 되기도 하였다.

먼저 도시지역 다문화청소년의 서비스 이용 경험을 보면, ‘선행학습과 체험학습 지원형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체험 프로그램(적성검사, 대학진학 컨설팅, 직업체험, 전문가 초청강연, 자격증 취득과정)’, ‘방과후 학습지도’, ‘심리상담’ 이용 경험이 대체로 많았고, 그 밖에도 ‘전학형 체험학습(놀이동산, 역사관체험)’, ‘예술문

화활동 체험학습(이중언어교실, 악기배우기, 미술체험, 도예체험, 제과제빵체험), ‘문화체험 학습캠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등의 이용경험이 있었다.

반면 읍면지역의 다문화청소년들은 ‘다문화청소년 지원 장학금’, ‘다문화청소년 합창단 공연 지원’, ‘다문화가족축제’, ‘다문화가족 운동회’, ‘다문화체험캠프’, ‘다문화가정 생활음식 만들기 교실’, ‘다문화 이해 해외연수’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을 중점 선별하여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방식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경험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편으로 나타났고, 한편 콘텐츠 유형에 있어서 도시지역이 읍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었다.

서비스 이용 경험

구분	지역	멘토링	진로체험	방과후	심리상담	체험학습	캠프, 연수
C1	도시	초등 참여				체험활동 (여행)	
C2	도시	초등 참여					
C3	도시	초등 참여		방과후 학습		체험활동 (여행)	
C5	도시					체험활동 (여행)	
C6	도시	초등 참여	초청강연	방과후 학습			
C8	도시	초등 참여	초청강연 진로수업			체험활동 (제과제빵)	
C9	읍면		진로컨설팅 적성검사			체험활동 (여행)	
C10	읍면					체험활동 (여행)	
C11	읍면	초등 참여	진로설명회				다문화축제 다문화캠프 다문화합창단 해외연수
C12	읍면		직업체험			체험활동 (여행)	
C13	도시		직업체험 자격증취득				

구분	지역	멘토링	진로체험	방과후	심리상담	체험학습	캠프, 연수
C14	도시	초등 참여					다문화캠프
C15	도시	초등 참여				체험활동 (여행)	
C16	읍면	중등 참여	진로상담 초청강연				
C17	도시						
C18	읍면		직업체험				
C19	읍면		진로수업				
C20	읍면	초등 참여	진로교육 직업체험			체험학습 (여행)	
C21	도시	초중등 참여				체험활동 (역사체험, 미술, 도예)	
C22	도시	초등 참여				체험활동 (제과제빵)	
C23	읍면	초등 참여					다문화합창단, 오케스트라 악기 공연, 다문화운동회, 음식 축제
C24	도시	초등 참여		방과후 학습			다문화캠프
C25	도시	초등 참여		방과후 학습	심리상담		
C26	도시	초중등 참여		방과후 학습	심리상담		다문화캠프
C27	읍면		진로체험		심리상담	체험활동 (여행)	
C28	도시	초등 참여	진로교육 진로체험				다문화캠프
C29	도시	초등 참여				체험활동 (여행)	
C30	도시					체험활동 (여행)	
C31	읍면	초중등 참여			심리상담	체험활동 (승마)	
C32	읍면	초등 참여				체험활동	
C33	읍면	초등 참여			심리상담	체험활동 (제과제빵)	캠프

⑦ 다문화청소년의 멘토링 프로그램 이용 경험

멘토링 프로그램의 이용경험과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멘토링 프로그램 이용에 만족한 다문화청소년의 사례를 보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학습지도와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제공해 주어 도움이 되었다.”, “공부 외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줘서 너무 좋았다.” 등 학습지도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정서 지원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며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부보다는 언니, 오빠랑 놀러 다니는 것이 더 좋았다.”는 다문화청소년의 다수의 대답을 통해 멘토인 대학생과의 교류 자체가 심리·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다문화청소년에게 사회적·정서적 지지로서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 관계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선택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는데, 한 다문화청소년이 중학교 때 멘토링을 해 주던 언니가 멋있어서 고등학교 진로 진학에 롤 모델이 된 사례도 있었다.

도시 - 대학진학자

C6: 중학생 때 대학생 멘토링을 했던 것 같아요.
 면접자: 어땠어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C6: **네. 대학생 멘토링으로 선행학습을 해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면접자: 선행학습?
 C6: 네. 멘토링으로 선행학습 했어요.
 면접자: 그거 했을 때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C6: **네. 좋았던 거 같아요. 그때 공부만 한다고 하면 어린 나이에 힘들지 않았나 싶은데 영화 같은 것도 보고 아이들 눈높이 맞춰서 잘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도시 - NEET

C24: 저도 초등학교 때 멘토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면접자: 멘토링이 어땠어요?
 C24: **네. 저도 재밌었고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거를 많이 알려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았습니다.**
 면접자: 기간은 얼마나 길게 받았어요?
 C24: **기간은 너무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3학년 때부터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6학년 때까지 받았습니.**

도시 - 취업자

C14: 저는 초등학교 때 멘토링이랑 캠핑 간 기억이 있어요.

면접자: 그때 받은 것들이 어땠어요? 도움이 되던가요?

C14: 목적은 공부였는데 언니들이랑 놀러 다니고 하는 게 많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도시 - 대학진학자

C8: 중학교 때 멘토링 해 줬던 언니가 식품영양학과였는데 맛있어서 갔다가 고등학교 갔다가 식품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접었어요.

면접자: 그러면 대학교(일본어학과)를 별도로 준비했어요?

C8: 네, 그런데 저처럼 중간에 방향을 튼 학생들이 많아서 담임 선생님과 익숙하게 봐 주시고 도와 주셨던 거 같아요.

면접자: 그랬구나. 멘토링 하는 언니가 너무 멋져서, 멘토링이 영향을 주긴 주네요.

C8: 저에게는 크게 왔었죠.

한편, 멘토의 지도역량 부족과 체계적이지 못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은 다문화청소년에게 불만족스러운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되기도 한다. 한 다문화청소년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수학 수업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업 내내 자신에게 화만 내어 불쾌감을 느꼈고, 학습의욕과 자신감 상실을 경험하였다는 사례가 있었다. 이들 사례처럼 대학생 멘토의 역량과 자질은 다문화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역할 모델이 되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멘토의 지도역량의 부족은 다문화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면접자: 대학생 멘토링 같은 거는 받아 본 적 없어요?
 C29: **초등학교 때** 받아 본 것 같아요.
 면접자: 와서 대학생이 뭐 했어요? 공부 가르쳐 줬어요, 같이 놀기 했어요?
 C29: **수학 쪽으로 공부했어요.**
 면접자: 도움이 되었어요?
 C29: **조금요...**
 면접자: 왜 많이는 안 됐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을까요?
 C29: **자꾸 화만 내세요. 못 알아듣는다고 책상 때리고 그래서요.**
 면접자: 도움이 안 됐겠네요. 기분만 나쁘지 않았어요?
 C29: **기분 나빴어요.**

⑧ 진로프로그램의 이용 경험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진로프로그램 참여여부와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지역별로 다문화가정 인구분포 등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두 지역 모두 진로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이용경험이 적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그나마 콘텐츠 다양성 측면에서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활성화된 편이었고, 프로그램은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진로교육의 이용 만족도는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진로상담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기회의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실제적인 진로상담이 이루지지 않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한 사례로 대학진학 컨설팅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 중 한 명은 “우수한 학생 몇 명에게만 진학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여 학교에서 발탁된 후 컨설팅을 받았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아 결국 그만 두고 혼자 준비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또 다른 사례에서 진로프로그램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고 있는 뻔한 얘기만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진로에 대한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동기 유발이 가능한 학습과 상담 제공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음면 - 대학진학자

- C9: 학교에서 몇 명만 **대학진학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데 컨설팅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면접자: 그 컨설팅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C9: 공부를 잘 하거나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 같은 학생을 학교에서 추천을 해 줘서...
(그런데)그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요.
면접자: ○○학생도 컨설팅을 받았어요?
C9: 받았는데 저는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못 해서요. 중간에 그만 두고 혼자 하겠다고 했어요.

음면 - 취업자

- 면접자: 혹시 고등학교 때 진로 프로그램 같은 거 안 했어요?
C18: 음.. 그냥 학교 전체적으로는 했었던 거 같은데 따로 불러서는 안 했어요.
면접자: 학교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진로 선생님이 계셔서 전문적으로 수업으로 한 거예요?
C18: 수업은 아니고 가끔씩 저희가 다 기숙사라서 학교 끝나고 모여서 한다거나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면접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된 거 같아요?
C18: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거 같아요.**
면접자: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일까요?
C18: 그냥 다 아는 내용인데, 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사는 게요.
면접자: 그렇죠.
C18: **그냥 다 뻔한 얘기 하는 거 같아서요.**

한편, 다양한 직종의 직업체험과 분야별 전문가 초청강연 등은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고 다양한 간접 경험을 제공하여 원하는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교육에 있어서 진학과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콘텐츠의 개발과 폭넓은 진로 탐색이 가능한 참여 기회의 제공이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도시 - 대학진학자

C6: 진로 프로그램은 없고 학교에서, 저희 학교가 중학교 때 시범학교여서 진로 프로그램 하면서 여러 직업인들 많이 오셔서 초청강의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면접자: 그건 도움 많이 됐어요?

C6: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때는 놀자는 목적으로 참석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아예 전문인으로 보건의, 경제인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했는데 그거는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어떤 일 하는지 알려 주시고 이쪽 진로로 가면 어디 취업할 수 있다, 뭐가 필요하다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그거는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읍면 - 대학진학자

C9: 중학교 때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던 거랑 수학여행으로 **잡월드** 이런 데 가서 간단한 직업체험, 고등학교 때도 분야를 나눠서 그 학과에 재학 중이신 분이 오셔서 우리 학과는 이런 데다 설명해 주시고요. 진로 시간 때 적성검사 이런 거 해 보고 그런 게 전부였던 거 같아요.

면접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C9: 항상 제 꿈이 바뀌어서 저는 하나를 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저기 파서, 저는 다양한 체험 해 볼 수 있어서 괜찮았어요.

읍면 - 취업자

면접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업 체험 이런 거 나간 적 있어요?

C18: 현장 체험도 갔었고 어디 회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공사 쪽으로 유명한 기업도 가서 방둑면 쓰고 현장도 돌아보고 자동차 만드는 공장도 가서 돌아보고 여수 엑스포 가서 고3 때 취업 박람회 같은 데 가고 그랬었던 거 같아요.

면접자: 그랬을 때 그건 도움이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C18: 그냥 도움이 되긴 됐는데, 거기를 직접 가서 진짜 뽀힌 학생은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⑨ 방과 후 프로그램의 이용 경험

대부분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학교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이용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지원 혜택은 돌봄과 학습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청소년에게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체험학습이나 보충학습 등을 구매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다문화청소년의 한 사례를 보면,

“어머니가 외국인이다 보니 취직이 어려워 아버지 홀로 일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배우고 싶은 것은 많지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말하기 힘들었는데, 학교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방과후 수업을 전액 지원해 주어 배우고 싶은 것을 눈치 보지 않고 맘껏 배울 수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도시 - 대학진학자

- C3: 초등학교 때는 방과후 지원 받아서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면접자: 방과후 지원 받았다는 것은 뭐죠?
 C3: 다문화 학생 애들에게만 따로 만들어진 가정통신문 한 장을 더 줘서 금액이 수정되어 있는 가정통신문을 따로 줘서 이 중 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내면 공짜로 해 주겠다. 아니면 일부 금액만 받고 하게 해 주겠다 그런 거요. 학교에서 다문화 쪽으로 지원 많이 해주셨던 거 같아요.
 면접자: 그 때 기분이 어땠어요?
 C3: 그때는 가게 눈치 안 봐도 되고 배우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하고 가고 싶었던 거 있으면 하고 해서 괜찮았어요. (다문화가정 눈치 보는)그때는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우리엄마는 일본사람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고 학교 쪽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랬던 거 같아요.

⑩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

Wee클래스 상담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는 지원되지 못하고 있었다. 다문화청소년은 비(非)다문화청소년과 달리 이중문화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례로,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 아버지의 잦은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 다문화청소년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남의 일 이야기 하듯 진심으로 상담을 해준다는 인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이후 “전문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전문상담사에게 가족 상담을 받았고, 전문상담사 또한 외국어를 하지 못해 한국어로 밖에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상황은

마찬가지이기는 하였으나, 전문상담사의 경우 진심으로 마음 다해 전문적인 상담을 해준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가족치료’와 같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상황의 경우 단순한 상담만으로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문화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에 의한 다문화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음면 - NEET

C27: 웬만한 가정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좋았을지 몰라도 부부사이가 안 좋은 가정들이 많아요.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상담해 주시는 분들 보면 외국어가 안돼서, 아이들은 괜찮은데 외국에서 오신 부모님들은 통역이 안 되니까 상담을 해 주나 마나잖아요. 그 상담도 진심으로 해 주시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저희는 일부러 심리상담 1시간에 5만원씩 하는 데 있잖아요?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받기도 했는데, 거기 언어가 한국어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상담 받는 게 더 도움이 됐어요.

면접자: 다문화가족센터 이런 데요? 거기서도 상담 받아 봤어요?

C27: 네. 여주요. 거기도 그렇고... 얘기를 하면 그냥 자기 일 아니니까 남 일 얘기하듯이 힘내라... 아무 문제없다... 뭐만 하면 심리검사...

면접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됐다는 거예요?

C27: 네. 다른 기관으로 상담을 받아봐라 하면서 넘겨 버리고 그런 것만 많았어요. 상담은 몇 번 안 받았고 계속 문자만 오는 거예요. 이런 행사 참여해라.

⑪ 다문화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다문화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중 멘토링프로그램 이용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초등학교 때 중점적으로 지원을 받다가, 중·고등학교 이후 미미하게 체험 학습하는 정도만 지원받은 기억이 있다.”는 답변이 대체적이었다. 실제로 사례별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초등학교 때의 이용경험이 대부분으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프로그램 제공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참여 기회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문화청소년의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이와 반대로 지원은 점점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문화체험활동 지원에 있어서도 다문화청소년에게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상급학년

의 다문화청소년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지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한정되다보니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다.

도시 - NEET

면접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때 참여한 적이 있나요?

C25: 네(초등학교 때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

면접자: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C25: 없었어요.

읍면 - 대학진학자

면접자: 대학생 멘토링은 따로 안 받았어요?

C11: 초등학생 때 한 거 같아요.

읍면 - 대학진학자

C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지원센터 이런 쪽에서 아이들에게는 활동을 많이 시켜 주더라고요. 나이대 있고 중고등학교 넘어가서부터는 지원이나 활동 같은 게 거의 끊겼던 거 같아요.

⑫ 다문화청소년 서비스 지원 니즈

다문화청소년에게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읍면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의 다문화청소년에게서 서비스 지원 요구도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지원 내역은 진로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먼저 대학진학자 그룹의 경우, 진학 준비를 위한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학원비와 학습지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 진도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 밖에도 다문화 특화형 진로컨설팅의 지원과 다문화 이중언어의 지원, 부모국 해외연수 지원, 중도입

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여가문화생활의 지원 확대, 이러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 확대의 노력 등을 언급하였다.

도시 - 대학진학자

C3: 사실 공부할 때는 조금 학원비라도 좀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요. 학원이나 과외 하다보면 3~4달만 다녀도 1~2백만 원이 넘어가니까 힘들게 벌고 있는 것도 옆에서 뵈히 보이는데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기가 눈치도 좀 보이고요. 만약에 대학을 간다고 해도 국립이 아닌 이상 등록금이 3~4백으로 많이 나오는데 장학금을 제대로 받지 않는 이상 많이 내야 하니까 부담이 있더라고요.

읍면 - 대학진학자

C9: 저는 만약에 지원을 받는다면 **학습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돈만 지원해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봐 줬으면(모니터링)** 좋겠어요.

도시 - 대학진학자

C2: 제 생각은 **다문화 학생이면 다른 학생들과 다른 이점을 좀 더 컨설팅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다문화 학생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외국인이니까 언어에 대해서 유리한 말이에요.** 혹시 그쪽으로, 예를 들어 제가 베트남 학생이니까 베트남어학과 통역사 이런 쪽으로 그 길로 갈 수 있게 마련해 줄 수 있는 **특화 정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읍면- 대학진학자

C11: 프로그램 같은 의견을 하나 내자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제작 해서 **부모님과 함께 엄마의 나라로, 아빠의 나라로 같이 아이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온 애들은 한국이 확실히 낯설어요. 거리를 걸을 때마다 자기 나라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나라라는 거를 보여 줄 수 있는 현장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문화 학생들을 따로 담임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함께 한국 체험을 하면서 경복궁을 돈다거나 한국 맛집 투어를 한다거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도시 - 대학진학자

C6: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언어나 그쪽에 대해서, 너네 어머니는 그쪽이시니까 그쪽 언어도 할 수 있지 않냐고 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저는 이런 활동 중심도 좋지만 공부나 이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엄마나 아빠도 잘 못 가르쳐 주니까 집에서 공부를 못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물어보는 것도 언니에게나 좀 물어보고 공부 따라가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좀 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 - 대학진학자

C8: **여가나 문화 쪽이라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뮤지컬 같은 거를 지원을 해 줬으면,** 가거나 하면 좋았을 거 같아요. 제가 뮤지컬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더 어렸을 때부터 자주 봤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 그런 거라서요.

도시 - 대학진학자

C3: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몰라서요. **다문화 가정에 우편이라도 바뀐 혜택이 있는지 그런 거를 한 번에 요약해서 보내 줬으면, 딱히 알아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좀 더 혜택다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도 열심히 찾아보시다가 겨우 받는 게 있거든요. 요약해서 보내 주면 간편하게 필요한 거 받고 잘 쓰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NEET 그룹의 경우에는 진로탐색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진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학습의 지원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이었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고려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도시 - NEET

C30: 뭔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뭔가 과외도 좋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꼭 진로가 아니라도 어떤 거를 배우는 거요.**

여태까지 그런 거는 별로 없었고 놀러가는 거나 체험하는 게 있었는데 나쁘지는
면접자: 않았지만 뭔가 배우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C30: 네.

읍면 - NEET

면접자: 상담 선생님에게 너 자신이 부끄러울 일이 없으니까 니 인생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C31: 라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때문에 **애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면접자: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말을 해 주는 게 좋다(다문화 심리상담)고**

C31: 생각합니다.

읍면 - NEET

C32: 그냥 **문화생활** 같은 걸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읍면 - NEET

C32: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학원비나** 이런 거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읍면 - NEET

C27: 심리상담을 처음에는 제가 갔고 그 다음은 괜찮다고 엄마를 모셔 갔죠. 그 다음 아버지를 어렵게 모셔 갔는데, 하여튼 저희 집처럼 어찌면 저희 집보다 심한 가정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특히 아버들이 문제이긴 한데 엄마들도 힘든 점이 있을 거예요. **상담을 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금전적인 거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데 사람의 심리 같은 거는, 심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외국어 상담, 통역 이런 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빠 쪽에는 한국어로 얘기를 해 주고 엄마 쪽은 엄마 나라 언어로 상담을 해 주고요.

취업자 그룹의 경우에는 진로탐색 및 진로역량 개발과 관련된 지원을 강화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다문화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 활동과 폭넓은 직업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었다. 이 밖에도 영화 등과 같이 다문화청소년 여가문화생활의 폭 넓은 지원과 외국인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도시 - 취업자

C15: 음.. 저는 이제 놀이공원 따로 가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개인마다 달라서, 그런 다양한 체험들을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읍면 - 취업자

C16: 저도 그냥 놀러 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면접자: 다양한 체험, 경험 할 수 있게 그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C0: 네.

도시 - 취업자

C17: 저도 감정적인 심리적인 부분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해요. 어쨌든 청소년기에는 감정의 동요가 가장 많은 시기인데 한국에서는 한국-한국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잖아요? 다문화 가정은 남들과 다르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느꼈어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 그게 저를 많이 힘들게 해서, 심리적인 것을 채워 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해요.

읍면 - 취업자

C18: 그냥 한국어 어눌하거나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읍면 - 취업자

C19: 저는 그냥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와 관련된 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읍면 - 취업자

C23: 지금 생각하니까 살짝 아쉬운 게 그때 외국인 친구를 조금 만나서 같이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든가 자녀가 한국인인 경우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친구를 만나보고 교류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도시 - 취업자

C22: 저희는 공부 프로그램은 많았는데 사실 영화 보거나 여가생활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게 적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공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지만 사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거는 여가나 영화 보는 거라 그런 쪽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 같은데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면접자: 문화관람 쪽 체험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C22: 네. 맞아요.

2) 2기 패널 학부모

① ‘국내출생’ 자녀 양육의 어려운 점

다문화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고민되는 점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국내출생자녀를 둔 다문화부모의 경우, 부모 자신의 한국어실력 부족으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의사소통 곤란과 자녀의 기초교과목 학습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외국인 부모가 한국어를 잘 모르다 보니, 국내출생 자녀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단어의 뜻을 몰라서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자녀를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담임교사와의 상담에서도 자녀의 학업과 학교생활에 대해 이것저것에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지만, 언어적 제약으로 인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편, 부모의 언어 수준과 별개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감수성 예민한 다문화 자녀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부모의 양육 역량과 관련하여서도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도시 - 국내출생

P1: **학교 상담할 때 조금 어려운데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면접자: 어떤 점이 어려웠어요?
 P1: **궁금한 게 있으면 한국말 아직 모르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요.**
 면접자: 그러셨구나. 어떤 내용 상담하셨어요?
 P1: 친구 사이 그런 거예요. 과목 어떤 거 어렵냐 그런 거요.

도시 - 국내출생

P2: **공부 때문에 이것저것 공부에 대해서 물어 보면 제가 몰라요. 어떤 단어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집에서 공부하는 거 제가 조금만 이해해요.
 면접자: 아바는 공부 안 가르쳐 주세요? 엄마가 다 해요?
 P2: 아바는 새벽에 나가고 거의 잠잠할 때 들어와요. 아바에게 물어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고 있었어요.

도시 - 국내출생

P6: **엄마가 애들 어떻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을까, 제가 책은 봐요. 그런데 화만 내고 잘 안 돼요. 그래서 걱정돼요.**

읍면 - 국내출생

○○이 키우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면접자: 제가 한국 오래 살았지2021년 12월 20일2021년 122021년 12월 20일2021년
P11: 12월 20일2021년 12월 20일2021년 12월 20일2021년 12월 20일월 20일만
한국말 아직 많이 못해요. 좀 어려워요. 아이 교육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말 못해요.
다행히 ○○이 그런 거 스스로, 착해요.

읍면 - 국내출생

P13: 둘째는 어려운 점이 없는데 누나는 키우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면접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P13: **사춘기라 말을 안 들어요.**

면접자: 그렇구나.

P13: **가끔씩 너무 속상해요.**

② ‘국외출생’ 자녀 양육의 어려운 점

부모와 자녀 모두 중도입국 외국인으로 구성된 국외출생자녀와 부모의 경우에는 외국출생 및 성장배경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 모두 한국어실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다 보니, 언어적 곤란과 기초학력부진, 문화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는데, 한 사례로, 한국어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다문화청소년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또래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하기도 하며, 학교와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와 반대되는 사례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중도 입국한 다문화청소년이 전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초등학교에서 입학할 허가해 주었고, 다문화청소년 전담 한국어교사를 고용하여 방과후 수업으로 매일 2시간씩 한국어교육을 지원해 주는 등 초등학교 준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어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다.

한편, 언어학습이 부진한 국외출생자녀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로 학교공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가 국내출생자녀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읍면 - 국외출생

P23: 저희는 2017년에 한국에 들어 왔어요. 아이가 세 명이 있는데, 첫째 아이는 4학년 때 들어왔고요. 둘째 아이는 1학년, 막내는 3살 때쯤 들어온 거 같아요. 한국말도 전혀 모르고 한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위에 두 아이는 딸이고 막내는 남자아이예요. **첫째, 둘째 딸은 한국 들어와서 말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둘째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머리도 아프고 친구들에게 한국말 모르니까 따돌림 당하는 것도 있어서 열심히 했고요.** 큰애가 4학년 때 들어와서 이미 익숙한 상황에서 들어와서 한국말을 익히는 게 너무 힘들어 했고요. 지금 중학생인데 아직 **한국어에 대한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늦은 나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어 해요. 친구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다른 학교로 가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고요. 친구를 사귀는 거에 있어서 **문화차이도 많고 해서 힘들어 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본인이 문제인지 아니면 학교 친구의 문제인지 문화차이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도시 - 국외출생

면접자: ○○이는 학교생활 어때요?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라든가 친구라든지?
 P20: **저학년 때는 많이 어려웠는데 고학력 올라가니까 나아졌거든요.** 저학년 때는 한국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전래동화나 역사에 대해서 아는데 세준이는 학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전래동화를 1모른다고, 바쁘다 보니까 그걸 생각 못 하고 전래동화 이런 거를 보여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다른 아이들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동화구연 이런 거를 할 때 국어 시간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글은 아는데 이해를 못 한다고, 제가 늦게 동화책을 사 줬어요. 그때 시작해서 지금은 고학년이 되니까 괜찮아요.
 P20: **예의가 중국이랑 좀 달라서 지적을 많이 받아서 힘들어한 면이 있어요.**

읍면 - 국외출생

면접자: (입국)들어오자마자 2학년으로 들어간 건가요?
 P21: 네. 바로 들어갔어요.
 면접자: 아~ 그러면 ○○이는 한국말을 몽골에서 배웠어요?
 P21: 아니요. 안 배웠어요.
 면접자: 한국어를 잘 못 하는데 바로?
 P21: 네. 애들 세 명이 왔는데 한국말을 못 해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반을까 말까 회의를 했대요. 교장선생님이 반자고 해서 힘을 합쳐서 도와주자 했대요.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다문화센터인가 구청인가에서 선생님을 구해서 매일 두 시간씩 한국말을 가르쳐 줬어요.
 면접자: 방과후에 한 거죠?
 P21: 네. 방과후에 2~4시까지 가르쳐 줬어요. 2개월 정도 되니까 한국말도 잘 하게 되고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P29: ○○이가 공부를 너무 싫어해서 걱정이 많이 돼요. 계속 학원을 보내고 있기는 한데... 선생님이 계속 연락 주셔서 ○○이가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공부 더 많이 시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학원도 보내고 집에서 조금씩 공부를 해도 애기가 힘들어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③ 다문화자녀의 서비스 이용 경험

다문화자녀의 프로그램 이용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도시지역에 경우 멘토링 프로그램은 비롯하여 방문학습지, 한국어 및 자녀생활방문지도,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경험이 대체로 많았고, 그 밖에도 박물관 및 체험학습, 캠프, 다문화가족체험, 체험키트 등의 이용 경험이 있었다.

반면, 읍면지역의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프로그램 콘텐츠 다양성 측면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편이었지만, 방과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프로그램들이 내실 있게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종류로는 골프, 플루트, 악기, 컴퓨터수업, 태권도, 피아노, 한국어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었다.

다문화자녀 서비스 이용 경험

구분	지역	멘토링	방문학습	방과후	체험학습	캠프	기타
P1	도시	초등 참여	방문학습				
P2	도시		방문학습 학습지		체험학습 (박물관)		
P3	도시		방문수업	방과후 학습	체험활동 (제과제빵)	다문화캠프	
P4	도시	초등 참여			체험활동 (제과제빵)		
P5	도시	초등 참여	방문수업 (한국어)		다문화 가족체험활동		
P6	도시	초등 참여	방문수업 (농구, 합기도)		체험활동 (소방)		
P7	도시	초등 참여					
P8	도시	초등 참여				다문화캠프	

구분	지역	멘토링	방문학습	방과후	체험학습	캠프	기타
P9	도시	초등 참여	방문수업 생활지도				
P10	읍면			방과후 활동 (골프, 플루트, 영어, 밴드)			
P11	읍면				체험활동		
P12	읍면			방과후 활동 (악기, 컴퓨터)	체험활동		
P13	도시	초등 참여	방문수업	방과후 학습	체험활동	다문화캠프	
P14	도시			방과후 학습			
P15	도시	초등 참여					
P16	읍면	초등 참여		방과후학습 (한국어, 러시아어, 육상)			
P17	읍면	초등 참여		방과후 활동 (태권도)			
P18	도시			방과후 활동 (요리)			
P19	읍면			방과후 활동 (레슬링)			
P20	도시	초등 참여			체험활동 (독서, 미술)		
P21	읍면			방과후 학습 (한국어)			
P22	읍면			방과후 학습 (독서)			이중언어 대회
P23	읍면				체험활동 (악기, 코딩)	다문화캠프	
P24	도시			방과후 활동 (피아노)			
P28	도시				체험학습 (박물관)		
C31	읍면						다문화센터 (태권도)
C32	도시	초등 참여					
C33	도시		방문수업 (한국어)	방과후 활동 (배드민턴)			체험키트

④ 다문화자녀의 멘토링 프로그램 이용 경험

자녀의 멘토링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부모가 대신하기 어려운 학습지도와 다양한 활동경험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국어’, ‘수학’ 등과 같이 ‘기초학력지도’ 및 ‘학습지원’의 측면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읍면 - 국내출생

면접자: 멘토링 하는 게 두 친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 거 같으세요?

P16: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면접자: 주로 뭐 해요? 공부해요?

P16: 수학, 국어도 가르쳐 주고 다 가르쳐 줬어요.

도시 - 국내출생

P8: 멘토링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 가르쳐 줬어요.

면접자: 대학생이 오는 거죠?

P8: 네. 잘 가르쳐 줬어요.

면접자: 멘토링 좋아하는구나.

P8: 한국어에는 문제가 없는데 국어를 한국 학생만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신청했는데 다행히 선생님이 오셔서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면접자: 말하는 거랑 교과로 하는 거는 다르니까요.

P8: 네. 단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신청했어요.

도시 - 국내출생

면접자: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별로 없을 텐데 대학생 멘토링이나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는 받아 본 적 있을까요?

P15: 대학생 멘토링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대학생 형이 가르쳐 주고 책도 읽어 주고 그러는데 참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그때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읍면 - 국내출생

면접자: 저희는 공부 말고 재밌는 프로그램, 활동 같은 거 해서 공부는 안 할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활동들 주로 했어요?

P17: 만들기랑 ○○프로그램 같은 거 했어요.

면접자: 그러면 ○○이는 마음에 들어 하는 거 같은데, 어머님이 보셨을 때도 대학생 멘토링이 좋았던 거 같으세요?

P17: 집에 갈 때마다 엄마 나 이거 했어요, 멘토링 했어요 얘기를 해 줘요. 재밌어 해요. 학교 활동이 많이 없지만 다른 데서 재밌어 했어요.

⑤ 방문교육 서비스 이용 경험

방문교육서비스는 중도 입국한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적응을 돕기 위해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한국어방문교육’과 자녀의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원을 위한 ‘자녀생활 교육’, 부모 역할 및 자녀 양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교육’이 있다. 이들 교육은 기존의 집합교육과 비교하여 다문화자녀의 요구에 맞춘 1대1 맞춤형 방문교육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다문화자녀에게 밀도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도시 - 국외출생

면접자: **한국어는 따로 안 배워요?**

P33: 안 배워요. 옛날에 다문화 센터에서 교육 받아요. 지금은 ○○이가 잘 하고 있어서...

면접자: **방문지도 선생님이 오셔서 해 주신 거예요?**

P33: 네.

면접자: **도움이 됐나요?**

P33: **네. 많아요.**

도시 - 국내출생

면접자: 어머니는 지역아동센터랑 방과후 아카데미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P9: **저는 방과후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과목 하잖아요. 센터는 과목 많이 없어요.**

면접자: 지역 아동 센터는 공부가 별로 없고 방과후 아카데미는 공부도 많고 여러 활동을 하는 거 같아서 더 나은 거 같아요?

P9: **네. 그렇게 생각해요.**

면접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뭐 해요?

P9: 그냥 하루는 수학, 하루는 영어, 하루는 국어 그래요.

면접자: 하루에 한 과목 정도 하고요?

P9: 네.

면접자: 방과후 아카데미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P9: **주말도 하고요.**

⑥ 다문화자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경험

다문화자녀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경험 관련하여, 플루트와 피아노를 비롯해 서 골프, 컴퓨터, 영어교육, 한국어교육 등 인지·사회·정서·발달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다문화부모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 중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더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 “방과후 아카데미라 대답하며, 그 이유를 학습적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적인 부분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더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이라 하였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다문화청소년들의 연령과 능력, 발달적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풍성한 콘텐츠들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참여가 제한적인 다문화청소년에게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음면 - 국내출생

- 면접자: 어머니는 지역아동센터랑 방과후 아카데미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저는
P9: **방과후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과목 하잖아요. 센터는 과목 많이 없어요.**
면접자: 지역 아동 센터는 공부가 별로 없고 방과후 아카데미는 공부도 많고 여러 활동을 하는 거 같아서 더 나은 거 같아요?
P9: **네. 그렇게 생각해요.**
면접자: 지역 아동 센터에서는 뭐 해요?
P9: 그냥 하루는 수학, 하루는 영어, 하루는 국어 그래요.
면접자: 하루에 한 과목 정도 하고요?
P9: 네.
면접자: 방과후 아카데미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P9: **주말도 하고요.**

음면 - 국내출생

- 면접자: 학교에서 방과 후 뭐 해요? 무슨 프로그램 해요?
P10: 월요일에는 **골프요.**
면접자: 와~ 수준 높다.
P10: 화요일은 **플루트랑 댄스? 컴퓨터! 월요일에 영어도 있어요.** 방과후가 랜덤이에요.

읍면 - 국외출생

P22: 저희 학교에서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있어서 그것을 배우고 있어요.**
면접자: 학교에서 피아노를 가르쳐 줘요?
P22: 네. 방과후로요.

읍면 - 국외출생

P23: 한국어교육을 좀 했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교육을 하셔서 한국어를 가르침을 받았어요.
면접자: 학교에서도 배웠고 센터에서도 이용하셨고..
P23: 네. 센터는 제가 애들 픽업해 주는 식으로 했었고 학교에서는 **방과후 돌봄으로 한국어를 배웠어요.**
면접자: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P23: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애들이 어느 정도 알고 난 후에는 다니기 싫다는 말이 나와서요.**

⑦ 다문화자녀에 대한 다문화부모의 정책 지원 니즈

부모에게 다문화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도시와 읍면지역 모두 ‘사교육비(학원비) 지원’과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 요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먼저 국내출생 부모의 다문화자녀에 대한 지원 니즈를 살펴보면, 학원비, 학습지, 학교교과수업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이 ‘학습에 대한 지원’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 밖에도 자녀 양육역량 강화와 관련된 부모교육 지원, 통합적인 다문화교육 지원, 상급학년까지 참여기회를 확대한 체험학습의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국외출생 부모의 다문화자녀에 대한 지원 요구도를 살펴보면, 학원비 및 과외 지원, 학습지원을 비롯하여 부모교육, 한국문화이해 교육,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 체험활동, 부모국 해외연수 지원 등을 언급하였다.

도시 - 국내출생

P2: **학습지** 선생님, 나라(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너무 좋았어요. 다문화가족 위해서 수업 같은 거,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저는 도움을 많이 못 해 줘요. 선생님이 와서 그런 교육이 있으면 좋겠어요.

도시 - 국내출생

P3: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학을 어려워하더라고요. 학습지 지원 받으면 좋겠어요.**

읍면 - 국내출생

P13: 저는 애기 **학원비 같은 거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면접자: 아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

P13: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시 - 국내출신

P13: 저는 애기 **학원비 같은 거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면접자: 아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요?

P13: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시 - 국내출생

P4: 저도 마찬가지로. **멘토링 선생님 있으면 좋겠어요.**

면접자: 학습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P4: 네.

도시 - 국내출생

면접자: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P14: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가실 의향도 있으세요?

P14: **네. 많이 다녔어요. 다문화가족 엄마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말고 애들 성교육 하는 강사들 온다고 하면 갔고, 딱히 다문화 쪽에서는 그런 교육이 없었던 거 같은데 있으면 가고 싶습니다.**

도시 - 국내출생

P2: 저는 그냥 **다문화가족만 그렇게 안 하고 한국 애들이랑 섞어서 교육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문화가족만 아니고 한국 사람도요.

P2: 지금 원하는 거는 **다문화 애들 말고 그냥 한국 애들이랑 같이 해서 어울리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P3: 저도 엄마들하고 잘 어울리고 애도 잘 어울리니까 굳이 (다문화 아이들만 뽑아서)그렇게 하나 싶고요. 잘 모르겠어요.

음면 - 국내출생

P17: 중학교, 고등학교도 활동이 있으면 좋겠어요. 게임 같은 거 많이 해요. 제 생각에 **초등학생만 아니고 중고등학생도 좀 어떻게 해 주면 좋겠어요.**

면접자: 중학생, 고등학생도 좀?

P17: 중고등학생들이 해야 하는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도 아동처럼 활동이 있으면 좋겠어요.**

면접자: 중고등학교 가서도 공부라든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P17: 네.

음면 - 국외출생

P21: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사춘기 심할 때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 도움이 필요해요.** 한국 선생님 아니고 몽골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그랬다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나라가 컸을 때도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지원 같은 거는 학원비...**

음면 - 국외출생

P22: 6학년 애들에게는 **과외**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학원 이런 것도 없어서 중학교 가면 시내 애들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도시 - 국외출생

면접자: 학부모들 대상으로 교육 말씀 드렸는데 다른 어머님들은 그런 기회가 된다면 자녀들 관련해서 혹은 다른 **부모교육** 참여 의향이 있으세요?

P20: 네. 저는 있어요.

면접자: 대략적인 내용은 어떤 걸로요?

P20: **아이 정서나 교육적인 면에서,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부모교육** 이요. 이런 식에는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받아 보면 이들은 굉장히 좋아요. 잘 따라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도루묵이 되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받으면 저에게 굉장히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면 - 국외출생

면접자: 중학교 가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게 있을까요?

P24: **아무래도 한국말이요.**

면접자: 아 **한국말 배우는 게 필요하고**, 지금 센터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P24: 네.

면접자: 센터나 학교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P24: 네. 지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읍면 - 국외출생

P28: 저는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심리상담 같은 거.. 저희 애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국생활에 잘 적응했는데, 학교 친구들이 놀리는 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심리상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읍면 - 국외출생

P22: 학원도 보내 줘야 하는데 도시 가면 월세 보증금도 있어야 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될 거 같아서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만약에 시골에서 공부를 하면 도시 애들이 수준이 높아서, 우리 ○○이 공부 수준이 낮으면 학원을 보내야 하는데 그럴 때 대학생 멘토링이 와서 가르쳐 주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애들은 어디에 맡겨야 하나 고민거리예요. 아까 ○○이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 맡기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애들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험이 되는 센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 - 국외출생

면접자: 자녀를 위해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있으세요?

P31: **엄마 나라로 가는 프로그램** 해 줬으면 감사한데..

면접자: 엄마 나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요?

P31: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비용도 드니까요.

⑧ 다문화지원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읍면지역에서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관련 사례를 보면, 한 다문화부모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집 근처에는 센터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관련 시설을 이용하려면 시내로 한참을 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음 사례로, 국외출생 자녀를 둔 다문화부모가 지역 인근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주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서울까지 한국어를 배우러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국외출생 자녀를 둔 또 다른 다문화부모가 자녀의 기초학력부진이 염려되어 학업보충을 위해 학원이나 과외를 보내고 싶었지만, 읍면지역 인근 지역에 학원이나 과외시설이 없어서 지원해줄 수 없는 상태였고, 그렇다보니 수도권 학생과 본인의 자녀가 학력격차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읍면지역의 취약한 사회기반시설은 다문화청소년의 학습기회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지역에 방문서비스를 강화하여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읍면 - 국외출생

면접자: 근처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나 지역 아동 센터 이런 거는 없어요?
 P19: **저희는 가까운 곳 없었어요. 저도 한국말을 배우고 싶으면 서울까지 갔어요.**
 면접자: 서울까지요? 서울 학원이에요?
 P19: 아니요. 서울 글로벌 센터요.

읍면 - 국외출생

P22: **6학년 애들에게는 과외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학원 이런 것도 없어서 중학교 가면 시내 애들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읍면 - 국내출생

면접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런 데는 다녀요?
 P16: 아니요. 안 다녀요.
 면접자: 집 근처에 없어서 안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P16: **네. 집 근처에 없어요. 갈려면 시내로 가야 돼요.**
 면접자: 다문화 가족 센터도 없어요?
 P16: 네. 동네도 시내도 없어요 .
 면접자: 아, 시내 나가도 없어요?
 P16: 네. 다문화가족센터는 없어요.
 면접자: 아쉽지는 않으세요?
 P16: **아쉽죠. 그런 것들 다니고 싶은데..**

3)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지역별 성장기회격차해소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다문화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수혜경험과 지역별 정책지원의 차이, 그 영향 등에 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II-6 면접조사 도출 결과요약

조사 대상자	구분	핵심내용 및 시사점
다문화 청소년	1. 진로선택의 주요 영향요인	
	교사	• 학생의 희망진로를 파악하여 원하는 대학 정보를 제공해주는 교사의 노력과 진로지도역량이 학생의 진학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함.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도는 진로의 탐색, 구체화, 선택, 명료화과정의 개별 진로수준을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며, 이 때 담임교사와 취업전담 교사의 전문성과 요구되는 역할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줌.
	부모	•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형성되는 부모국의 긍정적인 언어 문화적 관심 혹은 반대로 외국인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의지가 진로 동기에 영향을 줌. • 부모의 직업관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진로 지도로 이어졌고, 부모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자녀의 진로와 직업관 형성에 영향을 줌.
	형제 자매	• 상급학년의 형제자매의 진학 경험은 나이 어린 동생의 대학 진학에 유용한 정보(학교생활, 대학 지원)들을 제공해 주며 진로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교사의 대입 진학지도 역량은 학생의 진로 결정 시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자발적 진로 선택	• 원하는 진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의 부재와 진로탐색 기회 획득에 어려움을 겪어 실제로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선택 • 학교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요구와 전공을 고려한 직업훈련, 직업상담, 취업알선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취업 성공률에 우선순위를 둔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문화청소년의 직무적합성을 고려한 진로지원의 필요
	2. 진학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	
	대학 진학 준비	•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으로 '내게 맞는 대학 전형 찾기'와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 '자기소개서 작성'을 꼽음. •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한 다문화청소년이 진학 조건에 맞는 생활기록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교단위의 활동지원과 담임교사의 적극적인 입시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3. 진로선택과정에서의 서비스 수혜 경험	
	도시 지역	• 선행학습과 체험학습 지원형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체험 프로그램(적성검사, 대학진학 컨설팅, 직업체험, 전문가 초청강연, 자격증 취득과정), 방과후 학습지도, 심리상담 이용 경험이 대체로 많았음.

조사 대상자	구분	핵심내용 및 시사점
		그 밖에도 '견학형 체험학습(놀이동산, 역사관체험)', '예술문화활동 체험학습(이중언어교실, 악기배우기, 미술체험, 도예체험, 제과제빵체험)', '문화체험 학습캠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등의 이용경험이 있음.
	읍면 지역	- 다문화청소년 지원 장학금, 다문화청소년 합창단 공연 지원, 다문화가족 축축제, 다문화가족 운동회, 다문화체험캠프, 다문화가정 생활음식 만들기 교실, 다문화 이해 해외연수와 같이 선별적 지원방식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경험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편으로 나타남. - 콘텐츠 유형에 있어서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
	멘토링	학습지도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정서 지원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다문화청소년에게 사회적·정서적 지지로서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진로 교육	진학과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콘텐츠의 개발과 폭넓은 진로 탐색이 가능한 참여 기회의 제공 중요
	방과후	돌봄과 학습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청소년에게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체험학습이나 보충학습 등을 구매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
	심리 상담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는 지원되지 못함. 다문화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에 의한 다문화상담 필요
	4. 다문화청소년 서비스 지원 니즈	
	대학 진학자	- 진학 준비를 위한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가 강함. - 학원비와 학습지 지원, 경제적인 지원과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진도 모니터링 지원, 다문화 특화형 진로컨설팅의 지원, 다문화 이중언어의 지원, 부모국 해외연수 지원,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여가문화생활의 지원 확대, 이러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 확대의 노력
	NEET	- 진로탐색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 요구 - 진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의 지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이었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불안을 고려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지원

조사 대상자	구분	핵심내용 및 시사점
	취업자	- 진로탐색 및 진로역량 개발과 관련된 지원을 강화 - 다문화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폭 넓은 직업경험의 기회 제공, 다문화청소년 여가문화생활의 폭 넓은 지원, 문화교류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 부모 (어머니)	1. 다문화자녀 양육의 어려움	
	국내 출생 자녀	- 국내출생자녀를 둔 다문화부모의 경우, 부모 자신의 한국어실력 부족으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의사소통 곤란과 자녀의 기초교과목 학습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 - 감수성 예민한 다문화자녀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부모의 양육 역량에 대한 어려움
	국외 출생 자녀	언어학습이 부진한 국외출생자녀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로 학교공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가 국내출생자녀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남.
	2. 다문화자녀의 서비스 이용 경험	
	도시 지역	멘토링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방문학습지, 한국어 및 자녀생활방문지도,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경험이 대체로 많았음. 그 밖에도 박물관 및 체험학습, 캠프, 다문화가족체험, 체험키트 등이 있음.
	읍면 지역	프로그램 콘텐츠 다양성 측면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편이었지만, 방과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프로그램들이 내실 있게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방과후 프로그램의 종류로는 골프, 플루트, 악기, 컴퓨터수업, 태권도, 피아노, 한국어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었음.
	멘토링	자녀의 멘토링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부모가 대신하기 어려운 학습지도와 다양한 활동경험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됨.
	방문 교육	기존의 집합교육과 비교하여 다문화자녀의 요구에 맞춘 1대1 맞춤형 방문교육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다문화자녀에게 밀도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방과후	다문화청소년들의 연령과 능력, 발달적 요구에 부합하면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풍성한 콘텐츠 구성이 중요
	3. 다문화자녀에 대한 다문화부모의 정책 지원 니즈	
	국내 출생	도시와 읍면지역 모두 '사교육비(학원비) 지원'과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게 나타남.

조사 대상자	구분	핵심내용 및 시사점
		• 학원비, 학습지, 학교교과수업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학습지원, 양육 역량 강화와 관련된 부모교육 지원, 통합적인 다문화교육 지원, 상급 학년까지 참여기회를 확대한 체험학습의 지원 등
	국외 출생	• 학원비 및 과외 지원, 학습지원을 비롯하여 부모교육, 한국문화이해 교육,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 체험활동, 부모국 해외연수 지원 등

5. 소결

1기 청소년과 2기 학부모 대상 면접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선 첫째, 지역적 차이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학습 지원의 욕구가 강한 반면, 효과적인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더 고민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도는 증가하는데, 실제 지원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국내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습지원을 위한 방법이 교육부의 대학생 멘토링이 있고, 입학 전 기초교육으로 여성가족부의 방문교육사업의 자녀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나 대학생 멘토링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장학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에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고, 대학이 없는 읍면지역 등 소외지역에는 사업 자체가 추진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학습적 측면의 효과보다는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심리적 지지의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방문교육사업은 입학전 또는 입학 후 초등 저학년까지의 한국어 읽기와 쓰기, 셈하기 등 기초능력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초등 고학년 이후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중요한 요인이 학업요인이고, 다문화청소년과 학부

모 당사자들의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예로 학습에 대한 교과목 지도도 필요하나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관리방식을 가르치거나 학습 진도에 대하여 모니터링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면접조사자의 제안도 고려할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각종 서비스 지원경험과 교육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읍면지역이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면접조사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경우 교사의 대입지도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학원이나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도 없으며, 대학생 멘토링의 경우 대학생이 접근하기 어렵고, 진로프로그램 등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의 콘텐츠도 도시 지역에 비하여 다양하지 못하고, 서비스의 방향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프로그램이 주로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열악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읍면지역의 지역적 특성으로 읍면지역의 인프라 부족의 문제가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성장기회 격차의 문제로 이어지는 현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학습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나 학습관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진로에 따라 요구되는 바가 다른데, 특히 현재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있는 후기청소년의 경우 진로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있으나 진로교육과 관련된 정보나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전체 중 높은 비율은 아니었으나 진로개발의 욕구가 있어도 정보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없거나 진로탐색의 방법을 알지 못하다는 이유로 성장기회를 놓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NEET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현재 고용노동부에 직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것은 직업에 대한

훈련과정과 일자리나 직업에 대한 정보이고 그보다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과 자신에 대한 이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로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후기청소년 대상 진로탐색 및 진로이해 프로그램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넷째,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 연구결과 학교나 지역사회 학부모 교육을 진행한 주체들의 경우 부모교육을 추진할 때 참여자 모으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교육제공자와 수요자의 입장 차이는 부모교육의 내용과 운영방식 등에서 서로간의 기대에서 갭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제공자가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모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주제와 접근 가능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들 뿐 아니라 학부모의 역량개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특히,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한국어실력 부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앞의 데이터 분석에서도 나타난 결과로 부모의 한국어 실력은 자녀의 학업관련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현재는 이주 초기의 결혼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한국어교육과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추진하는 집합한국어교육이 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또는 수준별 성인대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출신 학부모의 역량강화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한국어 교육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Ⅸ장 전문가 의견조사

- 1. 조사목적
- 2. 조사절차 및 내용
- 3. 조사결과
- 4. 소결

1. 조사목적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현황을 종단적으로 추적조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과업이나, 매년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도출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직접 접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검증을 받고,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출한 정책과제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2. 조사절차 및 내용

1) 조사절차 및 대상자

전문가 의견조사를 위해서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지역의 현장전문가 11명, 교육청 장학사 7명, 학교교사 10명 등 총 28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영역별 정책과제와 과제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시하고, 각 과제에 대하여 최신 정보, 구체화방안, 현실화방안, 대안적 방안 등에 대하여 서면자문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은 <표 IX-1>에 제시되어 있다.

* IX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표 IX-1.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자

구분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위
현장 전문가	1	강○○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2	김○○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장
	3	김○○	○○연구소, 연구위원
	4	김○○	○○청소년센터, 대표
	5	김○○	○○청소년지원재단, 소장
	6	도○○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7	이○○	○○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8	장○○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9	정○○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10	조○○	○○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11	허○○	○○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부센터장
장학사	12	구○○	○○교육청 부장
	13	김○○	○○교육청 학교자치과 장학사
	14	김○○	○○교육청 민주혁신교육팀 장학사
	15	김○○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16	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17	이○○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18	한○○	○○교육청 교육복지과 장학사
학교 교사	19	김○○	○○초등학교 교사
	20	김○○	○○초등학교 교사
	21	김○○	○○중학교, 교사
	22	김○○	○○중학교, 교사
	23	김○○	○○중학교, 교사
	24	김○○	○○초등학교, 교사
	25	박○○	○○초등학교, 교사
	26	이○○	○○중학교, 교사
	27	최○○	○○초등학교, 교사
	28	한○○	○○초등학교, 교감

※ 전문가 영역별 순서는 가나다순임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크게 한국어교육, 기초학습능력제고, 심리적응능력 강화, 부모역량 강화, 지역중심 지원시스템 구축 등 총 4개 영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문화청소년들의 성장기회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의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학업관련 요인에 초점을 두었고, 그 중 한국어, 기초학습능력, 부모역량강화 등을 다루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지역중심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시스템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아래 <표 IX-2>의 내용은 2020년도에 제안한 정책과제 중 일부이다. 전년도에 일차로 제안했으나 이를 좀 더 구체화, 현실화하기 위하여 제안한 정책과제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근거로 좀 더 발전되고 정밀화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IX-2. 전문가 의견조사의 내용

영역	주제
1. 한국어교육	• 한국어교육의 대상특성별 체계적 운영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활성화방안
2. 기초학습능력	• 입학 전 기초학습능력 준비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보급 • 배움지도사 지원 대상 확대 • 온라인 대학생 멘토링 사업 확대 및 강화
3. 부모역량 강화	• 교육부 징검다리교육프로그램의 부모교육 의무화 •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다문화여성대학 참여자 대상 부모교육 강사 양성
4. 지역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 시스템 구축 및 강화	•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 마련 • 농촌지역형 다재다능 프로그램 구성 및 보급방안 • 농촌형 지역 다문화청소년지원시스템 구축방안

3. 조사결과

1) 한국어교육

(1) 한국어교육의 대상특성별 체계적 운영방안

우선 첫째로, 한국어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교육방안과 관련하여 대상특성별, 단계별 교육시스템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지역의 다문화전문가들과 학교교사나 장학사 모두 학교와 지역 다문화전문기관과의 연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한국어교육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학업 관련 한국어와 일상생활 한국어를 각각 익히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학교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장학사나 학교교사 등 학교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어교육의 중심이 학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기관들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전문가나 장학사, 학교교사 모두 이견이 없었다.

둘째, 지역 내 연계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한국어교육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고, 한국어능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어능력을 진단하고, 일정 기간의 교육을 진행한 후, 평가를 거쳐서 한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못한 경우 다시 돌아가서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 한국어능력 진단-보정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지역의 전문기관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즉, 학생의 한국어발달수준과 한국어 학습 진도, 학습결과 등을 학생, 보호자, 지역의 다문화센터의 담당자, 교사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수준별 그룹을 편성하거나 학생의 한국어 학습단계에 맞는 추가 교육을 제공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셋째, 한국어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 안에서는 한국어학급을 통하여 교육을 하고, 방과후나 주말, 방학 등에 지역의 다문화가족센터 등에서 보충적으로 한국어수업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때 지역의 한국어교육이 가능한 기관으로는 다문화가족센터, 레인보우스쿨, 기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도서관, 지역의 대학 등 다양한 기관이 제시되었다.

넷째, 한국어수준 중급자 이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지도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국어 문해력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책에 대한 흥미를 신장하고 평생 학습에 도움이 되는 분야이므로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이 때 한국어수준과 연령을 고려한 독서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그룹수업을 통하여 사회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한국어 수준에 따라서 다문화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일반 청소년대상 독서프로그램 등을 함께 구성하여 다문화학생 중에서 한국어 독해능력이 일정 부분 이상 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청소년독서지도 프로그램에서 통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다섯째, 독서지도 프로그램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독서지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도서관에서 일반학생과 통합프로그램으로 또는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표 IX-3. 한국어교육방안

대상자	의견
현장 전문가	○ 선 이주한 고학력 이주민을 브릿지 인력으로 양성 활용 방안: 모국어로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 ○ 다문화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언어권별 한국어교육지원. 예)한국어강사+해당국가통역인(결혼이주여성등)

대상자	의견
	○ 입학 전 한국어, 초등저학년을 위한 학습한국어, 초등고학년을 위한 학습한국어, 중학교과정을 위한 한국어 등 단계별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중급자 대상 독서 콘텐츠 개발 시 그룹수업을 통한 사회성, 연령대별 갖춰야할 인성 중심의 콘텐츠 개발필요 ○ 시, 도 단위의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한국어 및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진행(ex-농산어촌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문해교육) ○ 입학 전과 입학 후 한국어교육의 수행도 고려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입학 후에도 학교 밖의 보충 한국어교육이 필요함. 학교안과 밖의 수행기관 간 연계된 한국어교육이 효과적임 ○ 한국어교육 실행기관을 다양하게 열어놓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 청소년수련시설, 지역 도서관 등 ○ 인구밀도는 낮고 분포 지역은 넓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 필요
장학사	○ 중도입국 외국인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국가별 1:1 또는 1:2 멘토링제도 운영 가족 단위(부/모/부모) 한국어교실 운영 ○ 한국어교육의 단계별, 체계화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있음. ○ 학교 현장에서는 입학 전(공교육 진입 전)한국어교육은 매우 필요하며 지역의 연계가 큰 도움이 됨. ○ 입학 전 한국어교육은 어린이집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으로 생각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도입국학생이 포함된 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을 요구할 경우 한국어교육을 의무적으로 개설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한국어소통이 가능한 학생은 수업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가 중심이 되어 방과후 학교수업과 연계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함. ○ 중도입국학생의 학교적응은 학교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한국어 능력이 중등 이상인 대상자들의 독서지도를 지역에서 공모할 때 학교와 공동으로 공모한다든지 등의 연계가 필요함. ○ 생활한국어와 학습한국어 중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지도사와 교육청의 업무담당자가 진단하여 필요한 부분을 각 기관에서 집중 지원 ○ 수준별 독서지도시, 학습자의 한국어능력 뿐만 아니라 해당 연령층에 적합한 독서 콘텐츠 개발 필요 (한국어 수준만 고려할 경우,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할 수 없음) ○ 외국인 및 중도입국 가정 학생 입학 전 한국어능력 진단 의무화 및 입학 후 지속적인 관리(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
학교 교사	○ 학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유사사업과 중복사업을 먼저 통합, 분리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학교는 공교육에 진입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과 관련한 부분을 책임지는 역할에 매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공교육에 진입하

대상자	의견
	기 전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지원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서심리지원을 주관하는 등의 명확한 역할이 분담되어야 함. ○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의 지도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및 결과 공유방안 필요 ○ 한국어교육의 중심을 공교육, 즉 학교에 두어야 하고, 관련 지역 기관 및 지도자가 긴밀히 협조하며 학생의 학습 발달 정도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 적용하여야 함. 이 때 한국어 능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교사가 한국어수준의 발달상황을 기록하고, 이 시스템에 학생, 보호자, 지역 다문화센터 담당자 등 관련 인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한국어 학습 진도와 그 결과 및 수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서는 그 확인 내용에 따라 수준별 그룹을 편성하거나 학교에서 학습한 한국어 학습 단계에 맞는 추가적인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재차 동일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학생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의 한국어학급이 설치되어 있거나 교육복지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는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한국어를 지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음. ○ 4학기를 이수하면 의사소통은 되지만 어휘력이 부족하여 학습한국어가 안되기 때문에 한국어학급 학습기간을 최대 4학기로 정하지 않고, 학습한국어 능력이 중급정도 실력이 될 때 한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 수정이 필요함. 규정이 수정되고 한국어학급으로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임. ○ 학교에서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읽기, 쓰기, 교과서 사용 언어 중심 교육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체험 중심(대중교통 이용하기, 물건 사기, 길 묻고 답하기 등)으로 현실 생활 언어 기능에 중점을 두는 등 업무분장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 독서교육의 경우 문해력 향상뿐 아니라 책에 대한 흥미를 신장하여 평생학습자로서의 태도를 갖춰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독서지도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한국어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교사, 한국어학급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 한국어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기초 문해력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 한국어교육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동, 청소년 지도 경험이 풍부한 강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독서지도의 경우 '찾아가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방과후학교, 주말학교. 지역의 센터에서는 퇴직교사(유치원초중등학교)를 적극 활용한다면 한국어교육, 학습 및 진로, 상담, 학부모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도서관에서 일반학생과의 통합프로그램과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절히 혼합하여 운영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 ○ 대부분의 학교 도서관에 사서가 배치되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도서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도서관, 도서관 방문 학습 프로그램을 혼합하는

대상자	의견
	유연한 운영이 필요함. ○ 현재의 경우 학급이 생성되면 주당 10시간 내외로 한국어 학급에서 수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원적학급에서 수업을 하는데 한국어 학급에 가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는 학급에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규 수업 시간의 일부나 방과후에 한국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적 생성 후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형태로 다문화가족센터나 기타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20일~60일 정도 전일제로 한국어 및 한국생활 적응교육을 집중적으로 하여 원적학급에 복귀시키는 방안 ○ 한국교육과정 속에 등장하는 단원별 교과 어휘 습득을 위한 교재 개발(출판사별 모국어 변환 필요) ○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에 다문화지원센터 설치하여 일정기간 한국어를 배운 후, 학교에 입급되도록 하면 좋겠음. 또한 다문화가정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학습 및 정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2)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방안

다음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입학 이후 뿐 아니라 입학 전 대상자, 학교박청소년들에게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운영방식에서 집단한국어수업과 1:1 멘토링방식의 개별 한국어로 나누어서, 일정한 인원이 학교에 모일 수 있는 경우는 한국어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서 가르치고, 그렇지 못한 경우 1:1 한국어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학교가 아니라 지역의 민간기관이 연계하게 된다면 지역 내 적절한 장소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학습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셋째,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이 확대 및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역시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이 연계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강사의 질적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넷째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의견에 차이가 있었

는데,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학생이 필요한 시점에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다문화가족센터 등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섯째,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는데, 시도교육청에서 한국어 교육 강사풀을 만들고,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교육청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어를 진단한 후 주당 수업시간을 결정하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맞는 지역의 강사정보를 제공하여 학교에서 학생에게 적합한 강사를 소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강사의 인력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강사를 찾는 데 시간을 소요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섯째, 대상에 따른 한국어교육의 차별적 운영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는 한국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찾아가는 독서 지도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를 통한 사고력 및 독해력 증진, 건강한 심리정서 함양 등을 목표로 하고, 이에 비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등 한국어가 부족한 경우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의 경우 대개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는데, 그 기간이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너무 짧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덟째, 한국어교육을 하는 경우 이중언어가 가능한 강사가 교육을 하거나 모국어를 구사하는 강사가 함께 일정 기간 참여하는 등 한국어수준이 아주 낮은 경우에 대한 대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이 한국어 능력이 매우 떨어질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효과가 낮은 경우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홉째,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학교의 규모나 강사수급, 시간 등의 문제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이나 한국어 학급 등을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통한 한국어교육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온라인 교육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 교육인프라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온라인 교육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기 중 뿐 아니라 방학 중에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찾아가는 한국어프로그램 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어교육 지원에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표 IX-4.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방안

대상	의견
현장 전문가	○ 입학 전 지역의 센터(공동육아나눔터)와 연계한 한국어교육 ○ 시도교육청 보다는 각 지자체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되, 일정 인원을 스스로 구성하여 요건을 채울 경우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하는 등의 유연함 필요. 즉, 현재 재학생만이 아니라 입학을 앞둔 학생, 대안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 필요. ○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교육은 1:1 멘토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한국어 교사 양성 및 오리엔테이션 교육 등 사전 교육된 교사 pool을 지역별로 운영 ○ 민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제공 및 효율적인 학습관리 (이용자접촉) 가능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2가지 방식으로 운영가능. - 집단 한국어 수업 : 한국어교육 외 세계시민, 인성, 사회성 교육 등 접목하여 함께 실시 - 1:1 멘토링 방식의 개별 한국어교육 ○ 각 읍면지역에 남아있는 학습지 교사 활용방안 고려 - 국제결혼 국내출생 자녀대상: 작은도서관 이용 '찾아가는 책상자'와 독서지도사가 결합하여 찾아가는 독서지도사 운영. '찾아가는 책상자'는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함. 학습자의 욕구에 기초하여 독서를 통한 문화이해능력 제고, 건강한 심리정서 함양, 사고력 및 독해력 향상뿐만 아니라 교과주제별 독서지도 가능하도록 구성 - 외국인가정 국외출생 청소년: 청소년 시기 중도입국한 자녀의 경우 이중언어로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능력과 사고력을 함께 신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한국어교육을 넘어 "모국어로 생각키우기" "한국어 어휘를 통해 본 한국문화이해교육" 등 다양한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과정 마련 ○ 중도입국 학생이 학기 중에 편입학 하는 경우, 미리 교사나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대상	의견
	않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학교로 한국어 강사 파견)이 어렵다고 들었음. 지금도 그런지,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은 학사일정에 따라 경직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일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임.
장학사	○ 공교육 진입 전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 ○ 학교 현장의 한국어교육을 돕기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기관(민간기관 포함)을 활용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임. 그러나 지역 특성과 요구에 맞는 지역 중심의 한국어교육이 내실화되고 필요한 학생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 기관들의 산발적 운영을 홍보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보다 교육 부분을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한국어교육에 대한 현장의 필요를 듣고, 수합하고, 연결하고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는 지역교육청의 다문화교육 담당 장학사가 추진하는 방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의 경우 외국인을 교육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협업이 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됨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한국어강사 및 다양한 언어권 다문화언어강사가 필요함. 소수 언어권 및 아랍권의 경우 강사가 부족하여 교사들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자체 등에서 강사 양성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입학 전은 어린이집유아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원하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단계적 운영이 필요함. - 1단계: 시도 교육청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가진 한국어교육 강사단을 공고를 통해 모집, 인력풀을 구성, - 2단계: 학교에서 중도입국학생이나 외국인가정 자녀, 한국어가 서툰 국내출생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청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신청 - 3단계: 교육청에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업무담당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신청한 학생의 한국어 능력 상태를 진단 후 주당 수업시수 결정(4시간~10시간) - 4단계: 교육청에서 한국어교육 신청학교에 강사 프로필을 안내, 학교에서 학생에게 맞는 강사를 선택,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학교 교사	○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징검다리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으나 단기간에 운영과 학교에서의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어 수요자나 공급자의 측면에서 아쉬움과 어려움이 많음. 징검다리 학교의 기간을 확장하고 역할을 제고하여 상급학교로 진학 전 준비 단계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학습뿐만 아니라 진로교육, 생활교육, 학부모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서 진정한 프리스쿨의 개념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함. ○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특정 시스템에 해당 학생의 한국어 학습 이력, 수준 등을 기록하여 학생의 한국어 성장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됨. 단기간 진행되는

대상	의견
	수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피드백 되는 학생의 주요 학습 중 하나로 인식 되도록 해야 함. 또한, 한국어 강사 인력풀을 통합 운영하여 교육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보다 실제 교육에 투입되는 시간이 많도록 해야 함. ○ 지역다문화센터에서 강사 파견 전에 강사대상 연수를 실시하여 지도능력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가센터에서 파견한 강사의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주변 의견들이 많고, 지역다문화센터별로 지원하는 수준이 많이 나는 것으로 보임 ○ 무분별하게 지원하기 보다는 학습 기간과 목표, 진단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예산 내에서 최대의 효율을 도모하여 학습자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그에 맞는 체계적인 교재, 교구 활용이 시급함. (영어 파닉스 교재나 서울대 한국어 교육 교재 등처럼 시리즈물로 된 교재에서 바로 단계별 적용할 수 있는 무학년제 교재 사용) ○ 입학 전 학생들의 한국어교육은 현재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누리과정 연계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령의 특성에 맞는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마련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민간단체 참여 등 운영주체 다양화와 확대방안은 양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나, 질적 측면이나 큰 그림 속의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민간 운영주체의 올바른 다문화수용성과 학생지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안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 ○ 찾아가는 한국어 프로그램의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 방향임. 어떤 면에서는 한국어 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보다 한국어능력 향상정도가 더 높은 경우도 많은데 한국어 학급이 있는 경우 대부분 밀집해 있어 한국어 보다 모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임. 이중언어교육 관점에서 또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이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어 학급이 있는 학교의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두 제도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일반 학교에서 찾아가는 한국어학급의 경우 대개가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이 최소 6개월로 확대되었으면 함.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누리세종학당, 지역교육청에서 개발한 한국어교육자료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한국어 멘토나 튜터를 같이 운영. ○ 에듀넷에 지역단위 공부방을 개설하여 의무적으로 동시 입급하여 온오프라인 지도를 받는 시스템 도입 ○ 현재 교육부에서 찾아가는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청에서 한국어 강사를 파견하는 형태보다 해당 학교에 예산을 내려주고 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를 채용하여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학교에서는 긴급하게 한국어 강사를 급하게 구하는데 애로가 많아 중도입국 · 외국인 학생이 전 · 입학 상담을 오면 학생을 인근의 한국어 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도록 권유하는 경우도 있음.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해당 학생이 입학하였을 경우 바로 학교로 한국어 강사를 파견할 수

대상	의견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문제로 인력풀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한국어학급의 경우 학생의 연령과 한국어수준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농어촌의 경우에는 학교 규모나, 강사 수급, 시간 등의 문제로 '한국어 학급'이나 '찾아가는 한국어 수업'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호 온라인 교육을 제안함.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의 강사 자격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는 한국말을 잘 가르쳐주지만,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나 문화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에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교육의 질도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 따라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의 강사를 이중언어가 가능한 강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어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도 훨씬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이중언어 강사가 부족한 관계로 이중언어가 가능한 이주여성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강사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거점형 한국어학급을 운영함으로 주변 학교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안전한 통학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예산 절감 및 학생의 한국어 지도, 학교에서의 학생 지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시 강사수급이 어렵고, 교육내용이 체계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음) ○ 한국어학급에서는 기초에서 학습한국어까지 꾸준히 지도하고 싶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음. 규정대로 4학기 동안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다 보면 1단계 의사소통한국어만 된 상태에서 환급되기 때문에 기초학력부진아로 남을 수밖에 없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단계 학습한국어과 어휘력 지도를 병행하여 지도해야 함.(예산 지원) ○ 방학 동안에도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방학동안 매일 하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방학이 끝나면 한국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음)

2) 기초학습능력 제고방안

(1) 입학 전 기초학습능력 준비 프로그램 운영방안

기초학습능력제고 방안 중 첫 번째는 입학 전 기초학습능력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방안으로, 초등학교 이전에 글쓰기와 셈하기 등을 선행학습 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아동의 발달과정에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문제제

기가 있었다. 따라서 읽기, 쓰기, 셈하기 등보다는 언어소통능력, 동화책 및 놀이를 통한 교육, 부모코칭과 함께 하는 연령별 언어발달교육 등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거의 모든 아동이 입학 전에 적어도 한글을 익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현실에서 다문화아동에게만 원칙을 강요하는 것은 다문화청 소년의 성장기회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전 만 6세 대상의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입학 전 기초학습능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1, 2학년 온라인 기초학력 프로그램처럼 입학 전 아동을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가정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안, 병설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 등과 연계하여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 언어발달지도사의 파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입학 전 프로그램의 경우 2021년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착수되었고, 2022년에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자를 다문화가족 지원법 상의 다문화가족자녀 이외에도 국적과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결국 이들은 학교에 입학할 것이고,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의 기초학습능력 제고 방안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표 IX-5. 입학 전 기초학습능력 준비 프로그램 운영방안

대상	의견
현장 전문가	○ 초등학교 1,2학년 교육 과정의 정상화가 필요함. 글자를 읽고 쓰고 숫자를 셈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므로, 이를 입학 전에 이를 배워야한다는 것은 아동의 발달과정에도 적합하지 않으며, 중고등학교도 선행교육을 폐지하려 노력하는데 초등교육과정에서 선행을 주도하는 것도 부적합하며, 역차별 요소 있음.

대상	의견
	○ 초등입학예비부모교육을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활용하여 교육하는 방안. 이 때 현직교사와 연계하여 효과성 높임 ○ 2022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입학 전 아동에 대한 기초학습 지도를 위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여 방문 및 집체 교육을 할 예정임. 추후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 입학 전 7세, 입학 후인 8세 초기까지 대상 확대.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적으로 공정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습 기준선 이하의 학생들에게 집중 지원. 이를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방과 후 돌봄기관까지 확대하여 보급할 수 있음. ○ 학습 전 단순히 학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과 요령을 알려줘야 함. 계획세우기, 학교 다녀온 후 집안에서의 생활계획과 생활습관에 대한 인식교육 필요(학습 코칭 및 일상생활 교육 등) ○ 부모코칭과 함께하는 영유아 언어중재 프로그램 지원으로 연령별 언어발달 수준에 맞는 어휘를 구사할 수 있도록 지원 ○ 방문지도사가 교육하고 난 후 주양육자가 일상적으로 아동과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양육자를 코칭하면서 교육함 ○ 농촌지역은 특히 방문지도사가 자주 찾아갈 수 없는 원거리에 있는 가정이 많아 주양육자 코칭이 중요함 ○ 입학 전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습능력 준비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 편입학하게 되면 보통 1년 이상 한국어교육만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교과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또, 본국에서 학교에 다녔던 경우에도 본국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다루는 교과의 경우 생소할 수밖에 없음 ○ 입학 후 한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 기간 중에도 본인의 기초 학습 능력 수준에 따라 기본적인 교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습 지도가 병행될 필요 있음. ○ 학령별 학업 성취도에 따른 매뉴얼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현직 초등교사가 강의
장학사	○ 한글은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익히도록 되어 있고 다문화유아는 학습을 위한 언어소통능력을 신장시켜서 초등1학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시킬 필요가 있음. ○ 입학 전 다문화청소년 기초능력 준비 프로그램은 유아언어발달 향상 프로그램 등으로 명칭 변경 필요. 내용은 읽기, 쓰기, 셈하기에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으로 한정해야 하며 이는 초등 1학년 수업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함, 단 읽기와 쓰기, 셈하기는 초등 1학년 과정이므로 조기에 교육하는 것은 안 됨 ○ 현 유치원 교육과정상 읽기, 쓰기, 셈하기 교육은 지양하고 있음. 다문화유아대상 동화책 및 놀이를 통한 교육, 방과후 한글교육 및 가정방문지도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필요 ○ 다가센터 및 주민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마을공부방 등을 활용한 독서지도 강화(쓰

대상	의견
	기, 셈하기 보다는 듣기, 읽기 중심의 독서 지도) ○ 징검다리 프로그램 운영(초등 입학 전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집중 예비초등 프로그램 운영) ○ 취학예정 다문화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운영(학교별 대면/온라인) ○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 유아 언어발달 향상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초등학교 입학전 해인 만5세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함 ○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1년간 체계적으로 운영할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적용하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운영시스템 구축 ○ 배움지도사를 확대 양산하여, 시군 다문화가정 학생을 개별적으로 방문, 1:1로 기초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집단 지도를 하는 경우, 부모가 어린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대부분 일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
학교 교사	○ 최근 만 6세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학교 입학 전 기초학습능력을 준비하는 중심 장소를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하되, 학생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방문교육지도사, 지역 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이용하여 수준별 개인 지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만 6세 대상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전국단위로 개발하여 보급한 이후, 집단 지도와 그 성취 정도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개인별 보충 지도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교사가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의 하루 일과를 관리하도록 하여 방문교육지도사, 지역 아동센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하원 이후 방치되는 시간을 줄이고 체계적이고 폭넓은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임. ○ 농어촌 지역의 일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가정의 경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부재, 교육비 부담 등의 사유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들에게 입학 전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후 학습격차 발생에 따른 더 큰 사회적 혼란과 자원 투입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누리교육과정 틀 내로 유도하여야 한다고 봄. 특히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는 인근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 입학을 유도하여 입학 전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외국인 가정 역시 조기에 공교육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법무부와 연계하여 입국심사와 동시에 학생 연령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효과적일 것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1,2학년 온라인 기초학력 프로그램처럼 게임 형태로 개발된

대상	의견
	콘텐츠를 제공하면 가정 학습 및 자기주도 학습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함. ○ 입학 전 학생의 기초학습 능력 준비프로그램 운영은 매우 환영함. ○ 지역주민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도 매우 좋은 안이라 생각되는데 한국어교육은 사실은 한국문화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해야 실질적인 언어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대부분의 다문화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통합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급적이면 누리과정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외국인 학생의 경우 유치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언어학습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별 없는 지원이 우선되어야함. ○ 병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민간유치원과 연계하여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입학 전 기초학습능력 준비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숨어 있는 입학예정자를 찾아내어 제도권으로 이끌어내어 최소한의 교육적 처치를 해주는 활동 필요 ○ 초등학교 입학 전의 제도권 교육은 국내출생·중도입국 다문화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불법 체류 가정 자녀, 저소득 외국인 가정 자녀의 경우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방치되어 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 아이들의 교육출발점이 다른 다문화가정 학생, 비다문화학생과 달라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언어 및 인지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영유아 시기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대학생들이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하는 것이 부적합하며 전문 언어발달지도사를 통한 1:1방문지도가 필요함. ○ 중도입국 중고등학생들의 국내학교 편입학전 필수교과수로 또는 학점 취득을 제도화 마련 절실

(2) 배움지도사 운영방안

두 번째로, 현재 특정한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의 형태인 배움지도사의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인데, 배움지도사는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고 (손)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으로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직면한 위기가족으로 정해져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0.12.10.; 양계민 외, 2020: 500). 배움지도사의 경우 학습부진아를 지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업성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다문화청소년의 기초학습능력 제고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러나 대상자가 위기가정에 한정되어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이 아닌 경우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양계민 외, 2020: 500).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배움지도사를 확대하기 보다는 기존의 방문지도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배움지도사의 경우 특정한 과목별 전문성을 지닌 학습전문가로, 방문지도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방문지도사의 경우 한국어나 기초 셈하기 등은 지도가 가능하나 중학교 이상의 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방문지도사 보다 배움지도사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움지도사 활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는 배움지도사가 학습이해력, 소통정도, 독해력, 작문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효과성에 대한 검증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또한 읍면지역의 경우 배움지도사 파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퇴직한 교원 및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코칭을 할 수 있는 방안, 배움지도사를 파견할 경우 학교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IX-6. 배움지도사 운영방안

대상	의견
현장 전문가	○ 배움지도사 보다는 기존 방문지도사의 업무를 다양화하는 것이 효율적임. ○ 결혼이민자, 유학생 중 교육 역량을 파악하여 모국어로 학습 지원하는 방안 ○ 배움지도사 등도 시간제 근로자로 장거리 대상자에 대한 거부 등으로 실효성이 의문. 방문 교육 등이 필요한 지역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전일제 근로자 채용으로 고용이 안정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기존의 방문지도 서비스를 배움지도 서비스로 개편하는 방안 제안 가능. 사례관리 참여 가정이 아니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유연한 운영 필요 ○ 읍면 지역은 활동하는 지도사를 구하기 어려워하므로 필요한 경우 읍면지역을

대상	의견
	벗어나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있음 ○ 이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생활지도사 및 방문지도사 등 파견사업 등을 지원해 왔음. 이름만 조금 다를 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봐야할 듯. ○ 배움지도사를 통해 학습이해력, 소통정도, 독해력, 작문능력 등 월별 대상자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게 해서 그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 접근성 및 보호자 상담 등을 위해서는 배움지도사 파견보다는 클라이언트 가정 주변에 보습학원 등 전문학원을 활용하고 학원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학원의 경우도 클라이언트의 학습실행정도 등 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안협약필요 ○ 온라인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경우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함 ○ 제안과 같이 배움지도사 지원대상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기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에 자녀에 대한 학습 지원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다만 학습지원 역할을 할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에게는 배움지도사와 동일한 자격을 요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장학사	○ 은퇴한 교원 및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 교육부와 여가부가 협업을 통해 한명도 소외되지 않는 다문화학생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음. ○ 유아 또는 초등학생 대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배움지도사 시스템은 꼭 학교와 연계하여 지도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배움지도사의 지원대상을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뿐만 아니라 저소득 다문화가정 학생까지 확대하도록 해당 부서에 요청 ○ 온라인 운영방안 마련 시 학부모의 컴퓨터 교육 선행
학교 교사	○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중심 교육 기관의 담당 교사에게 배움지도사 지원 대상 추천 권한을 부여해야 함. 교사가 학생의 기초학습능력, 하원(교) 이후 교육활동 내용 파악, 부모 상담 및 가정형편 파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움지도사 지원 대상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 학생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배움지도사의 역량 강화와 질 관리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충분히 교육된 인력, 학교와 유기적 연계와 협조가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품을 가진 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존의 배움지도사 인력풀이 있겠지만 퇴직교사를 적극 활용하기를 건의함. 실비 정도의 지원만으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대상	의견
	생각됨. 주변에 퇴직교사 중 한국어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음. ○ 배움지도사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정(3명 이상) 다문화 가정도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음. ○ 학교 수업 중 이루어지는 배움지도사 지원 확대. 단 이 제도가 교사에게 업무 과중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청에서 관리 및 수당 지급 등을 모두 처리하고 학교로 파견하는 형식이어야 함.

(3) 멘토링 사업 운영방안

다음으로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멘토링 사업과 관련하여 효과적 운영방안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현장전문가들과 장학사, 학교교사 모두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첫째로 대학생 멘토에 대한 사전교육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이 제시하였다.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써가 아닌 다문화청소년들의 지원프로그램으로써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하기에, 단순히 매칭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관리·감독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 멘토링에 대한 교육, 기본적인 인성 및 태도교육 등의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멘토나 멘티의 이탈을 감소를 위한 내용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대학생 멘토링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려로 보이며, 사전교육과 모니터링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둘째, 온라인 멘토링 방안도 시도해볼 수 있으나 온라인만으로는 효과적일 수 없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획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으로 먼저 만나서 라포를 형성하고, 멘토링의 목적과 방식에 대하여 이해하고, 온라인의 경우도 처음부터 학습을 하기 보다는 흥미를 끌 수 있는 작업을 먼저 한 후 점차 학습지도를 하는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직접적인 학습지도보다는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습관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한국어를 전화로 하는 한국어회화 멘토링 방식도 제시되었다. 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잘 기획할 경우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학습지원이 목적이려면 일정한 교육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습을 위한 자료, 콘텐츠 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학기 중에는 온라인으로 하고, 방학 중에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등 다양한 운영방식도 제안되었다.

셋째, 온라인 수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할 때 수업전체를 녹화하고, 수업관련 자료도 탑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교사의 온라인수업을 동시에 통·번역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넷째, 멘토를 선발할 때, 해당국가 출신 대학생들을 활용하는 등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장학재단의 사업으로써는 적합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의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기기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다문화가정의 경우 온라인 기기의 부족현상이 있고, 특히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는 한 번에 한 명만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교육을 받거나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태블릿PC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IX-7. 멘토링 사업 운영방안

대상	의견
현장	○ 대학생 멘토 연계시, 대학생 슈퍼바이저를 해줄 교수 등전문가의 지도와 참여가 수반되어야 함.
전문가	○ 기존 무작위 매칭이 아닌 대학생 멘토 선발시 사전 이해교육 진행필요 ○ 멘토 매뉴얼과 학습지도안을 개발하여 멘토에게 제공, 매월 해당 멘토와 모니터링 및 회의 등 관리가 필요함. ○ 입학 후: 중도입국자녀대상 한국어교육연계(온오프병행)

대상	의견
	예)사범대학교 60h 봉사수업을 활용한 온라인수업지원 ○ 온라인을 통한 교육과 방학기간을 이용한 대면 프로그램의 병행이 필요함. ○ 대학생 본인의 전공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자원봉사 실적으로 카운트하기 보다는 인턴형태로 모집, 진행하여 전공경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안함. 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봉사 또는 인턴) ○ 평가가 좋고 일정을 성실하게 완료하는 학생에게는 완료 이후 추가 인센티브 방안 고려필요. 책임성 향상. ○ 1:1 학습 시 대학생을 활용하는 방안은 고민이 필요. 지역 안에서 대학생 멘토링을 많이들 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뿐 학습효과가 높다는 평가는 거의 없음. ○ 대학생 멘토링은 오프라인이 훨씬 효과적이며 학습보다는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종이접기, 과학상자로 만들기, 도서관 이용하기 체험 등) . ○ 멘토링 사업 진행에서 지속적인 멘티에 대한 교육 및 이탈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멘티 역시 이탈률과 중단률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함. ○ 온라인 멘토링 사업에 있어서 흥미를 끌만한 소재 개발 필요. 학습 이외에도 만들기 키트나 랜선 여행 등을 고민해 봐도 좋음. ○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멘토-멘티 동반성장’의 관점으로 운영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음. 사전교육 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멘토링을 하는 동안 지속적인 솔루션 중심 워크숍 실시 등 수퍼비전이 매우 중요함. 멘토 역시 멘토링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대학생이라는 관점이 중요함. ○ 대학생 멘토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편이며, 특히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가 미숙함. 이로 인한 다양한 갈등과 문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음. ○ 멘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아동의 낮은 학습동기, 산만한 태도, 멘티의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행동 등 멘티의 정의적인 특성으로 인해 학습지원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 멘티에 대한 사전 교육도 필요함. ○ 농촌지역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오프라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반복될 수 있으며, 오히려 동기화나 주의집중 부족은 더 심각할 수 있으므로, 라포형성을 위해 반드시 오프라인 만남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고등학생의 경우, 전화로 하는 한국어회화 멘토링도 효과적임. 주2~3회 30분씩 주제를 정하여 이야기하고 대화이후 자신의 생각을 간략하게 적어서 멘토에게 쪽지로 보내고, 멘토는 이를 받아서 멘토링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

대상	의견
	○ 농촌지역처럼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고등학생들처럼 바빠서 시간 내어 만나기가 어려운 경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한국어회화 멘토링도 좋은 대안임 ○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에게는 1:1이 아닌 2:1 멘토링 방법을 고려하는 것을 제안함. 모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해 진행하는 교과 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강사가 꼭 대학생일 필요는 없음), 대상자가 이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게 하되,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학생 멘토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음. ○ 지역에 따른 접근성 문제는 온라인 멘토링의 확대로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방학 기간을 이용한 집중 멘토링 방식으로 극복할 수도 있음.
장학사	○ 1:1 또는 1:2 정도 소규모운영으로 대면교육이 효과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면 소속학교 교사를 코칭 형태로 배치하여 학생 및 수업관리, 대학생 교육력 제고 등을 모색함. 소속학교 교사 1:1 매칭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수가 여러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음. ○ 대면 멘토링을 진행함에 있어 간혹 복장, 언행 등이 교육적이지 않은 대학생 멘토가 있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담당자가 멘토 교육, 수시 모니터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경우 온라인상에서의 언어 사용, 디지털 시민성 등에 대한 점검이 어려우므로 사전 교육 및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모국어를 사용하는 대학생을 연계하는 방안은 현장에서 매우 요구가 높은 부분임. 온라인이라는 형식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면 꼭 국내체류중인 학생이 아니더라도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대학생을 모집하여 활용할 수도 있음. ○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실행자인 대학생들을 잘 선발하고 사전교육을 시키는 것만큼이나 학교현장의 업무 담당자의 사전교육이 중요함. 멘토링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대학생들을 만나보았을 때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 학교 담당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혹은 유연하지 못한 제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었음. ○ 일정 기간 활동 후 활동 점검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오프라인 멘토링의 경우 현장에서 활동 점검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멘토링의 경우 점검의 과정에 대해 고민과 검토가 필요함. 멘토링을 받는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음. ○ 원거리의 경우 온라인이 좋기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대면지도와 병행이 바람직함. ○ 대학생멘토링의 효과성은 대학생의 학생지도 역량도 중요하지만 멘토 학생 학교 담임교사와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담임교사 연수 및 효과적인 대학생 멘토링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연수가 필요함. ○ 온라인 멘토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멘토(대학생) 대상으로는 학습 및 상담 지도에 필요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멘티(학생) 대상으로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 전달 등 ○ 좋은 대학생 멘토 확보가 우선 필요함. 아동학대, 성교육 등 사전 교육 및 멘토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함.

대상	의견
	○ 읍면단위 다문화학부모는 오프라인 멘토링을 선호함(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많이 실시되고 있으나, 다문화학생의 경우 학부모의 역할과 도움이 부족하여 온라인 수업에 집중력과 효과에서 문제가 있음). ○ 멘토 대학생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기초학력 지도방안, 성폭력예방 등에 대한 연수 및 사전 교육 의무화.
학교 교사	○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논하기 전에 각 기관의 본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부터 발생함. 학교 현장에서는 본 사업을 당연히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인식하고 접근하지만, 한국 장학재단 등 주관 기관에서는 본 사업을 교육사업이라기보다는 장학사업으로 인식하고 접근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 ○ 대학생 멘토의 선정 및 교육 사후관리 등, 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의 엇박자와 학교와 대학 간의 갈등, 교사와 멘토와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사업의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음. ○ 대학생 멘토와 다문화가정 청소년 멘티의 수적 증가보다는, 멘토의 질 제고에 더욱 사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정말 필요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사명감 있는 멘토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성공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안내하여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선순환 체제가 이루어져야 함. ○ 해당국가 출신 대학생들을 발굴, 본 사업의 멘토로 양성하여 해당국 출신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지도하도록 하는 방안은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대학생 멘토링 사업 또한 학생이 소속된 중심 교육 기관의 담당교사가 그 지원 대상을 추천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함. ○ 장기간 지속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함.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 대면하며 특정한 활동을 직접 함께 수행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함. ○ 초기에는 놀이 활동 형태의 온라인 과제를 함께 보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대감 형성한 후, 학생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과제를 함께 해결하거나, 학생의 수업 결과물을 모니터링 하는 등 단계별 접근이 필요함. ○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언어 구사가 가능한 외국어 전공 대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그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 국내외의 기업들과 연계하여 동시통역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기기 보급 ○ 올해 온라인 대학생 멘토링을 운영해본 결과 학기 중에 하는 온라인 멘토링(학습 관련)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짐. 농어촌 작은 학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면 등교 하므로 대면으로 멘토링이 이루어졌으면 함. ○ 다문화학생들은 주말과 방학 때 가정에서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으므로 주중이 아닌 주말, 방학을 이용하여 1:1학습, 정서지원상담 등이 이루어졌으면 함. ○ 대학생 멘토링에 참가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감수성교육이 꼭 필요함.

대상	의견
	○ 대학생 멘토링 사업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한 점이 있음. 대학생들 중에는 성실히 참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예고도 없이 군대에 가거나 더 높은 시급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찾으면 쉽게 관두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참여할 선생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대학생 멘토링의 경우 선생님들의 수준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을 위한 ppt와 학습지 등의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여 최소한의 표준화된 교육 수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학습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습적인 것뿐만이 아닌 단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한문 학습과 정서적인 멘토링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교과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뜻을 유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한문과 교과 단어를 연계하여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외국인 대학생까지 멘토 범위를 확장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수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수업전체 녹화 및 수업 관련 내용 탑재(멘토링업무교사의 모니터링을 위해) - 학생이 참여한 수업과 과제 등에 대한 정기적 피드백 탑재. - 수업관련 내용을 탑재하여 예습, 복습을 가능하게 함. ○ 교사의 온라인 수업을 동시 통번역 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 온라인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위해 기자재 보급(대여)을 통해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의 경우 컴퓨터, 태블릿 등을 가정에 구비하지 못하여 학교에서 기기를 대여해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온라인 학습의 경우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전용 태블릿PC와 통신요금 지원이 필요함. 저소득층의 경우 교육청에서 태블릿PC를 대여해 주고 통신비도 지원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스마트폰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학습 집중력이 떨어짐.

3) 부모역량강화

(1) 입학 전 부모교육 강화방안

부모역량강화 중 입학 전 부모교육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징검다리교육프로그램의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모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을 전년도에 제안했었

는데,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은, 첫째, 필요하기는 하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부모들의 참여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둘째, 교육의 방식과 관련하여 오프라인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교육을 보호자가 한국어와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에 맞는 교육방식과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셋째, 교육의 내용은 단순 정보제공이 아닌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이 되어야 하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 한국의 교육시스템 등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부모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이중언어강사가 함께 교육을 하며 통역을 하는 등 편안한 상황이 되었을 때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부모코칭기법을 활용하여 아동대상놀이와 청소년기 대화법 등을 실습을 통해 익히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넷째, 입학하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추진하지만 학부모교육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반대로 다문화가족센터의 강사들은 학교생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문화가족센터가 학부모를 모으고, 관리하고, 시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지원단이 교사가 학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입학 전 부모교육의 경우 업무분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앞의 방식대로 업무를 분장할 수도 있고, 학교정보에 대한 내용은 교사가, 문화적 차이로 한국의 학교생활이나 기념일, 소풍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 등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다문화가족센터가 담당을 할 수도 있는 등 지역여건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IX-8. 입학 전 부모교육 강화방안

대상	의견
현장 전문가	○ 단순 정보제공 및 일상적인 교육이 아닌 실효성이 있는 부모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함. ○ 학교입학자녀의 부모대상 사전교육(필수), 해당국가 통번역지원 및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가 경험을 공유하는 방안 ○ 징검다리 교육에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의무화를 위한 사전 준비가 중요함. ○ 징검다리교육프로그램 부모교육의무화를 위한 영상자료 마련 필요. ○ 징검다리 교육을 2가지로 나눠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보호자가 한국어와 한국사회 문화이해가 되어있는 경우 - 보호자가 한국어와 한국사회 문화이해를 아직 하지 못한 경우 ○ 부모 대상 교육이 단순히 몇 시간만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아닌 자녀의 성장을 위한 부모의 동기가 부여되도록 다양한 카테고리리가 필요함. ○ 징검다리 교육 이후 자녀가 학교생활 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개발도 필요 ○ 부모교육 수료시 쿠폰을 발행하여 아동의 문화활동, 학습지원활동 참여시 활용하도록 함 ○ 부모교육은 코칭기법을 활용하여 반드시 실습하고 피드백을 받도록 함(아동대상 놀이와 대화법, 청소년기 대화법) ○ 한국에서 학교생활을 하지 않은 이주민 학부모에게 한국의 학교 교육시스템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 교육부의 징검다리 프로그램은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수가 전국적으로 매우 적으며 (초 35개교, 중 17개교) 현장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음. ○ 징검다리 프로그램과 연계시키기보다 이주민 학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부모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함. 강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과정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방법
장학사	○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멘토링 제도를 활용하여 먼저 이주한 주민을 멘토로, 나중에 이주한 주민을 멘티로 하여 소규모 집단 구성을 통해 다양한 적응을 지원함 ○ 실효성이 있는 정책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안내가 있어야 할 것임. 취지는 좋지만, 의무화는 실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여겨짐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입원 전, 초등학교 입학 전, 중학교 입학 전, 고등학교 입학 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기 위한 자료개발 및 운영 필요 ○ 징검다리교육 프로그램에 학부모가 참여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나, 학부모교육을 의무화 할 수 있는 근거 미비 ○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교육 이수

대상	의견
학교 교사	○ 초 중 취학 전 예비학부모 대상 취학설명회 개최 (지역교육청 및 다가센터 공동 추진, 대상 다문화 학부모 수에 따라 지역별 또는 언어별로 실시, 매년 1월~2월 중)
	○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입국심사 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공교육 시스템 홍보를 강력하게 요청함. 또한 취업 시 취업 조건으로 부모교육 증명서를 요청함. 또한 기업에서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부모 교육 또는 상담을 위해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함. ○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국적 학생에게 취학 독려 안내문(국문 및 외국어 번역문)을 발송함. ○ 입국시 취업 전 의무적으로 지역다문화센터에서 부모교육을 받고 교육확인증을 발급했으면 함 ○ 징검다리교육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도하지만, 학부모교육은 지역다문화 센터에서 담당해서 교육해야 함. ○ 부모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교육을 의무화할 경우 부모님의 한국어능력, 시간의 제한점 등을 고려할 때 온라인 연수프로그램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됨. ○ 징검다리부모교육프로그램,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을 원하는 다문화학부모가 많은데 다문화청소년 학부모가 경제활동을 이유로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지역의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평일저녁, 주말 등에 교육활동을 진행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학부모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의 경우 학교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학교 교육,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거의 없음. ○ 다문화교육중앙지원단, 지역다문화교육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커리큘럼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강사로 활동하게 하는 방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학부모들을 모으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다문화교육지원단은 교육을 진행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학부모대상 징검다리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데 통역을 위한 다문화언어강사와 함께 할 경우에는 오프라인이 보다 효과적임. ○ 학부모들은 교육을 받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본인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강사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을 때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함. ○ 부모님들의 경우 학생보다도 한국어가 잘 안되어 부모 상담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징검다리 교육프로그램에서 학부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 있음. ○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성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 학부모 교육시 지역 커뮤니티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안 필요함. ○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위해서는 부모의 모국어 사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국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 경제활동을 위해 외국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도

대상	의견
	중요하나 이들의 모국어 사용 제한은 곧 자녀의 언어자극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 또는 조부모도 교육에 함께 참여하여 외국인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 권장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 ○ 교육청별 지역에 맞는 진학자료 및 학교급별 적응에 관련된 내용의 자료 개발 필요

(2) 부모교육 운영방안

다음으로 입학 전 부모교육이 아닌 전반적인 부모교육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이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의 중요성을 제시한 의견이 많다. 즉, 내용적으로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내용들을 대상자의 연령이나 정착기간 등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제공될 경우 부모들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결국 참여 동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필요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전반적으로 학령기 주요활동을 안내한 뒤, 학교에서 매 신학기 학부모교육 또는 필요시 수시상담 등을 통하여 학생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둘째는 부모교육이 부모들에게 잘 전달되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언어별 번역과 다국어 가이드북을 발간 및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별코칭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국제결혼가정부모인지 해외출생자녀의 부모인지, 입양자녀 부모인지에 따라 제공되는 내용이 달라야 하고, 입국초기, 중기, 정착기 등 입국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야 하며, 학령기 내 입국년차에 따른 부모를 분류해야 한다. 그리고 상시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을 상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각국 언어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매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로는 부모교육 역시 온라인교육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학부모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부모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진로, 진학, 학교 생활, 원격수업지도방법, 성교육 등 다양한 주제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유튜브 채널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로 부모교육의 지역사회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실행주체가 어떤 기관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부모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지역 내 기관이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시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 교육지원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센터 등 모든 유관기관이 협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떤 기관이 주체를 하던 지역사회 내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업무분장이 중요한 만큼 부모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추진을 하되, 상호간의 협력을 위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기본적인 태도로 하고, 지나치게 자신들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지역 내 부모교육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앞의 데이터 분석에서도 부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업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도출된 바 있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건강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 IX-9.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대상	의견
현장 전문가	○ 생애주기별로는 부모의 연령대 차이가 상이하므로 학령기내 입국년차에 따른 부와 모를 분류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효과적임. ○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경우 언어별로 번역이 필요하고, 센터 내 부모교육과 연계함. 중학생은 진학상담 고등학생은 진로상담 등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과정의 개발 및 보급은 다양하게 이뤄졌으나 현장의 어려움은 부모교육의 수요가 많지 않고, 대상자 모집이 어렵고, 대상자의 연령, 자녀의 연령, 정착 기간 등이 마구 섞인 대상자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대상	의견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대상자들의 만족도와 현장 적용정도가 낮아지고, 다시 부모교육 수요가 낮아지는 악순환임. ○ 매뉴얼의 개발보다 개별 코칭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한 두 번의 강의를 듣고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또한 충분한 통역과정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 가이드북으로 발간 및 배포 필요. ○ 유형별 부모교육 과정 개발이 필요하고, 유형별 부모교육 진행을 위한 교육매뉴얼 및 전문가 양성 필요 - 다문화가족의 자녀 부모대상: 한국의 학교제도, 학교생활, 교육 시 부모역할 중심 - 해외출생 자녀 부모대상: 공교육 진입 전 필요서류, 체류자격의 변경, 한국의 입시제도 등 중심 - 입양 자녀 부모대상: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수용, 자녀 양육자로서의 책임감 등 ○ 입국초기, 중기, 정착기에 따라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 안산지역의 경우 이주부모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사업임. 학교생활, 운영, 교육과정 용어가 어려워 이야기체의 설명자료 필요함. 반드시 각 나라별 이주민의 감수를 받아야 함. ○ 상시로 질문하고 답하는 플랫폼을 열고 각국 언어로 답할 수 있는 지식도우미 선정 및 활용 ○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에 치여서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그래서 찾아가는 부모교육의 프로그램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부모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제한을 두기보다는 가급적 지역 내 접근성이 용이한 기관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지역 내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등 ○ 실제로 가정에서 자녀와 실행할 수 있는 정도의 부모 역할 연습 과정(액션 플랜 제공)과 양육효능감을 느끼며 변화가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정기적 격려와 지지를 점검하는 컨설팅까지 진행되어야 효과적임(부모 역할의 일상화가 가능하도록) ○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여건상 낮 시간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다문화센터에 주말에 학교와 연계하면 실효성이 높음. ○ 유치원 및 초등학교 다문화 학부모 대상 알림장 번역 서비스 실시
장학사	○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다문화 학부모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진로진학, 학교생활, 원격수업, 성교육 등)주제 별로 진행 ○ 연수내용을 번역한 번역본을 제공하여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미취학, 취학 전으로 구분하는 것 보다는 미취학,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입원으로 구분 ○ 부모교육은 시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 교육지원청, 다문화

대상	의견
	가족지원센터, 주민센터 등 모든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함.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시군의 학교 다문화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곳에 학부모교육 주체로서 책임감을 부여한다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예비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교육 재료 개발 보급(외국어 번역 제공)
학교 교사	○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과정을 개발하되, 해당 주기의 내용만을 안내하기보다는, 학령기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안내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전반적으로 학령기 주요 활동을 안내한 뒤, 학교에서는 매 신학기 학부모 교육 또는 필요시 수시 상담 등을 통하여 학생 교육을 함께 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의 부모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듯. ○ 단계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프로그램에 들어 갈 내용을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면 함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도 의무화해야 함(지역다문화센터에서 담당) ○ 교육과정을 개발 및 보급함과 함께 부모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고 성숙한 부모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더욱 중요할 것임. 학교와 적극 협력하여 교육과정에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의 고민이 필요해 보임. ○ 생애주기에 맞춘 진학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부터 앞으로 적용될 고교학점제까지 쉽게 설명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모형 개발이 필요함. 교육청 단위로 매년 진학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내하는 방안 ○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이 아동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문화적응을 돕는 다양한 활동, 자조모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아카데미를 지역 밀착형으로 운영

(3) 부모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방안

다음으로 부모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문화여성대학 출신 결혼이주자를 지역 리더로 키우는 과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각각 있었는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주자가 롤모델 또는 멘토가 되어서 교육을 하는 경우 다른 이주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었고, 실제 이주자가 주도하는 모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언어뿐 아니라 정서교류 및 문화적 공감대 형성 등의 부가적 효과로 인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수한 결혼이주자를 부모교육 뿐 아니라 상담통역 전문인력, 학교 현장 내 학습보조인력 등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비하여 부정적 의견은 다문화여성대학 출신의 결혼이주자의 역량에 대한 의문, 참여자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효과성의 문제, 강사로 활동할 경우 소득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가능할 것인지의 문제, 나중에 고용상태의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센터에 다문화학부모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취학안내 및 학교교육과정 안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IX-10. 부모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방안

대상	의견
현장 전문가	○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을 수료한 이들 가운데 부모교육 강사가 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함.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및 강사 활동과 관련된 지원 제공 역할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더 적합해 보임
장학사	○ 다문화여성대학 출신 결혼이주자를 집단 리더로 활용하여 경험이 없는 결혼이주자를 교육시키는 방안은 좋은 정책으로 보임.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자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강사로 양성된 선 결혼이주자들의 역할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다문화여성대학 참여자를 교육 강사뿐만 아니라 상담통역 전문인력, 학교 현장 내 학습 보조 인력 등의 다양한 역할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면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문화여성대학의 교육과정에 한국의 교육시스템과 부모로서의 교육태도 등을 포함시켜 교육하고 이들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학부모교육 강사로 적극 활용하면, 자녀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됨. ○ 한국어강사 및 다문화언어강사처럼 초단기근로자(주당14시간이하근무)로 고용할 경우, 고용안정문제 제기 가능성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다가센터에 다문화학부모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취학 안내 및 학교 교육과정 안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적임.

대상	의견
학교 교사	○ 본인과 동일한 입장을 가진 강사 또는 멘토의 성공과 실패사례는 교육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됨.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부모교육 강사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에 공감함 ○ 본교에서는 해당 사례와 유사한 '다문화 이주자 참여 외국어 교육' 사업을 진행함. 이 사업은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 생활하는 이주자 가운데 한 명을 선발하여 학생들에게 그 모국어를 가르치도록 하는 사업임. 이들은 언어를 비롯하여 정서, 문화적으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수혜 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 다문화여성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해당 지역 학부모를 선발하여 부모교육 강사 양성과정에 참여시켜 해당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도록 추진할 필요 있음. 다만 모든 활동에는 유인책이 필요하므로, 마을 단위로 중심 역할 학부모를 선발하고, 선발 인원이 활동을 적극 참여 할 경우 인센티브 차원으로 마을 시설 개선 및 공동 작업장 등의 건축 지원, 농업용 시설 및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대출 금리 우대 등 확실한 혜택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민결혼자, 외국인가정 모두 국내에서 잘 정착하고 그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는 롤모델, 멘토가 있다면 한국생활 적응에 따르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단순한 지도사를 넘어 전문인력(방과후지도사, 상담사, 청소년활동지도사) 양성으로 확대되어 교육현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필요 있음. ○ 다문화여성대학 참여자 대상 부모교육 강사 양성 과정이 성공하려면 양성된 강사의 소득이 있는 활동이 보장되어야 함. ○ 다문화여성대학의 졸업자들을 부모교육 전문 강사로 양성하여 온라인 교육도 진행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이 필요함. 인근 거주 지역 내에서 활동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국가에서 온 경우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현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여성대학 출신 결혼이주자를 강사로 양성하는 제도가 실질적인 학교 현장에서 체감될지는 매우 의심스러움. 다문화여성대학을 참여할 다문화 부모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하는 생각이 듭.

4) 지역 다문화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 및 강화

(1)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인력양성방안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는

데, 다문화청소년들에게 농업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 농업의 긍정적 측면과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선진 농업기술 등을 진로교육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 때 다문화청소년을 농촌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 아닌 농촌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으로 부모나라 농작물 이해, 출신지역의 농업대학이나 특성화고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외국의 스마트 팜이나 선진농업기술에 대한 교류, 드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농업, 온라인 농작물 판매, IT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농장, 메타버스를 활용한 농업기술 교육방안, 농업작물 가공 및 농업기반 스타트업 등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 농업관련 진로교육을 추진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농업관련 진로교육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 전문가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전문가들이 함께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표 IX-11.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인력양성방안

대상	의견
현장 전문가	○ 요즘 한국사회 내 청년들도 귀촌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와 방식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음. 농촌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로 프로그램 개발이 농촌지역 단위에서 매우 중요함. ○ 농촌지역에 정주하도록 하기 위한 메리트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하므로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성과 강점,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기본 설계가 되어있어야 하고 이를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안이 만들어져야함. ○ 단순 이론교육이 아니라 실습과 현장학습, 현장에서의 일정기간 체험 등의 기획이 중요, 중학교 연령대부터 이러한 진로교육 및 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 부모나라 농업작물 관련 내용 추가 되면 좋을 듯 ○ 출신지역 농업대학, 특성화고 진학 시 장학금제도 마련 ○ 해외 원격교육과 연계하여 외국의 스마트팜 및 선진화된 농업기술 교류 ○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제도가 필요함. 인센티브나 농촌지역 진로프로그램 참여시 장학금을 제공하는 식의 방안이 필요함.

대상	의견
	○ 현재 농촌지역에서 지역 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인재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농업인재양성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다문화청소년을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언어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 ○ 기존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 프로그램을 농촌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확대하고 여기에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도 포함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함 ○ 농업인재양성프로그램에 다문화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것임 ○ 농촌의 장점을 기반으로 진로상담이나 검사를 통해 직접 그 분야를 체험하여 진로선택에 도움. ○ 취업 또는 진학을 한 다문화자녀가 경험을 공유하고 다문화자녀 부모들에게도 경험에 따라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주는 방안 ○ 진로코칭 및 체험 등 다른 곳에서는 없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중점적으로 강화하여 지원해야 할 사업 개발이 필요함. ○ 도시형과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면 좋을 듯 ○ 도시지역 다문화청소년 및 비(非)다문화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활동 “찾아가는 특산물 축제” 지역문화 소개 및 교류 프로그램(다문화청소년은 도시거주든 농촌거주든 문화적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음. 통합적 문화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경험에 자주 노출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인재양성프로그램이나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과 구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선 조사된 후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기존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사와 지역 및 인구의 특성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적극 동의하는 바임
장학사	○ 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로 상담 프로그램 개발은 현장과의 연결이 중요해보임. 지역 꿈의 대학, 교육과정 클러스터와 같은 체제 안에 해당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도 한 방안 ○ ‘농업인재 양성 프로그램’ 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농업 분야의 취업 및 창업 역량 교육, 지역 대학과 연계한 농업인재 육성과정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면 좋을 것 같음. 농업 정책에 대해 듣고, 다양한 농업 전문기관에 대한 박람회,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박람회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진농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진로 지원 등도 제시할 필요 있음 ○ 농촌진흥청,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상	의견
	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인력양성프로그램에 공감하지만, 다문화학생만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낙인효과 또는 특혜, 비(非)다문화학생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합적 지원방안이 필요함. ○ 농촌지역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특화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요구분석이라고 보임. 학령기를 지나 이미 사회로 진출(특히 농촌지역 사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사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 지에 대해 역으로 조사해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농업인 이외에 지역사회기반 다양한 진로교육 필요 ○ 다문화학생과 비(非)다문화 학생을 구분 없이 농촌지역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 교사	○ 수요자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함. 예를 들어 ‘메타버스를 활용한 농업기술’,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장 운영’ 등과 같이 미래산업사회에 적용 발전시킬 대안이 적용되어야 수요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업인재 양성 진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자신의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이와 함께 농업기술원, 농업대학 등의 협력을 받아 해당 지역의 농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부모, 학생, 지역기관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보다 유능한 농업인재 양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찾아가는’ 형태의 다양한 체험 버스, 안정적인 강사로 지원 등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기관을 통한 교육 형태를 고려할 수 있겠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직업으로서 전문농업인력 양성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됨.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수준의 현장중심 교육시스템이 마련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가공, 농업기반 스타트업을 병행하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꼭 필요한 인재양성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생각됨. ○ 농업지도사로서 부모님의 모국과의 인적교류와 또는, 학생교류 사업 등을 연계한다면 이 학생들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됨.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상급학교 진학을 했을 경우 더 많은 기회가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농어촌 특별 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농업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차별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됨.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되 그 속에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하여 함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상	의견
	○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드론 활용, 스마트 팜, 온라인 농산물 매매 등)으로 MZ 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농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언어로 인한 학업곤란도가 매우 높고 부모의 학습 열의도가 낮기 때문에 학업보다는 그들의 특기(운동, 미술, 목공 등)를 계발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듯함. ○ 지역밀착형 특화사업에 대한 기대가 큼. 장기적 계획과 단기 계획이 잘 설계되어 운영되고 상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많아지길 기원함. ○ 학업, 직업 등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해 주면 좋겠음. ○ 농어촌지역은 소규모학교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당 각 학교만의 특성을 만들어 가면 좋을듯함. 예를 들어 a중학교는 원예중점학교, b중학교는 탁구중점학교 등등

(2) 농촌형 다재다능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음으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녀성장사업 중 하나인 다재다능프로그램의 농촌형을 개발 및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전년도에 현재의 다재다능사업을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면 이를 위하여 농어촌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연구를 먼저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후 전국보급을 하는 단계를 제안한 바 있다(양계민 외, 2020: 540). 이에 대하여 현장의 전문가들은 농촌형 다재다능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현재 다재다능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발전 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이유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재다능 사업이 충실히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전년도에 제안한 사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동의를 표시하였다.

둘째로는 만일 농촌형 다재다능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농어촌 지역특성에 맞는 진로교육프로그램으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농업기술을 교육하거나 부모가 농업인인 경우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는 농사체험,

부모나라 농산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험, 농업관련 기계수리 등을 체험하는 방향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농어촌 지역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진로체험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의 의견도 있었다.

셋째로는 진로진학 코칭과 함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는 기본운영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의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넷째로, 사실상 기초학습지원이나 진로지도의 필요성은 다문화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농촌지역이나 기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청소년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문화프로그램으로 풀기 보다는 지역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타당한 의견으로 다문화 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선별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청소년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해도, 농산어촌 지역에 다문화청소년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문화청소년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획일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련된 부분으로, 내용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IX-12. 농촌형 다재다능 프로그램 운영방안

대상	의견
현장 전문가	○ 현 다재다능 사업은 도시형으로 농촌형 다재다능사업이 필요함 ○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기반으로 청년형 농업기술을 교육하거나 부모가 농업인인 경우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지어 지역 농산물판매장에 판매하는 농사체험과 수확, 판매까지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부모나라의 농산물 재배하여 판매하

대상	의견
	는 경험, 농업관련 농기계수리 등 기술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진학과 진로에 대한 코칭 등 농촌형 다재다능 프로그램 개발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농어촌의 경우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사업비를 여가부에서 지원할 필요 있음. 현재는 기본 운영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되어있어 예산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움 ○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다재다능 프로그램은 너무 알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 농촌형 다재다능 프로그램으로 확대는 의미가 없을 듯 ○ 농어촌 지역 인재양성프로젝트 방식으로 농어촌 지역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모델개발하면 좋을 듯. ○ 농어촌 지역이라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진행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각자의 청소년들이 가진 끼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프로그램으로 가져가면 좋을 듯함. ○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재다능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연령, 프로그램의 내용 등이 매우 다양함.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기초 학력 지원이나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임 ○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농촌형 모델로 개발하고자 한다면, 우선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따라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함. ○ 농촌지역이라고 해도 지역마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그 지역 내 다문화 청소년의 구성도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획일화된 프로그램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학교 교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재다능프로그램을 진행하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농촌 특화형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지역사회 내 다문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가 투입해야 함. ○ 다재다능 프로그램의 종류가 지역별 편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양한 영역의 인력풀을 확보하여 수학, 과학, 예체능 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지원이 가능해야 하겠음. ○ 농어촌지역뿐 만 아니라 도시 슬럼가(?) 구도심과 같은 낙후지역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다문화 뿐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낙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외국국적 청소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교육과정,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말과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농촌 다문화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농촌지역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첫째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고, 농촌지역의 4H 회원이나 영농후계자 등 다양한 체험교육도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성과와 실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이 현장전문가와 장학사 집단에서 모두 제시되었다. 이는 그 간 많은 연계사업들을 경험하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현실반영으로 각 기관이 연계를 함으로써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반드시 실행주체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둘째로, 지역의 관련 기관들이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협력체계도 중요하나, 이것이 시도, 시군, 학교,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연계협력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 모두 사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연계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한 예로 청소년관련 기관과 학교가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한국어가 가능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방과후에 기초학습능력을 위한 교육을 받고,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등 지역 내 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셋째, 이렇게 지역 내에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학교에서 청소년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동의서에 학교 또는 다문화가족센터와 정보를 공유한다는 란을 만들어서 동의를 하는 경우는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경우 다문화학생이라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외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만큼, 다문화학생을 위한 지원방안보다는 일반적인 청소년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 프로그램에 다문화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X-13. 농촌 다문화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대상	의견
현장 전문가	○ 4H회원, 영농후계자 등 청년농업인들과 연계한 체험 교육 ○ 네트워크라는 것은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과정 상 얻게 되는 공유가치와 공통의 실적이 보장될 때 가능함.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반드시 실행 주체가 있어야만 명확한 성과를 가져갈 수 있고 실행 주체는 이를 위한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함. 따라서 아무리 지역사회 내 많은 자원이 있더라도 이러한 것을 협력·연계할 능력이 있는 실행 주체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함. ○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해 다문화 청소년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함. 그러나 언급된 기관들이 현재 (다문화 여부와 무관하게) 청소년 지원을 위해 연계, 협력하고 있는지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만약 안 되고 있다면, 연계 협력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안이 우선 제시되어야 할 것임
장학사	○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원체제(추진기관들의 현황)에 대해 당사자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활용가능한 지식이 있는가에 대한 것임. 따라서 각 기관들이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는 것만큼이나 학교 현장과 당사자들과 친밀하게 맞닿아져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교사, 특히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이 체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수반해야 함. ○ 정책추진체계가 각 부서별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계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의 성장과 발전은 학교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서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민간기관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하며 이 부분이 시도, 시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시도는 교육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시군은 각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전체 다문화청소년 정책이 학생들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 ○ 지자체가 지역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사업 총괄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 총괄업무를 수행해야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데 효과적임. ○ 주요 청소년 관련 기관 주요 업무는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업무가 많은데 이것을 폐기하지 말고 서로가 협력을 통해 비슷한 사업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한국어가 가능한 중도입국 학생 A의 수업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방과후 기초학력 수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서비스, 청소년 수련관의 독서프로그램, 여성농업인센터 방과후 공부방, 도서관의 독서지도 프로그램 담당자가 서로 협의를 통해 A학생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적용한다면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데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학교 교사	○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 생활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더불어 수많은 지원 체계 속 해당 학생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계, 유도해야 함.

대상	의견
	○ 농촌지역의 경우 꼭 '다문화'학생이라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외가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음. '다문화'학생이기에 너무 다양한 지원을 이쪽저쪽에서 중복해서 받으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민원을 받을 수 있음. 다문화 학생과 비(非)다문화 학생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사업이 기획되어야 함. ○ 중소도시 낙후된 지역 학생들도 꼭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람. ○ 다문화청소년의 정보를 학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또는 학교 프로그램에 참가 시 각종 동의서를 작성할 때 학교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정보를 공유한다는 란을 만들어 동의할 경우 학교에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등 ○ 교사 중 한국어교육가능자에게 승진가산점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농어촌 지역의 지원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소결

본 장은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중 학업관련 변인과 관련된 기초학습능력제고 방안과 학부모역량강화방안,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총 28명의 현장전문가 및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IX-14.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요약

	과제	주요 의견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대상특성별 체계적 운영	■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는 매우 필요함 ■ 지역 내 연계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고 전반적 과정을 함께 추진할 필요 있음. ■ 학교 안에서는 한국어학급을 통한 한국어 학습, 방과후나 주말에는 다문화가족센터 등 지역 기관에서 보충학습 추진 등 상호 연계 ■ 독서지도 프로그램의 다양화 ■ 찾아가는 독서지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제	주요 의견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입학 전, 입학 후, 학교밖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이 필요함 ■ 집단한국어수업과 1:1 멘토링 방식 등 운영방식의 다양화 ■ 한국어강사의 질적 수준 관리 ■ 운영자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교육제공 필요 ■ 시도교육청의 관리 하에 지역과 정보공유 ■ 대상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 및 제공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의 지원기간 확대 필요 ■ 이중언어 가능강사 활용 확대 ■ 온라인 찾아가는 한국어교육프로그램 개발 ■ 방학 중 집중교육프로그램 필요
기초학습 능력제고	입학 전 기초학습능력 준 비 프로그램	■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은 초등 1학년의 과정으로 선행학습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읽기, 쓰기, 셈하기보다는 언어소통능력, 동화책 및 놀이를 통한 교육, 부모코칭과 하는 연령별 언어발달교육 등으로 추진되어야 함.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해당 연령 대상자는 모두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 ■ 학교차원에서는 매우 필요함
	배움지도사 활용	■ 방문지도사 활용방안 모색 ■ 퇴직교원 및 교원자격증소지자 활용방안 ■ 온라인 실시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멘토링사업 운영	■ 대학생 멘토 대상 사전교육 및 질관리 필요 ■ 온라인 멘토링 실시(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병행 필요) ■ 온라인 수업의 녹화, 수업자료 탑재, 질문과 응답 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전화한국어 멘토링 운영방안 ■ 외국출신 멘토 활용방안 ■ 온라인 기기 지원 필요
부모역량 강화	입학전 부모교육 강화	■ 적극적 참여를 위한 교육내용의 질적 제고 및 운영방법의 다각화 필요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단순정보제공이 아닌 실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 교육청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분장을 통한 연계협력 필요

	과제	주요 의견
지역다문화 청소년지원 정책 시스템 구축 및 강화	부모교육 운영	■ 교육의 질적 제고 필요 ■ 교육내용의 언어별 번역, 다국어 가이드북 등 제공 및 개별 코칭방식으로 운영 ■ 대상자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필요 ■ 온라인 부모교육 운영 ■ 다문화학부모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실질적 교육 ■ 교육청과 지역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 ■ 이주자 부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다루어주는 심리적응 프로그램 필요
	부모주도성 및 역량강화	■ 이주자가 모델이 된다는 점, 다문화학부모들에게 만족도가 높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임 ■ 부모를 강사로 양성하기 보다는 다문화학부모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취학안내 및 학교교육과정안내 등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이주자의 역량에 대한 의문과 참여자 수의 제한, 고용관련 문제 등으로 인한 염려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인력양성	■ 전반적으로 긍정적임 ■ 농업의 긍정적 측면과 발전적 측면을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방식의 진로교육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업 자체보다는 미래 지향적 농업관련 진로 전반에 대하여 청소년 전문가와 농촌전문가가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 있음.
	농촌형 다재다능 프로그램	■ 농촌형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논하기에 앞서 현재의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먼저 정비할 필요 ■ 농어촌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프로그램의 방식으로 다재다능을 추진할 수 있음. ■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시킬 필요 ■ 다문화청소년 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농촌지역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나치게 획일화된 프로그램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촌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비가 있어야 함 ■ 사전연구 추진 및 시범사업 단계 필요
	농촌 다문화청소 년 지원시스템	■ 농촌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 가능 ■ 실질적 연계를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기관별 성과, 실행

	과제	주요 의견
	구축 및 운영	주체 등이 있어야 함. ■ 사업별 연계방식의 구체화 필요 ■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 정보의 공유 ■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아닌 농촌지역 청소년 모두를 위한 사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각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선 첫째로, 현장전문가나 학교교사 장학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대부분 지역 내에서 학교와 지역기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장학사나 학교교사들이 지역연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다문화 청소년 전문기관의 역할이 지역 내에서 매우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도 지역중심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연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지역 다문화청소년센터나 장학사, 학교교사 등 해당 분야의 경험을 근거로 다양한 운영사례와 방안들을 제시하였고, 많은 부분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모든 사업의 단계적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과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본 조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온라인 교육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이 일반화된 상황은 온라인 교육이 지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넘어서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읍면지역 등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적용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넷째, 농촌지역의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소멸시대에 농촌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전통적 농업이 아닌 미래

지향적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실질적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 역시 현실적인 진로교육방안으로 구성 및 추진할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모든 사업에서 대상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어교육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따라 참여가 시작되기보다 다문화청소년이 필요한 시기에 추진되어야 하고, 부모교육의 경우는 부모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기초학습능력 제고나 한국어교육 등이 청소년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등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현실적으로 추진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여섯째, 농어촌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의 경우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청소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의 경우 교육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에 다문화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경우도 취약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청소년들 중 다수는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청소년 일반집단과 구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프로그램 보다는 일반적인 청소년프로그램 내에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제X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 심층분석 주요 결과
- 2. 정책제언



결론 및 정책제언*

1. 심층분석 주요 결과

본 연구에서 추진한 심층분석의 주요 결과들과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주요 결과	■ 대도시 중심의 인구집중과 지역인구감소의 현상이 다문화가정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유출의 심화현상이 다문화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인구유출의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의 수 감소, 학업성취도의 저하 등 교육환경의 열악함에 영향을 미치고, 의료여건과 각종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도시에 비하여 취약함을 지니게 되며, 이는 다시 인구유출을 유발하게 되며, 지역을 더욱 취약한 환경으로 만들게 되어 결국 지방소멸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임 ■ 지역의 인구유출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읍면지역에 다문화청소년들의 거주 비율이 높고, 특히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성장환경 중 지역격차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 ■ 공단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학습부진이 발견되고, 도농 간 영어교과의 성취수준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종 인프라의 부족과 문화격차가 존재하며 정보격차와 복지서비스에서도 지역격차가 있음
시사점	↓ ■ 지역별 격차는 다문화청소년들을 포함한 청소년 성장기회의 격차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성장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이 필요함.

* X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설문조사

주요 결과	■ 고교졸업 후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등학교 시기의 희망교육, 학습 활동 등 직접적인 요인과 고등학교 2-3학년 시기의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가구소득, 사회적 위축 등이 산출되었고, 초등학교 재학시기의 가족의 지지와 수업태도, 주관적 성적수준 등도 대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출됨. ■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업과 관련된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지역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함. ■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업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 이중문화경험,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지지, 청소년활동과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도 등 심리적응 수준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부모의 양육태도(감독과 방임), 사회적지지, 청소년활동 경험은 모든 학교생활적응에서 학업관련 변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초4패널의 학업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으로 부모의 자아존중감, 부모의 한국어수준,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모의 학력, 가정의 월평균 소득, 자녀와의 의사소통, 자녀의 모국어 능력, 사교육비, 부모효능감, 부모의 자녀에 대한 희망교육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비의 경우 교과목 사교육비는 성적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특기적성 사교육비는 성적과 학교생활 적응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정책의 지원경험 중 이중언어교육은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기적성교육지원은 학교생활적응과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체험활동 지원은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외에는 크게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서 지역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함. ■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초등학교 시기의 변인들이 도출되었다는 점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성장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업관련 변인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며, 학업관련 변인은 학습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의 자아존중감, 부모의 한국어능력, 부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녀가 받는 사회적지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청소년활동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고 특히 부모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함.

면접조사

주요 결과	■ 지역적 차이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학습지원의 욕구가 강함. ■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도는 증가하는데, 실제 지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각종 서비스 지원경험과 교육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읍면지역이 취약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촌지역의 경우 교사의 대입지도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학원 등 교육지원기관이 부족하며, 대학생 멘토링의 경우 대학생이 접근하기 어렵고, 진로프로그램 등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의 콘텐츠도 도시 지역에 비하여 다양하지 못하고, 서비스의 방향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프로그램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있는 후기청소년의 경우 진로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있으나 진로교육과 관련된 정보나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임. ■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를 나타냄 ■ 학부모들의 경우 본인의 한국어실력 부족이 자녀교육에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시사점	■ 보다 효과적인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내실화 방안 모색 필요. ■ 학습에 대한 교과목 지도 이외에도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관리방식, 학습 진도에 대한 모니터링 등도 필요함. ■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나 학습관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필요. ■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NEET 청소년들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부모교육 내실화, 맞춤형 교육 필요. ■ 부모의 한국어, 문화적응스트레스 등 부모역량강화 방안도 필요함.

전문가 의견조사

주요 결과	■ 현장전문가나 학교교사 장학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대부분 지역 내에서 학교와 지역기관의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지역 다문화청소년센터나 장학사, 학교교사 등 해당 분야의 경험을 근거로 다양한 운영사례와 방안들을 제시하였고, 많은 부분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온라인 교육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함. ■ 농촌지역의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미래지향적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실질적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음. ■ 모든 사업에서 대상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함. ■ 농어촌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청소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함.



시사점	■ 지역중심의 연계방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사업의 단계적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과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게 됨. ■ 읍면지역 등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적용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농촌지역의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진로교육방안으로 구성 및 추진할 가치가 있음. ■ 대상자의 상황과 수준 등을 고려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가 추진되어야 함. ■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은 다문화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선별적 프로그램 보다는 일반적인 청소년프로그램 내에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2. 정책제언

1) 정책제언 도출 절차

본 연구에서 심층연구를 통한 정책제언의 도출 절차는 <그림 X-1>과 같다

	단계	절차	대상	내용
근거 자료 준비 단계	1단계	문헌연구	선행연구	■ 학술연구 논문 및 연구보고서 검토 ■ 기타 정부부처 자료 검토
	2단계	설문조사	패널조사자료	■ 1기 패널 분석 ■ 2기 패널 분석
	3단계	면접조사	1, 2기 패널참가자	■ 성장과정의 지원경험 ■ 환경 및 지원의 지역별 차이 ■ 정책적 요구도
	4단계	전문가 의견조사	학교교사, 장학사, 현장전문가	■ 영역별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의 지역 격차 해소방안
정책 제언 도출 단계	5단계	1차 정책제언(안) 도출		
	6단계	전문가 검토	학계, 현장전문가	■ 정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논의
	7단계	정책실무 협의회	여성가족부	■ 정책의 타당성 및 부처간 연계가능성 검토
	8단계	최종 정책제언 도출		

* 출처: 양계민 외 (2014: 388) 그림 IX-1 수정

그림 X-1. 본 연구의 정책제언 도출 절차

2) 심층분석 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심층분석 결과의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방법	시사점	정책적 함의
선행연구	지역별 격차는 다문화청소년들을 포함한 청소년 성장기회의 격차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성장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이 필요함.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설문조사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서 지역격차가 존재함. - 초등학교 시기부터 성장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업관련 번인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 -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학습능력 뿐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고 특히 부모역량강화가 필요함.	- 지역의 소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기초학습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요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며, 각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
면접조사	- 보다 효과적인 학습지원 방안 필요. - 학습에 대한 교과목 지도 이외에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관리방식, 학습 진도에 대한 모니터링 등도 필요함. -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나 학습관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NEET 청소년들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부모교육 내실화, 맞춤형 교육 필요. - 부모의 한국어, 문화적응스트레스 등 부모역량강화 방안도 필요함.	- 효과적인 학습지원 방안 모색 필요 - 학습관리방안 필요 - 읍면지역 교육인프라 부족에 대한 대안 필요 - 온라인프로그램 개발 필요 - 부모교육의 내실화, 부모의 한국어 등 역량개발을 위한 개입 필요
전문가 의견조사	-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협력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 필요. - 모든 사업의 단계적 체계적 구체적 운영방안 필요 -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방안을 모색 필요. - 농촌지역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진로교육으로 추진할 필요. -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로 추진되어야 함. -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은 모든 청소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중심의 연계와 협력 방안 구체화 작업 필요 - 현재의 사업들에 대한 내실화, 체계화, 구체화 방안 모색 필요 - 효과적인 온라인교육방안 모색 필요 - 농촌 특화형 청소년진로프로그램 개발 필요

3) 정책과제

본 연구는 원래 기초연구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정책연구에서 도출하는 수준의 구체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정책적 방향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므로, 심층분석의 주제를 중심으로 선행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학업관련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기초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본 심층분석에서는 학업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기본적인 요인인 한국어능력(국외출생자들의 경우), 기초학습능력, 부모역량 등 세 가지 요인과 더불어 지역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중심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방안까지 총 4개 영역에 대한 정책과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그 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이나 이주배경요인 등은 차년도에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제시한 정책들은 전년도에 제시한 것들을 기본틀로 하고 있으며, 전년도 제안한 과제들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구체화 및 현실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21년 심층분석의 결과 도출한 정책과제는 다음의 <표 X-1>과 같다. 각 영역별 과제들은 다음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의 방향성에서 도출되었다. 첫째는, 지역 내 지자체, 교육청, 학교, 다문화청소년지원기관, 도서관 등 모든 관련기관이 가능한 연계 및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하였다. 즉, 한국어교육, 기초학습역량강화, 부모역량강화 등의 각 사업에 대하여 지역 내에서 서로 연계 및 협력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고 내실 있는 성장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각 사업들이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의 연령, 한국어수준, 기초학력수준,

학습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셋째는 온라인교육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즉, 읍면지역 등 교육이나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온라인교육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과제별로 온라인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및 온라인 오프라인의 병행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중심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의 다문화청소년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도시지역 청소년들과의 성장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서 농촌형 사업모형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X-1. 정책제언의 영역별 과제

영역	과제
(1)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1)-1. 한국어교육의 대상특성별 체계적 운영
	(1)-2.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1)-3. 한국어교육의 지역연계 및 협력
(2) 기초학습역량 강화	(2)-1. 입학전 준비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
	(2)-2. 학습지원사업의 내실화
(3) 부모역량강화	(3)-1. 부모교육 내실화
	(3)-2. 이주민 전문인력 양성
(4) 지역중심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 추진 시스템구축 및 강화	(4)-1. 농촌형 다재다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2.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인재양성
	(4)-3. 지역 다문화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 및 강화

각 영역별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1)-1. 한국어교육의 대상특성별 체계적 운영

① 한국어교육의 단계별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영역별(생활한국어, 학습한국어, 한국어독해), 수준별(초급, 중급, 고급), 연령별(초등, 중등, 고등),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오프라인프로그램과 온라인을 동시 개발, 오프라인이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한국어교육을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관리
- 온라인프로그램의 경우 교육과정을 관리하는 담당자 배정
- 한국어능력 진단-보정시스템 강화: 입국 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한국어능력 평가-한국어교육수준 결정-한국어교육제공-중간평가-다음단계 진입 또는 해당단계 재교육-평가 및 다음 교육단계 결정 등의 방식 적용
- 강사: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 다문화청소년이해교육 이수자
-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부
- 단계별 교육 운영: 시도교육청

② 수준별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능력 중급 이상인 외국출생자나 국내출생자 중 독해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청소년독서지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단계별(초급, 중급, 고급), 연령별(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로 나누어 초급은 다문화청소년끼리, 중급 이상은 일반 청소년프로그램 통합
- 학교, 지역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복지관, 다문화가족센터, 등 지역 내 가능한 장소에서 운영
- 찾아가는 독서지도 프로그램 개발: 일정 인원이 모여 있는 경우 청소년 독서지도사가 학교 또는 지역사회 다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한국어능력별로 독서지도를 함.
- 지역 청소년시설이나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청소년전문기관 등이 추진
- 강사: 독서지도사, 다문화청소년이해교육 이수자

③ 한국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멘토가 되고, 지역의 교육청, 지역 다문화청소기관 등에서 모집을 하여 연결시켜줌.
- 멘토에 대한 사전교육 필수
- 오프라인, 온라인, 전화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 오프라인, 온라인은 학습언어나 독해력 향상을, 전화 멘토링은 한국어 말하기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운영
- 한국어 멘토링은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도록 함
- 지자체에서 관리 및 운영

(1)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1)-2.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체계화 및 확대
■ 현재 교육부 사업인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확대 : 전국 시도별 수요조사 및 예산 확보(교육부) ■ 한국어학급을 구성하기에 인원이 부족한 경우, 한국어강사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제공함. ■ 다음과 같은 단계적 운영 - 1단계: 시도 교육청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가진 한국어교육 강사단을 공고로 통해 모집 및 강사풀 마련 - 2단계: 학교에서 중도입학학생이나 외국인가정 자녀, 한국어가 서툰 국내출생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청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신청 - 3단계: 교육청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업무담당자가 개별 학교를 방문하여 신청한 학생의 한국어 능력 상태를 진단 후 주당 수업시수 결정(4시간~10시간) - 4단계: 교육청에서 한국어교육 신청학교에 강사 프로필을 안내, 학교에서 학생에게 맞는 강사를 선택,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 교육청과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센터 등이 정보공유를 통해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하고 교육제공을 협력함

(1)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1)-3. 한국어교육의 지역연계 및 협력
①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한국어교육 대상자 정보 공유 ■ 시도교육청, 지역의 다문화청소년관련 기관 간 외국인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모임 추진 ■ 매년 초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한국어교육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분장함 ■ 학교와 지역사회 다문화센터의 지도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결과 공유 ■ 교육부 한국어능력 진단-보정시스템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외 지역 다문화 센터 담당자에게 접근성 제공 ■ 학생의 한국어 학습진도와 결과 및 수준을 학교와 지역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관 간의 공유 ② 한국어교육 영역별 연계 협력 (시기별, 영역별 연계) ■ 학기 중: 학교 한국어학급: 학습한국어. 읽기, 쓰기, 독해, 교과서 중심 한국어 ■ 방학, 방과 후, 주말: 지역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센터: 보충, 생활한국어 ■ 학기 중 한국어학급은 교육청, 방학과 방과후, 주말 교육은 지역사회 담당 (대상자별 연계) ■ 국내출생자 중 입학 후 쓰기, 읽기, 셈하기가 안 되는 경우는 교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학교교육 이후 보충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발생할 경우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경우, 한국어학과 지역센터의 오프라인교육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교육이 가능한 경우로 구분하여
- 학교밖청소년의 한국어교육: 지역의 다문화청소년 관련기관에서 홍보, 발굴 및 교육
- 학교의 한국어학급에 들어갈 수 없는 시기에 입국한 경우 교육청에서 발굴하여 지역 다문화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거나 다문화청소년센터의 한국어교육과 연계

(2) 기초학습역량 강화

(2)-1. 입학전 준비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

① 입학 전 준비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

-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 전국 확대 및 강화
- 기본적 읽기, 쓰기, 셈하기, 언어소통능력, 동화책 및 놀이를 통한 교육
- 입학 후 학교생활에 대한 사전교육: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
- 부모코칭과 하는 연령별 언어발달교육 제공
-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해당 연령 대상자는 모두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
- 입학전 자녀를 둔 부모교육프로그램 포함.
- 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입학전 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추진

② 지역사회 내에서 징검다리교육프로그램과 연계

- 초등 입학 전 준비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단계로 징검다리교육을 포함시킴
- 즉, 입학 전 준비프로그램에 일정기간 학교생활을 준비하고, 읽기, 쓰기, 셈하기를 배우고 난 후, 학교에 입학하기 직전 청소년들이 입학하게 될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에 대한 친숙도를 높일 수 프로그램으로 연계함.
- 입학전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학교 징검다리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주체는 다문화가족센터, 연계 후 징검다리프로그램 운영은 학교가 담당함.

(2) 기초학습역량 강화

(2)-2. 학습지원 사업의 내실화

① 대학생멘토링 사업의 내실화

- 대학생 멘토 대상 사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멘토의 자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멘토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 학습코칭 등
- 학습 멘토링을 위한 운영매뉴얼 개발 및 보급
- 국외출생자 또는 한국어능력 초급자의 경우는 모국출신자 연계
- 모니터링 강화: 학교교사와 학부모 모니터링, 정기적(예, 1개월) 점검회의 실시
: 대학의 의무와 책임 강화: 대학생 멘토의 문제로 중단한 경우 장학금 환수조치, 대학교 모니터링 의무화, 사후 멘토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참여 결정

② 학습지원인력의 다양화

- 배움지도사: 현재는 위기의 한부모, 조손가정이 대상이나 다문화가정도 참여 가능하도록 대상자 확대
- 은퇴 및 퇴직한 교원을 학습지도인력으로 양성
- 고학력 결혼이민자나 유학생의 모국어 학습지원 인력으로 양성: 학력수준이 높은 결혼이민자나 유학생 등이 일정 기간 모국어로 학습을 지원
- 모든 학습지원인력에 대한 다문화청소년 이해교육 필수화

③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일차 오프라인으로 라포를 형성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온라인 수업의 녹화, 수업자료 탑재, 질문과 응답 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
- 학생의 한국어가 부족한 경우 학생의 모국출신 인력의 학습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함. 단, 6개월 이내에서 모국출신 인력
- 여기서 온라인 학습지원은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을 의미함.
- 온라인인 경우 반드시 1:1이 아니어도 소수 집단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함.

(3) 부모역량강화

(3)-1. 부모교육 내실화

①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 미취학, 취학전, 초등입학, 중학교입학, 고등학교 입학 등 발달주기별 주요 이슈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교육내용의 언어별 번역, 다국어 가이드북 개발
- 부모 개별코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한국의 학교생활, 자녀 학습지도, 자녀 생활지도, 입시정보 등을 단계별로 포함
- 대상자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필요. 즉, 단순정보제공이 아닌 실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과정 포함
- 다국어 알림장 제공: 학교차원에서 알림장을 다문화가족센터 등에 번역을 의뢰하여 학부모들에게 보내거나 SNS를 활용

② 온라인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생애주기별(미취학, 취학 전, 초등, 중등) 부모교육과정을 온라인버전으로 개발
- 온라인 다문화학부모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 실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한국의 학교생활, 자녀 학습지도, 자녀 생활지도 등을 연간일정에 따라 참여하도록 함.
- 한국어이해가 부족한 경우 이중언어강사의 통역

③ 교육청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분장을 통한 연계협력

- 교육청,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 협의 및 공유.
- 지역별 부모교육 연간 일정표를 지역의 교육청과 다문화청소년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학부모 대상 학부모교육에 대한 수요도를 조사하여, 앞에서 제안한 생애주기별 주요 이슈에 더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정보를 교육에서 제공함.
- 연간 일정표에는 동일한 교육과정을 분기별로 연간 4회 추진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참여 가능한 시간대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3) 부모역량강화

(3)-2. 이주배경부모 전문인력 양성

① 고크력 이주배경부모 강사양성

- 이주자 중 고크력자를 부모교육 지원, 다문화이해교육, 이중언어코치, 학습지원도우미, 학습멘토 등 다양한 영역의 강사로 양성
- 초기 단계에서는 보조강사로, 특정 수준의 교육경험을 축적한 이후에는 주강사로 활동
- 부모교육에서는 이주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담당
-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각각의 교육과정과 과정별 프로그램 개발, 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강사관리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예산지원

② 지역 이주배경여성의 농촌전문 인력 양성

- 농협 다문화여성대학을 졸업한 경우를 부모교육도우미, 이중언어 코치, 학습지원도우미, 농촌지역 여성리더로 양성
: 다문화여성대학 프로그램에 부모교육, 학습지원, 여성리더십교육 등의 교육과정 포함
- 여성농업인센터의 결혼이주여성을 농촌형 다재다능사업 진로체험 지원인력으로 양성
-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각각의 교육과정과 과정별 프로그램 개발, 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강사관리 담당
- 농협이 예산지원

(4) 지역중심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추진 시스템 구축 및 강화

(4)-1. 농촌형 다재다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① 현 다재다능 프로그램 점검 및 발전방안연구

- 농촌형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재다능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한계, 발전방안 등에 대한 사전연구를 추진
- 위 연구에서 농촌형 다재다능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사업 추진

② 농촌형 진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본사업 + 선택사업으로 나누어 기본사업은 기존의 기초학습역량강화, 한국어, 심리상담, 진로 및 진학 코칭 등 기존의 사업들을 지역상황에 맞게 추진하고, 선택사업은 농촌형 진로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어 지역상황에 맞게 유연한 운영 지향
- 농촌형 진로프로그램의 예로,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청년형 농업기술 교육, 부모가 농업인인 경우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지어 지역 농산물판매장에 판매하는 농사체험과 수확, 판매까지 경험하는 프로그램, 농업관련 농기계 수리 등 기술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
- 꿈의 대학, 교육과정 클러스터와 같은 시스템에 농촌형 진로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
- 프로그램 개발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관련 전문가와 청소년 진로개발전문가, 다문화청소년전문가 등이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고 추진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공동 추진함.
- 사업비는 지자체, 농업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가 공동 출자

③ 농촌지역 취약성 해소방안

- 농촌지역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개발 및 통합교육
- 학습지원, 특기적성교육지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농촌지역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영역의 프로그램 지원
- 지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기관 프로그램 연계

(4) 지역중심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추진 시스템 구축 및 강화

(4)-2.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인재양성

① 농촌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용 농촌 인재양성사업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농업에 대한 이해, 농업의 전망 등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령별 장기적 프로그램 기획
- 연령별 농업관련 진로 교육,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코칭 프로그램 개발, 시범사업 및 운영
- 지역별 농업 정책에 대한 이해, 농업 전문기관에 대한 박람회 등 개최
- 지역 내 학교와 다문화관련 센터 등에 홍보 및 참여 협력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이 주관
-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청소년 진로교육 전문가 참여

② 미래지향적 농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선진농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 '메타버스를 활용한 농업기술',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장 운영', 농산물 가공, 농업기반 스타트업 등에 대한 내용 구성
- 첨단 기술 활용방안 교육(드론 활용, 스마트 팜, 온라인 농산물 매매 등)
- 농업관련 취업 및 창업 역량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③ 농업을 통한 국제교류사업 운영

- 부모님의 모국과의 인적교류, 농촌지역 학생교류 사업 등을 연계
- 해외 원격교육과 연계하여 외국의 스마트팜 및 선진화된 농업기술 교류
- 해외 선진 농업지역 방문사업 추진
- 지자체의 자매도시 등 기존 교류사업을 청소년 농촌지역 국제교류사업으로 개발 가능

④ 통합적 농촌지역 인재양성사업 추진

- 지역별 특성과 강점,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기본 설계
- 출신지역 농업대학, 특성화고 진학 시 장학금제도 마련
- 농촌진흥청, 지역 농업기술센터, 농업대학 등과 연계하여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 일반 청소년 대상 농촌인재양성사업으로 추진

(4) 지역중심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추진 시스템 구축 및 강화

(4)-3. 지역 다문화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 및 강화

① 지역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 교육청, 지역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관 등이 다문화청소년 지원네트워크를 구성 및 업무분장
- 관련 기관별 상호 업무이해 및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유절차 마련
- 교육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민간기관의 연계 및 협력
- 한국어교육, 기초학습능력제고, 부모교육, 심리적응지원 등 각 영역별 연계 및 협력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 및 업무분장
- 실행주체는 지자체, 지자체에서 네트워크 운영비 예산지원
- 한국어교육, 기초학습능력제고 등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및 협력 사항 논의
- 한국어강사, 학습지원인력 등에 대한 자격관리와 보수교육, 부모교육 등에 대한 업무협의

②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 전달체계 구축

-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을 위한 전달체계 마련(가칭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 다문화청소년 대상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은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있음.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센터는 전국적 전달체계가 있으나 결혼이주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 청소년 대상 사업을 하고는 있으나 모든 기관이 청소년 대상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전국적 전달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을 중앙기관으로 하고, (가칭)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하여 전달체계를 마련함.
-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기 보다는 현재 지역별로 다문화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는 지역의 다문화청소년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등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현상상황에 맞게 지정함.
- (가칭)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 지역 내 교육청과 다문화청소년 관련 사업들의 연계 및 협력분야와 절차, 정보 등을 공유하고 지역의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의 파트너로서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지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함
- 여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공공기관화
 - ※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민간위탁기관으로 중앙으로써의 기능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공공기관화 작업을 추진한 후 지역 전달체제로 (가칭)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4) 정책과제별 추진 로드맵

앞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과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X-2.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영역	과제	추진계획	2022	2023	2024	담당 부처
1.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	1-1. 한국어교육의 대상특성별 체계적 운영	•한국어교육의 단계별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	교육부 여가부 지자체
		•수준별 독서지도프로그램 운영	▶	▶	▶	
		•한국어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	▶	
	1-2.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확대 및 체계화	▶	▶	▶	
	1-3. 한국어교육의 지역연계 및 협력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한국어교 육 대상자 정보 공유	▶	▶	▶	
		•한국어교육의 영역별 연계 협력	▶	▶	▶	
2. 기초학습 역량강화	2-1. 입학 전 준비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	•입학 전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	▶	▶	▶	교육부 여가부 지자체
		•지역사회 내 징검다리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	▶	▶	
	2-2. 학습지원사업의 내실화	•대학생멘토링사업의 내실화	▶	▶	▶	
		•학습지원인력의 다양화	▶	▶	▶	
		•온라인학습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	
3. 부모 역량강화	3-1. 부모교육 내실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	▶	교육부 여가부 지자체 농림부
		•온라인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	
		•교육청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분장을 통한 연계협력	▶	▶	▶	
	3-2. 이주배경부모 역량강화	•고학력 이주민 강사 양성	▶	▶	▶	
		•지역 이주배경여성의 농촌전문인력 양성	▶	▶	▶	
4. 지역중심 다문화 청소년지원 정책추진 시스템구축 및 강화	4-1. 농촌형 다재다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 다재다능프로그램 점검 및 발전방안 연구	▶			교육부 여가부 지자체 농림부
		•농촌형 진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	
		•농촌지역 취약성 해소방안마련	▶	▶	▶	
	4-2. 농촌지역 다문화 청소년 인재양성	•농촌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특화프로그 램 개발 및 운영	▶	▶	▶	
		•미래지향적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	
		•농업을 통한 국제교류사업 운영	▶	▶	▶	
		•통합적 농촌지역 인재양성사업추진	▶	▶	▶	
		•지역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			
	4-3. 지역 다문화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 및 강화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 전달체계 구축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동우, 고영우, 김현지, 남수연, 전은하 (2018).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 사례 연구** (정책연구 2018-05).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내부자료**.
- 구자옥, 김경주, 김준식, 박상복, 박지현, 성경희, 이광상, 이소라, 이재봉, 장의선, 강종훈, 신명경, 심규철, 최원호 (201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학업성취 특성 및 추이 분석** (연구보고 RRE 2019-7).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2020.6.25.). 정세균 국무총리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주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등 심의. 보도자료.
- 김건숙, 최은미, 이호준 (2014).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관계 친밀감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5(2), 51-81.
- 김경덕, 임지은 (2011). **지역 간·계층 간 격차실태와 요인분석** (연구보고 R653-1).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미림 (2019).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교사효능감 관련 요인 탐색: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6(2), 19-47.
- 김미림, 박민호(2019).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대학생의 최초 취업 사교육 참여 시점별 특성 분석. **교육연구논총**, 40(1), 1-33.
- 김민정, 송주미 (2004). 청소년문화복지 지역격차연구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2(11), 61-84.
- 김민희 (2017). 교육격차 개선방안: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

- 멀티미디어논문지, 7(11), 377-385.
- 김성제, 최상희 (2008). 지역별 양극화와 자산소득: 소득항목별 영향력과 시계열적 변화. **공간과 사회**, 30, 145-176.
- 김세원, 김선숙 (2012). 지역사회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아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9, 127-150.
- 김순규 (2001). **청소년의 학업중퇴 결정요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연구보고 06-R02).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식, 김민석, 이길재(2019).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고교생의 독서활동 예측 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8(4), 137-156.
- 김영식, 이은정, 주현준(2019).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대학 수시 전형 선택 관련 예측 요인 탐색. **교육과학연구**, 50(4), 233-255.
- 김영혜, 김다경 (2016). **경기도 다문화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보고서 2016-30). 경기: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유경, 최현미, 김가희, 성수미 (2012).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연구보고서 2012-41).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이선, 정해숙, 마경희, 전경숙 (2016).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서비스 방안 연구**(연구보고 2016-88). 서울: 여성가족부.
- 김이선, 주유선, 방미화 (2012).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5).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원, 이예영, 배은주, 허창수 (2008).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분석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김종희 (2010). GRDP(지역내 총생산) 추정을 통한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분석. **지방행정연구**, 24(1), 207-235.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연구보고 10-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혜, 김지림, 김철효, 김현미, 박영아, 이완, 허오영숙 (2020). **한국사회의 인종 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2019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김효정 (2018). 결혼이민자 여성소비자의 디지털정보격차지수 결정요인: 연령별 차이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6(3), 217-232.
- 남부현, 김연이 (2011).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다문화교육**, 2(3), pp.19-57.
- 노충래 (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척도를 활용함 교포 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 107-135.
- 노충래, 고주애, 윤수경 (2018).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11).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마강래, 강은택, 이원빈 (2013). 지방 대도시권 소득격차의 변화 패턴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2), 23-42.
- 박대식, 마상진, 권인혜 (2011).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 R634).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명숙, 송사리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행경험과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교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3, 155-183.
- 박민애, 이빛나(2021).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학생과 교사의 피드백 경험 예측 요인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24(2), 103-126.
- 박용치 (2003). 문화격차와 문화산업의 육성. **법률행정논집**, 10, 120-147.
- 박주호, 백종면(2019). 교육격차 실증연구의 체계적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7(1), 213-238.

- 박철희, 박주형, 김왕준 (2016).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의 교육현실과 과제: 서울 서남부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9(2), 173-201.
- 박태선, 이미영, 한우석 (2014).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국토연 2014-12). 경기: 국토연구원.
- 박태선, 이미영, 한우석 (2015). 지역 간 문화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국토정책 Brief**, 503, 경기: 국토연구원.
- 백지숙, 김진, 정효경 (2014). 인구배경학적 요인,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지역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 **청소년시설환경**, 12(1), 127-141.
-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10).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서민철 (2019). 소득세 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지역별 소득 격차의 추이.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5(3), 326-346.
- 서우석, 김정은 (2010).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평가와 전망. **문화경제연구**, 13(2), 1-26.
- 서현, 이승은 (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설진배, 이승원, 김연화 (2013). 문화예술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6(1), 109-149.
- 성한기 (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5(3), 33-48.
- 손윤희, 박현정, 박민호(2020).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읽기소양 수준에 따른 집단 결정요인 분석: PISA 2018 자료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1(1), 191-215.
- 송효준, 김두섭, 함승환 (2018). 지역사회에 이주민 밀집도가 이주배경 학생 및 비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11(1),

133-150.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미리 (2010). 이주민 여성의 정보소외. **학습과학연구**, 4(2), 100-115.

안미리, 황윤지 (2011). 신정보소외계층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정보화 교육과정.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4(5), 47-54.

양계민 (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신규패널보고서** (연구보고 18-R14-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강경균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V: CHD총괄보고서**(연구보고 17-R1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II** (연구보고 11-R0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I:총괄보고서**(연구보고 14-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장운선, 정윤미 (2019).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9-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장운선, 정윤미 (2020).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20-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황진구, 연보라, 정윤미 (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8-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20).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오미애, 최현수, 김수현, 장준혁, 진재현, 천미경 (2017).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기반 사회보장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형 연구**(연구보고서 2017-46).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성배 (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우룡 (2007). 도시와 농어촌지역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분석. **청소년보호 지도연구**, 11, 25-54.

유진은 (2015). 랜덤 포레스트: 의사결정나무의 대안으로서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 **교육평가연구**, 28(2), 427-448.

유한구, 김영식, 류지영, 신동중, 이은혜 (2016).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기본사업 2016-10).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윤소영, 류연정 (2010). **문화기반시설 다문화 프로그램 현환 및 개선방안**(기본연구 2010-04).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201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II 사업 보고서**(연구보고 11-R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상균, 박현선, 노연희, 이채원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문화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8, 235-264.

이상림, 이지혜, Bernhard Köppen, 임소정, 성백선 (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 2018-20).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호 (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수상, 장임숙 (2010). 다문화사회의 이주노동자의 정보리터러시 격차.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1(3), 391-419.

이승중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윤희, 장운선(2021).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한 대학생의 행복감 영향 요인 분석. **교육학연구**, 59(5). 305-334.

이재분 (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 (RR2008-12).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분, 김혜원, 변종임, 채재은, 이해영, 노경은 (2009a). **다문화가족 역량개발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방안 모색**(연구보고 PR 2009-12-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분, 김혜원, 오성배, 이해영, 노경은 (2009b). **학교에서의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실태 및 요구조사**(연구보고 RR 2009-12-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희 (2010). 지방자치 이후 지역간 문화격차 변동_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8(4), 53-72.
- 이준 (2009). 다문화가정 초중등학생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방안 연구.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2(6), 41-51
- 이진희 (2016). 지역적 건강불평등과 개인 및 지역수준의 건강결정요인. **보건사회연구**, 36(2), 345-384.
- 이해경, 김혜원 (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이향수, 이성훈 (2016). 정보소외대상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 정보격차지수 조사대상자 재정의의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6), 1-7
- 이현, 이경원(202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과 분류 예측요인 탐색 연구: 잠재프로파일과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하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1), 171-193.
- 임광현 (2013). 결혼이주여성들의 정보격차 해소전망에 대한 사회적 배경에 따른 인식차이분석. **한국정책연구**, 13(3), 281-308
- 전경옥, 김영란, 홍기원, 설진배, 김연화 (2012).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전혜정, 민성혜, 이민영, 최혜영, 장수지, 조을순 (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및 성장지원 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

구, 13(3), 33-50

정재현 (2019). 머신러닝을 활용한 정책설계: 출산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279, 12-35.

정해식, 정홍원, 김성아, 김성근, 김희연, 오재환, 고승한, 오세영, 김상현 (2020).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과 정책혁신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8-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조승연 (2020). **농촌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사점**(토의용논문 W50). 전라남도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승연 (2021)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정책 참여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콘텐츠연구**, 36, 187-212.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조용완, 이수상 (2011). 국내 다국어다문화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 42(1), 269-297.

조현성, 박영정, 김세훈, 류유선 (2010). **2010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차미숙, 최상철, 이원중, 주성재, 설경원, 정종석, 박경숙, 이무용, 이원섭, 배준구, 남윤우, 김현호, 박인성, 김선기 (2015). **지역발전정책의 이론과 실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최윤정,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정해숙, 양계민, 이은아, 황정미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9-01). 서울: 여성가족부.

최지희, 김동진, 이준협 (2019). 한국의 상대적 지역박탈 현황과 변화. **보건복지포럼**, 272, 54-69.

최희갑, 김자혜 (2014). **지역 간 격차 요인 분석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경기도 시군의 고용창출력을 중심으로**. 경기: 한국은행 경기본부.

하형석, 이종원, 정은진, 김성은, 한지형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IX: 사**

- 업보고서**(연구보고 18-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함영진, 김희성, 안수란, 김선, 권영빈, 이영글, 이승모, 추병주 (2018). **사회서비스 지역격차 파악 및 해소방안 마련 연구** (정책보고서 2018-80). 세종: 보건복지부.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기혜 (2020). 랜덤포레스트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 남·여 청소년의 자살생각 예측 및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2(3), 157-180.
- 홍진주 (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Lantz, B. (2017). **R을 활용한 머신 러닝: R로 머신 러닝 알고리즘 작성, 데이터 준비, 데이터 예측 기법 깊이 파기**. 윤성진 (역.), 서울: 에이콘출판기획사.
- Ba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 Breiman, L. (2001). Random forests. *Machine Learning*, 45, 5-32.
- Clogg, C. C., Petkova, E., & Haritou, A. (1995). Statistical methods for comparing regression coefficients between model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5), 1261-1293.
- Evans, J., S. & Murphy, M. A. (2019). *rfUtilities: Random forests model selec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R packages(version 2.1-5).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John F. Kennedy

- center for research on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 Hovey, J. D., & Kin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9), 1183-1192.
- Kim, U. (1988). *Acculturation of korean immigrants to Canada: Psychological, Demographic, and Behavioral Profiles of Emigrating Koreans, Non-Emigrating Koreans, and Korean-Canadians*. Unpublished Ph.D. dissertatin, Queen's University, Kingston, Canada.
- Liaw, A., & Wiener, M. (2018). *RandomForest: Breiman and Culter's random forests for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R package(version 4.6-14).
- Portes, A., & Rumbaut, R. G. (2008). *Children of immigrants longitudinal study(CILS)*, 1991-2006.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인터넷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0). **지역별 종별 요양기관 수**. <http://opendata.hira.or.kr/op/opc/olapYadmStatInfo.do>에서 2021년 2월 5일 인출.
- 교육부 (2020a). 2020년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79898>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 교육부 (2020b). **2020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https://www.moe.go.kr/bo>

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68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1년 2월 5일 인출.

통계청 (2017). **2017년 사회조사표(청소년)**. <http://kostat.go.kr>.에서 2021년 7월 27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0). **시·도별 학교 수**.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1년 2월 5일 인출.

행정안전부(202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8648#none에 2021년 11월 30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년 2월 5일 인출.

행정안전부(2014). **201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42492에서 2021년 2월 5일 인출.

행정안전부(2011). **20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35541#none에서 2021년 2월 5일 인출.

언론자료

CTS (2019.05.16.). 2018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보고서 발표. “다문화 청소년 성장할수록 삶의 만족도 하락” <https://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249216>에서 12월 1일 인출.

국제신문 (2014.03.04.). "다문화 청소년, 저소득층일수록 학교 적응 어려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0304.99002152824>에서 12월 1일 인출.

국회 (2019.05.03.). 이주배경 아동 교육권 보장 국회 토론회…"제도-학교 연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9/05/03/bbdc3478-a02c-4b19-a2f6-df179f61a9a6.html>에서 12월 1일 인출.

내일신문 (2019.04.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 청소년 추적조사 결과] 자랄수록 '삶의 만족도' 떨어진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1197에서 12월 1일 인출.

내일신문 (2020.08.26.). 다문화청소년, 집단괴롭힘에도 '도움 요청할 어른 없다' 70.4%.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9992에서 12월 1일 인출.

농민신문 (2017.07.12.). 농촌 다문화정책, 2세에 초점을<하>대안은 없나. <https://www.nongmin.com/plan/PLN/SRS/246761/view>에서 12월 1일 인출.

농촌여성신문 (2014.11.07). FOCUS-사회통합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16>에서 12월 1일 인출.

뉴스1 (2014.11.04.).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 과제는? <https://www.news1.kr/articles/?1937048>에서 12월 1일 인출.

뉴스시스 (2019.09.30.). 다문화 학생 47.5%는 진로 못 정해…정보력, 가정배경 요인.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930_0000784401&cID=10201&pID=10200에서 12월 1일 인출.

동아일보 (2009.11.23.). 다문화 사회의 대응과 전망.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91123/24305296/1>에서 12월 1일 인출.

동아일보 (2012.08.07.). 다문화 어린이 73% “나는 100% 한국인”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807/48410137/1>에서

12월 1일 인출.

매일경제 (2009.02.18.). 청소년 56% "다문화가정 자녀와 친구 안 해"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09/02/104329"](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09/02/104329)에서 12월 1일 인출.

머니투데이 (2019.05.03.). [오늘의 국회토론회-3일]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50217527643129>에서 12월 1일 인출.

미디어오늘 (2019.05.04.).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48242>에서 12월 1일 인출.

서울경제 (2012.02.10.). 언어 장벽·차별적 시선에 가족 융화 힘들어 '삼중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216880>에서 12월 1일 인출.

서울경제 (2019.01.13.). "이민자 이웃 싫다"...순혈주의에 숨막힌 '또 하나의 한국인'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0TTI4SF>에서 12월 1일 인출.

서울경제 (2019.01.13.). "함께 공부 못해" 따돌림에...다문화 고교생 20% 학업 포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0TP1VUW>에서 12월 1일 인출.

서울경제 (2019.01.14.). 단순 적응 아닌 진로 교육 등 보다 현실적인 시스템 갖춰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0TJ7O9V>에서 12월 1일 인출.

서울신문 (2015.03.11.). 점점 더 어우러지는 다문화 청소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311009026>에서 12월 1일 인출.

세계일보 (2016.11.20.).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은 관심 밖... '있어도 없는' 존재.
<http://www.segye.com/newsView/20161120001363?OutUrl=naver>

에서 12월 1일 인출.

세계일보 (2016.12.04.). ‘같이’의 진정한 가치 교육 통해 차별·편견 극복 ‘한마음’ <http://www.segye.com/newsView/20161204001075?OutUrl=naver>에서 12월 1일 인출.

신아일보 (2017.02.01.). 다문화 가정 청소년, 학년 올라갈수록 우울해진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145>에서 12월 1일 인출.

아시아경제 (2021.06.11.). "너네 엄마 베트남 사람인 것 소문낼 것"...차별·혐오에 멍드는 다문화 가정.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1012294606395>에서 2021년 10월 21일 인출.

약업신문 (2010.08.11). 탈북·다문화 청소년 “우리 이야기 들어볼래?”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33408>에서 12월 1일 인출.

여성가족부(2020.12.10.). 가족역량지원사업.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4.do

여성소비자신문 (2018.09.10.). 다문화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성장 지원방안 모색.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64817>에서 12월 1일 인출.

연합뉴스 (2012.08.06.). 다문화 어린이 10명 중 7명 "난 100% 한국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740877>에서 12월 1일 인출.

연합뉴스 (2013.03.20.). "다문화 청소년 보편적 기준 적용, 지원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56647>에서 12월 1일 인출.

연합뉴스 (2013.12.13.). 중도입국청소년 상당수 1년 이상 '나홀로 집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

102&oid=001&aid=0006649435에서 12월 1일 인출.

연합뉴스 (2014.03.04.). "다문화 청소년, 저소득층일수록 학교 적응 어려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88553)
 102&oid=001&aid=0006788553에서 12월 1일 인출.

연합뉴스 (2017.02.01.). "다문화청소년, 고학년될수록 우울감 심해져" 1천300명
 추적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70131162300371?input](https://www.yna.co.kr/view/AKR20170131162300371?input=1195m)
 =1195m에서 12월 1일 인출.

연합뉴스 (2018.06.25.). [다문화학생 10만명] ① 진학을 낮고 지원정책도 '부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2062200371?input=1195m>
 에서 12월 1일 인출.

연합뉴스 (2018.06.25.). [다문화학생 10만명] ③ "진로탐색 교육 가장 중요"...전문가
 제언.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2062300371?input](https://www.yna.co.kr/view/AKR20180622062300371?input=1195m)
 =1195m에서 12월 1일 인출.

연합뉴스 (2018.12.12.). "다문화청소년 정책 추진 과정서 의도치않은 '낙인효과'
 초래"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2123700371?input=11](https://www.yna.co.kr/view/AKR20181212123700371?input=1195m)
 95m에서 12월 1일 인출.

연합뉴스 (2019.04.23.). 다문화청소년 추적조사 결과 "성장하면서 삶의 만족도
 떨어져"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3073200371?input=](https://www.yna.co.kr/view/AKR20190423073200371?input=1195m)
 1195m에서 12월 1일 인출.

연합뉴스 (2019.06.13.). "다문화학생도 이질적...문제·욕구 반영해 맞춤 지원 고
 민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3133500371?input=](https://www.yna.co.kr/view/AKR20190613133500371?input=1195m)
 1195m에서 12월 1일 인출.

연합뉴스 (2020.08.27.). 다문화 청소년, 집단 괴롭힘 당해도 도움 청할 곳 없어
 '공공'.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6164000371?input=1](https://www.yna.co.kr/view/AKR20200826164000371?input=1195m)
 195m에서 12월 1일 인출.

영남일보 (2014.03.06). "다문화 청소년, 저소득층일수록 학교적응 어려워"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40306.010180801050001>에서 12월 1일 인출.

오마이뉴스 (2021.05.04.). '지옥에서 빠져나올 힘'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094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에서 2021년 10월 21일 인출.

이투데이 (2018.09.10.). “다문화청소년 꿈은 우리 미래”...제12회 전국다문화가족네트워크 대회. <https://www.etoday.co.kr/news/view/1661313>에서 12월 1일 인출.

장애인신문 (2013.05.29.). '다문화', 그 속에 숨겨진 차별.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192>에서 12월 1일 인출.

정책브리핑 (2018.09.10.). 다문화, ‘새로운 세대’를 이야기한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490>에서 12월 1일 인출.

조선일보 (2012.09.18.).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1년 만에 69% 급증.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8/2012091800158.html에서 12월 1일 인출.

쿠키뉴스 (2017.02.01.). “다문화가정 청소년, 학년 오를수록 우울증 커져”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1702010075>에서 12월 1일 인출.

쿠키뉴스 (2020.06.26.). 정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공교육 진학 돕는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6260138>에서 12월 1일 인출.

한국농어민신문 (2016.08.09). 다문화정책 10년 이제는 자녀교육에 달렸다 ⑥ 국회 정책토론회.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129>에서 12월 1일 인출.

한국일보 (2012.08.06.).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한국인 정체성 낮아.

<https://news.v.daum.net/v/20120806195712487?f=o>에서 12월 1일 인출.
한국일보 (2017.02.01.). 나이 들수록 위축되는 다문화 청소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2011680068649>에서 12월 1일 인출.
헤럴드POP (2013.12.12.). 중도입국청소년 10명 중 4명 “진로 계획 없어”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212000869&md=20131215003642_BL에서 12월 1일 인출.
헤럴드경제 (2019.03.22.). [우리 안의 인종차별] ‘동생 보느라…시선때문에…’
학교 밖 다문화 학생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322000090>에서 12월 1일 인출.
헤럴드경제 (2021.04.23.) “그냥 참았다”…차별 노출된 다문화 가정 70% ‘냉가슴’[촉!]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23000152>
에서 2021년 10월 21일 인출.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과학적 정책수립 및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구축한 기초자료 및 정책현황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2021년도에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다문화청소년 발달의 지역격차 및 성장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고도화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청소년 발달에서 지역격차가 중요한 요인이며,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성장기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한 심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 특성 변인과 부모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학업관련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관련 역량제고를 위한 4개 영역의 10개 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longitudinal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establish the scientific basis to build and implement policy initiatives for multicultural youth by preparing basic data on their development and analyzing the development trend; Secondly, to establish the policy direction and specific measures through the analysis of basis data and the current status. For these objectives, the study has established panel data as of 2021 and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egional and growth gaps in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youth and come up with measures to advance the multicultural youth support policy. The study has identified the presence of a regional gap in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youth, suggesting that efforts to bridge the gap in growth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from the elementary school period. In particular, the surveys and interviews among multicultural youth as part of in-depth analysis have identified a variety of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the youth's individual personality variables and parental factors as variables that affect their academic performance, a direct barometer for their future career. Therefore, the study has sought to come

up with policy measures relevant to the academic factors and has presented 10 programs in 4 different areas along with individual projects for each program.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21-R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 장근영·임지연
- 21-R02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성숙·정은주·정현우
- 21-R03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 최정원·문호영·전진아·박용천
- 21-R04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 모상현·최용환·남미자·정건희
- 21-R05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 / 김경준·강경균·변나향
- 21-R06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 김영한·이유진
- 21-R07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유민상·신동훈
- 21-R08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 김지연·김승경·오욱찬·정소연
- 21-R09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 최창욱·좌동훈·성은모·남화성
- 21-R10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이민희·김진호
- 21-R10-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 유성상
- 21-R10-2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
- 21-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Ⅲ / 황세영·이경상·송민경·조윤정
- 21-R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홍순구·권일남
- 21-R12-1 비정형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순구·임지원
- 21-R12-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성효
- 21-R13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1-R13-1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박찬호

21-R14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21-R14-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21-R14-2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1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김은정 (자체번호 21-R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2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 김희진·서고운·김미정·류정희·권지성 (자체번호 21-R1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임희진·황여정·유성렬 (자체번호 21-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해외사례 분석 / 임희진·박윤주·황여정 (자체번호 21-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황여정 (자체번호 21-R16-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배상률·이창호·김남두 (자체번호 21-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청소년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 참여 중심 소셜리빙랩 운영 방안 /
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 (자체번호 21-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1-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9-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김형주·연보라·정세정·변금선 (자체번호 21-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일자리 / 김기현·배정희·김창환·성재민 (자체번호 21-R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일자리 - 기초분석보고서 / 김기현·배정희 (자체번호 21-R19-1)

수 시 과 제

- 21-R20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 김지연
- 21-R21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 서고운
- 21-R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호영
- 21-R2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 신동훈·김세현
- 21-R24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 배상률
- 21-R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 양계민

연구개발직접금

- 21-R26 청소년 정책연구 동향 분석 / 이지연

수 탁 과 제

- 21-R27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승경·배정희
- 21-R28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청소년시설 운영기준 수립 연구용역 / 최용환·이희철·장혜윤
- 21-R29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 / 김형주·강영배
- 21-R3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방인자·김유민·조아라
- 21-R3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홍성호·김현수·장원빈
- 21-R32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Ⅱ / 유민상
- 21-R3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5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6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7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8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9 2020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김옥수
- 21-R40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나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김정민·김효주·장원빈
- 21-R4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나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김옥수
- 21-R4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나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
- 21-R4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 양계민·장윤선
- 21-R44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기현·문호영·황세영·유민상·이용해·김균희
- 21-R45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시범 운영 매뉴얼 / 성윤숙·장원빈·최동혁·김예원
- 21-R46 (초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7 (중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배상률
- 21-R49 강원 2024 청소년 참여 기본계획 / 김정숙·김경준·정은주·이용해·김혁진
- 21-R50 보호대상아동 심리정서지원체계 통합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이상정·정소연
- 21-R51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표준화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정경은·권해수
- 21-R52 인천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 연보라·김정숙·신동훈·김재우
- 21-R53 지자체 및 중앙부처 청년정책 분야별 시행계획 평가방안 심화연구 / 배정희·장근영·이용해
- 21-R54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 / 최창욱·좌동훈
- 21-R55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 좌동훈·김지수
- 21-R56 2021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 정은주·문호영
- 21-R5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안전략 수립 연구 / 최용환·곽창규·김민주
- 21-R58 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성은·김영지·김지연·강경균·서고운·최홍일·임경원
- 21-R59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매뉴얼 / 정은주·임지연
- 21-R60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나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장원빈

- 21-R61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여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운숙·유설희·김예원
- 21-R62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여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운숙·유설희·신보람
- 21-R63 지속가능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연구 / 양계민·김민
- 21-R64 2021 경기도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방안 / 양계민·장윤선·강희숙
- 21-R65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정윤미·장윤선
- 21-R66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단계별 지원 방안 / 김영지·박하나·손진희
- 21-R67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유형 조사 및 연계 방안 / 김성은·송원일·최홍일·배수인
- 21-R68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 21-R6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 배상률·장수·김수영
- 21-R70 니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배정희·신동훈
- 21-R71 청년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 김기현
- 21-R72 청년과 정의 연구 / 김기현
- 21-R7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개발(2차) / 연보라·좌동훈·장윤선·김재우·오성배·장흥성
- 21-R74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서고운
- 21-R7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개발 연구 / 황진구·좌동훈
- 21-R75-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매뉴얼 / 황진구·좌동훈
- 21-R76 강진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연구용역 / 김영한·이유진·선민철·이상선
- 21-R77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1-S0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1.28)
- 21-S02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27)
- 21-S03 2020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시상 및 성과보고회(1.28)
- 21-S04 청년 연속기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3차 포럼-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1.15)

- 21-S05 청소년정책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2.26)
- 21-S06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 및 사전교육 자료집(6.5)
- 21-S07 근거기반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추진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7.27)
- 21-S08 21세기 비전, 한국-몽골 청소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7.19)
- 21-S09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이해 및 활용 직무연수 자료집(7.27)
- 21-S1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0)
- 21-S11 202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미래 대안교육, 함께 길을 찾다-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8.20)
- 21-S1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역량강화 연수(8.18)
- 21-S13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8.18)
- 21-S14 2021 미디어교육 현장지원단 워크숍: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제고 및 현장 적용 방안 수업의 실제와 사례 공 유(8.13)
- 21-S15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India(6.14)
- 21-S16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Malawi(6.21)
- 21-S17 제41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구상(11.5)
- 21-S18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Gambia(6.29)
- 21-S19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중간워크숍 자료집(8.21)
- 21-S20 제4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진로교육기회보장에 관한 한일비교 (9.25)
- 21-S21 미래를 대표하기: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9.10)
- 21-S22 제12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10.5)
- 21-S23 콜로키움 Mongolian Youth Policy Review 5차(10.1)
- 21-S24 콜로키움 Guatemalan Youth Policy Review 6차(10.8)
- 21-S25 Youth and Public Policy in Afghanistan(11.22)
- 21-S26 제42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11.25)
- 21-S27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및 보호지원 방향'(10.27)
- 21-S28 영국의 청년 고용 및 훈련 정책(11.23)
- 21-S29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 방안'(11.3)
- 21-S30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11.10)
- 21-S31 직원역량 콜로키움: 실무자를 위한 예산 편성의 실제(11.22)

- 21-S32 2021 대안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랜선토크 워크숍 자료집(11.25)
- 21-S33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12.2)
- 21-S34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Ⅲ"
시범사업기관 성과공유 워크숍 (11.24)
- 21-S35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주요 청소년 정책 사례(12.3)
- 21-S36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9)
- 21-S37 2021년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연차평가 사전 워크숍(12.17)
- 21-S38 2021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및 대안교실 성과공유회(12.16)
- 21-S39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12.16)
- 21-S40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12.15)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0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0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0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제103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0호 :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1호 :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2호 :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3호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4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5호 :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6호 : 청소년·청년의 플랫폼 노동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

NYPI Bluenote 통계 53호 :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NYPI Bluenote 통계 54호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 인식조사

NYPI Bluenote 통계 55호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NYPI Bluenote 통계 56호 :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통계 57호 : 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NYPI Bluenote 통계 58호 :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 주요 조사 결과

NYPI Bluenote 통계 59호 :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6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Ⅲ: 청년 이직자

NYPI Bluenote 통계 61호 :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NYPI Bluenote 통계 6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3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NYPI Bluenote 통계 63호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인 쇄 2021년 12월 23일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전화 044)866-3011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31-2

979-11-5654-330-5 (세트)

연구보고 21-R14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31-2
ISBN 979-11-5654-330-5(세트)